



2020

EBS 방송 · 온라인 강의 교재

2020 공무원 기출문제집

EBS 공무원

국어

기출문제집



세종이도 국어 연구소 편저

온라인 강의 www.ebs.co.kr/public

P r e f a c e

머리말

2019년 출제된 문제를 정리하면서 나는 한 해를 돌아보고 또 2020년을 가늠해 본다. 수험생이 기출문제를 다시 정리하는 이유는 이 문제들이 다시 출제된다는 시험의 생리를 알기 때문이다. 범죄의 현장에 범죄 해결의 실마리가 있듯이 출제된 문제 속에 공무원 합격의 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자!

이 책의 특징

- ① 2019년부터 2010년까지 출제된 문제를 단원별로 엮었다.
- ② 공무원 전직렬에서 출제된 문제 중에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큰 거의 모든 문제를 수록했다.
- ③ 문제에 대한 현장감 있는 설명을 달아 독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수업과 교재를 제작하고 또 선택할 때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 교재는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없는 영역은 과감하게 생략했다. 왜냐하면 출제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보는 교재이므로 재출제 가능성이 없는 문제를 수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溫故知新(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다. ‘옛 것을 익혀 새롭게 안다’는 말인데, 수험생은 이 교재로 출제된 문제를 정확하게 익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재출제 가능성’이 큰 문제집 중 ‘공략!’ 이것이 본 교재의 핵심 목표다. 공무원 시험에서 살아남은 길은 어렵지 않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공무원이 되는 확실한 답을 줄 것이다.

2019. 11

서1층 이도 국어연구소

C o n t e n t s

목차

I 문제편

Part 01 바른 언어생활

Chapter01 언어와 국어	10
Chapter02 바른 현대문법	14
Chapter03 표준발음	48
Chapter04 맞춤법	52
Chapter05 표준어 규정	66
Chapter06 로마자 표기법	70
Chapter07 외래어 표기법	74
Chapter08 띄어쓰기	78
Chapter09 문장부호	86
Chapter10 자연스러운 문장	88
Chapter11 고전문법	98
Chapter12 높임법·언어예절	106

Part 02 바른 실용국어

Chapter01 어휘와 관용구	116
Chapter02 한자와 한자성어·한문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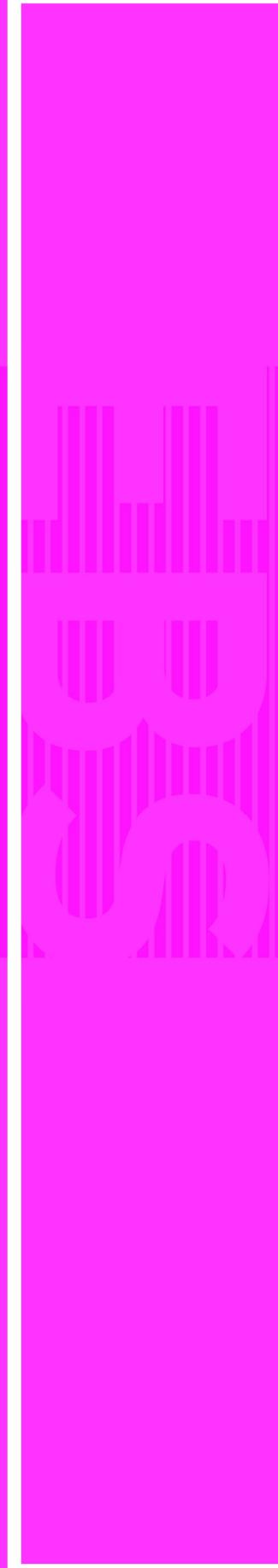
II 해설편

Part 01 바른 언어생활

Chapter01 언어와 국어	170
Chapter02 바른 현대문법	172
Chapter03 표준발음	190
Chapter04 맞춤법	192
Chapter05 표준어 규정	200
Chapter06 로마자 표기법	202
Chapter07 외래어 표기법	204
Chapter08 띄어쓰기	206
Chapter09 문장부호	212
Chapter10 자연스러운 문장	214
Chapter11 고전문법	220
Chapter12 높임법·언어예절	226

Part 02 바른 실용국어

Chapter01 어휘와 관용구	232
Chapter02 한자와 한자성어·한문	240



EBS 공무원 국어 기출문제집

E B S 공 무 원 국 어 기 출 문 제 집

I

문제편

E B S 공무원 국어 기출문제집

P a r t

01

바른 언어생활

Chapter 01 언어와 국어

01

2019년 기출문제

01

<보기 1>의 사례와 <보기 2>의 언어 특성이 가장 잘못 짹지 어진 것은? [2019. 서울시 9급]

<보기 1>

- (가) ‘방송(放送)’은 ‘석방’에서 ‘보도’로 의미가 변하였다.
- (나) ‘밥’이라는 의미의 말소리 [밥]을 내 마음대로 [밥]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들은 ‘밥’이라는 의미로 이해 할 수 없다.
- (다) ‘종이가 찢어졌어’라는 말을 배운 아이는 ‘책이 찢어 졌어’라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낸다.
- (라) ‘오늘’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을 한국어에서는 ‘오늘 [오늘]’, 영어에서는 ‘today(투데이)’라고 한다.

<보기 2>

- ① 규칙성 ② 역사성 ③ 창조성 ④ 사회성

① (가)–②

② (나)–③

③ (다)–④

④ (라)–①

02

국어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 경찰직]

- ① 조사가 발달하여 어순에 따른 제약이 전혀 없다.
- ② 어휘의 종류가 ‘고유어/한자어/외래어’로 구분되며, 친족어나 의성어·의태어가 발달해 있다.
- ③ 자음 중에서 파열음(폐쇄음)이 ‘예사소리/된소리/거센 소리’의 3항 대립을 보인다.
- ④ 공손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수단이 발달되어 있다.

02

2018년 기출문제

03

국어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9급]

- ①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교착어적 특성을 보여 준다.
- ② ‘값’과 같이 음절 말에서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될 수 있다.
- ③ 담화 중심의 언어로서 주어, 목적어 등이 흔히 생략된다.
- ④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친족어가 발달해 있다.

04

화자의 진정한 발화 의도를 파악할 때, 밑줄 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2018. 지방직 9급]

일상 대화에서는 직접 발화보다는 간접 발화가 더 많이 사용되지만, 그 의미는 맥락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화자는 상대방이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간접 발화를 전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도 한다.

- ① (친한 사이에서 돈을 빌릴 때) 돈 가진 것 좀 있니?
- ② (창문을 열고 싶을 때) 얘야, 방이 너무 더운 것 같구나.
- ③ (갈림길에서 방향을 물을 때) 김포공항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 ④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고 독려할 때) 우리 반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을 아주 잘 듣습니다.

03 2017년 기출문제

05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서울시 사회복지직]

‘·’가 현대 국어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물[水]’이 현대국어에 와서 ‘물’로 형태가 바뀌었으며, ‘어리다’가 ‘어리석다[愚]’로 쓰이다가 현대 국어에 와서 ‘나이가 어리다[幼]’의 뜻으로 바뀌어 쓰이는 것 등과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을 언어의 ()이라고 한다.

- | | |
|-------|-------|
| ① 사회성 | ② 역사성 |
| ③ 자의성 | ④ 분절성 |

04 2016년 기출문제

07

밑줄 친 부분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 지방직 9급]

생각은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
어서 생각에는 말 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말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그 생각의 위대함이나 오묘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생각이 형님이요, 말이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은 동생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 ① ‘사과’는 언제부터 ‘사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어.
- ② 동일한 사물을 두고 영국에서는 [tri:], 한국에서는 [namu]라 표현해.
- ③ 이 소설은 정말 감동적이야. 내가 받은 감동은 말로는 설명이 안 돼.
- ④ 시간의 흐름을 초, 분,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해 온 것은 인간의 사회적 약속이야.

06

국어의 특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017. 경찰직 1차]

- ① 장애음(특히 파열음과 파찰음)이 ‘평음–경음–유성음’의 3항 대립을 보인다.
- ②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굴절어적 특성을 보인다.
- ③ 음절 초에 ‘ㄱ’, ‘ㅍ’, ‘ㅋ’ 등 둘 이상의 자음이 함께 올 수 있다.
- ④ 화용론적으로 소유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존재 중심의 언어이다.

08

다음 중 언어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경찰직 1차]

- ① 언어의 자의성: 언어 형식과 내용의 관계가 반드시 고정된 것이 아니다.
- ② 언어의 역사성: 언어는 고정되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미나 형태가 변화하기도 한다.
- ③ 언어의 사회성: 언어 내용과 형식이 일단 한 사회 속에서 약속으로 굳어지면 아무나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 ④ 언어의 분절성: 음운, 단어, 문장, 담화 단위에 이르기까지 각 단위 혹은 단위 사이에 특정한 규칙이 존재한다.

09

밀줄 친 표현에서 주로 나타나는 언어적 기능은?

[2016. 사회복지직]

나흘 전 갑자 조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 데 쌩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 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련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흥차 망아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보구…….

“그럼 혼자 하지 떼루 하디?”

—김유정, ‘동백꽃’ 중에서—

① 미학적 기능

② 지령적 기능

③ 친교적 기능

④ 표현적 기능

10

다음 광고 문안에 포함된 담화의 기능이 아닌 것은?

[2016. 국가직 7급]

이 선풍기는 바람을 차게 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방 안에 없을 때에는 자동으로 멈춥니다. 그리고 물건이 와 닿으면 소리가 나서 어린이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일 년 이내에 고장이 나면 즉시 새 물건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① 호소 기능

② 정보 제공 기능

③ 약속 기능

④ 오락 기능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16. 서울시 9급]

- ① 하늘, 바람, 심지어, 어차피, 주전자와 같은 단어들은 한자로 적을 수 없는 고유어이다.
- ② 학교, 공장, 도로, 자전거, 자동차와 같은 단어들은 모두 한자로도 적을 수 있는 한자어이다.
- ③ 고무, 담배, 가방, 빵, 냄비와 같은 단어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우리말처럼 되어 버린 귀화어이다.
- ④ 눈깔, 아가리, 주둥아리, 모가지, 가리와 같이 사람의 신체 부위를 점잖지 못하게 낮추어 부르는 단어들은 비어(卑語)에 속한다.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6. 서울시 7급]

- ① 평음, 경음, 유기음과 같은 삼중 체계를 보이는 것은 파열음과 마찰음이다.
- ② 한국어의 단모음에는 ㅔ, ㅐ, ㅓ, ㅗ, ㅜ, ㅡ도 포함된다.
- ③ ㅈ, ㅊ, ㅋ 을 발음할 때에는 파열음의 특성도 확인 된다.
- ④ ㅏ 와 ㅓ 에서 확인되는 반모음은 각각 [j](혹은 [y]), [w]이다.

13

다음 중 한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2016. 경찰직 2차]

- ① 한글은 창제 당시 28개의 기본자 중 17개가 자음자였으며 모음자 중 4개는 이중모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 ② 한글은 소리 문자이지만 일본의 ‘가나’와 다른 음소 문자로서 개별 글자가 하나의 음소에 모두 일대일로 대응된다.
- ③ 남한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한글 자모 명칭은 같지만 사전에 올릴 때에 사용하는 한글 자모 순서는 일부 차이가 있다.
- ④ ‘ㄱ < ㅋ < ㄲ’과 같이 소리의 세기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자 과정에서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05 / 2015년 기출문제

14

언어의 특성 차원에서 다음 글을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2015. 국회직 9급]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너무’라는 단어를 ‘일정한 정도나 한계에 지나치게’라는 의미로 풀이해 두고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크다 / 너무 늦다 / 너무 먹다 / 너무 가깝다’처럼 ‘너무’를 부정적인 의미로 쓰도록 제한해 왔다. 그런데 2015년 상반기에 이의 뜻풀이를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상태로’라고 수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그동안 쓰던 부정적인 의미는 물론 ‘너무 좋다 / 너무 예쁘다 / 너무 반갑다’ 등처럼 긍정적인 의미에도 쓸 수 있게 되었다.

- ① 언어의 창조성 측면에서 보면, 드디어 ‘너무’라는 말이 생겨난 거야.
- ② 언어의 체계성을 생각해 보면, ‘너무’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으니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야겠지.
- ③ 언어의 분절성을 생각해 보면, 한번 정해진 표준어의 용법도 바뀔 수 있는 거야.
- ④ 언어의 역사성에 따르면, 정해진 의미는 100년이든 200년이든 똑같아야 하는 거 아니야?
- ⑤ 언어의 사회성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니까 인정된 거겠지.

15

우리말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은?
[2015. 경찰직]

- ① 현대 국어에서 ‘암+개’을 ‘암개’ 대신 ‘암개’로 적는 것은 ‘암’의 고어(古語)가 ‘암吭’의 형태였기 때문이다.
- ② 중세국어 시기에는 성조의 차이로 단어의 의미 변별이 가능했는데 현대 국어에도 일부 방언에 그 자취가 남아 있다.
- ③ ‘수라(임금의 진지)’, ‘보라(색채어의 일종)’는 고유어가 아니라 고려 말에 들어온 몽골말이 지금까지 쓰이는 것이다.
- ④ ‘황소’는 한자어 ‘황(黃)’에 고유어 ‘소’ 결합한 합성어로 어원적으로는 ‘누런 소’를 의미한다.

16

다음 중 국어의 형태적 특징은?
[2015. 서울시 9급]

- ① 수식어는 반드시 피수식어 앞에 온다.
- ②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이 유사하다.
- ③ 문장 성분의 순서를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 ④ 언어 유형 중 주어–목적어–동사의 어순을 갖는 SOV 형 언어이다.

Chapter 02 바른 현대문법

01

2019년 기출문제

01

음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 서울시 9급]

- ① 소리의 강약이나 고저 등은 분절되지 않으므로 음운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음운은 의미를 구별해 주는 최소의 단위이므로 최소 대립쌍을 통해 한 언어의 음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음운은 몇 개의 변이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음운은 실제적인 소리라기보다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기호라고 보아야 한다.

02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 아닌 것은? [2019. 서울시 9급]

- ① 묻다(問)
- ② 덥다(暑)
- ③ 낫다(愈)
- ④ 놀다(遊)

03

국어의 주요한 음운 변동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때, ‘부엌’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 유형으로 옳은 것은?

[2019. 국가직 9급]

	변동 전	변동 후
㉠	XaY	→ XbY(교체)
㉡	XY	→ XaY(첨가)
㉢	XabY	→ XcY(축약)
㉣	XaY	→ XY(탈락)

① ㉠, ㉡

② ㉠, ㉢

③ ㉡, ㉢

④ ㉡, ㉣

04

<보기>의 음운 변동 사례 중 옳은 것은? [2019. 서울시 7급]

<보기>

교체, 탈락, 축약, 첨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개수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 ‘집일[집닐]’은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 그런데 ㉡ ‘닭만[당만]’은 탈락만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고, ㉢ ‘뜻하다[뜨타다]’는 축약만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한편 ㉣ ‘맡는[만는]’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2개 증가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05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중 형태소의 교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9. 서울시 7급]

〈보기〉

형태소의 교체는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로 나눌 수 있다. 자동적 교체는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교체를 말하며, 비자동적 교체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는 교체를 말한다.

- (가) 알- : 알+는 → [아:는]
- (나) 안- : 안+고 → [안:꼬]
- (다) 아름답- : 아름답+은 → [아름다운]
- (마) 먹- : 먹+는 → [멍는]

- ① (가)는 국어에 ‘ㄹ’과 ‘ㄴ’이 연속될 때 ‘ㄹㄴ’이 함께 발음될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해 예외 없이 용언 어간의 종성 ‘ㄹ’이 탈락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 ② (나)는 국어에 ‘ㄴ’과 ‘ㄱ’이 연속될 때 ‘ㄱ’이 경음으로 발음된다는 제약으로 인해 예외 없이 어미 ‘-고’는 [꼬]로 발음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 ③ (다)는 국어에 ‘ㅂ’과 ‘은’이 연속될 때 ‘븐’이 아니라 [운]으로 발음된다는 제약으로 인해 어미 ‘-은’이 [운]으로 발음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 ④ (마)는 국어에 ‘ㄱ’과 ‘ㄴ’이 연속될 때 ‘ㄱ’이 비음 ‘o’으로 발음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규칙은 아니므로 비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06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⑦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9. 서울시 7급]

〈보기〉

국어의 ‘있다’는 경우에 따라 ⑦ 동사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고 형용사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 ① 나는 오늘 집에 있는다.
- ② 할아버지는 재산이 많이 있으시다.
- ③ 눈이 그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 ④ 비도 오니 그냥 집에 있자.

07

⑦~⑩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2019. 국가직 7급]

경음화는 장애음 중 평음이 일정한 환경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한국어의 대표적인 경음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⑦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평음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 ⑧ 비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연결되는 어미의 첫소리는 경음으로 발음된다.
- ⑨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연결되는 평음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 ⑩ 한자어에서 ‘ㄹ’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⑦	⑧	⑨	⑩
①	잡고	담고	갈 곳	하늘소
②	받고	앉더라	발전	물동이
③	놓습니다	삶더라	열 군데	절정
④	먹고	껴안더라	어찌할 바	결석

08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2019. 서울시 9급]

- ① 옷 색깔이 아주 밝구나!
- ② 이 분야는 전망이 아주 밝단다.
- ③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떠나겠다.
- ④ 그는 예의가 밝은 사람이다.

09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2019. 국가직 9급]

- 쌍둥이도 서로 성격이 ⑦ 다른 법이다.
-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잘 ⑮ 크지 못한다.
- 남부 지방에 홍수가 ⑩ 나서 많은 수재민이 생겼다.
- 그 사람이 농담은 하지만 ⑨ 혀튼 말은 하지 않는다.
- 상대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⑪ 아닐까?

① ⑦, ⑨

② ⑮, ⑩

③ ⑩, ⑫

④ ⑪, ⑬

12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옳지 않은 것은? [2019. 서울시 7급]

- ①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명사]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부사]
- ② 자기가 먹을 만큼 먹어라. [의존 명사]
나도 철수만큼 잘할 수 있다. [조사]
- ③ 그곳은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다. [부사]
이 연구는 비교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명사]
- ④ 혀가 굳어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형용사]
그는 사람됨이 굳고 인색해서 함부로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동사]

10

밑줄 친 조사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2019. 서울시 7급]

- ① 인생은 과연 뜬구름과 같은 것일까?
② 누구나 영수하고 친하게 지낸다.
③ 고등학교 때 수학과 영어를 무척 좋아했다.
④ 나와 그 친구는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다.

11

'의존명사-조사'의 짙이 아닌 것은? [2019. 서울시 7급]

- ① 할 만큼 했다.
나는 밥통째 먹으리만큼 배가 고팠다.
- ② 들어오는 대로 전화 좀 해 달라고 전해 주세요.
네 멋대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
- ③ 10년 만에 우리는 만났다.
너만 와라.
- ④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그래야 우리는 다섯뿐이다

13

다음 예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 경찰직]

- ⑦ 포돌이가 웃는다. 그리고 포순이가 웃는다.
⑮ 포돌이와 포순이가 웃는다.
⑯ 포돌이와 포순이가 서로 닮았다.
⑭ 포돌이 및 포순이가 웃는다.

- ① ⑦의 '그리고'는 문장의 다른 성분을 수식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능하므로 감탄사이다.
- ② ⑮의 '와'는 그 앞말이 필수적인 부사여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 ③ ⑯의 '와'는 두 문장이 결합되었음을 뜻하는 접속 조사이다.
- ④ ⑭의 '및'은 두 문장이 결합될 때 쓰이는 접속 부사(문장 부사)이다.

14

밑줄 친 부분이 ⑦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2019. 국가직 7급]

어근의 앞이나 뒤에 파생 접사가 결합된 것을 파생어라 한다. 파생 접사는 그 위치에 따라 접두사와 접미사로 나누는데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 없지만, ⑦ 접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 ① 횡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 ② 세 자매가 정답게 앉아 있다.
- ③ 옥수수 알이 크기에는 안 좋은 날씨이다.
- ④ 그곳은 낚시질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였다.

15

밑줄 친 단어의 형태가 옳지 않은 것은? [2019. 서울시 9급]

- ① 멀리서 보기와 달리 산이 가팔라서 여러 번 쉬었다.
- ② 예산이 100만 원 이상 모잘라서 구입을 포기해야 했다.
- ③ 영혼을 불살라서 이룬 깨달음이니 더욱 소중하다.
- ④ 말이며 행동이 모두 올발라서 흄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16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 [2019. 서울시 9급]

- ① 그는 밥도 안 먹고 일만 한다.
- ② 몸은 아파도 마음만은 날아갈 것 같다.
- ③ 그는 그녀에게 물만 주었다.
- ④ 고향의 사투리까지 싫어할 이유는 없었다.

17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것은? [2019. 경찰직]

- ① 4월이면 매년 시에서 나무를 심었다.
- ② 어느덧 벚꽃이 활짝 피었다.
- ③ 목련은 소리도 없이 진다.
- ④ 사람들은 그곳에서 봄을 즐겼다.

18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 [2019. 서울시 7급]

- ① 지금도 나는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난다.
- ② 그 학생이 아주 새 사람이 되었더라.
- ③ 바로 옆집에 삼촌이 사신다.
- ④ 5월에 예쁜 꽃을 보러 가자.

19

다음 밑줄 친 ‘–고’ 중에서 겹문장(복문)을 만드는 기능을 하지 않는 어미를 모두 고른 것은? [2019. 경찰직]

저 아이가 형이겠 ⑦ 고 네가 동생이겠구나. 내가 예전에는 너를 업 ⑧ 고 병원까지 달려갔었지. 그래, 요즘은 건강하 ⑨ 고? 운동은 좀 하 ⑩ 고 있니?

- | | |
|-------|-------|
| ① ⑦ ⑧ | ② ⑨ ⑩ |
| ③ ⑪ ⑫ | ④ ⑦ ⑪ |

20

다음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져온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예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았- 「어미」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ㅗ’인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다른 어미 앞에 붙어)

「1」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어미.

예전에는 명절에 선물로 설탕을 받았다./동생은 어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았다.

「2」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내는 어미.

야, 눈이 왔구나./물건 값이 많이 올랐다.

「3」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하여진 사실인 양 말할 때 쓰는 어미.

(¶)

① 비가 와서 내일 소풍은 다 갔네.

② 빗쟁이가 도망가고 없네. 돈은 이제 다 받았군.

③ 안 본 사이에 그 증상에서 말끔히 벗어났구나.

④ 서재가 왜 이리 어지럽니? 넌 이제 아버지께 혼났다.

21

밑줄 친 부분에서 선어말 어미 ‘-겠-’의 기능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2019. 서울시 7급]

①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니 조만간 비가 오겠다.

② 지금쯤 철수가 집에 도착하여 밥을 먹겠다.

③ 철수가 이번에는 자기가 가겠다고 하였다.

④ 8시에 출발하면 10시쯤에 도착하겠구나.

22

주어진 단어를 의미를 가진 요소들로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누었을 때 그 요소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2019. 서울시 7급]

① 파김치

② 짜임새

③ 주름살

④ 지름길

23

어휘의 형성 체계가 다른 것은?

[2019. 서울시 7급]

① 손쉽다

② 맛나다

③ 시름없다

④ 남다르다

24

파생어끼리 묶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 경찰직]

① 치솟다, 고무신

② 세빨갛다, 놀이

③ 얹매다, 풋사랑

④ 굽주리다, 까막까치

25

형태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2019. 서울시 9급]

- | | |
|---------|----------|
| ① 떠내려갔다 | ② 따라 버렸다 |
| ③ 빌어먹었다 | ④ 여쭈어봤다 |

26

밀줄 친 절의 성격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2019. 서울시 7급]

- ① 나는 영수가 만든 음식이 정말 맛있다.
- ② 영수가 한 질문이 너무 어려웠다.
- ③ 나는 영수가 애쓴 사실을 알고 있다.
- ④ 영수가 들은 소문은 혀소문이었다.

27

〈보기〉의 어휘들은 통사적으로 변화된 양상을 보여 준다.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 서울시 7급]

〈보기〉

- (가) 놈: ‘사람평칭’ → ‘남자의 비칭’
- (나) 겨레: ‘종친, 친척’ → ‘민족, 동족’
- (다) 아침밥>아침
- (라) 맛비>장맛비

- ① (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축소된 예이다.
- ② (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확대된 예이다.
- ③ (다)는 형태의 일부가 생략된 후 나머지에 전체 의미가 전류한 예이다.
- ④ (라)는 형태의 일부가 덧붙여진 후에도 전체 의미가 변하지 않은 예이다.

28

〈보기〉의 밀줄 ⑦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 서울시 7급]

〈보기〉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새로운 사물과 행동이 나타나게 되면 그에 맞도록 언어가 변화하는데 이러한 변화의 예로는 ⑦ 기존 어휘의 의미가 확대되거나 새로운 의미로 변화하는 경우, 아예 새로운 어휘가 나타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①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을 ‘이모’라고 부르기도 한다.
- ② 예전에는 ‘통닭’이라고 했지만 요즘엔 ‘치킨’이라고 한다.
- ③ ‘아침 겸 점심’을 뜻하는 말로 ‘아점’이라는 말이 나타났다.
- ④ 천연두가 사라지면서 ‘마마’라는 말도 이제는 쓰이지 않게 되었다.

02

2018년 기출문제

29

표준 발음을 기준으로 할 때, 단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어로만
묶은 것은?

[2018. 지역인재]

- | | |
|-----------|-----------|
| ① 공책, 에움길 | ② 서예, 뒤옹박 |
| ③ 팔괘, 외골목 | ④ 자료, 늦가을 |

30

음운은 의미를 변별해 주는 최소의 단위이다. 다음 중 음운
의 유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경찰직]

- ① ‘태/테’에서의 모음
- ② ‘밤:/밤’에서의 장단
- ③ ‘가지/바지’에서의 어두 자음
- ④ ‘시름/주름’에서의 첫째 음절

31

국어의 비분절 음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경찰직 1차]

- ① 국어의 비분절 음운에는 장단과 억양이 있다.
- ② 국어에서 장단의 문제는 모음과 자음 모두에 해당된다.
- ③ 국어의 비분절 음운은 자음, 모음처럼 정확히 소리마
디의 경계를 그을 수 없지만 말소리 요소로서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한다.
- ④ 국어에서 장음은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째 음절에 나타
나는데, 특이하게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장음이 단음
으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32

현 한국어의 양순음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
두 고른 것은?

[2018. 서울시 7급]

<보기>

- ㄱ. 양순음에는 ‘ㅂ, ㅃ, ㅍ, ㅁ’ 등이 있다.
- ㄴ. 양순음은 파열음과 마찰음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다.
- ㄷ. ‘ㅁ’은 비음이지 양순음은 아니다.
- ㄹ. 양순음은 발음 과정에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닿는 공
통점이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ㄴ, ㄹ

33

발음 기관에 따라 ‘아음(牙音)’, ‘설음(舌音)’, ‘순음(脣音)’,
‘치음(齒音)’, ‘후음(喉音)’으로 구별하고 있는 훈민정음의 자
음 체계를 참조할 때, 다음 휴대 전화의 자판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지방직 9급]

ㄱ ㅋ	ㅣ ㅡ	ㅏ ㅑ
ㄷ ㅌ	ㄴ ㄹ	ㅓ ㅕ
ㅁ ㅅ	ㅂ ㅍ	ㅗ ㅕ
ㅈ ㅊ	ㅇ ㅎ	ㅜ ㅠ

- ①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 따른다면, ‘ㅅ’은 ‘ㅈ ㅊ’ 칸에
함께 배치할 수 있다.
- ② ‘ㅁㅅ’ 칸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의 양면을 모두 고
려하여 같은 성질의 소리끼리 묶은 것이다.
- ③ ‘ㄷㅌ’과 ‘ㄴㄹ’ 칸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 적용된 가획
등의 원리에 따른 제자 순서보다 소리의 유사성을 중
시하여 배치한 것이다.
- ④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서 ‘ㅇ’과 ‘ㅎ’은 구별되었다.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 따른다면, 이 중에서 ‘ㅎ’은
‘ㄱㅋ’ 칸에 함께 배치할 수 있다.

34

다음을 바탕으로 음운 변동의 사례를 설명할 때 적절한 것은?
[2018. 지역인재]

- 대치: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탈락: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 첨가: 없던 음운이 생기는 현상
-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서 제3의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① ‘팥하고[파타고]’를 발음할 때,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 ② ‘떡잎[땡닙]’을 발음할 때, 첨가 현상과 대치 현상이 일어난다.
- ③ ‘밝고[발꼬]’를 발음할 때, 축약 현상과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 ④ ‘부엌도[부억또]’를 발음할 때, 대치 현상과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35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 지방직 7급]

- ① 갑진[갑찐]: 탈락, 첨가 현상이 있다.
- ② 밖과[박꽈]: 대치, 축약 현상이 있다.
- ③ 끊는[끌른]: 탈락, 대치 현상이 있다.
- ④ 밭도[밭또]: 대치, 첨가 현상이 있다.

36

‘깎다’의 활용형에 적용된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 국가직 9급]

- 교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탈락: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 첨가: 없던 음운이 생기는 현상
-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서 또 다른 음운 하나로 바뀌는 현상
- 도치: 두 음운의 위치가 서로 바뀌는 현상

- ① ‘깎는’은 교체 현상에 의해 ‘깡는’으로 발음된다.
- ② ‘깎아’는 탈락 현상에 의해 ‘까까’로 발음된다.
- ③ ‘깎고’는 도치 현상에 의해 ‘깍꼬’로 발음된다.
- ④ ‘깎지’는 축약 현상과 첨가 현상에 의해 ‘깍찌’로 발음된다.

37

〈보기〉의 단어에 공통으로 적용된 음운 변동은?

[2018. 서울시 9급]

〈보기〉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꽂내음[꼰내음] • 학력[항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깥일[바깥닐]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화 ③ 비음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첨가 ④ 유음화 |
|---|---|

38

동화의 방향이 다른 것은?

- | | |
|-------|-------|
| ① 손난로 | ② 불놀이 |
| ③ 찰나 | ④ 강릉 |

[2018, 서울시 7급]

39

〈보기〉 중 음운변동으로 음운의 수에 변화가 있는 단어를 모두 고른 것은?

[2018, 서울시 7급]

〈보기〉

- | | | | |
|-------|-------|-------|-------|
| ㄱ. 발전 | ㄴ. 국화 | ㄷ. 솔잎 | ㄹ. 독립 |
|-------|-------|-------|-------|

- | | |
|--------|--------|
| ① ㄱ, ㄴ | ② ㄱ, ㄹ |
| ③ ㄴ, ㄷ | ④ ㄷ, ㄹ |

41

국어의 불규칙 활용에 한 〈보기〉의 설명과 그 예를 가장 바르게 짹자은 것은?

[2018, 서울시 7급]

〈보기〉

- (ㄱ) 불규칙 용언 가운데는 어간의 일부가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
- (ㄴ) 불규칙 용언 가운데는 어간의 일부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 (ㄷ) 불규칙 용언 가운데는 어미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 (ㄹ) 불규칙 용언 가운데는 어간과 어미가 함께 바뀌는 경우가 있다.

- ① (ㄱ)–짓다, 푸다, 늟다
 ② (ㄴ)–깨닫다, 춥다, 씻다
 ③ (ㄷ)–푸르다, 하다, 노르다
 ④ (ㄹ)–좋다, 파랗다, 부옇다

40

다음의 음운 현상이 일어난 사례는?

[2019, 교육행정직 9급]

어간 ‘가–’에 어미 ‘–아서’가 결합하면 ‘가서’가 된다. 이러한 사례처럼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동일한 모음이 연속되면 그중 하나가 탈락한다.

- ① 봄이 가고 여름이 온다.
- ② 집에 가니 벌써 밤이었다.
- ③ 우리만 먼저 가도 괜찮을까?
- ④ 학교에 가면 친구들을 만난다.

42

국어의 형태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9급]

- ① 조사는 앞말에 붙어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의존형태소이다.
- ② 동사의 어간은 스스로 실질적인 단어이므로 명사와 더불어 자립형태소이다.
- ③ 명사는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동사의 어간과 더불어 실질형태소이다.
- ④ 어미는 조사와 마찬가지로 문법적 기능을 하므로, 문법 형태소이다.

43

밑줄 친 부분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2018. 지역인재]

그는 낚시하러 가겠다고 한사코 우겼다.

- ① 참 특이한 사람 다 보겠군.
- ② 지금 떠나면 내일 새벽에 도착하겠지.
- ③ 이번 달까지 꼭 목표량을 달성하겠다.
- ④ 대통령 내외분이 식장으로 입장하시겠습니다.

44

청유형 종결 어미가 포함된 것은?

[2018. 교육행정 9급]

- ① 이파가 가세.
- ② 자리에 앉아라.
- ③ 자네 이것 좀 먹게.
- ④ 옷이 무척 예쁘구려.

45

(가)~(라)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가직 9급]

- (가) 수학 성적은 참 좋군. 국어 성적도 좋고.
 (나) 친구가 “난 학교에 안 가겠다.”고 말했다.
 (다) 동생은 가던 길을 멈추면서 나에게 달려왔다.
 (라) 대통령은 진지한 연설로서 국민을 설득했다.

- ① (가): ‘수학 성적은 참 좋군.’은 국어 성적이 좋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 ‘은’을 주격 조사 ‘이’로 바꿔 쓴다.
- ② (나): 직접 인용문 다음이므로 인용 조사는 ‘고’가 아닌 ‘라고’를 쓴다.
- ③ (다): 어미 ‘-면서’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 하므로 ‘-고’로 바꿔 쓴다.
- ④ (라): ‘로서’는 자격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므로 수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조사 ‘로써’로 바꿔 쓴다.

46

절과 절을 이어주는 연결어미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여러 제약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7급]

- ① ‘-(으)려고’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한다.
- ② ‘-더라도’는 ‘-겠-’과 결합하지 못한다.
- ③ ‘-거든’은 후행절에 명령문이 오면 어색하다.
- ④ ‘-(으)ㄴ들’은 후행절이 의문문이면 수사의문문이어야 한다.

47

다음 중 국어의 부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경찰직 2차]

- ① “그녀는 정말 많이 운다.”에서 ‘정말’은 동사를 꾸며준다.
- ② “과연 그는 훌륭한 예술가로구나.”에서 ‘과연’은 문장을 꾸며준다.
- ③ “영이는 아주 새 사람이 되었다.”에서 ‘아주’는 관형사를 꾸며준다.
- ④ “아이는 맨 훑투성이로 집에 들어왔다.”에서 ‘맨’은 명사를 꾸며준다.

48

다음 밑줄 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경찰직 1차]

- ⑦ 당신은 누구시오?
 ⑧ 당신, 요즘 직장에서 피곤하시죠?
 ⑨ 뭐? 당신? 누구한테 당신이야!
 ⑩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다.

- ① ⑦에서 ‘당신’은 청자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이다.
- ② ⑧에서 ‘당신’은 부부 사이에서 상대편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
- ③ ⑨에서 ‘당신’은 맞서 싸울 때 상대편을 낮잡아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
- ④ ⑩에서 ‘당신’은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

49

밑줄 친 단어의 품사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9급]

- 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의존명사〉
나도 그 사람만큼 할 수 있다. 〈조사〉
- ② 오늘은 바람이 아니 분다. 〈부사〉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감탄사〉
- ③ 그 아이는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 〈명사〉
열 사람이 백 말을 한다. 〈관형사〉
- ④ 그는 이지적이다. 〈명사〉
그는 이지적 인간이다. 〈관형사〉

50

밑줄 친 단어 중 그 의미가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2018. 서울시 7급]

- ① 그는 음식이 너무 매워 거의 먹지 못했다.
- ② 장군은 흐르는 눈물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다.
- ③ 그 아이는 부모의 바람만큼 똑똑하지 못했다.
- ④ 오늘은 너무 바빠서 동창회에 가지 못했다.

51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2018. 서울시 9급]

- ① 그곳에서 갖은 고생을 다 겪었다.
- ② 우리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 ③ 인천으로 갔다. 그리고 배를 탔다.
- ④ 아기가 방글방글 웃는다.

52

국어의 조사에 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7급]

- ① ‘에서’는 ‘집에서 가져 왔다’의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이지만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의 경우에는 주격 조사이다.
- ② ‘는’은 ‘그는 학교에 갔다’의 경우에는 주격 조사이지만 ‘일을 빨리는 한다’의 경우에는 보조사이다.
- ③ ‘가’는 ‘아이가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의 경우에는 주격 조사 이지만 ‘그것은 종이가 아니다’의 경우에는 보격 조사이다.
- ④ ‘과’는 ‘눈과 같이 하얗다’의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이지만 ‘책과 연필이 있다’의 경우에는 접속 조사이다.

53

국어 품사에 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7급]

- ① 관형사는 체언만 수식할 수 있다.
- ② 명사가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 ③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는 없다.
- ④ 부사 뒤에 조사가 오는 경우도 있다.

54

다음 중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탐구한 것 중에서 올바른 것은?

[2018. 법원직]

<보기 1>

'-ㅁ/-음'에 대하여

- 명사형 어미: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서 동사를 명사형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동사의 명사형은 서술성이 있어 주어를 서술하며 품사가 변하지 않는다. 앞에 부사적 표현이 쓰일 수 있다.
- 접미사: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서 동사를 명사로 파생시킨다. 파생된 명사는 서술성이 없으므로 앞에 부사적 표현이 쓰일 수 없고, 관형어가 올 수 있다.

<보기 2>

- Ⓐ 그의 선조들은 불우한 삶을 살았다.
- Ⓑ 겨울이어서 노면에 얼음이 자주 얼었다.
- Ⓒ 영희는 깊은 잡¹을 잡²으로써 피로를 풀었다.
- Ⓓ 진행자가 크게 웃음으로써 분위기를 바꾸었다.

- ① Ⓐ의 '삶'의 '-ㅁ'은 명사형 어미이다.
- ② Ⓑ의 '얼음'은 '얼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 ③ Ⓒ의 '잡¹'의 '-ㅁ'은 명사형 어미이고, '잡²'의 '-ㅁ'은 접미이다.
- ④ Ⓓ의 '웃음'은 '크게'의 수식을 받으므로 '웃음'의 '-음'은 접미사이다.

55

밑줄 친 부분 중에서 품사가 다른 하나는? [2018. 서울시 9급]

- ① 그곳은 비교적 교통이 편하다.
- ② 손이 저리다. 아니, 아프다.
- ③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해라.
- ④ 얼굴도 볼 겹 내일 만나자.

56

밑줄 친 단어의 문법적 기능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2018. 서울시 7급]

- ①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가셨다.
- ② 나는 그 일을 끝내지 못했다.
- ③ 새 옷을 입어 보았다.
- ④ 그는 나를 놀려 대곤 했다.

57

'본용언+보조 용언' 구성이 아닌 것은?

[2018. 서울시 9급]

- ① 영수는 쓰레기를 주워서 버렸다.
- ②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아는 척한다.
- ③ 요리 맛이 어떤지 일단 먹어는 본다.
- ④ 우리는 공부를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아 간다.

58

<보기>를 참조할 때, 다음 중 붙여 쓸 수 없는 것은?

[2018. 법원직]

<보기>

- Ⓐ 나는 그 책을 거의 다 읽어 간다.
- Ⓑ 나는 영희에게 사과를 깎아 주었다.

용언은 그 쓰임에 따라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나뉜다. 본용언은 Ⓐ의 '읽어'처럼 문장의 주어를 주되게 서술해 주는 말로 보조 용언의 도움을 받는다. 반면에 보조 용언은 Ⓑ의 '간다'처럼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으로 자립성이 없어 단독으로 주어를 서술하지 못한다. 한글 맞춤법 규정 제47항에 따르면, 이와 같은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그런데 Ⓑ의 '주었다'처럼 단독으로 주어를 서술하는 것이 가능하면 본용언 뒤에 또 다른 본용언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두 용언은 띄어 쓴다.

- ① 철수가 농구를 하고 있다.
- ② 그녀는 가족의 빨래를 빨아 말렸다.
- ③ 그는 부모님을 여읜 슬픔을 이겨 냈다.
- ④ 그녀는 하루 종일 어머니 일을 도와 드렸다.

59

밑줄 친 부사어의 문장 내에서의 역할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2018. 서울시 7급]

- ① 고기가 까맣게 탔다.
- ② 비겁하게 굴지 마라.
- ③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웠다.
- ④ 이 술은 시원하게 마셔야 맛있다.

60

다음 밑줄 친 성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2018. 경찰직 1차]

- ⑦ 영선이가 찰 아름답다.
- ⑧ 과연 영선이는 똑똑하구나.
- ⑨ 영선이는 얼마와 닮았다.
- ⑩ 그러나 영선이는 역경을 이겨냈다.

- ① ⑦과 ⑧의 밑줄 친 부분은 문장 내의 다른 성분을 수식하는 성분 부사어이다.
- ② ⑧과 ⑨의 밑줄 친 부분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어이다.
- ③ ⑨과 ⑩의 밑줄 친 부분은 앞뒤를 연결해 주는 접속 부사어이다.
- ④ ⑦부터 ⑩까지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부사어이다.

61

밑줄 친 부분 중에서 목적어가 아닌 것은? [2018. 서울시 9급]

- ① 우리는 그의 제안을 수용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 ② 사공들은 바람이 불기를 기다렸다.
- ③ 아이들이 건강하지를 않아 걱정이다.
- ④ 나는 일이 어렵고 쉽고를 가리지 않는다.

62

다음은 접미사 ‘-히’에 대한 설명과 용례를 제시한 것이다.

㉠～⑩의 용례를 추가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경찰직 2차]

	접미사 ‘-히’의 의미 및 기능	접미사 ‘-히’의 용례
㉠	(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나뭇가지를 뒤로 젖혔다.
㉡	(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파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맺힌 매듭을 풀어야 한다.
㉢	(일부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자리를 넓혀 앉았다.
㉣	(형용사의 어근이나 ‘하다’가 붙어 형용사가 되는 어근 뒤에 붙어)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학생들이 교실에서 조용히 공부하고 있다.

- ① ⑦의 용례로 “학생들에게 주로 신문 사설을 읽혔다.”에서의 ‘읽혔다’를 추가할 수 있다.
- ② ⑧의 용례로 “그는 굽힌 허리를 천천히 세웠다.”에서의 ‘굽힌’을 추가할 수 있다.
- ③ ⑨의 용례로 “무더위가 훈련 중인 선수들을 괴롭혔다.”에서의 ‘괴롭혔다’를 추가할 수 있다.
- ④ ⑩의 용례로 “둘이 나란히 앉았다.”에서의 ‘나란히’를 추가할 수 있다.

63

밑줄 친 부분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2018. 국가직 7급]

한국어의 피동 표현 중 ‘-어/아지다’에 의한 피동이 있다. 이것은 연결어미 ‘-어/아’에 보조 동사 ‘지다’가 결합된 통사적 구조으로 통사적 피동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어/아지다’가 피동의 의미보다는 ‘-게 되다’와 비슷한 의미를 가져 어떠어떠한 상태로 된다는 과정화의 의미가 더 강할 때가 있다.

- ① 이 책이 잘 읽혀진다.
- ② 방에 우유가 쏟아졌다.
- ③ 그 가게에 잘 가지지 않아요.
- ④ 이 연필은 글씨가 잘 써진다.

64

사동법의 특징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2018. 지방직 9급]

- ① 그는 김 교수에게 박 군을 소개시켰다.
- ② 돌아오는 길에 병원에 들러 아이를 입원시켰다.
- ③ 생각이 다른 타인을 설득시킨다는 건 참 힘든 일이다.
- ④ 우리는 토론을 거쳐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킨다.

65

사동 표현이 없는 것은? [2018. 지방직 7급]

- ① 목동이 양들에게 풀부터 뜯겼다.
- ② 아이들은 종이비행기만 하늘로 날렸다.
- ③ 태희는 반지마저 유진에게 보여 주었다.
- ④ 소영의 양손에 무거운 보따리가 들려 있다.

66

다음의 ⑦에 해당하는 것은? [2018. 교육행정 9급]

국어에는 ⑦ 자동사와 타동사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동사가 있다. ‘눈물이 그치다 / 눈물을 그치다’의 ‘그치다’가 이러한 예이다.

- | | |
|--------|-------|
| ① 뺄다 | ② 쌓이다 |
| ③ 움직이다 | ④ 읽다 |

67

다음 밑줄 친 서술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 경찰 2차]

- 잎이 노랗게 ⑦ 물들었다.
- 그는 이 소설책을 열심히 ⑦ 읽었다.
- 저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⑦ 되었다.
- 그녀는 자신의 행운을 당연하게 ⑦ 여긴다.

- ① ⑦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② ⑦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 ③ ⑦은 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 ④ ⑦은 목적어 외에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68

단어 형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8. 서울시 9급]

- ① 형용사 ‘기쁘다’에 동사 파생접미사 ‘-하다’가 붙으면 동사 ‘기뻐하다’가 생성된다.
- ② ‘시누이’와 ‘선생님’은 접미파생명사들이다.
- ③ ‘벗나가다’와 ‘공부하다’는 합성동사들이다.
- ④ ‘한여름’은 단일명사이다.

69

'살짝곰보'와 합성어의 구성 방식이 같은 것은?

[2018. 서울시 7급]

- | | |
|-------|--------|
| ① 뒤밥 | ② 얼룩소 |
| ③ 딱딱새 | ④ 섞어찌개 |

70

다음 중 단어 형성 방법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2018. 교육행정 7급]

- | | |
|-------|-------|
| ① 가위질 | ② 달리기 |
| ③ 멋쟁이 | ④ 책가방 |

71

국어의 단어 형성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 경찰직 1차]

- ① '우리나라, 우리글, 우리말'은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우리 집'처럼 구(句)로 보아야 한다.
- ② 접사와 어근,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를 합성어(合成語)라 한다.
- ③ '앞뒤, 손수건, 춘추(春秋)'와 같이 어근이 대등하게 이루어진 것을 대등 합성어라 한다.
- ④ '덮밥, 부슬비, 높푸르다'와 같은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 한다.

72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법원직]

〈보기〉

- 그는 ㉠ 슬픔에 젖어 말을 잊지 못했다.
- 간호사는 환자의 팔뚝에 붕대를 ㉡ 휘감았다.
- 그 사이 한 해가 저물고 ㉢ 새해가 왔다.
- 그의 집은 인근에서 ㉣ 알부자로 소문난 집이다.

- ① ㉠은 어근과 접미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파생어로 품사가 형용사에서 명사로 바뀌었다.
- ② ㉡은 접두사와 어근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 ③ ㉢은 어근과 어근의 결합인 '관형사+명사' 형태의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④ ㉣은 어근과 어근의 결합인 '명사+명사' 형태의 통사적 합성어이다.

73

<보기>에 제시된 "안은 문장"의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경찰직 2차]

〈보기〉

겹문장이 만들어지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문장들이 서로 나란히 이어지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문장이 다른 문장을 안는 방식이다. 전자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문장을 이어진 문장, 후자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문장을 안은 문장이라고 한다.

- ① 그것은 영이가 입을 옷이다.
- ② 우리는 돈 없이 여행을 떠났다.
- ③ 결국 그 사람이 범인이었음이 밝혀졌다.
- ④ 많이 바쁘시겠지만 꼭 참석해 주십시오.

74

〈보기〉의 밑줄 친 ⑦~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 교육행정 7급]

〈보기〉

상반기 중점 업무 분장 계획

- ⑦ 관내 중학생들의 월간 여가 활동 현황은 A 선생님이,
- ⑧ 봉사 활동 현황은 B 선생님이 조사함.
- ⑨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발표는 C 연구사가 수행함.
- ⑩ 팀장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함.

- ① ⑦의 서술어는 ①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되었다.
- ② ⑧의 ‘봉사 활동’을 하는 주체는 ‘B 선생님’이다.
- ③ ⑨에는 서술절이 안겨 있다.
- ④ ⑩의 ‘팀장은’의 ‘은’은 ‘팀장’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03

2017년 기출문제

75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2017. 지방직 9급]

‘-ㅁ/-음’은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었-’, ‘-겠-’ 뒤에 붙어, 그 말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로 쓰이는 경우와, 어간 말음이 자음인 용언 어간 뒤에 붙어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 ① 그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다.
- ②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일에 매달렸다.
- ③ 태산이 높음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 ④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친 사람이 애국자다.

76

⑦~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지방직 9급]

- 형님은 ⑦자기 자신을 애국자라고 생각했다.
- 형님은 ⑧당신 스스로 애국자라고 생각했다.
- 형님은 ⑨그의 선물을 나에게 주었다.

- ① ⑦과 ⑧은 모두 형님을 가리킨다.
- ② ⑦은 1인칭이고 ⑧은 2인칭이다.
- ③ ⑧은 ⑦보다 높임 표현이다.
- ④ ⑨은 ⑦과 달리 형님 이외의 다른 대상을 가리킬 수 있다.

77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같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10월]

- ① 모두 제 잘못입니다.

심판은 규칙을 잘못 적용하여 비난을 받았다.

- ② 집에 도착하는 대로 편지를 쓰다.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두다.

- ③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곳에 사무실이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 ④ 이 사과가 맛있게 생겼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80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10월]

- ① ‘바다’, ‘맑다’는 어근이 하나인 단일어이다.

- ② ‘회덮밥’은 파생어 ‘덮밥’에 새로운 어근 ‘회’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 ③ ‘곁눈질’은 합성어 ‘곁눈’에 접미사 ‘-질’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 ④ ‘웃음’은 어근 ‘웃-’에 접미사 ‘-음’이 붙어 명사가 된 파생어이다.

78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2017. 국가직 7급 10월]

- ①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함이 많다.

- ② 곧 날이 밝으면 출발할 수 있다.

- ③ 노인들은 꽃나무를 잘들 키우신다.

- ④ 노장은 결코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81

다음은 일부 지역과 계층에서 ‘애’와 ‘에’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2017. 지방직 7급]

‘애’와 ‘에’를 구별하는 ‘()’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 ① 혀의 앞뒤 관련 자질

- ② 혀의 높낮이 관련 자질

- ③ 소리의 강약 관련 자질

- ④ 소리의 장단 관련 자질

79

밑줄 친 단어의 불규칙 활용 유형이 같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10월]

- ① 나뭇잎이 누르니 가을이 왔다.

나무가 높아 오르기 힘들다.

- ② 목적지에 이르기는 아직 멀었다.

앞으로 구르기를 잘한다.

- ③ 주먹을 휘두르지 마라.

머리를 짧게 자른다.

- ④ 그를 불운한 천재라 부른다.

색깔이 아주 푸르다.

82

주어진 단어의 자음 두 개를 <보기>의 조건에 따라 순서대로 나타낼 때, 모두 옳은 것은?

[2017. 서울시 사회복지직]

<보기>

하나의 음운이 가진 조음 위치의 특성을 +라고 하고,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을 -로 규정한다. 예컨대 ㅌ 은 [+치조음, -양순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으로 나타낼 수 있다.

- ① 가로: [+경구개음], [-후음]

- ② 미비: [-경구개음], [+후음]

- ③ 부고: [+양순음], [-치조음]

- ④ 효과: [-후음], [-연구개음]

83

다음 중 국어의 음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경찰직 1차]

- ① 탈락: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 ② 첨가: ‘ㄴ’첨가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때 ‘ㄴ’이 새로 덧붙은 현상이다.
- ③ 축약: 유기음화는 ‘ㅎ’과 ‘ㄱ’, ‘ㄷ’, ‘ㅂ’, ‘ㅈ’ 중 하나가 만날 때 이 두 자음이 하나의 음으로 실현되는 현상이다.
- ④ 교체(대치): 유음화는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동화되는 현상이다.

84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 ① ‘ㄴ’, ‘ㅁ’, ‘ㅇ’은 유음이다.
- ② ‘ㅅ’, ‘ㅆ’, ‘ㅎ’은 마찰음이다.
- ③ ‘ㅡ’, ‘ㅓ’, ‘ㅏ’는 후설 모음이다.
- ④ ‘ㅠ’, ‘ㅕ’, ‘ㅗ’, ‘ㅜ’는 원순 모음이다.

85

음운 현상은 변동의 양상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다음 중 음운 현상의 유형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하나는?

[2017. 서울시 9급]

- ⑦ 대치—한 음소가 다른 음소로 바뀌는 음운 현상
 - ⑧ 탈락—한 음소가 없어지는 음운 현상
 - ⑨ 첨가—없던 음소가 새로 끼어드는 음운 현상
 - ⑩ 축약—두 음소가 합쳐져 다른 음소로 바뀌는 음운 현상
 - ⑪ 도치—두 음소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음운 현상

① 국+만 → [궁만]

② 물+난리 → [물랄리]

③ 입+고 → [입꼬]

④ 한+여름 → [한녀름]

86

〈보기〉는 초성 /ㄹ/의 제약을 탐구하기 위한 자료이다. 〈보기〉에서 초성 /ㄹ/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지방 교육행정직 9급]

〈보기〉

- ⑦ 노동(勞動), 유행(流行), 피로(疲勞), 하류(下流)
 - ⑧ 삼림(삼님), 심리(심니), 백로(뱅노), 박력(방녁)
 - ⑨ 의견란(의견난), 생산량(생산량), 편리(펄리), 난로(난로)
 - ⑩ 고려(고려), 비리(비리), 철로(철로), 물리(물리)

- ① ⑦을 보니, 한자어의 첫머리에 올 때 실현되지 않는군.
- ② ⑧을 보니, 앞 음절 종성이 /ㅁ/, ㅇ/일 때 [ㄴ]으로 바뀌는군.
- ③ ⑨을 보니, 앞 음절 종성이 /ㄴ/일 때 [ㄴ]으로 바뀌거나 앞 음절 종성을 [ㄹ]로 바꾸는군.
- ④ ⑩을 보니, 모음 뒤나 앞 음절 종성이 /ㄹ/일 때 실현되는군.

87

밀줄 친 말의 기본형이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 ① 무를 강판에 가니 즙이 나온다. (기본형: 같다)
- ② 오래되어 불은 국수는 맛이 없다. (기본형: 불다)
- ③ 아이들에게 위험한 데서 놀지 말라고 일렀다. (기본형: 이르다)
- ④ 퇴근하는 길에 포장마차에 들렸다가 친구를 만났다. (기본형: 들르다)

88

다음 <보기> 중 밑줄 친 단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경찰직 2차]

<보기>

- ① 사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
- ② 그것은 그가 할 따름이죠.
- ③ 우리가 할 만큼은 했어.
- ④ 선생님 한 분이 새로 오신대요.

- ① 명사를 대신하여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 ② 사용 범위에 따라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로 나뉜다.
- ③ 사물의 수량을 가리키는 양수사와 순서를 가리키는 서수사로 나뉜다.
- ④ 실질적 의미가 희박한 형식성 의존 명사와 수량 등의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 명사로 나뉜다.

90

밑줄 친 단어가 같은 품사로 묶인 것은? [2017. 국가직 7급]

- ① 이것 말고 다른 물건을 보여 주세요.
질소는 산소와 성질이 다른 원소이다.
- ②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철수는 떡국을 떠먹어 보았다.
- ③ 그 사과는 크고 빨개서 먹음직스럽다.
아이가 크면서 점점 총명해졌다.
- ④ 김홍도의 그림은 한국적이다.
이 그림은 한국적 정취가 물씬 풍긴다.

89

다음 중 국어의 품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경찰직 2차]

- ① 관형사와 부사는 뒤에 오는 다른 말을 꾸며 주기 때문에 수식언이라 한다.
- ②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것으로 ‘그러나, 그런데’ 등과 같은 것이 있다.
- ③ 감탄사는 화자의 부름, 느낌, 놀람이나 대답을 나타내며 형태가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 ④ 조사는 체언 뒤에 결합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말로서,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가 있다.

91

밑줄 친 말의 품사가 같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2017. 지방직 9급]

개나리꽃이 ① 흐드러지게 핀 교정에서 친구들과 ② 찍은 사진은, 그때 느꼈던 ③ 설레는 행복감은 물론, 대기 중에 ④ 충만한 봄의 기운, 친구들과의 악의 ⑤ 없는 놓지거리, 벌들의 잉잉거림까지 현장에 있는 것과 다름없이 느끼게 해 준다.

- | | |
|-----------|-----------|
| ① ⑦, ⑧, ⑨ | ② ⑦, ⑧, ⑩ |
| ③ ⑪, ⑫, ⑬ | ④ ⑪, ⑫, ⑩ |

92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2017. 지역인재]

- | | |
|--------------------|-------------------|
| ① 하늘이 <u>파랗다</u> . | ② 꽃이 <u>예쁘다</u> . |
| ③ 아기가 <u>웃다</u> . | ④ 건물이 <u>높다</u> . |

93

㉠, ㉡의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서로 같은 것은?

[2017. 지방 교육행정직 9급]

- ① ㉠: 마음이 진짜 아팠어.
㉡: 모조품을 진짜처럼 만들었다.
- ② ㉠: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 ③ ㉠: 나는 좋은 친구가 있어.
㉡: 나는 조용히 집에 있으려고 해.
- ④ ㉠: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야.
㉡: 너는 하루가 다르게 예뻐지는구나.

94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지방직 9급]

㉠ 그쪽에서 물건 하나를 맡아 주었으면 해요. 그건 ㉡ 우리 할머니의 유품이에요. ㉢ 저는 할머니의 유지에 따라 당신에게 그것을 전해야 할 책임을 느껴요. ㉣ 할머니께서는 ㉤ 본인의 생각을 저에게 누차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이죠. 부디 ㉥ 당신이 할머니가 품었던 호의를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할머니는 결코 말씀이 많으신 분은 아니었지요. ㉦ 당신께서 생전에 표현하지 못했던 심정이 거기에 절실히 아로새겨져 있을 거예요.

- ① ㉠과 ㉡은 1인칭 대명사이다.
- ② ㉡은 ㉢과 ㉔을 아우르는 말이다.
- ③ ㉔과 ㉙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 ④ ㉔과 ㉖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95

狎지어진 두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이 모두 보조 용언인 것은?

[2017. 서울시 사회복지직]

- ① 이 책도 한번 읽어 보거라.
밖의 날씨가 매우 더운가 보다.
- ② 야구공으로 유리를 깨 먹었다.
여름철에는 음식물을 꼭 끓여 먹자.
- ③ 이것 좀 너희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렴.
나는 주말마다 어머니 일을 거들어 드린다.
- ④ 이것 맡고 저것을 주시오.
게으름을 피우던 그가 시험에 떨어지고 맡았다.

96

다음 <보기>에 대한 문법적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경찰직 2차]

<보기>

영선: 냉장고에 토마토 ㉠ 재워 놨다. 먹어.

철이: ㉡ 깨우면 돼?

영선: 뭘?

철이: 개그가 ㉔ 안 통하네.

영선: 뭐? ㉕ 자는 거 먹어. 눈치 ㉖ 못 채계.

- ① ㉠은 ‘눈이 감기며 의식 없는 상태가 되어 활동하는 기능이 쉬는 상태로 되다.’를 뜻하는 ‘자다’ 동사의 피동사이다.
- ② ㉡은 ‘잠이나 술에서 깨다’를 뜻하는 ‘깨다’ 동사의 사용동사이다.
- ③ ㉔과 ㉕은 의지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 표현이다.
- ④ ㉖은 ㉠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동사이다.

97

다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경찰직 2차]

<보기>

- Ⓐ 철이는 아이가 아니다.
- Ⓑ 영선이는 엄마와 닮았다.
- Ⓒ 철이는 영선이를 사랑한다.
- Ⓓ 철이가 영선이에게 편지를 보냈다.

- ① Ⓐ에서 ‘아이가 아니다’는 서술절이다.
- ② Ⓑ에서 ‘엄마와’는 부사어이지만 생략하면 안 되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 ③ Ⓒ에서 ‘사랑하다’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 ④ Ⓓ에서 부사어 ‘영선이에게’와 목적어 ‘편지를’의 위치를 바꾸면 Ⓓ은 비문(非文)이 된다.

98

다음 <보기>의 ①~④ 중 주어가 다른 하나는?

[2017. 서울시 9급]

<보기>

진찰의 첫 단계로 임상심리 검사를 시작해 보니 환자의 증세가 참으로 특이하더군요. 도대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진술 거부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너무나 없이 불안해하거나 자기 생각을 거짓말로 슬슬 Ⓛ 속여넘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덮어놓고 자기의 머리가 이상해진 게 틀림없다고 고집이지 뭐니까. 아니 거짓말을 하거나 불안해 하는 것도 모두 그렇게 자기의 머리가 이상해진 것을 확인시키려는 노력에서 Ⓜ 그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도 물론 나중까지 환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받아 놓지 않은 건 아니었지요. 한데 나중에 보호자 Ⓝ 연락을 취해 보니 그것도 모두가 거짓말이었던 말입니다. 그런 주소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환자에게 다시 진짜를 대보라고 했지만 어디 대답이 쉽습니까. 게다가 이 환자는 소지품 중에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만한 것을 Ⓞ 지니고 있지 않았어요.

① Ⓛ

② Ⓜ

③ Ⓝ

④ Ⓞ

99

<보기>의 문장을 바탕으로 국어의 형태소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7. 서울시 7급]

<보기>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숙제를 주신다.

- ① ‘선생님께서’의 ‘께서’, ‘우리들에게’의 ‘들’, ‘주신다’의 ‘주’는 모두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 ② ‘선생님께서’의 ‘께서’, ‘숙제를’의 ‘를’, ‘주신다’의 ‘다’는 모두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 ③ ‘선생님께서’의 ‘님’, ‘숙제를’의 ‘숙제’, ‘주신다’의 ‘주’는 모두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 ④ ‘선생님께서’의 ‘선생’, ‘우리들에게’의 ‘우리’, ‘숙제를’의 ‘숙제’는 모두 자립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100

다음 문장에서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것은?

[2017. 경찰직 1차]

저 나뭇잎은 참 빨갛다.

① 저

② 은

③ 참

④ 빨갛-

101

비통사적 합성어로만 끊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

- ① 힘들다, 작은집, 돌아오다
- ② 검붉다, 굳세다, 밤낮
- ③ 부슬비, 늦여위, 굽주리다
- ④ 빛나다, 보살피다, 오르내리다

102

다음 중 합성어로만 둑인 것은? [2017. 서울시 7급]

- ① 손목, 눈물, 할미꽃, 어깨동무, 군세다, 날뛰다
- ② 잠보, 점쟁이, 일꾼, 덮개, 넓이, 조용히
- ③ 지붕, 군것질, 선생님, 먹히다, 거멓다, 고프다
- ④ 맨손, 군소리, 풋사랑, 시누이, 빗나가다, 새파랗다

103

다음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과 단어 형성 원리가 같은 것은? [2017. 서울시 9급]

<보기>

개살구, 혀웃음, 낚시질, 지우개

- | | |
|------------|------------|
| ① 건어물(乾魚物) | ② 금지곡(禁止曲) |
| ③ 한자음(漢字音) | ④ 핵폭발(核爆發) |

104

밑줄 친 접두사가 한자에서 온 말이 아닌 것은?

[2017. 국가직 9급]

- | | |
|-------|-------|
| ① 강염기 | ② 강타자 |
| ③ 강기침 | ④ 강행군 |

105

㉠과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2017. 지방 교육행정직 9급]

파생어는 ‘어근+접사’로, 합성어는 ‘어근+어근’으로 이루 어진 복합어이다. 파생어 중에는 ㉠ 접사와 결합하기 전의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가 달라진 것도 있고, 달라지 지 않은 것도 있다. 합성어 중에는 문장에서 나타나는 배열 방식으로 만들어진 통사적 합성어도 있고, ㉡ 문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배열 방식으로 만들어진 비통사적 합성어도 있다.

㉠

- ① 슬기롭다
- ② 선무당
- ③ 공부하다
- ④ 먹이

㉡

- 접칼
- 늦잠
- 힘들다
- 잘나가다

106

다음 예문 중에서 관형절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2017. 서울시 사회복지직]

- ①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
- ② 철수는 새로 맞춘 양복을 입었다.
- ③ 나는 길에서 주운 지갑을 역 앞 우체통에 넣었다.
- ④ 윤규가 지하철에서 만났던 사람은 의사이다.

107

밑줄 친 안긴문장과 같은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을 포함한 것은? [2017. 지방 교육행정직 9급]

내가 바라던 합격이 현실이 되었다.

- ① 내 마음이 바뀌기는 어렵다.
- ② 하늘이 눈이 부시게 푸르다.
- ③ 나는 그 사람이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 ④ 우리의 싸움은 내가 항복함으로써 끝났다.

108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경찰직 1차]

문장은 홀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뉘며, 겹문장은 다시 이어진 문장과 안은문장으로 나뉜다. 이어진 문장은 두 개의 홀문장이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지는 ⑦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앞의 홀문장이 뒤의 홀문장에 종속적으로 연결되는 ⑮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하 생략)

- ① ⑦: 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 ② ⑦: 어제는 눈이 왔고 오늘은 비가 온다.
- ③ ⑮: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든다.
- ④ ⑮: 공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았다.

109

밑줄 친 부분이 <보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7. 서울시 7급]

<보기>

국어에는 동일한 모음이 연속될 때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 ① 늦었으니 어서 자.
- ② 여기 잠깐만 서서 기다려.
- ③ 조금만 천천히 가자.
- ④ 일단 가 보면 알 수 있겠지.

04

2016년 기출문제

110

다음 중 음운 변동과 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경찰직 1차]

- ① 놓치다
- ② 혀웃음
- ③ 똑같이
- ④ 닫히다

111

표준 발음에서 축약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2016. 사회복지직 9급]

- ① 교체: 부엌 [부억]
- ② 축약: 붙여 [부쳐]
- ③ 탈락: 담가도 [담가도]
- ④ 첨가: 피어도 [피여도]

112

우리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경찰직 2차]

- ① 현대 국어의 표준어에서는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의미를 변별할 수 있다.
- ② 우리말의 자음 체계에서 ‘비음’과 ‘유음’의 분류는 조음(調音) 위치에 따른 것이다.
- ③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④ 우리말 품사 중 감탄사는 활용하지 않는데 대답할 때 쓰는 ‘예, 아니요’가 그 예이다.

113

다음 중 음운변동의 성격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2016. 서울시 9급]

- ① ‘옳다’는 [울타]로, ‘옳지’는 [울치]로 발음된다.
- ② ‘주다’와 어미 ‘–어라’가 만나 ‘줘라’가 되었다.
- ③ ‘막혀’는 [마켜]로, ‘맞힌’은 [마친]으로 발음된다.
- ④ ‘가다’와 어미 ‘–아서’가 만나 ‘가서’가 되었다.

114

다음 팔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 경찰직 2차]

우리말의 단어 형성 유형을 우선 단일어와 복합어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고, 다시 복합어는 파생어와 합성어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합성어의 예로는 ()를 들 수 있는데 이 단어는 발음할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적용된다.

- | | |
|----------|-----------|
| ① 흙내(명사) | ② 저녁내(부사) |
| ③ 끝내(부사) | ④ 막내(명사) |

115

다음 문장에서 ‘–었–/–았–/–였–’의 문법적 기능이 밀줄 친 예와 가장 유사한 것은?

[2016. 경찰직 2차]

그 두 사람은 쌍둥이인 것처럼 서로 정말 닮았다.

- ① 모두가 기다리던 그가 밤늦게 공항에 도착하였다.
- ② 윤희는 예쁜 파란색 모자를 사고서는 방금 떠났다.
- ③ 그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와 달리 정말로 잘생겼다.
- ④ 결국 곧 진실이 드러날 테니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116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2016. 서울시 9급]

- ① 그 가방에 소설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 ② 넓은 들판에는 농부가 한둘 눈에 뛸 뿐 한적했다.
- ③ 두 사람은 서로 다투다가 화해했다.
- ④ 보따리에서 석류가 두세 개 굴러 나왔다.

117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2016. 서울시 7급]

- ① 잠이 모자라서 늘 피곤하다.
- ② 사업을 하기에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 ③ 어느새 새벽이 지나고 날이 밝는다.
- ④ 한 마리였던 돼지가 지금은 열 마리로 늘었다.

118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관형사가 아닌 것은?

[2016. 국회직 8급]

- ① 부모에게 불효하는 고양 녀석 같으니라고.
- ② 남편을 기다리며 이렇게 하고많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 ③ 긴긴 세월을 인내하며 노력해 왔다.
- ④ 그 사람은 서울에서도 한다하는 집안에서 자랐다.
- ⑤ 그는 자기 일 밖의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

119

다음 밑줄 친 ‘–고’의 용법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2016. 국회직 8급]

- ① 일년초도 적당한 간격으로 속아 줘야 하고 심지 않았는데도 건강하게 영역을 넓혀가는 머위, 돌나물 등 식용할 야채를 거두기도 한다.
- ② 열 손가락을 하늘 향해 높이 쳐들고 도심의 변화가를 활보하는 유쾌하고 엽기적인 늙은이를 상상해 본다.
- ③ 매해 보는 거지만 5월의 신록은 매번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고 눈부시다.
- ④ 마음을 씻고 나서 그래도 몸담고 있는 세상 돌아가는 일도 대강은 알아둬야 할 것 같아 신문을 펴 듦다.
- ⑤ 한결같이 몽실몽실 부드럽고 귀여운, 꼭 아기 궁둥이 같은 게 오월의 나무들이다.

120

명사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2016. 지방직 9급]

- ① 타율에 관한 한 독보적인 기록도 깨졌다.
- ② 상자에 이런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 ③ 친구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항상 못되게 군다.
- ④ 저 모퉁이에서 얼굴이 하얀 이가 걸어오고 있다.

121

밑줄 친 단어와 품사가 같은 것은?

[2016. 사회복지직 9급]

쓰러져 가는 집에서 늙은 아버지가 홀로 기다리고 계셨다.

- ① 저 기차는 정말 번개처럼 빠르네.
- ② 박사는 이제 그를 조수로 삼았네.
- ③ 산나물은 바다의 미역과 다르겠지.
- ④ 걸모습보다 마음이 정말 예뻐야지.

122

밑줄 친 보조사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가직 9급]

- ① 그렇게 천천히 가다가는 지각하겠다.
– 는: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냄
- ② 웃지만 말고 다른 말을 좀 해 보아라.
– 만: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냄
- ③ 단추는 단추대로 모아 두어야 한다.
– 대로: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냄
- ④ 비가 오는데 바람조차 부는구나.
– 조차: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을 나타냄

123

다음 중 형태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2016. 서울시 7급]

- ① 떠나갔던 배가 돌아왔다.
- ② 머리를 숙여 청하오니.
- ③ 잇따라 불러들였다.
- ④ 아껴 쓰는 사람이 되자.

124

다음 중 서술어의 자릿수를 잘못 제시한 것은?

[2016. 서울시 7급]

- ① 우정은 마치 보석과도 같다. → 두 자리 서술어
- ② 나 엊저녁에 시험 공부로 녹초가 됐어. → 두 자리 서술어
- ③ 철수의 생각은 나와는 아주 달라. → 세 자리 서술어
- ④ 원영이가 길가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어. → 세 자리 서술어

125

다음 중 단어의 짜임이 <보기>와 같은 것은?

[2016. 서울시 9급]

<보기>

놀리- + -ㅁ
↓(파생)
손 + 놀림
↓(합성)
손놀림

- | | |
|-------|-------|
| ① 책꽂이 | ② 헛소리 |
| ③ 가리개 | ④ 혼들림 |

126

다음 중 비통사적 합성어끼리 끌인 것은? [2016. 서울시 7급]

- ① 소나무, 빛나다, 살코기, 나가다
- ② 접칼, 깊주리다, 부슬비, 검붉다
- ③ 감발, 묵밭, 오가다, 새해
- ④ 큰집, 늦더위, 안팎, 출랑새

127

다음 중 합성어로만 이루어진 것은? [2016. 국희직 8급]

- ① 밤낮, 새해, 나뭇잎, 돌보다, 똑같다
- ② 군불, 짓밟다, 헛고생, 돌배, 빛나다
- ③ 산비탈, 해맑다, 밤하늘, 치솟다, 먹히다
- ④ 앞뒤, 작은아버지, 터려, 갈림길, 하루하루
- ⑤ 풋고추, 톱질, 잡히다, 높푸르다, 올벼

128

비통사적 합성어로만 끌인 것은?

[2016. 지방직 9급]

- | | |
|------------|-------------|
| ① 열쇠, 새빨갛다 | ② 덮밥, 짙푸르다 |
| ③ 감발, 돌아가다 | ④ 젊은이, 가로막다 |

129

밑줄 친 단어 가운데 품사를 바꾸어 주는 접사가 포함된 것은?

[2016. 지방직 7급]

- ① 그 남자가 미간을 좁혔다.
- ② 청년이 여자의 어깨를 밀쳤다.
- ③ 이 말에 그만 아버지의 올화가 치솟았다.
- ④ 나는 문틈 사이에 눈을 대고 바깥을 엿보았다.

130

다음 중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서울시 9급]

<보기>

주동문	⑦ 아이가 밥을 먹었다.	⑧ 마당이 넓다.
	↓	↓
사동문	⑨ 어머니가 아이에게	⑩ 인부들이 마당
	밥을 먹게 하였다.	을 넓혔다.

- ① ⑦, ⑧을 보니, 사동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군.
- ② ⑨, ⑩을 보니,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 나타날 수 있군.
- ③ <보기>를 보니, 동사만 사동화될 수 있군.
- ④ <보기>를 보니,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변화할 수 있군.

131

안긴문장이 주성분으로 쓰이지 않은 것은? [2016. 국가직 9급]

- ① 그 학교는 교정이 넓다.
- ②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다.
- ③ 아이들이 놀다 간 자리는 항상 어지럽다.
- ④ 대화가 어디로 틀지 아무도 몰랐다.

132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2016. 서울시 9급]

- ㉠ 철수 밥 먹는다.
- ㉡ 그 사람이 그런 심한 말을 하다니.
- ㉢ 오늘 내가 본 영화는 세계 10대 명화에 속한다고 한다.
- ㉣ 민한경 씨가 익명의 독지가였음이 밝혀졌다.

- ① ㉠에서 ‘철수’, ‘밥’은 단어이자 어절로서 각각 주어, 부사어의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에서 ‘그 사람이’, ‘그런 심한 말을’은 각각 주어, 목적어 성분이 절로 실현된 것이다.
- ③ ㉢에서 오늘 내가 본은 관형어 기능을 하며 절로 실현되어 있다.
- ④ ㉣에서 ‘민한경 씨가 익명의 독지가였음’이는 목적어 성분으로서 명사절로 실현되어 있다.

133

밑줄 친 안긴문장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지방직 7급]

나는 ㉠ 내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중원 고구려비를 조사하였다. ㉡ 중원 고구려비는 장수왕이 남한강 유역의 여려 성을 공략하고 개척한 후에 세운 기념비라고 한다. 5세기 후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5세기 후반이면 지금으로부터 1,500년 이전에 세워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음으로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중원 고구려비에 대한 내용을 찾았다. 이 설명은 ㉢ 중원 고구려비가 이제 나라의 재산임을 ㉣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다.

- ① ㉠ 관형절
- ② ㉡ 인용절
- ③ ㉢ 서술절
- ④ ㉣ 부사절

134

다음 중 피동과 사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6. 서울시 7급]

- ① 동사에 따라서는 사동사와 피동사의 형태가 같은 경우도 있다.
- ② 사동 접사는 타동사뿐 아니라 자동사나 형용사와도 결합할 수 있다.
- ③ 사동문과 피동문 각각에 대응하는 주동문과 능동문이 없는 경우도 있다.
- ④ 일반적으로 단형 사동은 사동주의 직접 행위는 물론 간접행위도 나타내는데, 장형 사동은 사동주의 직접 행위를 나타낸다.

135

다음 중 국어의 문장성분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2016. 서울시 7급]

- ㉠ 주어는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숫자가 다르다.
- ㉡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사어는 주성분에 속한다.
- ㉢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의 문장성분은 주어, 부사어, 서술어이다.
- ㉣ 부사어는 관형이나 다른 부사어를 수식하기도 한다.
- ㉤ 체언에 호격조사가 결합된 형태는 독립어에 해당된다.
- ㉥ 문장에서 주어는 생략될 수 있지만 목적어는 생략될 수 없다.

- ① ㉠, ㉡, ㉢
③ ㉢, ㉣, ㉤

- ② ㉡, ㉢, ㉣
④ ㉢, ㉤, ㉥

05 2015년 기출문제

136

다음의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에 쓰인 우리말 음운은 몇 개인가?
[2015. 경찰직]

총알이 창을 깨고 날아갔다.

- ① 13개 ② 14개
③ 15개 ④ 16개

137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예로만 묶은 것은?

[2015. 교육행정직 9급]

〈보기〉

불규칙 용언은 그 활용형에 따라 ㉠ 어간만이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것, 어미만이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것, ㉡ 어간과 어미 모두가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뉜다.

- | ㉠ | ㉡ |
|------------|----------|
| ① (고기를)굽다 | (진실을)깨닫다 |
| ② (고기를)굽다 | (하늘의)파랗다 |
| ③ (들판이)푸르다 | (진실을)깨닫다 |
| ④ (들판이)푸르다 | (하늘의)파랗다 |

138

〈보기〉의 ⑦과 ⑧에 알맞은 것으로 짹지은 것은?

[2015. 교육행정직 9급]

〈보기〉

‘몇 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⑦가 되고, 다시 ⑧에 의해 [며태]로 소리 난다.

⑦

⑧

- | | |
|--------|----|
| ① [멸해] | 축약 |
| ② [멸해] | 탈락 |
| ③ [멸해] | 축약 |
| ④ [멸해] | 탈락 |

139

〈보기〉의 (가)와 (나)가 옳게 짹지어진 것은?

[2015. 기상직 7급]

〈보기〉

(가) 음운의 변동 양상

- ⑦ 어떤 음운이 음절의 끝 위치에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⑧ 한 음운이 인접하는 다른 음운의 성질을 향아가는 현상
- ⑨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결합하거나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현상

(나) 예시

- | | |
|-----------|----------|
| ⓐ 촛불, 나뭇집 | ⓑ 닫는, 찰나 |
| ⓒ 좋고, 많다 | ⓓ 바깥, 부엌 |

⑦

⑧

⑨

① Ⓛ

② Ⓝ

③ Ⓛ

② Ⓛ

③ Ⓛ

④ Ⓛ

③ Ⓛ

④ Ⓛ

⑤ Ⓛ

④ Ⓛ

⑥ Ⓛ

⑦ Ⓛ

140

다음의 음운 규칙이 모두 나타나는 것은? [2015. 사회복지직 9급]

- 음절의 끝소리 규칙: 우리말의 음절의 끝에서는 7개의 자음만이 발음됨.
- 비음화: 끝소리가 파열음인 음절 뒤에 첫소리가 비음인 음절이 연결될 때, 앞 음절의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① 덮개[덥깨]

② 문고리[문꼬리]

③ 꽃망울[꼰망울]

④ 광한루[광할루]

141

〈보기〉를 참조할 때, ⑦과 ⑧이 동시에 드러난 사례를 고르면?

[2015. 법원직]

〈보기〉

- ⑦ 음절끝소리 규칙은 발음 위치에 있는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으로만 발음되는 현상이다. 밖[박], 부엌[부억], 낮[남], 숲[습]과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 ⑧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 ㅁ, ㅇ’으로 동화되는 현상이다. 닫는다[단는다], 접는다[접는다], 먹는다[멍는다]를 예로 들 수 있다.

① 입는다[임는다]

② 돋는[돈는]

③ 낫다[낫따]

④ 앞만[암만]

142

국어의 음운 현상에는 대치, 탈락, 첨가, 축약, 도치가 있다.

다음에 제시된 단어들 중 동일한 음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 끼리 묶인 것은?

[2015. 서울시 7급]

⑦ 굳이

⑧ 끊더라

⑨ 뒷일

⑩ 무릎

⑪ 배꼽(<빚복>)

⑫ 싫어도

⑬ 있지

⑭ 잡히다

① ⑦, ⑨, ⑩

② ⑦, ⑩, ⑪

③ ⑧, ⑪, ⑫

④ ⑨, ⑪, ⑫

143

국어의 음운 현상에는 아래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 <보기>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음운 현상의 유형을 순서대로 고르면?

[2015. 서울시 9급]

- | | |
|-----------------|------------------|
| ⑦ XAY → XBY(대치) | ⑧ XAY → XØY(탈락) |
| ⑨ XØY → XAY(첨가) | ⑩ XABY → XCY(축약) |

술+하고 → [손하고] → [소타고]
(가) (나)

- | | |
|--------|--------|
| ① ⑦, ⑧ | ② ⑦, ⑩ |
| ③ ⑨, ⑪ | ④ ⑩, ⑨ |

144

밑줄 친 부분 중 음운의 탈락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2015. 지방직 7급]

- ① 지난해 새로 집을 지었다.
- ② 잘 우는 남자는 매력이 없다.
- ③ 그는 사과문을 써서 벽에 붙였다.
- ④ 국이 뜨겁고 매워서 먹지 못하겠다.

145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2015. 지방직 9급]

- 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다.
- ② 성격이 다른 사람끼리는 함께 살기 어렵다.
- ③ 새해에는 으레 새로운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 ④ 몸이 아픈 사람은 교실에 남아 있었다.

146

다음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되지 않는 단어는?

[2015. 서울시 9급]

<보기>

접미사는 품사를 바꾸거나 자동사를 타동사로 바꾸는 기능을 한다.

- | | |
|-------|-------|
| ① 보기 | ② 낫샵 |
| ③ 낫추다 | ④ 꽃답다 |

147

밑줄 친 부분 중 보조 용언이 결합되지 않은 것은?

[2015. 국가직 9급]

- ① 창문 너머로 날이 밝아 온다.
- ② 동생이 내 과자를 먹어 버렸다.
- ③ 우체국에 들려 선배의 편지를 부쳐 주었다.
- ④ 그는 환갑이 지났지만 40대처럼 젊어 보인다.

148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2015. 지방직 7급]

- ① 금고 가득히 눈부신 금괴가 쌓여 있었다.
- ② 바람이 가볍게 부는 날씨에 기분 좋았다.
- ③ 소인은 없이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 ④ 반죽이 되게 둑어 국수 만들기가 힘들다.

149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 세과 다른 하나는?

[2015. 서울시 7급]

- ① 오늘은 비가 올 듯하다.
- ②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 ③ 아기는 아버지를 빼다 박은 듯 닮았다.
- ④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인다.

150

〈보기〉의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바르게 짹지는 것은?

[2015. 교육행정직 9급]

〈보기〉

같은 형태가 때로 서로 다른 품사에 속하기도 한다. 글씨가
 ㉠ 크지 않아서 잘 안 보인다. 가뭄 때문에 나무가 제대로
 ㉡ 크지 못해서 걱정이다. 회의 자료는 ㉢ 어제 다 마련해
 두었다. 민원 때문에 ㉣ 어제 오후에 회의가 개최되었다.

<u>㉠</u>	<u>㉡</u>	<u>㉢</u>	<u>㉣</u>
① 동사	형용사	명사	부사
② 형용사	동사	명사	부사
③ 동사	형용사	부사	명사
④ 형용사	동사	부사	명사

151

밑줄 친 단어 중 동사만을 모두 고른 것은?

[2015. 국가직 7급]

- ㉠ 옥수수는 가만 두어도 잘 큰다.
- ㉡ 이 규칙을 중시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 ㉢ 그 연예인도 사람인지라 늙는 것은 어쩔 수 없구나.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52

〈보기〉의 ㉠~④ 중 다음 밑줄 친 '먹기'와 품사가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5. 기상직 9급]

〈보기〉

나는 배가 고파 더 많이 먹기 시작했다.

- ㉠ 그는 밤새 믿기지 않는 꿈을 꾸었다.
- ㉡ 그는 '초상화를 잘 그림'이라고 썼다.
- ㉢ 그의 바람은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었다.
- ㉣ 그는 빙그레 웃음으로써 마음을 전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153

다음의 밑줄 친 단어와 품사가 같은 것은? [2015. 기상직 7급]

다른 친구는 없니?

- ㉠ 장터에는 온갖 물건들이 있었다.
- ㉡ 도대체 생김새가 어떤 사람이니?
- ㉢ 사정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 ㉣ 새로운 세금 제도는 국민의 환영을 받았다.

154

다음 〈보기〉 가운데 우리말의 관형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2015. 서울시 7급]

〈보기〉

- ㉠ 관형어는 명사, 대명사, 수사와 같은 체언류를 꾸미는 문장성분이다.
- ㉡ 명사는 그대로 관형어가 될 수 있다.
- ㉢ 동사나 형용사도 관형어가 될 수 있다.
- ㉣ 조사 '의'는 관형어를 만드는 중요한 격조사이다.

- ① ㉠, ㉡, ㉢, ㉣

- ② ㉠, ㉢, ㉣

- ③ ㉡, ㉢

- ④ ㉡, ㉣

155

〈보기〉의 문장을 형태소로 분석할 때 전체 형태소는 몇 개인가?

[2015. 경찰직]

〈보기〉

떡볶이를 팔 사람은 어서 가.

- | | |
|-------|-------|
| ① 8개 | ② 9개 |
| ③ 10개 | ④ 11개 |

156

통사적 합성어로만 둑인 것은?

[2015. 국가직 7급]

- | | |
|-------------|-------------|
| ① 흔들바위, 곶감 | ② 새언니, 척척박사 |
| ③ 길짐승, 높푸르다 | ④ 어린이, 가져오다 |

157

다음 중 파생어끼리 짹지어진 것은?

[2015. 서울시 7급]

- | | |
|------------|-----------|
| ① 동화책-책상 | ② 맨손-울보 |
| ③ 시동생-어깨동무 | ④ 크다-복스럽다 |

158

다음 중 비통사적 합성어로 둑인 것이 아닌 것은?

[2015. 기상직 7급]

- | | |
|----------------------|-----------------------|
| ① 늦잠, 덮밥, 접칼, 여닫다 | ② 등산, 독서, 설익다, 뛰놀다 |
| ③ 우짖다, 겜푸르다, 어린이, 안팎 | ④ 헐떡고개, 곶감, 척척박사, 출랑새 |

159

다음 예들과 동일한 구성 방식을 보이는 단어로 옮은 것은?

[2015. 국회직 9급]

굶주리다, 늦더위, 높푸르다, 덮밥

- | | |
|-------|---------|
| ① 논밭 | ② 첫사랑 |
| ③ 늙은이 | ④ 가로지르다 |
| ⑤ 곶감 | |

160

()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2015. 국가직 9급]

‘개살구’, ‘잠’, ‘새파랗다’ 등은 어휘 형태소인 ‘살구’, ‘자 –’, ‘파랗 –’에 ‘개 –’, ‘– 모’, ‘새 –’와 같은 접사가 덧붙어서 파생된 단어들이다. 이처럼 직접 구성 요소 중 접사가 확인되는 단어들을 ‘파생어’라고 한다. 반면, () 등은 각각 실질적 의미를 지닌 두 요소가 결합하여 한 단어가 된 경우인데, 이를 ‘합성어’와 구분하여 ‘합성어’라고 한다.

- | | |
|----------------------|-----------------------|
| ① 고추장, 놀이터, 손짓, 장군감 | ② 면도칼, 서릿발, 쉰둥이, 장난기 |
| ③ 깍두기, 선생님, 작은형, 핫바지 | ④ 김치찌개, 돌다리, 시나브로, 암탉 |

161

다음 글을 참고할 때 동일한 단어 형성법으로 구성된 단어 들로만 둑인 것은?

[2015. 국회직 8급]

- | | |
|-------------------------|------------------------|
| ① 몹시, 새빨갛다, 높푸르다, 돌아가시다 | ② 먹이, 노리개, 찌개, 겜푸르다 |
| ③ 잡아먹다, 지우개, 놀이, 참깨 | ④ 휘두르다, 기와집, 참답다, 슬기롭다 |
| ⑤ 군식구, 끝내, 정답다, 애호박 | |

162

밑줄 친 부분이 주성분이 아닌 것은? [2015. 교육행정직 9급]

- ① 그는 나에게 맹물만 주었다.
- ② 그 사람 말은 사실도 아니었다.
- ③ 우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
- ④ 정부에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63

다음 설명을 반영한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2015. 국회직 8급]

단독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어근이나 단어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을 접사라고 하는데, 접두사와 접미사가 있다. 접두사는 어근이나 단어의 앞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기능을 한다. 일부 접두사의 경우 관형사와 혼동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접두사는 결합이 제한적인 반면에 관형사는 결합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는 점이 다르다. 접두사는 붙여 쓰고 관형사는 띄어 쓴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일상생활에서 띄어쓰기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① 누구나가 새옷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조금씩 강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봄이 찾아왔다.
- ③ 거기에 웃돈을 주고라도 살 만한 물건이 있는가?
- ④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만큼 먹어라.
- ⑤ 아영이가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 배, 귤등이다.

164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것은? [2015. 국가직 7급]

- ① 어느 학교의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 ② 손에 익은 연장이라서 일이 빨리 끝나겠다.
- ③ 정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가 드디어 발표되었다.
- ④ 그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고자 편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165

다음 중 문장의 짜임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2015. 서울시 7급]

- ① 그 일은 하기가 쉽지 않다.
- ② 봄이 오면 꽃이 핀다.
- ③ 철수는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 ④ 우리는 인간이 존귀하다고 믿는다.

166

구조에 따라 문장의 유형을 분류할 때 <보기>에 쓰인 문장과 가장 유사한 것은? [2015. 경찰직]

<보기>

해가 지는 장면이 무척 아름답다.

- ① 어제 진호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 ② 영웅이 돌아올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었다.
- ③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당장 사퇴하겠다.
- ④ 강희는 영호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167

다음 중 문장의 구조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2015. 국회직 8급]

- ① 이 비가 그치면 날씨가 더워질 듯하다.
- ② 그는 고향에 가더라도 큰집에 들르지 않는다.
- ③ 내일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겠습니다.
- ④ 형은 동생이 한 잘못을 감싸 주었습니다.
- ⑤ 어떤 일이 생겨도 내일은 꼭 완성하겠습니다.

E B S 공 무 원 국 어 기 출 문 제 집

Chapter 03 표준발음

01

2019년 기출문제

01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현행 표준 발음법에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단, ‘.’은 장모음 표시임.)

[2019. 서울시 9급]

- ① 비가 많이 내려서 물난리가 났다. –물난리[물랄리]
- ② 그는 줄곧 신문만 읽고 있었다. –신문[심문]
- ③ 겨울에는 보리를 밟는다. –밟는다[밤:는다]
- ④ 날씨가 별씨 한여름과 같다. –한여름[한녀름]

02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2019. 서울시 7급]

- ① 핫다[핫따]
- ② 밟게[밥:께]
- ③ 얹거나[얼거나]
- ④ 맑고[막꼬]

03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019. 지방직 9급]

- | | |
|------------|------------|
| ⑦ 가을일[가을릴] | ⑧ 텁마당[텅마당] |
| ⑨ 입학생[이파쌩] | ⑩ 흉먼지[흉먼지] |

- ① ⑦: 한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 ② ⑧: 인접한 음의 영향을 받아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 ③ ⑨: 음운 변동 전의 음운 개수와 음운 변동 후의 음운 개수가 서로 다르다.
- ④ ⑩: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규칙이 적용된다.

02

2018년 기출문제

04

밑줄 친 발음이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2018. 국가직 7급]

- ① 연계[연계] 교육
- ② 차례[차례] 지내기
- ③ 충의의[충이의] 자세
- ④ 논의[노느]에 따른 방안

05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의 발음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9급]

—————<보기>—————

손 자: 할아버지. 여기 있는 ⑦밭을 우리가 다 매야 해요?
할아버지: 응. 이 ⑧밭만 매면 돼.
손 자: 이 ⑨밭 모두요?
할아버지: 왜? ⑩밭이 너무 넓으니?

① ⑦: [바슬]

② ⑧: [반만]

③ ⑨: [반]

④ ⑩: [바치]

06

표준 발음법 상 ‘ㄹ’의 발음이 동일한 것들을 바르게 묶은 것은?

[2018. 서울시 7급]

- ① 상견례, 의견란, 백리
- ② 임진란, 공권력, 광한루
- ③ 관령, 입원료, 협력
- ④ 동원령, 구근류, 난로

07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2018. 교육행정 7급]

- ① 끝을[꼬출]
- ② 꽃밭이[꽃빠치]
- ③ 아침녁의[아침녀끼]
- ④ 웃놀이도[윤노리도]

03

2017년 기출문제

08

밑줄 친 ⑦을 고려할 때 표준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서울시 사회복지직]

「표준어 규정」 제2부 표준 발음법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4. ⑦ ㅎ(ㄶ, ㅕ)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예 낳은[나은], 쌓이다[싸이다], 많아[마:나], 싫어도[시러
 도]

- ① 바지가 다 닳아서[다라서] 못 입게 되었다.
- ② 저녁 반찬으로 찌개를 끓이고[끄리고] 있다.
- ③ 가지고 온 책은 책상 위에 놓아[노아] 두렵.
- ④ 기회를 놓치지 않은[안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하더라.

09

다음 중 표준 발음법에서 규정한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2017. 경찰직 1차]

- | | |
|--------------|--------------|
| ① 시계 [시계/시계] | ② 문법 [문맵/뭄맵] |
| ③ 읊고 [읍꼬] | ④ 되어 [되어/되여] |

10

다음 중 단어의 표기나 발음이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회직 8급]

- ① 나는 커서 선생님이 되고[뤄고] 싶다.
- ② 한글 자모 ‘ㅌ’의 이름에 조사가 붙을 때의 발음은 ‘티
 글+이’ [티그시], ‘티글+을’[티그슬]이다.
- ③ 내 발을 밟지[밥:찌] 마라.
- ④ 웬일[웬:닐]로 학교에 왔니?
- ⑤ 운동장이 생각보다 넓지[널찌] 않다.

11

표준 발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⑦과 ⑧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묶은 것은?
[2017. 지방 교육행정직 7급]

- 발음 규정 1: 겹받침 ‘ㄹ’, ‘ㅌ’은 모음 앞에서 각각 ‘ㄱ’, ‘ㅂ’만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발음 규정 2: 겹받침 ‘ㄹ’, ‘ㅌ’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⑦ ‘_____’(으)로 발음한다. 그러나 ⑧ ‘_____’와/과 같은 경우는 ‘발음 규정 2’가 적용되지 않는다.

- | ⑦ | ⑧ |
|------------|---------|
| ① [ㄱ], [ㄹ] | 늙지, 넓죽한 |
| ② [ㄱ], [ㄹ] | 맑고, 밟거나 |
| ③ [ㄹ], [ㅂ] | 굵다, 셀지 |
| ④ [ㄹ], [ㅂ] | 묽게, 얇게 |

12

다음 <보기>의 밑줄 친 ⑦~⑩에 대한 표준발음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2017. 국회직 8급]

<보기>

- ⑦ 깃발이 바람에 날리다. –[기빨]
- ⑧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 –[불법쩍]
- 나는 오늘 점심을 ⑨ 면류로 간단히 떼웠다. –[멸류]
- ⑩ 도매금은 도매로 파는 가격을 말한다. –[도매금]
-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위를 한다면 ⑪ 공권력 발동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다. –[공·권력]

- | | |
|-----------|-----------|
| ① ⑦, ⑧, ⑨ | ② ⑦, ⑧, ⑩ |
| ③ ⑦, ⑩, ⑨ | ④ ⑧, ⑨, ⑩ |
| ⑤ ⑧, ⑨, ⑩ | |

04

2016년 기출문제

13

다음 중 표준 발음법에 맞지 않은 것은? [2016. 경찰직 1차]

- | | |
|-----------|-----------|
| ① 맑다 [말따] | ② 흙과 [흑꽈] |
| ③ 넓다 [널따] | ④ 밟다 [밥따] |

14

표준 발음법에 맞지 않는 것은? [2016. 국가직 7급]

- | | |
|-------------|--------------|
| ① 솜이불[솜:나불] | ② 직행열차[지챙열차] |
| ③ 내복약[내:봉냑] | ④ 막일[망닐] |

15

다음 중 단어의 발음이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2016. 서울시 9급]

- | |
|----------------------|
| ① 디귿이[디그시], 혼이불[흔니불] |
| ② 뚫는[풀는], 밟히다[발키다] |
| ③ 할다[할따], 넓죽하다[넙쭉카다] |
| ④ 흙만[흑만], 동원령[동:원녕] |

16

다음 중 「표준어 규정」에 맞게 발음한 문장은?

[2016. 서울시 7급]

- ① 불법[불법]으로 고가[고까]의 보석을 훔친 도둑들이 고가[고가]도로로 도망치고 있다.
- ② 부정한 사건이 물허지[무치지] 않도록 낱낱이[낱나치] 밝혀 부패가 끌이[끄치] 나도록 해야 한다.
- ③ 꽃 위[꼬 뒤]에 있는[인는] 나비를 잡기 위해 나비 날개의 끌을[끄周恩] 잡으려고 했다.
- ④ 부자[부:자]간에 공동 운영하는 가게에 모자[모자]가 들려 서로 모자[모:자]를 선물했다.

17

다음 중 표준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회직 8급]

- ① 이 방 생각보다 많이 넓네[널레].
- ② 그는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숙맥[승맥]이다.
- ③ 이 영화에서는 빛의 효과[효:과]로 주제를 부각시켰다.
- ④ 그들의 화려한 공약은 속임수[소김수]에 지나지 않았다.
- ⑤ 그는 알약[알약] 서너 알을 입 안에 털어 넣고 물을 마셨다.

05

2015년 기출문제

18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하지 않은 것은?

[2015. 국회직 9급]

- ① 그렇게 썰면 조금 얇지[얇:찌] 않을까요?
- ② 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 주변 지역을 살살이 훑고[훑꼬] 있다.
- ③ 정치가 좋으니 시나 한 수 읊고[읍꼬] 시작하시다.
- ④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하늘이 참 맑습니다[말씀니다].
- ⑤ 늙고[늘꼬] 병든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 또한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19

밑줄 친 부분의 표준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사회복지직]

- ① 길을 떠나기 전에 뱃속을 든든하게 채워 두자. –[배속]
- ② 시를 읽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일따]
- ③ 외래어를 표기할 때 받침에 ‘드’를 쓰지 않는다. –[디그슬]
- ④ 우리는 금융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다. –[금능]

20

다음 중 발음 표기가 옳은 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2015. 국회직 8급]

- ① 늙고 [늘꼬], 은혜 [은혜], 않는 [알른]
- ② 맑지 [막찌], 의견란 [의:결란], 밭이랑 [반니랑]
- ③ 반창고 [반창고], 얇지 [狎:찌], 계시다 [계:시다]
- ④ 쌈네 [싼네], 밟다 [밥:따], 이글이글 [이글이글]
- ⑤ 뚫네 [풀네], 값있는 [가빈는], 망막염 망망념]

Chapter 04 맞춤법

01

2019년 기출문제

01

맞춤법 사용이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만 둑인 것은?

[2019. 서울시 9급]

- ① 웃어른, 사흘날, 베갯잇
- ② 닐리리, 남존녀비, 혜택
- ③ 적잖은, 생각진대, 하마터면
- ④ 훌봄, 빛밋하다, 선율

02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만 나열한 것은?

[2019. 서울시 9급]

- ① 새까맣다—싯꾀렇다—샛노랗다
- ② 시뻘겋다—시히옇다—싯누렇다
- ③ 새꾀렇다—새빨갛다—샛노랗다
- ④ 시하얗다—시꺼멓다—싯누렇다

03

〈보기〉의 설명에 따라 올바르게 표기된 경우가 아닌 것은?

[2019. 서울시 9급]

〈보기〉

-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① 섭섭지
- ② 혼타
- ③ 익숙치
- ④ 정결타

04

밑줄 친 단어의 기본형이 옳지 않은 것은? [2019. 국가직 7급]

- ① 아침이면 얼굴이 부어서 늘 고생이다. (→ 봇다)
- ② 개울물이 불어서 징검다리가 안 보인다. (→ 불다)
- ③ 은행에 부은 적금만도 벌써 천만 원이다. (→ 봇다)
- ④ 물속에 오래 있었더니 손과 발이 통통 불었다.
(→ 불다)

05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것은?

[2019. 서울시 7급]

- ① 바짝 준 찌개를 다시 끓였다.
- ② 가을이라 그런지 은행잎들이 정말 노라네.
- ③ 않은 자세가 곧발라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 ④ 생김은 저러나 마음은 매우 유순하다.

06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는 것은?

[2019. 지방직 9급]

- ① 이 가곡의 노래말은 아름답다.
- ② 그 집의 순대국은 아주 맛있다.
- ③ 하교길은 늘 아이들로 북적인다.
- ④ 선생님은 간단한 인사말을 건넸다.

07

사이시옷 표기가 모두 옳지 않은 것은?

[2019. 서울시 7급]

- ① 봉엇뻥—공붓벌레
- ② 마굿간—인사말
- ③ 공깃밥—백짓장
- ④ 도맷값—머릿털

08

현행 「한글 맞춤법」에 따른 표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 경찰직]

- ① 우리 기관에서는 신년도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3월부터입니다.
- ② 등굣길에 있는 신호등의 갯수와 점등 횟수를 점검하십시오.
- ③ 어떠해 번번히 합격율이 낮습니까?
- ④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내가 할게.

09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2019. 국가직 7급]

- ① 시간 내에 역에 도착하려면 가능한 빨리 달려야 합니다.
- ② 그는 그들에 뒤지지 않는 근력을 길렀기에 메달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 ③ 자율 학습 시간을 줄이는 대신 보충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입니다.
- ④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는 논평이 계속 이어지면서 발표 대회의 분위기는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10

밑줄 친 단어의 맞춤법이 옳은 것은? [2019. 국가직 7급]

- ① 그대와의 추억이 있으매 저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 ② 신제품을 선뜻어도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 ③ 생각지 못한 일이 자꾸 생기니 그때의 상황이 참 악心境요.
- ④ 그 발가승이 몸뚱이가 위로 번쩍 쳐들렸다가 물속에 텁벙 쳐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11

밑줄 친 단어의 형태가 옳지 않은 것은? [2019. 서울시 9급]

- ① 멀리서 보기와 달리 산이 가팔라서 여러 번 쉬었다.
- ② 예산이 100만 원 이상 모잘라서 구입을 포기해야 했다.
- ③ 영혼을 불살라서 이룬 깨달음이니 더욱 소중하다.
- ④ 말이며 행동이 모두 올발라서 흄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12

밑줄 친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은?

[2019. 경찰직]

- ① 형은 쉽지 않는 일만 골라 하는 편이다.
- ② 좋지도 않는 취미인데 주말만 되면 난리다.
- ③ 이 세상에서 늙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④ 예쁘지도 않는 화단을 뭐 그리 애써 가꾸니?

13

밑줄 친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은?

[2019. 경찰직]

- ① 사람들 말로는 동희가 가장 예쁘데.
- ② 신문 기사에서 내일 오전에는 무지 출데.
- ③ 내가 옆에 서 봤는데 농구 선수가 크긴 크데.
- ④ 요즘 들어 컴퓨터가 왜 이리 말썽을 일으킨데.

14

맞춤법 규정의 '원칙'에 맞게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경찰직]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공공 정책은 강력한 반대에 ① 부딪혀 공공 갈등을 유발한다. 이러한 공공 갈등에 접근하는 방법에는 사후적 접근과 예방적 접근이 있다. 사후적 접근은 일단 갈등이 야기되고 확대된 후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② 방법으로써 조정자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3자에 의한 조정이나 중재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예방적 접근은 공공 참여를 통해 공공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일반 시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③ 도모함으로써 공공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인바 합의 회의나 공론 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단 공공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④ 견갑을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의 양상이 확대되기 쉽다. 따라서 공공 정책을 집행할 때는 사후적 접근 방법보다 예방적 접근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다.

① ⑦

② ⑧

③ ⑨

④ ⑩

02

2018년 기출문제

15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적절한 것은?

[2018. 지역인재]

- ① 흙덩이를 잘게 부신 후 가져가세요.
- ② 그릇과 그릇이 부딪치는 소리가 요란했다.
- ③ 이 파이프는 굵기가 너무 얇아서 안 되겠다.
- ④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을 곁잡을 수가 없었다.

16

<보기>의 규정이 적용된 단어가 아닌 것은? [2018. 경찰 2차]

<보기>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예 삼질날[삼질+날] 순가락[술+가락]

① 풀소

② 여닫다

③ 잔주름

④ 선부르다

17

맞춤법 표기가 가장 옳은 것은?

[2018. 서울시 9급]

- ① 이렇게 하면 되?
- ② 이번에는 꼭 합격할께요.
- ③ 서로 도우고 사는 게 좋다.
- ④ 그 사람은 제가 잘 압니다.

18

준말의 표기가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18. 서울시 7급]

<보기>

- | | |
|-----------------|--------------|
| ㄱ. 되었다–뒀다 | ㄴ. 쓰이어–쓰여 |
| ㄷ. 뜨이어–찌어 | ㄹ. 적지 않은–적잖은 |
| ㅁ. 변변하지 않다–변변찮다 |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ㄴ, ㅁ

19

밑줄 친 용언의 활용형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7급]

- ① 아주 곤혹스런 상황에 빠졌다.
- ② 할아버지께 여쭈워 보시면 됩니다.
- ③ 라면이 분기 전에 빨리 먹어라.
- ④ 내 처지가 너무 설워서 눈물만 나온다.

20

다음 한글 맞춤법 규정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지방직 9급]

- (가)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나) 제19항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다)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라) 제20항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① (가): 미닫이, 졸음, 익히

② (나): 마개, 마감, 지붕

③ (다): 육손이, 집집이, 곰배팔이

④ (라): 끄트머리, 바가지, 이파리

21

맞춤법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9급]

- ① 철수는 열심히 일함으로써 보람을 느꼈다.
- ② 이제 각자의 답을 정답과 맞혀 보도록 해라.
- ③ 강아지가 고깃덩어리를 넘죽 받아먹었다.
- ④ 아이가 밥을 먹었을는지 모르겠어.

24

밀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2018. 지방직 7급]

- ① 밥이 차져서 내 입맛에 맞았다.
- ② 아기가 이쁘디이쁜 미소를 짓고 있다.
- ③ 그녀가 내 소맷깃을 슬며시 잡아당겼다.
- ④ 동생은 안경을 맞춘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안경 도수를 더 둘구었다.

22

밀줄 친 부분의 어법이 틀린 것은? [2018. 교육행정 7급]

- ① 민원을 연월일별로 구체적으로 기록할 것.
- ② 중요한 임무를 떤 출장인 만큼 최선을 다할 것.
- ③ 공공장소에서는 휴대 전화 통화를 삼가서 타인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할 것.
- ④ 민원이 발생할 경우 매뉴얼대로 대응하므로써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23

밀줄 친 부분이 <보기>의 ‘가져라’와 같은 사례는?

[2018. 교육행정 9급]

<보기>

‘가지어라’의 축약형 ‘가져라’의 표준 발음은 [가져라]이지만 ‘가져라’로 적는다. 이는 형태를 밝혀 적는 방식이다.

- ① 우리 편 이겨라.
- ② 따뜻이 입고 다녀라.
- ③ 비빔밥을 맛있게 비벼라.
- ④ 고장이 난 시계를 얼른 고쳐라.

25

밀줄 친 부분의 고쳐쓰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지방직 7급]

- ① 그 일을 한 사람은 민국예요. → ‘민국이’와 ‘이에요’가 결합하였으므로, ‘민국예요’는 ‘민국이예요’로 바꾸어야 한다.
- ② 교실에서는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 문장을 종결하는 어미가 나와야 하므로, ‘주십시오’로 바꾸어야 한다.
- ③ 자신이 한 말은 반듯이 책임을 져야 한다. → ‘반듯이’는 ‘반듯하게’의 의미이므로 문맥에 맞게 ‘꼭’이라는 의미의 ‘반드시’로 고쳐야 한다.
- ④ 선수들의 잇딴 부상으로 전력에 문제가 생겼다. → 동사 ‘잇달-’과 어미 ‘-은’이 결합한 활용형은 ‘잇단’이므로, ‘잇딴’은 ‘잇단’으로 바꾸어야 한다.

26

다음은 사이시옷 규정의 일부이다.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2018. 지방직 7급]

-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① 넷가
③ 훗날

- ② 윗옷
④ 예산일

03

2017년 기출문제

27

다음 한글 맞춤법 제6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10월]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 ① 예시로는 ‘해돋이, 같이’가 있다.
- ② 위 조항은 한글 맞춤법 총칙 중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원리를 따른 것이다.
- ③ 종속적 관계란 체언, 어근, 용언 어간 등에 조사, 접사, 어미 등이 결합하는 관계를 말한다.
- ④ ‘잔디, 버티다’는 하나의 형태소에서 ‘ㄷ, ㅌ’과 ‘ㅣ’가 만난 것으로서 위 조항의 예에 해당된다.

28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 10월]

- ① 차에 치다. ② 고기를 쟤다.
③ 날이 개다. ④ 담배를 피다.

29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모두 옳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10월]

- ① 일이 챙 끝나기도 전에 그는 일어나 나갔다.
그는 여전히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
- ② 가을 논의 벼가 한참 무르익고 있었다.
그는 가방을 한창 바라보더니 가 버렸다.
- ③ 둘 사이는 친분이 두껍다.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층은 매우 두텁다.
- ④ 나이가 들어 머리가 많이 벗겨졌다.
바나나 껍질이 잘 벗어지지 않았다.

30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으로만 둑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 10월]

- ① 반듯이, 수나비, 예두르다
- ② 쓱싹쓱싹, 명중률, 푸주간
- ③ 등교길, 늄름하다, 깡충깡충
- ④ 돋보이다, 거적떼기, 야단법석

31

다음 편지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국가직 7급 10월]

⑦ 그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문득 선생님 생각이 나서 편지를 씁니다. ⑨ 선생님은 제자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⑩ 마다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제자들을 격려하셨고, 저처럼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다잡아 주셨지요. 선생님의 정성이 얼마나 ⑪ 고마웠던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⑫ 어쭙잖은 제가 그 은공을 어떻게 갚을 수 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⑭ 가능한 자주 ⑮ 연락드릴께요. 내내 평안하세요.

- ① ⑦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쓰고 ⑨은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 ② 높임법을 고려하여 ⑨은 ‘선생님께서는’으로, ⑪은 ‘고마우셨던지’로 바꾼다.
- ③ 의미를 고려하여 ⑬은 ‘마다하지 않으셨던’으로, ⑭은 ‘되도록’으로 고친다.
- ④ ⑮과 ⑯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각각 ‘어쭙잖은’과 ‘연락드릴게요’로 철자를 수정한다.

32

㉠과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지방직 7급]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 소리대로 적되,
㉡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음주의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 단어의 발음이 여러 가지로 실현되는 경우 소리대로 적는다면 뜻을 파악하기 어렵다. 어법이란 언어 조직의 법칙, 또는 언어 운용의 법칙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다는 것이다.

- ① ㉠: ‘살고기’로 적지 않고 ‘살코기’로 적음
- ② ㉠: ‘론의(論議)’로 적지 않고 ‘논의’로 적음
- ③ ㉡: ‘그피’로 적지 않고 ‘급히’로 적음
- ④ ㉡: ‘달달이’로 적지 않고 ‘다달이’로 적음

33

밑줄 친 말이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은?

[2017. 서울시 7급]

- ① 점심 설것이는 내가 할게.
- ② 일이 얼키고설켜서 풀기가 어렵다.
- ③ 감히 얻다가 대고 반말이야?
- ④ 모두 소매를 걷어부치고 달려들었다.

34

밑줄 친 어휘의 표기가 옳은 것은?

[2017. 지방직 7급]

- ① 달걀 파동으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 ② 식당에서 깎두기를 더 주문했다.
- ③ 손님은 종업원에게 당장 주인을 불러오라고 닥달하였다.
- ④ 작은 문 옆에 차가 드나들 수 있을 만큼 넓다란 길이 났다.

35

다음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7. 지역인재]

〈한글 맞춤법 제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 | | |
|-------|-------|
| ① 바느질 | ② 부수입 |
| ③ 소나무 | ④ 여닫이 |

36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2017. 지역인재]

- ① 봉투에 우표를 붙인 후 편지를 부쳤다.
- ② 배던지 사과던지 마음대로 먹어라.
- ③ 몇 문제나 맞혔는지 답안과 맞추어 봐라.
- ④ 생선을 조리며 혹시라도 태울까 봐 마음을 졸였다.

37

다음 <보기>에서 사이시옷에 대한 표기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만을 고른 것은? [2017. 경찰 2차]

<보기>

- | |
|------------------------|
| ① 대가 (○) / 댓가 (×) (代價) |
| ② 초점 (○) / 초점 (×) (焦點) |
| ③ 뒤풀이 (○) / 뒷풀이 (×) |
| ④ 아래층 (×) / 아래층 (○) |
| ⑤ 해님 (×) / 햇님 (○) |

- | | |
|--------|--------|
| ① ①, ② | ② ③, ④ |
| ③ ④, ⑤ | ④ ②, ③ |

38

한글 맞춤법 제30항의 사이시옷 표기 규정에 맞게 사이시옷을 표기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7. 경찰직 1차]

- ⑦ 첫사랑 ⑧ 횟수 ⑨ 등굣길 ⑩ 소나깃밥

- | | |
|--------|-----------|
| ① ⑦, ⑧ | ② ⑦, ⑩ |
| ③ ⑧, ⑨ | ④ ⑧, ⑨, ⑩ |

39

다음 중 사이시옷의 쓰임이 모두 옳은 것은?

[2017. 국회직 8급]

- ① 아랫집, 벗가리, 선잣국, 맷가지, 가게집
- ② 화젓거리, 수릿간, 풋말, 나뭇잎, 연둣빛
- ③ 꼭짓점, 횟배, 깃값, 구둣발, 공기밥
- ④ 버드나뭇과, 장밋과, 봇둑, 무삿날, 셋조각
- ⑤ 개수, 귀갓길, 사삿일, 시래깃국, 노잣돈

40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사용이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회직 8급]

- ① 달걀 껍데기를 깨다.
- ② 바위에 굴 껍데기가 딱지딱지 붙어 있다.
- ③ 처음으로 돼지 껍데기를 구워 먹었다.
- ④ 조개껍질을 모아서 목걸이를 만들었다.
- ⑤ 나무껍질을 벗겨서 삶아 먹었다.

41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사용이 옳은 것은?

[2017. 국희직 8급]

- 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② 스스로 수학의 원리를 깨우치다.
- ③ 우리 명산에는 곳곳에 사찰이 깃들어 있다.
- ④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다니 아주머니도 참 주책이셔.
- ⑤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계신 와중에 전화벨이 울렸다.

42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에 맞는 것은?

[2017. 지방 교육행정직 9급]

- ① 아마 내 말이 맞을껄?
- ② 앉아서 모닥불이나 좀 째요.
- ③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어라.
- ④ 사골을 고으니 구수한 냄새가 난다.

43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에 맞는 것은? [2017. 지방 교육행정직 7급]

- ① 이 일을 어찌 할꼬?
- ② 항상 행복하길 바래!
- ③ 지금 와서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해?
- ④ 6월에 잡은 새우로 닭궈서 육젓이라고 한다.

44

맞춤법이 옳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

- 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맷가를 치뤄야 한다.
- ② 매일 만나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웬지 멋있어 보인다.
- ③ 살코기는 장에 졸여 먹고 창자는 젓갈을 담궈 먹는다.
- ④ 명절에 아랫사람들은 윗어른께 인사를 드린다.

45

밑줄 친 용언의 활용형의 표기가 옳은 것은?

[2017. 서울시 사회복지]

- ①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가까웠다.
- ② 일이 다 잘되서 다행이다.
- ③ 입구에 붉은 글씨가 씌어 있다.
- ④ 생각컨대 조금 더 기다려 보자.

46

밑줄 친 말이 어법에 맞는 것은?

[2017. 지방직 9급]

- ① 바닷물이 퍼레서 무서운 느낌이 든다.
- ② 또아리 튼 뱀은 쳐다보지 마라.
- ③ 머릿말에 쓸 내용을 생각해 둬라.
- ④ 문을 잘 잡궈야 한다.

47

밑줄 친 부분이 어문 규정에 맞는 것은? [2017. 국가직 9급]

- ① 병이 씻은 듯이 낳았다.
- ② 넉넉치 못한 선물이나 받아 주세요.
- ③ 그는 자물쇠로 책상 서랍을 잠갔다.
- ④ 옷가지를 이여서 밧줄처럼 만들었다.

48

밑줄 친 말이 표준어인 것은? [2017. 지방직 9급]

- ① 큰 죄를 짓고도 그는 뉘연히 대중 앞에 나섰다.
- ② 아주머니는 부엌에서 갖가지 양념을 뒤어내고 있었다.
- ③ 사업에 실패했던 원인을 이제야 깨닫하게 되었다.
- ④ 그 사람은 허구헌 날 팔자 한탄만 한다.

49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은? [2017. 서울시 9급]

- ① 방학 동안 몸이 부는 바람에 작년에 산 옷이 맞지 않았다.
- ② 넉넉치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③ 오늘 뒤풀이는 길 건너에 있는 맥줏집에서 하도록하겠습니다.
- ④ 한문을 한글로 풀이한 이 책은 중세 국어의 자료로써 가치가 있다.

50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2017. 지방 교육행정직 7급]

- 남의 집 땅뙈기를 _____.
- 본문에 주석(註釋)을 _____.
- 여행 계획을 비밀에 _____.
- 이번 일을 계획대로 밀어 _____.

- ① 부치다—붙이다—부치다—붙이다
- ② 부치다—부치다—부치다—붙이다
- ③ 붙이다—부치다—붙이다—부치다
- ④ 붙이다—붙이다—붙이다—부치다

51

표준어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7. 지방 교육행정직 9급]

- ① ‘두리뭉실하다’는 예전에는 표준어가 아니었으나 현재는 ‘두루뭉술하다’와 함께 표준어이다.
- ② ‘우뢰’는 예전에 표준어였으나 현재는 표준어가 아니고 ‘우레’가 표준어이다.
- ③ ‘웃프다’는 새로 만들어진 말로 현재 두루 쓰이고 있는 표준어이다.
- ④ ‘애달프다’와 ‘애닮다’는 같은 뜻을 가진 말이나 ‘애달프다’는 표준어이고 ‘애닮다’는 표준어가 아니다.

52

다음 중 밑줄 친 한자어의 한글 표기가 옳은 것은?

[2017. 국회직 8급]

- ① 요리는 잡지 가정난(家庭欄)에 있는 요리법을 따라 해 본 거야.
- ② 밀턴의 「실락원(失樂園)」은 기독교적인 이상주의와 청교도적인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 ③ 지방요(脂肪尿)는 지방 성분이 섞인 오줌을 말한다.
- ④ 봉선이가 이불을 개어 장농(櫥籠) 속에 넣고 걸레로 방바닥을 훔치며 물었다.
- ⑤ 고려 말기, 조선 초기의 문신인 하윤(河峯)은 「태조실록」의 편찬을 지휘하였다.

04**2016년 기출문제****53**

다음 중 한글 맞춤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회직 8급]

- ① ‘돛자리, 웃어른, 얼핏’처럼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 ② ‘깨끗이, 버젓이, 정확히, 솔직히, 도저히’처럼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 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 ③ ‘소쩍새, 해쓱하다, 움찔’처럼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지만, ‘싹둑, 갑자기, 깍두기’는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 ④ ‘해돋이, 같이, 걷히다’처럼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 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 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꽃을, 꽂이, 꽃밭’으로 적고 글자 그대로 읽는다.

54

맞춤법에 맞는 것은?

[2016. 지방직 9급]

- ① 희생을 치뤄야 대가를 얻을 수 있다.
- ② 내로라하는 선수들이 뒤쳐진 이유가 있겠지.
- ③ 방과 후 삼촌 댁에 들른 후 저녁에 갈 거여요.
- ④ 가스 밸브를 안 잠궈 화를 입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55

다음은 한글맞춤법 제30항의 일부이다. ⑦과 ⑧에 들어갈 사이시옷 표기가 된 합성어의 예로 적절하게 짹지어진 것은?

[2016. 경찰직 1차]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예 ⑦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예 ⑧

- | | |
|-----|-----|
| ① | ⑦ |
| 귓병 | 귓밥 |
| ② | 냇가 |
| 뱃길 | |
| ③ | 자릿세 |
| 전셋집 | |
| ④ | 아랫집 |
| 아랫방 | |

56

⑦~⑨의 문장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2016. 국가직 7급]

아이의 학교를 방문하는 날이었다. ⑦ 아침부터 흐린 게 비가 올런지 몰라 우산을 미리 챙겨 나갔다. ⑧ 길을 나서자 갑자기 곧 해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⑨ 시장 입구에는 앳된 소녀들이 우산을 들고 와자지껄 이야기를 하며 지나가고 있었다. ⑩ 소녀들의 모습에서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갔던 기억이 두루뭉술하게 떠올랐다.

- ① ⑦의 ‘올런지’는 표기법에 맞게 ‘올른지’로 고친다.
- ② ⑧의 ‘해님’은 표기법에 맞게 ‘햇님’으로 고친다.
- ③ ⑨의 ‘앳된’은 표준어에 맞게 ‘앳띤’으로 고친다.
- ④ ⑩의 ‘두루뭉술하게’는 의미상 자연스럽게 ‘어렴풋이’로 고친다.

57

<보기>는 「한글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 표기의 일부이다.

⑦, ⑧, ⑨에 들어갈 단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2016. 서울시 7급]

<보기>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고랫재 귓밥 ⑦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뒷머리 아랫마을 ⑧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ㄴ 소리가 덧나는 것

도리깻열 뒷윷 ⑨

- | | | |
|-----|-----|-----|
| ⑦ | ⑧ | ⑨ |
| 못자리 | 멧나물 | 두렛일 |
| 쳇바퀴 | 잇몸 | 훗일 |
| 잇자국 | 툇마루 | 나뭇잎 |
| 사잣밤 | 깻날 | 예삿일 |

58

다음 중 「한글맞춤법」에 맞는 문장은?

[2016. 서울시 7급]

- ① 인삿말을 쓰느라 밤을 새웠다.
- ②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률이 줄고 있다.
- ③ 생각지도 않은 반응 때문에 적잖이 놀랐다.
- ④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59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올바른 것은?

[2016. 경찰직 2차]

- ① 이런 날씨에 비를 맞추니 멀쩡한 사람도 병이 나지.
- ② 너라면 아마도 그 문제의 정답을 맞출 수 있었을 텐데.
- ③ 우리 선수는 마지막 화살까지도 10점 과녁에 맞췄다.
- ④ 그는 그녀와의 약속 시간을 제대로 맞춘 적이 없었다.

60

밑줄 친 단어 중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은? [2016. 국가직 7급]

- ① 대화는 열기를 띄기 시작했다.
- ② 여우도 제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다.
- ③ 아침에 찌은 쌀이라서 밥맛이 정말 고소하군요.
- ④ 아침부터 오던 비가 개이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다.

61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2016. 국회직 8급]

- ① 한라산의 제일 높은 봉오리에 올랐다.
- ② 내가 읽던 책을 거저 줄 테니, 넌 공부나 열심히 해.
- ③ 커튼을 걷어 제치니,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 ④ 손바닥만 한 발폐기에 농사를 지어 살아가는 형편이다.
- ⑤ 셔츠 위에 잠바를 윗옷으로 걸쳤다.

62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2016. 사회복지직 9급]

- ① 요즘 앞산에는 진달래가 한창이다.
- ② 과장님, 김 주사의 기획안을 결제해 주세요.
- ③ 민철이는 어릴 때 일찍 아버지를 여위었다.
- ④ ‘가물에 콩 나듯’이라더니 제대로 씹이 난 것이 없다.

63

다음 중 표기가 옳게 짹지어진 것은?

[2016. 사회복지직]

- | | |
|---------------------------------------|--------------------------------------|
| ⑦ 영희는 공부를 하느라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세웠다, 새웠다). | ⑧ 네 동생은 우리가 (닭달해, 닭달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
|---------------------------------------|--------------------------------------|

- | | |
|----------|----------|
| <u>㉠</u> | <u>㉡</u> |
| ① 세웠다 | 닭달해 |
| ② 새웠다 | 닭달해 |
| ③ 세웠다 | 닭달해 |
| ④ 새웠다 | 닭달해 |

64

밑줄 친 부분이 한글맞춤법 규정에 맞는 것은?

[2016. 법원직]

- ① 찬물에 헹군 국수를 체에 발쳐 놓아라.
- ② 담배를 끓음으로써 용돈을 줄이겠다.
- ③ 이 문제의 답을 맞춘 사람은 상을 받을 수 있다.
- ④ 지금은 바쁘니까 있다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5 2015년 기출문제

65

어법에 맞게 쓰인 것은?

[2015. 국가직 9급]

- ① 내일 야유회 간데요?
- ②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대.
- ③ 연예인을 보니 그렇게 좋던?
- ④ 제가 직접 봤는데 너무 크대요.

66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2015. 국가직 9급]

- ① 하나에 백 원씩 쳐주마.
- ② 여름이 되니 몸이 축축 쳐지네.
- ③ 아궁이에서 쓰레기를 쳐대고 있지.
- ④ 오는 길에 쳐박힌 자전거를 보았어.

67

밑줄 친 용언의 활용이 잘못된 것은?

[2015. 지방직 9급]

- ① 그는 허구헌 날 술만 마신다.
- ② 네가 시험에 합격했으니 동네 어른들과 잔치라도 별여 야겠구나.
- ③ 무슨 말을 해도 괜찮으니 내게 서슴지 말고 말해 보아라.
- ④ 담당자의 서투른 일 처리 때문에 창구에서 큰 혼란이 있었다.

68

밑줄 친 말이 표준어가 아닌 것은?

[2015. 교육행정직 9급]

- ① 그의 표정에는 웃음기가 배어 있다.
- ② 그는 눈물을 떨구며 길을 걷고 있다.
- ③ 그는 고개를 뒤로 제끼고 졸고 있었다.
- ④ 그는 친구를 꼬여서 함께 여행을 갔다.

69

다음 중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2015. 국회직 9급]

- ① 우유빛, 전셋집, 전세방, 인사말, 머릿방
- ② 우유빛, 전세집, 전세방, 인삿말, 머리방
- ③ 우윳빛, 전셋집, 전셋방, 인사말, 머리방
- ④ 우윳빛, 전셋집, 전세방, 인사말, 머릿방
- ⑤ 우윳빛, 전셋집, 전셋방, 인사말, 머리방

70

<보기>의 ⑦~⑨ 중 잘못된 부분을 가장 바르게 수정한 것은?

[2015. 경찰직]

<보기>

이번에도 이렇게 결과가 난 걸 보니 ⑦ 예삿일이 아니야.
날이 ⑧ 개 상황을 ⑨ 분명(分明)이 볼 수 있다면 좋겠지
만 구름이 ⑩ 널따랗게 퍼져 도대체 아무것도 안 보여.

- ① ⑦: [예사일]로 발음이 되므로 사이시옷 표기 없이 ‘예사일’로 적어야 한다.
- ② ⑧: 어간 ‘개-’에 연결어미 ‘-이’가 결합한 것이므로 ‘개어’로 적어야 한다.
- ③ ⑨: ‘분명’에 부사 파생 접미사가 결합한 것으로 ‘분명히’로 적어야 한다.
- ④ ⑩: 단어의 의미로 보아 ‘넓(다)’이 어간이므로 ‘넓따랗게’로 적어야 한다.

71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맞춤법이 옳지 않은 것은?

[2015. 서울시 7급]

- ① 그는 밥을 몇 숟가락 뜨다가 밥상을 물렸다.
- ② 이번 수해로 우리 마을은 적잖은 피해를 봤다.
- ③ 집은 허름하지만 아까 본 집보다 가격이 만만찮다.
- ④ 그는 끝까지 그 일을 말끔케 처리하였다.

72

맞춤법에 맞는 것은?

[2015. 국가직 7급]

- ① 뒷뜰에 있는 옥수수나 따서 가져올게.
- ② 짐작건대, 그 사람은 야속다고 푸념만 한 것 같아.
- ③ 거름을 다 치내고 나서 어르신을 뵈러 길을 떠난대요.
- ④ 답을 얻기 위해 눈 덮힌 산야를 하염없이 해매고 있을 거야.

73

다음 중 문장을 잘못 고친 것은?

[2015. 지방직 7급]

- 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 실내에서 담배를 피지 맙시다.
- ② 사용 후 반드시 물을 내려 주십시오. → 사용 후 반드시 물을 내려 주십시오.
- ③ 화장실을 깨끗히 사용합시다. →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 ④ 지나친 흡연을 삼가합시다. →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

74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사용이 옳지 않은 것은?

[2015. 서울시 7급]

- ① 선을 반듯이 그어라.
- ② 눈을 감고 분노를 삭였다.
- ③ 너 왜 그렇게 내 속을 썩히느냐?
- ④ 사우나에서 눈을 지그시 감고 앉아 있었다.

75

밑줄 친 어휘의 쓰임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2015. 사회복지직 9급]

- ⑦ 꼬마들에게는 주사를 맞추기가 힘들다.
- ⑧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맞추면 상품을 드립니다.
- ⑨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소박을 맞히고 나서 두고두고 후회하셨다.
- ⑩ 여자 친구와 다음 주 일정을 맞춰 보았더니 목요일에만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① ⑦, ⑧

③ ⑨, ⑩

② ⑦, ⑨

④ ⑨, ⑩

76

다음 중 어휘의 사용이 정확한 것은?

[2015. 기상직 9급]

- ① 박 교수님은 대중 요법을 통해 난치병을 극복하셨다.
- ② 이 선생님은 학생들과 일 년 동안 동거동락하였다.
- ③ 부모님들은 주구장창 자식 걱정뿐이다.
- ④ 최 과장님은 오곡백화가 무르익은 가을에 결혼을 하셨다.

Chapter 05 표준어 규정

01

2019년 기출문제

01

〈보기〉는 복수 표준어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따른 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 서울시 9급]

〈보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 ① 가는허리 / 잔허리
- ② 고깃간 / 정육간
- ③ 관계없다 / 상관없다
- ④ 기세부리다 / 기세피우다

02

2018년 기출문제

03

표준어끼리 묶인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9급]

- ① 등물, 남사스럽다, 쌈싸름하다, 복숭아뼈
- ② 까탈스럽다, 결판지다, 주책이다, 걸울음
- ③ 찰지다, 잎새, 꼬리연, 푸르르다
- ④ 개발새발, 이쁘다, 덩쿨, 마실

04

밑줄 친 단어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2018. 서울시 7급]

- ① 잘못한 사람이 되려 큰소리를 친다.
- ② 너는 시험이 코앞인데 맨날 놀기만 하니?
- ③ 어제 일을 벌써 깡그리 잊어버렸다.
- ④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억수로 흘렸다.

02

밑줄 친 부분이 표준어가 아닌 것은?
[2019. 서울시 7급]

- ① 휴지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
- ② 그는 여직껏 그 일을 모르는 척했다.
- ③ 두리뭉실하게 말 돌리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 봐.
- ④ 살짝 주책스러운 면이 있지만 인품은 훌륭한 사람이다.

05

다음 중 표준어끼리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2018. 경찰직 1차]

- ① 수강아지–수탕나귀–수평아리
- ② 황소–장끼–돛(생일)
- ③ 삶팽이–사글세–꼬나불
- ④ 깥충깡충–오뚝이–아지랑이

06

밑줄 친 부분이 표준어가 아닌 것은? [2018. 교육행정 9급]

- ① 맑은 시냇물에 밭을 담갔다.
- ② 친구의 사연이 너무 애닮구나.
- ③ 가여운 강아지에게 밥을 주렴.
- ④ 이 문제는 무척 까다로워 보인다.

03 / 2016년 기출문제

07

다음 중 표준어로만 둑인 것은? [2016. 서울시 9급]

- ① 끄나풀－새벽녘－쉼팽이－떨어먹다
- ② 뜯게질－세째－수평아리－애닮다
- ③ 치켜세우다－사글세－설거지－수캉아지
- ④ 보조개－솟양－광우리－강남콩

08

다음 중 비표준어가 포함된 것은? [2016. 서울시 7급]

- ① 마을－마실
- ② 예쁘다－이쁘다
- ③ 새초롬하다－새치름하다
- ④ 부스스하다－부시시하다

09

다음 중 표준어의 개수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2016. 국회직 8급]

- ① 눈엣가시, 석박지, 뒷꿈치, 돌멩이 〈1개〉
- ② 이쁘다, 마실, 복숭아뼈, 창란젓 〈3개〉
- ③ 걸판지다, 움츠리다, 마늘쫑, 주구장창 〈3개〉
- ④ 골차다, 끄적이다, 푸르르다, 손주 〈2개〉
- ⑤ 새치름하다, 누레지다, 빼진, 개기다 〈3개〉

10

밑줄 친 어휘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2016. 국가직 9급]

- ① 그는 얼금얼금한 얼굴에 콧망울을 벌름거리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 ② 그 사람 눈초리가 아래로 축쳐진 것이 순하게 생겼어.
- ③ 무슨 일인지 귓밥이 혹 달아오르면서 목덜미가 저린다.
- ④ 등산을 하고 났더니 장딴지가 땅긴다.

11

다음 <보기>의 밑줄 친 ⑦~⑩ 중 표준어를 모두 고르면?

[2016. 국회직 8급]

<보기>

- ⑦ 너는 시험이 쿄앞인데 ⑦ 멘날 놀기만 하니?
- ⑧ 당신은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면서도 ⑧ 딴청을 붙이시는군요.
- ⑨ 아버지의 사랑방에는 밤이면 밤마다 ⑨ 마을꾼들이 모여들었다.
- ⑩ 총소리에 그는 얼마나 급했던지 옷도 ⑩ 가꾸로 입고 밖으로 나왔다.
- ⑪ 형은 사정없이 구둣발로 그 사람을 ⑪ 조져 대더니 막판에는 돌멩이를 집어 들었다.

① ⑦, ⑧, ⑨

② ⑦, ⑧, ⑩

③ ⑧, ⑨, ⑩

④ ⑦, ⑧, ⑨, ⑩

⑤ ⑦, ⑧, ⑨, ⑩, ⑪

04

2015년 기출문제

12

동일한 의미의 복수 표준어가 아닌 것은? [2015. 지방직 7급]

- | | |
|------------|--------------|
| ① 짜장면/자장면 | ② 간지럽히다/간질이다 |
| ③ 복숭아빼/복사빼 | ④ 손주 /손자 |

13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른 문장은? [2015. 국회직 9급]

- ① 날씨가 맑아 하늘을 날리는 배가 선명하게 보인다.
- ② 사기 사건의 용의자는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도 서슴치 않았다.
- ③ 물을 사용하신 후에는 수도꼭지를 꼭 잠궈 주세요.
- ④ 새로 지은 집의 담벼락에 괴발개발 아무렇게나 낙서가 되어 있었다.
- ⑤ 전염병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개최된 축제가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

14

다음 중 표준어로만 끓인 것은? [2015. 국회직 8급]

- ① 쿵더쿵, 허우대, 선두리, 뚱뚱이
- ② 풀소, 적이, 생일빔, 고인돌
- ③ 맨승맨승, 뜨문뜨문, 깔보다, 틈틈히
- ④ 눈쌈, 발뒤꿈치, 행내기, 마방집
- ⑤ 깍쟁이, 구두주걱, 봉죽, 새치름하다

15

다음 중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은?

[2015. 서울시 9급]

- ① 철수는 우리 반에서 키가 열둘째이다.
- ② 요즘 재산을 떨어먹는 사람이 많다.
- ③ 나는 집에 사흘 동안 머무를 예정이다.
- ④ 숫병아리가 내게로 다가왔다.

16

다음 밑줄 친 단어 가운데 새로 인정된 표준어는 몇 개인가? [2015. 국회직 8급]

- Ⓐ 그렇게 조그만 일에 삐지다니 큰일을 못할 사람일세.
- Ⓑ 인창이는 상급생에게 개기다가 혼쭐이 났다.
- Ⓒ 나뭇잎도 아이들에게는 훌륭한 놀잇감이 된다.
- Ⓓ 성우야, 이번 일에 자꾸 딴지를 걸지 마라.
- Ⓔ 길형이는 뱀을 발견하고 션짓 놀랐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E B S 공 무 원 국 어 기 출 문 제 집

Chapter 06 로마자 표기법

01

2019년 기출문제

01

〈보기〉의 ⑦~⑩을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 서울시 9급]

〈보기〉

- ⑦ 달악골 ⑧ 국망봉 ⑨ 낭림산 ⑩ 한라산

- ① ⑦-Dalakgol
② ⑧-Gukmangbong
③ ⑨-Nangrimsan
④ ⑩-Hallasan

02

2018년 기출문제

03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경찰직 2차]

- ① ‘청주시 Cheongju’, ‘함평군 Hampyeong’, ‘순창읍 Sunchang’처럼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목호 Mukho’, ‘집현전 Jiphyeonjeon’처럼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③ ‘홍빛나 Hong Bitna’, ‘한복남 Han Boknam’처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④ ‘남산 Namsan’, ‘독도 Dokdo’처럼 자연 지명물,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02

〈보기〉의 로마자 표기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2019. 서울시 9급]

〈보기〉

- ㄱ. 오죽헌 Ojukeon
ㄴ. 김복남(인명) Kim Bok-nam
ㄷ. 선릉 Sunneung
ㄹ. 합덕 Hapdeok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04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다음 규정이 적용된 것은?
[2018. 국가직 9급]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 ① 독도: Dok-do ② 반구대: Ban-gudae
③ 독립문: Dok-rip-mun ④ 인왕리: Inwang-ri

05

로마자 표기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7급]

- ① 독립문 Dongnimmun, 광화문 Gwanghwamun
- ② 선릉 Seolleung, 정릉 Jeongneung
- ③ 신문로 Sinmunno, 율곡로 Yulgongro
- ④ 한라산 Hallasan, 백두산 Baekdusan

06

로마자 표기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9급]

- ① 종로[종노] → Jongro
- ② 알약[알락] → allyak
- ③ 같이[가치] → gachi
- ④ 좋고[조코] → joko

07

국어의 로마자 표기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 경찰직 1차]

- ① 압구정 – ‘Apgujeong’ –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② 속리산 – ‘Songni-san’ –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등을 붙임표를 붙여 쓴다.
- ③ 한복남 – ‘Han Bongnam’ – 인명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한다.
- ④ 집현전 – ‘Jipyeonjeon’ – ‘ㄱ, ㄷ, ㅂ, ㅅ’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나는 경우 거센소리로 적는다.

08

로마자 표기법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 서울시 7급]

- ① 신리: Sin-li
- ② 일직면: Iljik-myeon
- ③ 사직로: Sajik-ro
- ④ 진량읍: Jillyang-eup

03

2017년 기출문제

09

다음 중 로마자 표기법이 옳지 않은 것은? [2017. 서울시 7급]

- ① 독도: Dokdo
- ② 불국사: Bulguksa
- ③ 극락전: Geukrakjeon
- ④ 촉석루: Chokseongnu

10

다음 중 제시된 단어의 표준 발음과 로마자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2017. 서울시 9급]

- ① 선릉[선능] – Seonneung
- ② 학여울[항녀울] – Hangnyeoul
- ③ 낙동강[낙똥강] – Nakdonggang
- ④ 집현전[지편전] – Jipyeonjeon

11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나는 것은? [2017. 지역인재]

- ① 압구정 – Apgujeong
- ② 낙동강 – Nakdonggang
- ③ 독립문 – Dongnimmun
- ④ 신라 – Sinla

04

2016년 기출문제

12

로마자 표기법이 옳지 않은 것은? [2016, 사회복지직 9급]

- ① 춘천–Chuncheon
- ② 밀양–Millyang
- ③ 청량리–Cheongnyangni
- ④ 예산–Yesan

05

2015년 기출문제

13

우리말에 대한 로마자 표기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2015, 경찰직]

- ① 경복궁–Gyeongbokgung
- ② 독립문–Dongnipmun
- ③ 집현전–Jiphyeonjeon
- ④ 속리산–Songnisan

14

다음 중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올바르게 적은 것은?

[2015, 국회직 9급]

- ① 영등포–Yeungdeungpo
- ② 종로구–Jongro-gu
- ③ 촉석루–Chokseongnu
- ④ 다보탑–Dabotap
- ⑤ 여의도 – Yeoeuido

15

다음 중 로마자 표기법이 옳지 않은 것은? [2015, 기상직 9급]

- ① 백령도 Baengnyeongdo
- ② 울릉도 Ulleungdo
- ③ 북한산 Bukhansan
- ④ 압록강 Amrokgang

E B S 공 무 원 국 어 기 출 문 제 집

Chapter 07 외래어 표기법

01

2019년 기출문제

01

외래어 표기 용례로 올바른 것은? [2019. 서울시 9급]

- ① dot – 닉트
- ② parka – 파카
- ③ flat – 플랫
- ④ chorus – 코루스

02

외래어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2019. 서울시 7급]

- ① 엘로카드(yellow card), 스태프(staff), 케이크(cake)
- ② 가디건(cardigan), 뷔페(buffet), 캐러멜(caramel)
- ③ 낱킨(napkin), 점퍼(jumper), 초콜렛(chocolate)
- ④ 팡파레(fanfare), 크로켓(croquette), 마사지(massage)

03

국어의 발음 및 표기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 경찰직]

- ① ‘찻을 도리’는 [차즐포리]로 발음하면 된다.
- ② ‘맑고 맑다’를 [말꼬]와 [막따]로 소리 내어 읽었다.
- ③ 김희혜 씨의 이름을 글자대로 발음하기 어려워서 「표준 발음법」에 따라 [김히혜]로 호명하였다.
- ④ 현대 국어의 종성으로 발음되는 자음은 7가지이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keik]로 발음되는 외래어를 ‘케익’이라 적지 않고 ‘케익’으로 적었다.

02

2017년 기출문제

04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2017. 지방직 9급]

- | | |
|--------------------|------------------|
| ㄱ. yellow: 엘로 | ㄴ. cardigan: 카디건 |
| ㄷ. lobster: 롭스터 | ㄹ. vision: 비전 |
| ㅁ. container: 콘테이너 | |

- ① ㄱ, ㅁ
- ② ㄷ,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ㅁ

05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2017. 국가직 7급 10월]

- | |
|---------------------------|
| ㄱ. 커미션(commission) |
| ㄴ. 콘서트(concert) |
| ㄷ. 컨셉트(concept) |
| ㄹ. 에어컨(← air conditioner) |
| ㅁ. 리모콘(← remote control) |

- ① ㄱ, ㄴ
- ② ㄱ, ㄴ, ㄹ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06

다음에 제시된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경찰직 1차]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현행 표기법은 1986년에 고시되었다. 현재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등 21개 언어에 대한 표기 세칙이 마련되어 있다. 외래어 표기법의 제1장에서는 표기의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① 제1항

② 제2항

③ 제3항

④ 제4항

08

외래어 표기가 맞는 것끼리 묶은 것은?

[2017. 지방 교육행정직 7급]

- ① 캐럴(carol), 샌달(sandal), 케찹(ketchup)
- ② 캐럴(carol), 카디건(cardigan), 케이크(cake)
- ③ 멤버쉽(membership), 케이크(cake), 케찹(ketchup)
- ④ 멤버쉽(membership), 샌달(sandal), 카디건(cardigan)

07

외래어 표기가 맞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2017. 지방 교육행정직 9급]

<보기>

- | | |
|-------------------|----------------------|
| ㄱ. 카톨릭(Catholic) | ㄴ. 시뮬레이션(simulation) |
| ㄷ. 숏컷트(short cut) | ㄹ. 카레(curry) |
| ㅁ. 챔피온(champion) | ㅂ. 캐리커처(caricature) |

① ㄱ, ㅁ

② ㄴ, ㄹ

③ ㄱ, ㄹ, ㅂ

④ ㄴ, ㄷ, ㅁ

09

<보기>의 밑줄 친 ①~④의 외래어 표기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2017. 국회직 8급]

<보기>

- 간식으로 ⑦ 커스터드푸딩(custard pudding)을 먹었다.
- ⑧ 아서(Arthur)왕은 고대 영국을 다스렸다고 전해지는 전설의왕이다.
- 그의 목깃에 달린 ⑨ 배지(badge)는 그가 법무관이란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 ⑩ 소울 뮤직(soul music)은 노예 제도 하에서 발생한 미국 흑인들의 음악이다.
- ⑪ 시칠리아(Sicilia) 섬은 지중해에 있는 섬 가운데 가장 크다.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ԑ, ԑ

03 2016년 기출문제

10

다음 단어의 로마자 표기나 외래어 표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2016. 경찰직 2차]

- ① 수락산 ⇒ Suraksan
- ② 오죽헌 ⇒ Ojukheon
- ③ ambulance ⇒ 앰뷸란스
- ④ 毛澤東 ⇒ 마오쩌둥

11

다음 중 외래어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2016. 서울시 9급]

- ① 벌브(bulb), 옐로우(yellow), 플래시(flash), 워크숍(workshop)
- ② 알콜(alcohol), 로봇(robot), 보트(boat), 써클(circle)
- ③ 밸런스(balance), 도너츠(doughnut), 스위치(switch), 리더십(leadership)
- ④ 배지(badge), 앙코르(encore), 콘테스트(contest), 난센스(nonsense)

12

다음 중 외래어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2016. 서울시 7급]

- ① 롬스터(lobster), 시그널(signal), 지그재그(zigzag)
- ② 재즈(jazz), 마니아(mania), 브리지(bridge)
- ③ 보트(boat), 스윗치(switch), 인디안(Indian)
- ④ 유니온(union), 톱 클래스(top class), 휘슬(whistle)

13

다음 <보기>의 밑줄 친 ㉠~㉡의 외래어 표기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2016. 국회직 8급]

<보기>

- ㄱ. ㉠ 바베큐(barbecue) 장소
- ㄴ. ㉡ 다이내믹(dynamic)한 공연
- ㄷ. 영국의 ㉢ 옥스포드(Oxford) 지역
- ㄹ. 중국의 무술인 ㉣ 쿵푸(<중>功夫[gōngfu])
- ㅁ. 생일 축하 ㉤ 케이크(cake)

- ① ㉠, ㉡
- ③ ㉠, ㉢, ㉣
- ⑤ ㉡, ㉢, ㉣

- ② ㉠, ㉢
- ④ ㉡, ㉢, ㉣

14

외래어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가직 9급]

- ① flash – 플래시
- ② shrimp – 쉬림프
- ③ presentation – 프레젠테이션
- ④ Newton – 뉴턴

15

다음에서 외래어 표기가 알맞은 것끼리 짹지어진 것은?
[2016. 경찰직 1차]

- | | |
|------------------|--------------|
| ㉠ zigzag 지그재그 | ㉡ vision 비전 |
| ㉡ leadership 리더쉽 | ㉢ yellow 옐로우 |

- ① ㉠, ㉡
- ③ ㉡, ㉢

- ② ㉠, ㉢
- ④ ㉢, ㉣

16

외래어 표기 규정에 모두 맞는 것은?
[2016. 지방직 7급]

- ① 브러쉬, 케익
- ② 카페트, 파리
- ③ 초콜릿, 세퍼드
- ④ 슈퍼마켓, 서비스

04 / 2015년 기출문제

17

다음 중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는 단어가 있는 것은?

[2015. 기상직 9급]

- ① 액셀러레이터, 그라데이션, 깐풍기
- ② 콘텐츠, 아이섀도, 밀크셰이크
- ③ 코스모폴리탄, 엘리뇨, 포크레인
- ④ 라스베이거스, 판다, 컨소시엄

18

다음 중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단어끼리 짹지어진 것은?

[2015. 기상직 7급]

- ① 도넛, 랑데부, 아웃렛, 호치키스
- ② 카디건, 맨하탄, 뷔페, 에피타이저
- ③ 느루아르, 셔츠, 어맵터, 징기즈칸
- ④ 셔벗, 요거트, 부르주아, 재킷

19

다음 중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으로만 둑인 것은?

[2015. 서울시 9급]

- ① 서비스-소시지-소파-싱크대-팜플렛
- ② 리더쉽-소세지-싱크대-서비스-스카우트
- ③ 쇼파-씽크대-바디로션-수퍼마켓-스카웃
- ④ 소파-소시지-슈퍼마켓-보디로션-팸플릿

20

다음 중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표기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국회직 9급]

- | | |
|------------------------|---------------------|
| ① woe [wou] - 워 | ② wag [wæg] - 왜그 |
| ③ yawn [jɔ:n] - 윤 | ④ shank [ʃæŋk] - 생크 |
| ⑤ mirage [miraʒ] - 미라지 | |

21

외래어 표기가 모두 맞는 것은?

[2015. 교육행정직 9급]

- ① 심벌(symbol), 재킷(jacket)
- ② 아웃렛(outlet), 패널(panel)
- ③ 콘트롤(control), 캐럴(carol)
- ④ 카스테라(castella), 러닝(running)

22

다음 중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표기된 낱말들로만 이루어진 것은?

[2015. 국회직 8급]

- ① 뉴턴, 슬로바키아, 도이칠란드, 링거
- ② 도스토옙스키, 플래시, 로브스터, 베저
- ③ 콘사이즈, 파일, 리더십, 케첩
- ④ 코즈모폴리탄, 스프링쿨러, 콘셉트, 카펫
- ⑤ 앙코르, 타깃, 심포지움, 플루트

Chapter 08 띄어쓰기

01

2019년 기출문제

01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2019. 서울시 9급]

- ① 불이 꺼져 간다.
- ② 그 사람은 잘 아는척한다.
- ③ 강물에 떠내려 가 버렸다.
- ④ 그가 올 듯도 하다.

02

띄어쓰기 규정의 ‘원칙’에 맞게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 경찰직]

- ① 제주에▽온▽지▽십여▽년이▽됐다.
- ② 지금▽부터는▽오는▽대로▽입장해야▽한다.
- ③ 그밖의▽사안은▽차기로▽이관하도록▽한다.
- ④ 이▽방법은▽쇠의▽강도를▽높이는데▽활용될▽것이다.

03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2019. 경지방직 9급]

- ① 그 중에 깨끗한 옷만 골라 입으세요.
- ② 어제는 밤이 늦도록 옛 책을 뒤적였다.
- ③ 시간 날 때 낚시나 한 번 같이 갑시다.
- ④ 사람들은 황급히 굴 속으로 모여들었다.

04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2019. 국가직 7급]

- ① 이끄는 대로 따라갈밖에.
- ② 용수야, 5년만인데 한잔해야지.
- ③ 일이 오늘부터는 잘돼야 할텐데.
- ④ 태권도에서 만큼은 발군의 실력을 낼 거야.

05

다음의 띄어쓰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 경찰직]

- 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뜻하는 경우, 의미가 변하여 파생어가 되었으므로 붙여 쓴다.
- ② ‘언제▽할▽자▽모른다’: ‘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③ ‘교재의▽제▽일장’: ‘제-’는 접두사이므로 뒷말에 붙여 써야 하는데, 띄어 썼으므로 맞지 않다.
- ④ ‘떠난지가▽오래다’: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붙여 쓸 수 있다.

06

다음 중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

[2019. 서울시 9급]

- 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 ② 데칸 고원은 인도 중부와 남부에 위치한 고원이다.
- ③ 못 본 사이에 키가 전봇대 만큼 자랐구나!
- ④ 이번 행사에서는 쓸모 있는 주머니 만들기를 하였다.

02 / 2018년 기출문제

07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모두 옳은 것은? [2018. 지역인재]

- ① 다친데 바르는 약을 찾으려 별수를 다 썼다.
- ② 다친 데 바르는 약을 찾으려 별수를 다 썼다.
- ③ 다친데 바르는 약을 찾으려 별 수를 다 썼다.
- ④ 다친 데 바르는 약을 찾으려 별 수를 다 썼다.

08

다음 중 띄어쓰기가 가장 적절한 것은? [2018. 경찰직 2차]

- ① 최정상급으로∨이루어∨진∨시립교향악단이∨곧∨정
기∨공연을∨한다.
- ② 제∨2분과∨회의가∨끝났으니∨이제∨자리를∨뜨는∨
것이∨좋을∨성싶다.
- ③ 경찰∨조사를∨통해∨진상을∨들은바∨그것은∨사실
이∨아님이∨드러났다.
- ④ 그∨사람은∨오직∨졸업장을∨따는데∨목적이∨있는
∨듯∨전공∨공부에는∨전혀∨관심이∨없다.

09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모두 옳은 것은?

[2018. 국가직 7급]

- ① 그 길을 걸어 온 사람들도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큰 문
제가 없다.
- ② 대책 없이 쓸 데 없는 일만 골라 하니 저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 ③ 이 기계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자세
히 알아볼 수 없었다.
- ④ 예기치 못했던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던바 재발 방지
책을 찾아야 한다.

10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가직 9급]

- ① 이처럼 좋은 걸 어떡해?
- ② 제 3장의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 ③ 공사를 진행한 지 꽤 오래되었다.
- ④ 결혼 10년 차에 내 집을 장만했다.

11

띄어쓰기가 모두 옳은 문장은?

[2018. 서울시 7급]

- ① 밥을 먹은지 두 시간밖에 안 지났다.
- ② 학력이나 나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 ③ 이번 휴가에 빨리 섬으로 여행을 간다.
- ④ 하늘을 보니 비가 올 듯도 하다.

12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

[2018. 서울시 9급]

- ① 창조적 독해가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활용될
수 밖에 없다.
- ② 사소한 오해로 철수가 나하고 사이가 멀어졌다.
- ③ 아는 체하는 걸 보니 공부 깨나 했나 보다.
- ④ 동해로 가는길에 평창에도 들렸다 가자.

13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2018. 지방직 9급]

- ① 졸지에 부도를 맞았다니 참 안됐어. 그렇게 독선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돼.
- ②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말게. 지금 네가 본 것은 실상의 절반에도 못 미쳐.
- ③ 저 집은 부부 간에 금실이 좋아. 집을 살 때 부모님이 얼마간을 보태 주셨어.
- ④ 저 사람은 아무래도 믿을 만한 인물이 아니야. 지난번 해일이 밀어닥칠 때 집채만 한 파도가 해변을 덮쳤다.

15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2018. 지방직 7급]

- ① 부모와 자식간에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
- ② 김 양의 할머니는 안동 권씨라고 합니다.
- ③ 내일이 이 충무공 탄신 500돌이라고 합니다.
- ④ 이번 여름에는 카리브 해로 휴가를 가기로 했어.

14

다음 띄어쓰기 규정의 ‘원칙’에 맞게 쓴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2018. 경찰직 1차]

- ① 희망의▽불씨가▽꺼져간다.
- ② 한국대학교▽사범대학▽최치원▽교수
- ③ 이천십팔▽년▽삼▽월▽이십사▽일▽제일▽차▽공무원▽시험
- ④ 제발▽여기에서만이라도▽집에서▽처럼▽못▽되게▽굴지▽않았으면▽좋겠다.

03 / 2017년 기출문제

16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2017. 지방직 9급]

- ① 일이 얹히고 설켜서 풀기가 어렵다.
- ② 나를 알아 주는 사람은 너 밖에 없다.
- ③ 그는 고향을 등지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 ④ 잃어버린 물건을 찾겠다는 생각은 속절 없는 짓이었다.

17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10월]

- ①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물어도 보았다.
- ② 매일같이 지각하던 김 선생이 직장을 그만두었다.
- ③ 이번 시험에서 우리 중 안 되어도 세 명은 합격할 듯 하다.
- ④ 지난주에 발생한 사고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회의를 했다.

18

밀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2017. 지방직 7급]

- ① 너 말 한번 잘 했다.
- ② 값이 열만지 한번 물어보세요.
- ③ 우리는 겨우 일주일에 한번밖에 못 만난다.
- ④ 한번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

19

밀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2017. 서울시 사회복지직]

- ① 그 친구의 키는 장대 만큼 크다.
- ② 그 친구의 집에는 사과, 감, 골 들이 많이 있다.
- ③ 그 친구와 연락한 지 세 시간만에 만났다.
- ④ 그 친구의 대답이 맞는지 모르겠다.

20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

- ① 형은 비밀이 드러날 것을 걱정하여 안절부절못했다.
- ② 학부모 간담회에는 약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 ③ 서류를 검토한 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 ④ 아는 만큼 보인다는데 나에게는 그 가치를 평가할 만 한 심미안이 부족하다.

21

밀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 ① 한밤중에 전화가 왔다.
- ② 그는 일도 잘할 뿐더러 성격도 좋다.
- ③ 친구가 도착한 지 두 시간만에 떠났다.
- ④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 된다.

22

다음 중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경찰직 2차]

- ① 철이는 키가 장대만큼 크다.
- ②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너뿐이다.
- ③ 영희는 합리적이기 보다는 감정적이다.
- ④ 볼펜, 연필, 지우개 따위를 문구류라 한다.

23

다음 <보기>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2017. 서울시 9급]

<보기>

⑦ 창 밖은 가을이다. 남쪽으로 난 창으로 햇빛은 하루하루
깊이 안을 넘본다. 창가에 놓인 우단 의자는 부드러운 잿빛
이다. 그러나 손으로 ⑧ 우단천을 결과 반대 방향으로 쓸
면 슬쩍 녹듯빛이 돈다. 처음엔 짙은 쑥색이었다. 그 의자
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⑨ 30년 동안을 같은 자리에
서 움직이지 않은 채 하는 일이라곤 햇볕에 자신의 몸을
잿빛으로 바래는 ⑩ 일 밖에 없다.

① ⑦

② ⑧

③ ⑨

④ ⑩

24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2017. 지역인재]

- ① 정수는 커피보다 녹차를 더 좋아한다.
- ② 호승이도 그 정도는 할수 있다.
- ③ 물은 높은데서 낮은데로 흐른다.
- ④ 하루내지 이틀만 기다려 보아라.

25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2017. 국회직 8급]

- ① 그녀석 고마워하기는 커녕 알은체도 않더라.
- ② 집채 만한 파도가 몰려온다.
- ③ 한 번은 네거리에서 큰 사고를 낸 했다.
- ④ 보잘것없는 수입이지만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 ⑤ 김 양의 할머니는 안동 권씨라고 합니다.

04

2016년 기출문제

26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2016. 서울시 9급]

- ① 대화를 하면 할수록 타협점은 커녕 점점 갈등 만 커지게 되었다.
- ② 창문 밖에 소리가 나서 봤더니 바람 소리 밖에 들리지 않았다.
- ③ 그 만큼 샀으면 충분하니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만 상자에 담으렴.
- ④ 나는 나대로 갈 데가 있으니 너는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거라.

27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2016. 국회직 8급]

- ① 너나 없이 생활이 바쁘다.
- ② 남의 일에 함부로 알은 체 하지 마라.
- ③ 하도 사정하는 바람에 마지 못해서 들어주었다.
- ④ 보잘 것 없는 수입이지만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 ⑤ 지난 계절은 유달리 무척이나 더웠다.

28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2016. 지방직 9급]

- ① 지금으로부터 십여 년 전에 작은 소요가 있었다.
- ② 우리는 모임에서 정한대로 일정을 짤 수밖에 없다.
- ③ 수정 요청시 연관된 항목을 재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 ④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뿐 아니라 추진력마저 없는 사람이다.

29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2016. 국가직 9급]

- ① 그는 우리 시대의 스승이라기 보다는 자상한 어버이이다.
- ② 그는 황소 같이 일을 했다.
- ③ 하루 종일 밥은 커녕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 ④ 내 모자는 그것하고 다르다.

30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2016. 경찰직 1차]

- ① 그녀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녀뿐이다.
- ② 억울하면 법대로 해라. 그리고 궁금한 것은 스스로 책이나 컴퓨터로 찾아보아라.
- ③ 우리는 어릴 망정 어떤 고난도 참아 냈다. 지금까지 애쓴 만큼 강팀들도 이길 수 있다.
- ④ 철수는 일을 하다가 실수로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그러나 사장님에게 혼나기는커녕 수고했다고 칭찬까지 받았다.

31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2016. 사회복지직 9급]

- ① 나는 거기에 어떻게 갈지 결정하지 못했다.
- ② 이미 설명한바 그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 ③ 은연 중에 자신의 속뜻을 내비치고 있었다.
- ④ 그 빨간 캡슐이 머리 아픈 데 먹는 약입니다.

32

띄어쓰기가 잘못된 문장은?

[2016. 지방직 7급]

- ① 이제 봄이 옵니다그려.
- ② 집에서처럼 그렇게 해야겠지?
- ③ 사과하고 배하고는 과일입니다.
- ④ 나가면서 까지도 말썽을 피우고 있다.

05

2015년 기출문제

33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2015. 기상직 7급]

- 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 지 가로수 가지들이 꺾이고 부러졌다.
- ② 그가 십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데는 그녀의 힘이 컸다.
- ③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와 집을 실은 뗏목을 덮쳤다.
- ④ 미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에 상세히 나누기로 했다.

34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2015. 서울시 7급]

- ① 먹을 만큼 덜어서 집에 갈거야.
- ② 이게 얼마만인가?
- ③ 저 도서관만큼 크게 지으시오.
- ④ 제 27대 국회의원

35

다음 문장 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2015. 기상직 9급]

- ①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몇 개나 딸 수 있을 지 궁금하다.
- ② 오늘은 자동차를 수리하는 데 필요한 공구를 사야겠다.
- ③ 식사를 할 때에는 먹을 만큼 덜어 먹도록 하여라.
- ④ 우리는 수험생이므로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다.

36

다음 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2015. 법원직]

- ⑦ 김양수 씨가 ⑤ 떠난지가 오래다.
- 그가 그렇게 ④ 떠나 버린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 나는 한동안 명하니 ⑥ 지낼 수밖에 없었다.

① ⑦ 김양수 씨

② ⑤ 떠난지

③ ④ 떠나 버린 것

④ ⑥ 지낼 수밖에

39

다음 중 띄어쓰기가 모두 옳은 것은?

[2015. 국회의원 9급]

- ① 집에서▽처럼▽당신▽마음대로▽할▽수▽있는▽것은
▽아녜요.
- ② 그러면▽고민도▽많이▽해▽보고, ▽교양서적을▽읽
어도봐야▽하죠.
- ③ 아는▽대로▽말하고▽약속한▽대로▽이행하는▽삶의
▽자세가▽필요해요.
- ④ 직장에서▽만이라도▽부디▽예의를▽지킬▽줄▽아는
▽사람이▽되어▽줘요.
- ⑤ 우리는▽언제든▽성장할수▽있어요. ▽마음만▽먹으면
▽누구든▽가능하죠.

37

〈보기〉의 ⑦~⑩ 중에서 띄어쓰기의 수정이 잘못된 것은?

[2015. 경찰직]

〈보기〉

알고 계신 ⑦ 바와같이 이번 대회를 ⑤ 준비하는데 어려움
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모든 일이 잘 진행이 되니
이제는 다음 대회가 어디서 ⑩ 개최될지 궁금하네요. 항상
그랬지만 이번 ⑨ 대회 만큼은 더욱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① ⑦ 바와 같이

② ⑤ 준비하는 데

③ ⑩ 개최될 지

④ ⑨ 대회만큼

40

밑줄 친 부분 중 띄어쓰기에 맞지 않는 것은?

[2015. 국가직 7급]

- ① 난점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그는 나와 동창인바 그를 잘 알고 있다.
- ② 사람은 항상 배운 대로 행동하기 마련이다.
사회의 규범대로 움직여야 타인의 지탄을 받지 않는다.
- ③ 어른들이 다 떠나시니 나도 떠날 밖에.
그밖에 더 논의할 사항은 두 가지 관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 ④ 업무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화합에도 각별히 신
경을 쓴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와도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38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2015. 국가직 9급]

- ① 그 사고는 여러 가지 규칙을 도외시 하였기 때문이야.
- ② 사실상 여자 대 남자의 대리전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
- ③ 반드시 거기에 가겠다면 내키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돼.
- ④ 금연을 한 만큼 네 건강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 지 궁
금해.

41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2015. 서울시 9급]

- ① 차라리 얼어서 죽을망정 겟불은 아니 죄겠다.
- ② 마음에 걱정이 있을 지라도 내색하지 마라.
- ③ 그녀는 얼굴이 예쁜대신 마음씨는 고약하다.
- ④ 그 사람이 친구들 말을 들을 지 모르겠다.

42

다음 문장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수정한 것은?

[2016. 경찰직 2차]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가족같이 지내던 친구가 한번 놀러 오라고 연락을 했다.

- ① 희노애락을 함께 하며 가족같이 ▶ 지내던 ▶ 친구가 ▶ 한번 ▶ 놀러 오라고 ▶ 연락을 ▶ 했다.
- ② 희로애락을 함께 하며 가족 ▶ 같이 ▶ 지내던 ▶ 친구가 ▶ 한 번 ▶ 놀러 오라고 ▶ 연락을 ▶ 했다.
- ③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가족 ▶ 같이 ▶ 지내던 ▶ 친구가 ▶ 한 번 ▶ 놀러 ▶ 오라고 ▶ 연락을 ▶ 했다.
- ④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가족같이 ▶ 지내던 ▶ 친구가 ▶ 한번 ▶ 놀러 ▶ 오라고 ▶ 연락을 ▶ 했다.

Chapter 09 문장부호

01

2018년 기출문제

01

다음 문장 부호의 쓰임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경찰직 1차]

- ① “나는 너를….” 하고 뒤돌아섰다.
- ② 그녀의 50세 나이(年歲)에 사랑의 꽃을 피웠다.
- ③ ‘환경 보호–숲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다.
- ④ 윤동주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는 31편의 시가 실려 있다.

02

2017년 기출문제

02

문장 부호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 10월]

- ① 의문문의 끝에 마침표나 느낌표를 쓰는 경우도 있다.
- ②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가운뎃점을 쓴다.
- ③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쉼표를 쓴다.
- ④ 한 문장 안에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 각 물음의 뒤에 물음표를 쓴다.

03

〈보기〉의 ⑦~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7. 서울시 사회복지직]

〈보기〉

- ⑦ 낯익은, 철수의 동생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 ⑧ 꺼진 불도 다시 보자
- ⑨ 휴가를 낸 김에 며칠 푹 쉬고 온다?
- ⑩ ‘나는 일이 다 틀렸나 보군.’ 하고 생각하였다.

- ① ⑦: 쉼표를 보니 관형어 ‘낯익은’은 ‘철수’와 ‘동생’을 동시에 수식함을 알 수 있다.
- ② ⑧: 마침표가 없는 것을 보니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제목이나 표어임을 알 수 있다.
- ③ ⑨: 물음표를 보니 의문형 종결 어미로 끝나지 않았더라도 의문을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⑩: 작은따옴표를 보니 ‘일이 다 틀렸나 보군.’은 마음 속으로 한 말이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3 2015년 기출문제

04

다음 중 문장 부호와 그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2015. 서울시 7급]

- ① 가운뎃점(·)은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낸다.
- ② 쌍점(;)은 마침표의 일종으로 작은 제목 뒤에 간단한 설명을 붙일 때 쓰인다.
- ③ 줄표(–)는 이미 말한 내용을 다른 말로 부연하거나 보충할 때 쓰인다.
- ④ 대괄호([])는 끝음표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때 쓰인다.

04 2014년 기출문제

06

문장 부호의 사용이 옳지 않은 것은?

[2014. 국가직 7급]

- 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 ②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다.
- ③ 춘원[6.25 때 납북]은 우리나라의 소설가이다.
- ④ 어머님께 말했다가—아니, 말씀드렸다가—꾸중만 들었다.

05

묶음표의 쓰임이 잘못된 것은?

[2015. 지방직 9급]

- ① 나는 3·1 운동(1919) 당시 중학생이었다.
- ② 그녀의 나이(年歲)가 60세일 때 그 일이 터졌다.
- ③ 짧음[희망(希望)의 다른 이름]은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 ④ 국가의 성립 요소

$$\left\{ \begin{array}{l} \text{국토} \\ \text{국민} \\ \text{주권} \end{array} \right.$$

Chapter 10 자연스러운 문장

01

2019년 기출문제

01

어법에 어긋난 문장을 수정하고 설명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 지방직 9급]

- ①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 ‘접수되었을 때에는’은 사건이나 행위가 완료된 상황을 나타내므로 ‘접수될 때에는’으로 바꾼다.
- ② 안내서 및 과업 지시서 교부는 참가 신청자에게만 교부한다.
→ ‘과업 지시서 교부’와 서술어 ‘교부하다’는 의미상 중복되며 호응하지 않으므로 앞의 ‘교부’를 삭제한다.
- ③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의 수역을 제외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목적어 ‘수역을’과 서술어 ‘제외되다’는 호응하지 않으므로 ‘제외된’은 ‘제외한’으로 바꾼다.
- ④ 관련 도서는 해당 부서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열람한다.
→ 서술어 ‘열람하다’는 부사어 ‘관계자에게’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열람하게 한다.’와 같이 바꾼다.

02

다음 문장 중 어법에 가장 맞는 것은? [2019. 서울시 9급]

- ① 금융 당국은 내년 금리가 올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면서 대출 이자율이 2%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 ② 작성 내용의 정정 또는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서류는 무효입니다.
- ③ 12월 중에 한–중 정상회담이 다시 한 번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 ④ 그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

03

다음 문장 중에서 의사 전달이 가장 명확한 것은?

[2019. 경찰직]

- ① 다시 풀려진 뮤었던 머리를 나는 움직이지 않게 더 꽉 묶였다.
- ② 그는 이발소에서 이발을 한다.
- ③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여러분의 경찰이 되겠습니다.
- ④ 두 명의 경찰이 범인 둘을 잡았다.

04

문장의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은?

[2019. 경찰직]

- ① 그중 한 명이 나서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소리쳤다.
- ② 겨우내 팽이와 썰매를 타던 논에는 어느새 물이 넘실 거리고 있다.
- ③ 국세청은 사적으로 개인의 정보가 열람되어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④ 내가 오랫동안 품어 왔던 생각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할 때 나 또한 행복할 수 있었다.

02 / 2018년 기출문제

05

문장의 호응 관계가 가장 적절한 것은? [2018. 지역인재]

- ① 작품에 손을 대거나 파손하는 행위 금지
- ② 한식은 매운 맛과 풍부한 영양가가 특징이다.
- ③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을 먹자.
- ④ 이번 협상에서 실패한 원인은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06

다음 중 문장의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은? [2018. 경찰직 2차]

- ① 나는 그녀와 영이를 만났다.
- ② 10분 정도 있다가 너에게 다시 전화할게.
- ③ 그는 웃으면서 찾아오는 학생들을 친절히 안내했다.
- ④ 그는 점심을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공부에만 몰두했다.

07

문장 성분의 호응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2018. 국가직 7급]

- ① 세종이 한글을 만든 것은 모든 한자 사용을 없애고자 한 의도였다.
- ② 우리는 균형 있는 식단 마련과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
- ③ 우리 팀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관중이 동원될 수 있도록 모든 홍보 방안을 고려해 왔다.
- ④ 아래에 제시된 두 가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00년 대 이후 복지 정책에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08

문장쓰기 어법이 가장 옳은 것은?

[2018. 서울시 9급]

- ① 한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 ②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경영 혁신이 요구 되어지고 있다.
- ③ 이것은 아직도 한국 사회가 무사안일주의를 벗어나지 못 했다는 생각이 든다.
- ④ 냉정하게 전력을 평가해 봐도 한국이 자력으로 16강 티켓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09

어법에 어긋나는 문장을 수정하고 설명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지방직 9급]

- ① 전철 내에서 뛰지 말고, 문에 기대거나 강제로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 ‘열다’는 타동사이므로 ‘강제로’와 ‘열려고’ 사이에 목적어 ‘문을’을 보충하여야 한다.
- ② ○○시에서 급증하는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 생활용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이지 생활용수가 급증하는 것이 아니므로, ‘급증하는 생활용수의 수요에 대응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로 고쳐야 한다.
- ③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 ‘사고 원인 파악을 마련하여’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앞의 명사구를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로 고쳐 절과 절의 접속으로 바꾸어야 한다.
- ④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 서류 등을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할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함
→ ‘하되’는 앞뒤 문장의 내용을 연결하는 어미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하며’로 고쳐야 한다.

10

〈보기〉의 문장은 구조상 중의성(重義性: 여러 가지 뜻을 갖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문장의 구조로부터 형성되는 의미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9급]

〈보기〉

봄이면, 아름다운 서울의 공원과 거리의 나무에서 봄꽃들이 활짝 피어난다.

- ① 봄꽃은 아름답다.
- ② 서울은 아름답다.
- ③ 거리의 나무는 아름답다.
- ④ 서울의 공원은 아름답다.

11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가장 옳은 것은? [2018. 서울시 9급]

- ① 왜냐하면 한국이 빠른 속도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 ②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중요한 까닭은 우리가 합격했다는 사실이다.
- ③ 내가 그 분을 처음 뵤 것은 호텔에서 내 친구하고 만나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다.
- ④ 학계에서는 국어 문법에 관심과 조명을 해 나가고 근대 국어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12

다음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경찰직 1차]

- Ⓐ 용감한 그의 아버지는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
- Ⓑ 아버지는 어머니의 초상화를 팔았다.
- Ⓒ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많다.
- Ⓓ 철이와 영선이는 결혼했다.

- ① Ⓐ은 ‘용감한’이 ‘그’를 꾸미는지, ‘그의 아버지’를 꾸미는지 불분명하다.
- ② Ⓑ은 ‘어머니가 그린 초상화’인지, ‘어머니를 그린 초상화’인지, ‘어머니가 소유한 초상화’인지 불분명하다.
- ③ Ⓒ은 ‘선생님이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인지,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인지 불분명하다.
- ④ ⒯은 ‘철이’가 ‘영선’이와 결혼했다는 의미로 명확한 의미의 문장이다.

13

다음의 ①~④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교육행정 9급]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① 사용이 유발되는 악영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 안구 건조증과 신체적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 스마트폰 화면을 장시간 집중해서 들여다보면 눈 깜빡임 ② 횟수가 줄어들어 안구가 건조해진다. ③ 그런데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짧은 파장의 청색 빛은 속눈을 방해하기 때문에 무기력증에 ④ 시달릴 수 밖에 없다.

- ① Ⓐ은 바로 뒤의 말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사용으로’로 수정한다.
- ② Ⓑ은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횟수’로 수정한다.
- ③ Ⓒ은 앞뒤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러나’로 수정한다.
- ④ ⒯은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으므로 ‘시달릴 수밖에’로 수정한다.

14

문장 성분의 호응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2018, 지방직 7급]

- ① 대화명을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않는 사람은 관리자가 카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 ②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아마 마음속으로라도 박수를 보내는 사람은 얼마나 되었을까.
- ③ 월드컵에서 보여 준 에너지를 바탕으로 국민 대통합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 ④ 행복의 조건으로서 물질적 기반 이외에 자질의 연마, 인격, 원만한 인간관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03

2017년 기출문제

15

⑦~⑩의 고쳐 쓰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지방직 9급]

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우리를 괴롭히는 황사가 본래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⑦ 황사의 이동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황사는 탄산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을 포함하고 있어 봄철의 산성비를 중화시켜 토양의 산성화를 막는 역할을 했다. 또 황사는 무기물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 생물에게도 도움을 줬다. ⑧ 그리고 지금의 황사는 생태계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다. 이처럼 황사가 재앙의 주범이 된 것은 인간의 환경 파괴 ⑨ 덕분이다. 현대의 황사는 각종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독성 황사이다. 황사에 포함된 독성 물질 중 대표적인 것으로 다이옥신을 들 수 있다. 다이옥신은 발암 물질이며 기형아 출산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독성 물질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⑩ 황사를 과거보다 자주 발생하고 정도도 훨씬 심해지고 있어 문제이다.

- ① ⑦은 글의 논리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삭제 한다.
- ② ⑧은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지 못하므로 ‘그러므로’로 바꾼다.
- ③ ⑨은 어휘가 잘못 사용된 것이므로 ‘때문이다’로 고친다.
- ④ ⑩은 서술어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황사가’로 고친다.

16

다음 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 10월]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게 될 지역 주민들도 그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⑦ 그리고 그런 시설이 자기 고장에 들어서는 것을 받아들이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⑤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 고장에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는 ⑥ 지역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뒤로 미루면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⑧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나와 내 이웃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 ① ⑦은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그러나’로 바꾼다.
- ② ⑤은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이므로 문단의 통일성을 위해 삭제한다.
- ③ ⑥은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으로 ‘지역 이기주의이다’로 순화 한다.
- ④ ⑧은 주어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로 고친다.

17

높임법의 사용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 10월]

- ① 제 말씀을 그렇게 곤해하시다니 정말 섭섭합니다.
- ② 그분은 항상 걱정이 많으시니 각별히 배려해 드려야 합니다.
- ③ 당신께서 생전에 아끼시던 물품이라 당장에 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 ④ 아버님께서는 집안의 대소사에 대해 항상 아랫사람들에게 여쭈어 보십니다.

18

어법에 맞는 문장은?

[2017. 지방직 7급]

- ① 그 어른은 웬간해서는 내색을 안 하시는 분이다.
- ② 일이 얹히고설켜서 풀기가 어렵다.
- ③ 불필요한 기능은 빼지고 필요한 기능만 살렸다.
- ④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 개통될지 알 수 없다.

19

다음 글의 고쳐 쓰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지방직 7급]

① ‘클래식 입문’ – 두려워하지 마세요.

클래식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클래식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⑤ 티켓트를 구한 후 별도의 준비 없이도 공연 현장에서 곧바로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클래식이다.

물론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습’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연장에 가기 전에 감상할 음악의 전곡(全曲) 음반을 구해 ⑥ 미리 들어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작곡가나 연주자 그리고 지휘자 등에 대해 미리 살펴보는 것도 좋다. 같은 곡을 다른 사람이 연주한 것을 들어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공연장에서 연주가 끝날 때에는 뜨거운 갈채를 보낸다. 연주가 만족스럽게 느껴졌을 때도 박수를 칠 수 있다. 매우 감동한 경우에는 ‘앙코르!', ‘브라보!' 등의 환호를 보내도 ⑦ 올바르다.

- ① ⑦: 제목을 ‘클래식 예절 – 꼭 지켜야 할 것들’로 바꾸자.
- ② ⑤: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티켓트’를 ‘티켓’으로 고치자.
- ③ ⑥: 서술어를 ‘미리 들어 보는 것이다.’로 고쳐야겠어.
- ④ ⑦: ‘올바르다’는 ‘무방하다’로 바꾸는 것이 좋겠어.

20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쳐 쓴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지역인재]

- ① 말과 행동이 반드시 일치하면 안 된다.
→ 말과 행동이 반드시 일치할 뿐이다.
- ② 나는 결코 고향에 돌아갈 것이다.
→ 나는 결코 고향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 ③ 그는 비록 가난하면서 행복했다.
→ 그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행복했다.
- ④ 철수는 밥을 거의 먹었다.
→ 철수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21

다음 중 문장의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경찰직 1차]

- ① 공직자는 사회 현실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 ② 이 약은 예전부터 우리 집의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되어 왔다.
- ③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순응하기도 한다.
- ④ 그는 내키지 않는 일은 반드시 하지 않는다.

22

다음 문장 중 어법에 맞게 쓰인 것은? [2017. 국회직 8급]

- ① 한서는 올림픽의 상업성과 여성을 상품화한다는 비난이 있지만 비치발리볼은 이번에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 ② 혐오시설인 장례식장의 경우 주변 환경과 미관이 오염될 우려가 높다면 허가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 ③ 미세먼지를 제외한 환경기준성 오염 물질들은 평년 수준 또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④ 시공에 정성을 다하고 편에 최대한 공사 기간을 단축하여 고가 차도 공사를 2020년 1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 ⑤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23

다음 중 어법에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경찰직 2차]

- ① 때는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다.
- ②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한다.
- ③ 글을 잘 쓰려면 신문과 뉴스를 열심히 시청해야 한다.
- ④ 철이는 영선이에게 가방을 주었는데, 그 보답으로 철이에게 책을 선물하였다.

24

⑦~⑨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

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이 지정되어 있다. 구청에서는 ⑦ 도로 노면에 노란색 띠줄을 표시하거나 ⑧ 어린이 보호 또는 속도 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주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⑨ 어린이 교통사고는 맑은 날 많아 일어난다고 한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판단력과 ⑩ 예지력(豫知力)이 떨어져서 위급한 사태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때문에 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 운전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 ① ⑦: 의미가 중복되므로 ‘도로 노면’을 ‘노면’으로 수정한다.
- ② ⑧: 앞뒤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그리고’를 ‘그러나’로 수정한다.
- ③ ⑨: 중심 화제에서 벗어난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④ ⑩: 문맥에 맞지 않으므로 ‘예지력(豫知力)’을 ‘추진력’으로 바꾼다.

04

2016년 기출문제

25

어법에 맞는 것은?

[2016. 국가직 7급]

- ① 날씨가 내일부터 누그러져 주말에는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② 내가 유학을 떠날 때, 친구가 소개시켜 준 학교는 유명한 학교가 아니었다.
- ③ 1반 축구팀은 불안한 수비와 문전 처리가 미숙하여 2반 축구팀에 패배하였다.
- ④ 방송 장비를 휴대한 트럭이 현장에 대기하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합니다.

26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오류를 지적하고 바로잡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회직 8급]

평소에도 우리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골치 아픈 일을 자칭해서 떠맡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그가 이번 일의 적임자임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다른 방안이 없다면 과장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함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장해 주십시오.

- ① ‘자칭해서’는 의미상 문맥에 맞지 않으므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업무를 맡는다는 의미의 ‘자청해서’로 고쳐 쓴다.
- ② ‘일쑤’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기이므로 ‘일수’로 고쳐 쓴다.
- ③ ‘과반수 이상’은 의미의 중복 사용이므로 ‘반수 이상’으로 고쳐 쓴다.
- ④ ‘함으로’는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인 ‘~하는 것으로써’를 나타내므로 ‘하므로’로 고쳐 쓴다.
- ⑤ ‘조장’은 부정적인 일을 부추긴다는 뜻을 가지므로 ‘조성’으로 고쳐 쓴다.

27

다음 글을 고쳐 쓰기 위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지방직 9급]

창의적 사고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① 돌파하는 데서 출발한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이론과 법칙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자신만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 ② 그러나 이러한 창의적 사고가 단순히 개인의 독특함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창의적 사고가 사회적·문화적 환경과 적절한 교육을 통해 ③ 길러진다. 따라서 ④ 자신의 창의성을 계발하기 위해 주변의 사물을 비판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 ① ①: 단어의 쓰임이 어색하므로 ‘탈피하는’으로 고친다.
- ② ②: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잇지 못하므로 ‘또한’으로 고친다.
- ③ ③: 주술 호응이 되지 않으므로 ‘길러진다는 점이다’로 고친다.
- ④ ④: 주장은 포괄하지 못하므로 ‘환경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고친다.

28

다음 중 문장의 의미가 가장 명확한 것은? [2016. 경찰직 1차]

- ①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많다.
- ② 오늘도 나는 반장과 선생님을 찾아다녔다.
- ③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 ④ 아버지는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신문을 더 좋아한다.

29

㉠～㉡을 고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국가직 9급]

자본주의 체제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이 똑같이 많이 벌고 잘살기를 바랄 수는 없다. 어느 정도의 소득 격차는 경쟁을 유발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 따라서 우리와 같은 양극화 현상의 심화 추세를 그대로 방치한 채 자연 치유되도록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동안 단편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했으나 ㉡ 떡 먹은 입 쓸어 치듯 개선은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어 가고 있음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저소득층 소득 향상을 통한 근본적인 빈부 격차 개선책을 제시하여 빈자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야 한다. 그렇다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욕하거나 ㉢ 경원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기업 투자와 내수 경기를 일으키는 일이 긴요하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 서민 소득도 늘어나게 된다. ㉣ 또한 자본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고소득층의 해외 소비 활동도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 개혁을 통한 재분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계만큼 유효한 재분배 정책 수단도 없다.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부문의 양극화 개선을 위해 경제 체질과 구조 개선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 ① ㉠－문맥에 맞도록 ‘그러나’로 수정한다.
- ② ㉡－의미가 통하도록 ‘아랫돌 빼서 윗돌 꾀듯’으로 수정한다.
- ③ ㉢－어법에 맞도록 ‘경원을 사서는’으로 수정한다.
- ④ ㉣－문단의 통일성에 어긋나므로 삭제한다.

30

다음 중 중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은?

[2016. 사회복지직 9급]

- ① 정수가 흰 바지를 입고 있다.
- ② 미희가 보고 싶은 친구들이 많다.
- ③ 김 선생님이 간호사와 입원 환자를 둘러보았다.
- ④ 모든 소년들은 좋아하는 소녀가 한 명씩 있다.

05

2015년 기출문제

31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2015. 국가직 7급]

- ①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가능한 충실히 논의해 왔다.
- ② 이 물건은 후보 공천 시점에 보낸 것인지도 모른다.
- ③ 디지털 텔레비전 시대에는 고화질의 화면은 물론 다양 한 정보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 ④ 지금까지는 문제를 회피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이와 같은 관례를 깨뜨릴 때도 되었다는 생각이다.

32

밑줄 친 조사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2015. 국가직 9급]

- ① 건축 면적은 설계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② 제안서 및 과업 지시서는 참가 신청자에게 한하여 교부한다.
- ③ 관계 조서 사본을 관리 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인다.
- ④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평가는 1년 유예를 둔다.

33

㉠～㉡ 중 어휘가 바르게 사용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5. 기상직 7급]

- 골드바는 보통 막대 모양의 ㉠ 금괴를 말한다.
- 그렇게 걷다가는 넘어지기 ㉡ 실상이다.
- 그의 아들은 우리 회사의 뛰어난 ㉢ 재원이다.
- 이 회사는 비록 직원 수는 ㉔ 작지만 시설은 대기업 못지 않다.

- | | |
|--------|--------|
| ① ㉠, ㉡ | ② ㉠, ㉢ |
| ③ ㉡, ㉔ | ④ ㉔, ㉕ |

34

어법에 맞는 문장은?

[2015. 사회복지직]

- ① 그는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인 김 교수에게 피아노를 사사했다.
- ② 주민들은 정부 당국에게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 ③ 인간은 현실을 지배하기도 하고 복종하기도 한다.
- ④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에 갈음합니다.

36

다음 중 고친 문장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 지방직 9급]

- ① 그는 창작 활동과 전시회를 열었다.
→ 그는 창작 활동을 하고 전시회를 열었다.
- ② 그는 천재로 불려졌다.
→ 그는 천재로 불렸다.
- ③ 그는 마음씨 좋은 할머니의 손자이다.
→ 그는 마음씨가 좋은 할머니의 손자이다.
- ④ 나는 오늘 아침 나무에게 물을 주었다.
→ 나는 오늘 아침 나무에 물을 주었다.

35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유형의 잘못을 범한 문장은?

[2015. 국회직 8급]

국어는 앞뒤 문맥을 통하여 성분의 호응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 한 성분 생략이 자유롭다. 문제는 이러한 성분 생략이 문맥 호응상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이때금 성분 생략이 아닌 성분 실종으로 변질되어 비문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어 구조상 의미 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 성분 생략은 국어 문장 구조의 간결성, 힘축성, 경제성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이것이 성분 간에 호응을 어긋나게 하면 성분 실종이 되므로 성분 생략과 성분 실종은 구별해야 한다.

- ① 학문은 따지고 의심스럽게 보고 다시 검토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 ②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고 해서 수사 결과를 두고 볼 일이다.
- ③ 토익 시험에 응시하실 분들은 학교에 원서를 접수하십시오.
- ④ 다솜이의 여름방학 숙제로 제출한 그림은 특이했다.
- ⑤ 재원이와 철현이는 지난달에 여행을 다녀왔다.

37

밑줄 친 부분을 고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2015. 지방직 9급]

사업자는 절전형 기기 보급 제도가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여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 ① 사업자는 → 사업자의
- ② 에너지를 → 에너지의
- ③ 줄임으로써 → 줄임으로서
- ④ 발전과 → 발전보다

38

다음 중 올바른 문장은?

[2015. 경찰직]

- ① 시민 단체는 일본 정부에 독도 문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 ② 이제 비로소 대단원(大團圓)의 막을 올리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 ③ 세종에 대해 연구한 논문과 책으로만 보아도 수백 권에 이른다.
- ④ 강 교수님, 이번에 정년을 하시면서 훈장이 추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39

다음 중 어휘 사용의 측면에서 옳은 문장으로만 묶인 것은?

[2015. 국회직 9급]

- Ⓐ 일이 돌아가는 걸 보니 무슨 사달이 나기는 날 것 같다.
- Ⓑ 우리나라 토종 식물들의 서식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 Ⓒ 경기 침체로 빌라와 연립주택의 경매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 Ⓓ 자신을 밝히지 않고 남을 도와왔던 화제의 장본인을 소개하겠습니다.

① 없음

② Ⓐ

③ Ⓑ, Ⓒ

④ Ⓑ, Ⓒ, Ⓓ

⑤ Ⓑ, Ⓒ, Ⓓ, Ⓕ

41

다음 <공고문>의 Ⓛ~ ⓘ에 대한 수정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 사회복지직 9급]

이곳은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입니다. 따라서 외부인이 Ⓜ 이곳을 마음대로 출입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는 법에 Ⓝ 접촉되오니 ⓘ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고발 조치를 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2015년 00월 00일 주인 백

- ① Ⓛ: 의미가 중복되므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표현하는 게 좋겠어.
- ② Ⓜ: 문장 성분의 자연스러운 호응을 위해 ‘이곳을’을 ‘이곳에’로 수정하는 게 좋겠어.
- ③ Ⓝ: 맥락상 적절하지 못한 단어이므로 ‘저촉’으로 수정하는 게 좋겠어.
- ④ ⓘ: 어법에 맞게 ‘삼가해 주시기’로 수정하는 게 좋겠어.

40

어법에 맞는 문장은?

[2015. 지방직 7급]

- Ⓐ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복종하기도 한다.
- Ⓑ 북극의 빙하는 수십 년 내에 없어질 것으로 예측되어졌다.
- Ⓒ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는 인문학적 상상력이다.
- Ⓓ 교육부는 새 교과서를 편찬함에 있어서 전인교육의 충실화에 두었다.

42

어법에 맞는 문장은?

[2015. 교육행정직 9급]

- ① 이 매장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한류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② 우리는 본 행사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녹색 관광을 즐기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③ 정부에서는 외국인 이주민이 내국인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④ 우리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에게 이 사업의 미래상에 대해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Chapter 11 고전문법

01

2018년 기출문제

01

다음 자료를 토대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경찰직 2차]

중세 국어의 자료	중세 국어의 특징
나·라·해, 불·휘 기·픈	① 받침을 조사나 어미에 연 달아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는 표기를 활용하고 있다.
: 도호, ·포·디	②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 수·빙니·겨·날·로·뿌·메	③ 명사형 어미 ‘-움’이 사용되고 있다.
: 내·히 이·러 바·르·래·가는·니	④ 주격 조사-‘히’가 사용되고 있다.

① ⑦

③ ⑨

② ⑧

④ ⑩

02

⑦~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국가직 7급]

千世 우희 미리 定호 산 漢水 北에 ⑦ 累仁開國호샤 午年이
고업스시니
聖神이 니수샤도 ⑧ 敬天勤民호샤사 더욱 구드시리이다
⑨ 님금하 ⑩ 아르쇼서 洛水에 山行 가 이서 하나벌 미드니
잇가

- ① ⑦에서 ‘-샤’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에 연결어미 ‘-아’가 결합된 형태로, 현대국어의 ‘-시어’에 대응된다.
② ⑧에서 ‘-샤’는 선행하는 활용형과 결합하여 그 뜻을 강조하는 조사로, 현대국어의 ‘-서’에 대응된다.
③ ⑨에서 ‘-하’는 높임을 받는 대상에 쓰는 호격 조사로, 현대국어의 ‘-이시여’에 대응된다.
④ ⑩에서 ‘-쇼서’는 청자를 높여 주며 명령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현대국어의 ‘-십시오’에 대응된다.

03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019. 국가직 9급]

말쓰물 ⑦ 술봉리 하덕 天命을 疑心호실씨 쑤므로 ⑧ 뵈아
시니 놀애를 브르리 ⑨ 하덕 天命을 모르실씨 쑤므로
⑩ 알외시니
(말씀을 아威尔 사람이 많지만, 天命을 의심하시므로 꿈으로
재촉하시니 노래를 부를 사람이 많지만, 天命을 모르므로
꿈으로 알리시니)

-용비어천가 13장-

- ① ⑦에서 ‘-아’는 주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기능한다.
② ⑧에서 ‘-아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기능한다.
③ ⑨에서 ‘-덕’은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기능한다.
④ ⑩에서 ‘-외-’는 사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기능한다.

04

〈보기〉는 중세국어의 표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따른 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9급]

〈보기〉

중세국어 표기법의 일반적 원칙은 표음적 표기법으로, 이는 음운의 기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를 말한다. 이어지는 이러한 원리에 따른 것으로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받침이 있는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는 표기를 말한다.

- | | |
|-------------|-------------|
| ① 불휘 기픈 | ② ㅂㄹ매 아니 ԝ爾 |
| ③ 장기판늘 링글어늘 | ④ 바르래 가느니 |

02

2017년 기출문제

06

다음을 분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 10월]

이랑이 소리를 높히 혀야 나를 불러 쳐다 블밋출 보라 웨
거늘 급히 눈을 드려 보니 블밋 홍운을 헤았고 큰 실오리
훗 줄이 붉기 더욱 거이흐며 거운이 진홍 짱흔 것이 층
층 나 손바닥 너비 짱흔 것이 그믐밤의 보는 숫불빛 짱더
라. 층층 나오더니 그 우흐로 쳐온 회오리밤 짱흔 것이 붉
기 호박 구슬 짱고 붉고 통낭흐기는 호박도곤 더 곱더라.

- ① 혼철 표기가 발견된다.
- ②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된다.
- ③ 원순 모음화를 반영한 표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의’가 현대 국어와 다른 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05

중세국어 표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8. 서울시 7급]

- ㄱ. 종성 표기에는 원칙적으로 ‘ㄱ, ㆁ, ㄷ, ㄴ, ㅂ, ㅁ, ㅅ, ㄹ’의 8자만 쓰였다.
- ㄴ. 사잇소리에는 ‘ㅅ’과 ‘△’ 외의 자음이 쓰이지 않았다.
- ㄷ. 한자를 적을 때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한자 아래 병기했다.
- ㄹ.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의 3분법으로 분석하였으나 종성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 글자를 그대로 다시 썼다.
- ㅁ. ‘ㆁ’을 순음 아래 이어 쓰면 순경음이 된다.

- | | |
|-----------|-----------|
| ① ㄱ, ㆁ, ㄷ | ② ㄱ, ㄷ, ㄹ |
| ③ ㄴ, ㄹ, ㅁ | ④ ㄱ, ㄹ, ㅁ |

07

다음 밑줄 친 차자 표기의 차용 방식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2017. 경찰직 1차]

吾𦥑不喻懸𦥑伊賜等

나를 안디 붓그리샤둔

㉠

花𦥑 折叱可獻乎理音如

고줄 것거 바도림다

㉡ ㉢ ㉣

- ① ㉠

- ② ㉡

- ③ ㉢

- ④ ㉣

08

훈민정음의 28 자모(字母) 체계에 들지 않는 것은?

[2017. 국가직 9급]

- | | |
|-----|-----|
| ① ㆁ | ② △ |
| ③ ㅠ | ④ 崩 |

09

다음 중 한글 창제 당시 초성 17자에 포함되지 않는 글자가 쓰인 것은?

- ① 님금
- ② 늦거수
- ③ 바울
- ④ 가비야븐

[2017. 서울시 9급]

10

다음 중 국어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서울시 9급]

- ① 띠어쓰기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규범화되었다.
- ② 주격 조사 ‘가’는 고대 국어에서부터 등장한다.
- ③ ‘.’는 17세기 이후의 문헌에서부터 나타나지 않는다.
- ④ ‘봉’은 15세기 중반까지 사용되다가 ‘𪛇’으로 변하였다.

11

다음 중 17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의 근대국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서울시 7급]

- ① 언문일치가 이루어졌다.
- ② 시상법 체계에서 과거 시제가 확립되었다.
- ③ 유성마찰음계열인 崩, 𩔗이 실제로 존재했다.
- ④ 의문문은 판정 의문과 설명 의문이 구별되기 시작했다.

12

다음 자료를 토대로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경찰직 1차]

[2장]

불·휘 기·픈 남·곤 ݩݪ·매 아·니 : ݩݪ·ݪ 꽃 : ݩ·ݪ 여·
름 ·하·느·니 : 식·미 기·픈 ·므·른 ·ݩ·ݪ·래 아·니 그·
출·ݪ : 내·히 이·러 바·ݪ·래 ·加·느·니

[125장]

千世 우·희 미·리 定·호·산 漢水北·에 累仁開國·호·샤 ト
年·이 : 𠮟 : 업·스시·니 聖神·이 : 니·수 샤·도 敬天勤民·
호샤·수 더욱 구드·시·리이·다·님·금·하 아·ݩ쇼·서 洛
水·예 山行 ·가 이·셔 ·하나·빌 미·드·니잇·가

- ① 중세 국어의 ‘-오/우-’는 대상법 및 인칭법 선어말어 미로서 ‘定호산’, ‘아ݩ쇼서’ 등에 쓰였으나 근대 국어 시기에 이르러 기능이 소실되고 이후 점차 소멸되었다.
- ② 설명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형 어미 ‘-니잇가’와 판정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형 어미 ‘-니잇고’가 있었고 ‘미 드니잇가’는 상대 높임법의 ھ쇼서체에 해당한다.
- ③ ‘-시/샤-’(주체 높임법), ‘-습/습/습-’(객체 높임법), ‘-이/잇-’(상대 높임법) 등 높임법이 발달해 있었고 높임의 호격 조사 ‘아’는 ㅎ종성 체언 다음에 쓰였다.
- ④ 주격 조사 ‘이’는 ‘이’뿐만 아니라 ‘丨’로 나타나거나 생략되기도 하였고 부사격 조사 ‘애’는 ‘애, 예’나 ‘의’, ‘의’ 등 다양한 형태로 쓰였다.

13

다음 자료가 간행된 시기에 나타난 국어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7. 서울시 사회복지직]

太子 丨 道理 일우샤 眾개 慈悲호라 ھ시느니

—「석보상절」—

- ① ‘낫’과 ‘낫’이 단모음화된 시기이다.
- ② 합용 병서와 각자 병서가 쓰였던 시기이다.
- ③ 주격 조사 ‘가’가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이다.
- ④ 모음 조화가 현대 국어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던 시기이다.

14

다음 우리말의 역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경찰직 2차]

- ① 근대 국어 시기에 방점 표기 및 ‘◦’과 ‘△’이 문자 체계에서 사라진다.
- ② 고대 국어의 향가에서는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은 분명히 확인되며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은 잘 확인되지 않는다.
- ③ 중세 국어 시기에 ‘뫼, 𩫂’은 각각 한자어 ‘산(山), 강(江)’으로 바뀌는 것과 같이, 고유어가 눈에 띄게 없어지고 한자어로 대체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 ④ 중세 국어에서는 존칭의 호격 조사 ‘하’, 인정법 및 대상법 선어말 어미 ‘-오/우-’, 높임법 선어말 어미 ‘-시-’(주체 높임법), ‘-습-, -습-, -습-’(객체 높임법), ‘-이-’(상대 높임법) 등이 나타나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15

〈보기〉의 문장을 바탕으로 중세국어의 경어법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서울시 7급]

〈보기〉

- ⑦ 太子 | 道理 일우샤 즈개 慈悲호라 旱시느니 《석보상 절》
- ⑧ 그 後로 人間엔 차바는 뼈 몯 좌시며 《월인석보》
- ⑨ 섬 안해 자싫 제 한비 사으 리로디 뛰어사 즈므니이…다 《용비어천가》
- ⑩ 곳과 果實와 풀과 나모와를 머그리도 이시며 《석보상 절》

- ① ⑦의 ‘즈가’는太子를 받는 높임의 대명사로 쓰였다.
- ② ⑧의 ‘좌시며’는 ‘먹다’의 높임말로 쓰인 것이다.
- ③ ⑨의 ‘자싫’은 ‘자다’의 높임말로 쓰인 것이다.
- ④ ⑩의 ‘이시며’는 앞에 오는 ‘머그리’를 높이는 말로 쓰였다.

04

2016년 기출문제

16

다음 중 〈보기〉의 글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2016. 서울시 7급]

〈보기〉

새말은 바로 ‘新村’이나 ‘新里’, ‘新洞’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새말’이 있다. 특정 마을에서 분파되어 나오면 거기가 새말(새마을)이 되는 셈이다. 새말과 비슷한 또 다른 마을 이름으로 ‘新基’, 혹은 ‘新基村’이 있다. ‘新基’라 적고 ‘새터’라 읽었으며, ‘新基村’이라 적고 ‘새터밀’이라 읽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이제는 알 것이다. 서울 지하철(5~8호선) 역명은 이러한 석독(釋讀)의 정신과 관계된다. 성북구 석관동(石串洞)의 ‘돌고지’, 은평구 신사동(新寺洞)의 ‘새질’, 서대문구 이현동(兒峴洞)의 ‘애오개’ 등이 유명하다.

- ① 성육: 漢陽(한양)이라 적고 서울로 읽었을 확률이 높겠군.
- ② 수연: 모래내라는 지명이 많이 보이는데 그것을 석독하면 사천(沙川)이 되겠군.
- ③ 경아: 大田(대전)이라 적고 한밭으로 읽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한밭이 바로 석독이군.
- ④ 재화: 광해군 때의 상궁 김개시(金介屎)가 있었는데 그 개시가 바로 개똥이야. 개똥은 음독자로 이해해야 하는군.

17

우리말과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가직 7급]

- ① ‘보라매’와 ‘수라’는 몽고어에서 유입된 말이다.
- ② 모음조화 현상은 현대 국어보다 중세 국어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 ③ 15세기부터 주격 조사 형태 ‘가’가 나타나서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 ④ 훈몽자회(訓蒙字會)에는 한글 자모의 명칭과 순서가 나타난다.

18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한글의 제자 원리로 가장 옳은 것은?
[2016. 서울시 9급]

- ① 초성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는데 ‘ㄱ’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 ② ‘ㄱ, ㄴ, ㅁ, ㅅ, ㅇ’ 5개의 기본 문자에 가획의 원리로 ‘ㅋ, ㄷ, ㅌ, ㄹ, ㅂ, ㅈ, ㅊ, ㅎ’ 총 8개의 문자를 만들었다.
- ③ 문자의 수는 초성 10자, 중성 10자, 종성 8자로 모두 28자이다.
- ④ 연서(連書)는 ‘ㅇ’을 이용한 것으로서 예로는 ‘봉’이 있다.

20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사회복지직 9급]

- ① ‘훈민정음(訓民正音)’이란 문자의 이름인 동시에 그 문자를 설명한 책의 이름이기도 하다.
- ② 문자로서의 ‘훈민정음’은 유네스코(UNESCO)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 ③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의 음가와 제자 방법, 한글의 사용 방법 등을 한자로 적은 책이다.
- ④ 치두음(齒頭音)과 정치음(正齒音)에 대한 내용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19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6. 경찰직 1차]

- 가. 1443년에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하였다.
- 나. 초성자의 기본자는 ‘ㄱ, ㄴ, ㄷ, ㅁ, ㅅ, ㅇ’이다.
- 다. 중성자의 기본자는 조음 기관을 상형하여 창제하였다.
- 라. 종성자는 따로 창제하지 않고 초성자를 다시 사용하게 하였다.
- 마. ‘ㅋ’, ‘ㅍ’, ‘ㅌ’처럼 글자를 나란히 쓰는 방식을 합용병서라고 한다.

- ① 가, 다
- ② 가, 나, 라
- ③ 나, 라
- ④ 나, 다, 마

21

다음 중 중세국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6. 서울시 7급]

- ① ‘△’은 ‘봉’보다는 오래 쓰였지만 16세기 후반에 가서는 거의 사라졌다.
- ② 대략 10세기부터 16세기 말까지의 국어를 말한다.
- ③ 중세국어 전기에 새로운 주격 조사 가가 사용 폭을 넓혀 갔다.
- ④ 중세국어의 전기에는 원나라의 영향으로 몽골어가 많이 유입되었다.

22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2016. 경찰직 2차]

불·휘기·픈 ⑦날·근 벅르·매 아·니 : 뭘·쓰
 ⑨꽃 : 도·코 여·름·하느·니 : 석·미 기·픈·므
 ·른 ⑩·국·래 아·니 그·출·쓰 ⑪: 내·히 이·
 러 바·르·래·가느·니

- ① ⑦에는 주격 조사와 만나 형태가 변한 명사가 포함되어 있다.
- ② ⑨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당시의 표기법에는 어긋난다.
- ③ ⑩에는 현대 국어의 명사 ‘가물’의 옛 형태가 포함되어 있다.
- ④ ⑪에서 조사가 생략되었다면 ‘내’의 형태로 쓰였을 것이다.

23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현대어 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2016. 서울시 7급]

조식이 能히 밥 먹거든 그르츄드 올흔손으로 뼈 ھ계 ھ며
 能히 말흐거든 스나히는 셀리 딕답하고 겨집은 느즈기 딕
 딱계 ھ며 스나히 씌는 갓초로 ھ고 겨집의 씌는 실로 홀
디니라

- ① 그르츄드: 가르치되
- ② 느즈기: 천천히
- ③ 갓초로: 가장자리로
- ④ 홀디니라: 할 것인なり

24

다음 중 ⑦과 의미가 같은 것은?

[2016. 국회직 8급]

나랏말쓰미 龐國(中國)에 달아 문장(文字)와로 서르 스뭇
 디 아니흘씩 이런 전초로 어린 빅성(百姓)이 나르고져 훙
 배 이셔도 므침내 제 뜨들 시려 퍼디 몬 훙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翁(爲) ھ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를여들 쟽(字)를
 링 ھ노니 사름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⑦뿌메 뻔한(便
 安) ھ 고져 훙 쟈르미니라.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子 不相流通 故愚民 有所欲言而終
 不得伸其情者 多矣. 予爲此憊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易
 習 便於日用耳.

- ① 생각한 바를 정확하게 쓰는 일은 매우 어렵다.
- ② 나 정말 괜찮으니까 그 일에 신경 쓰지 마.
- ③ 농사에 퇴비를 쓸 결과 수확량이 늘어났다.
- ④ 바람이 잘 통하고 양지바른 곳을 땃자리로 썼다.
- ⑤ 윗놀이는 말을 잘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25

다음 중 밑줄 친 차자 표기의 방식이 다른 하나는?

[2016. 경찰직 2차]

善化公主主隱	善化公主니문
他⑦密⑧只嫁良置古	놈 그스지 얼어 두고
薯童房乙	맛등바울
夜⑨矣卯乙抱⑩遺去如	바리 몰 안고 가다

- ① ⑦
- ② ⑧
- ③ ⑩
- ④ ⑪

26

밀줄 친 낱말의 차용 방식이 다른 것은? [2016. 경찰직 1차]

(가) 赫居世王 盖鄉言也 或作 ① 弗矩內王 言光明理世也
-『삼국유사』 권 제1 중에서-

(나) 東京明期月良

夜 ② 入伊遊行如 ③ 可

入良沙寢矣見昆

脚烏伊四是良 ④ 羅

-『삼국유사』 권 제2 「차용가」 중에서-

① ①: 弗矩內

② ②: 入

③ ③: 可

④ ④: 羅

05

2015년 기출문제

27

다음에서 설명하는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2015. 서울시 9급]

‘ㄱ, ㄷ, ㅁ, ㅅ, ㅈ, ㅎ’ 등을 가로로 나란히 써서 ‘ㅋ, ㅍ, ㅃ, ㅆ, ㅉ, ㅊ’을 만드는 것인데, 필요한 경우에는 ‘湲, 湲, 湲, 湲, 湲, 湲’ 등도 만들어 썼다.

① 象形

② 加畫

③ 紘書

④ 連書

28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2015. 경찰직]

- ① ‘ㄱ, ㄴ, ㅁ, ㅅ, ㅇ’은 각각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만든다.
- ② ‘ㄴ’에 가획(加劃)의 원리를 적용하여 ‘ㄷ, ㅌ, ㅍ’을 만들었다.
- ③ 모음 자모 ‘ㅏ, ㅓ, ㅗ, ㅓ’는 각각 하늘, 땅, 사람을 상형하여 만들었다.
- ④ ‘ㄹ, ㅿ’을 살펴보면 다른 한글 자모에 쓰인 가획의 원리와 차이가 있다.

29

훈민정음 28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지방직 7급]

- ① 초성의 기본자는 발음기관을 상형한 ‘ㄱ, ㄴ, ㅁ, ㅅ, ㅇ’이다.
- ② 초성 17자에는 전탁자 ‘ㅋ, ㅍ, ㅃ, ㅆ, ㅉ’도 포함된다.
- ③ 중성의 기본자는 ‘天, 地, 人’을 상형한 ‘ㅏ, ㅓ, ㅗ’이다.
- ④ 중성 11자에는 재출자 ‘ㅑ, ㅕ, ㅕ, ㅕ’도 포함된다.

30

〈보기〉와 관련하여, 중세 국어의 어법에 맞지 않은 것은?

[2015. 기상직 9급]

〈보기〉

중세 국어에서 의문은 물음말의 존재 여부에 따라 ‘-ㄴ가’, ‘-ㄹ가’와 같은 ‘아’형 어미와 ‘-ㄴ고’, ‘-ㄹ고’와 같은 ‘오’형 어미를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아’형은 물음말이 없는 의문문에 사용되고, ‘오’형은 물음말이 있는 의문문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에는 물음말의 존재와 관계없이 ‘-ㄴ다’가 사용되었다.

- ① 西京(서경)은 편안호가 몽호가
- ② 이도곤 ㅋ준 뒤 쪘 어듸 잇댔 말고
- ③ 너는 천고홍망을 아는다 몰으 눈다
- ④ 쇼양강 느린 물이 어드려로 든단 말가

31

중세 국어의 상대높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기상직 7급]

- ① ‘흐라체’는 아주 낮춤이며 평서형 종결어미는 ‘-다’로 나타난다.
- ② ‘흐야씨체’는 예사높임이며 명령형 종결어미는 ‘-어씨’로 나타난다.
- ③ ‘너희들 히 如來人 秘密神通力を 仔細히 드리리’에서 반 말의 종결어미가 사용되었다.
- ④ ‘부렷기 받즈 바 므슴 호려 흐시느니’는 ‘흐쇼셔체’의 의문형 종결어미가 사용되었다.

Chapter 12 높임법 · 언어예절

01

2019년 기출문제

01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 국가직 7급]

- ①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에서의 ‘말씀’은 ‘말’을 높여 이르는 단어이므로 ‘말’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혜정아,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진짜 소중히 여기셨어.”에서의 ‘당신’은 3인칭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이다.
- ③ 남에게 말할 때는 자기와 관계된 부분을 낮추어 ‘저희 학교’, ‘저희 학교’, ‘저희 회사’, ‘저희 나라’ 등과 같이 표현해야 한다.
- ④ 요즈음 흔히 들을 수 있는 “그건 만 원이세요.”, “품질 이십니다.”에서의 ‘-세요’, ‘-십니다’는 객체를 높이는 새로운 표현 방식이다.

02

높임법(존대법) 표현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 경찰직]

- ① 할머니께서는 항상 북녘을 바라보며 여기에 앉아 계셨습니다.
- ② 이제는 꽃가마에 누워 저 멀리 가십니다.
- ③ “할머니! 아버지도 그 뜻을 압니다!”
- ④ 할머니의 유지가 이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03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2019. 국가직 9급]

국어의 높임법에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상대 높임법,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 등이 있다. 이러한 높임 표현은 한 문장에서 복합적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의 경우 대화의 상대, 서술어의 주체, 서술어의 객체를 모두 높인 표현이다.

- ①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댁에 들어가셨다.
- ②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 ③ 어머니께서 아주머니께 이 김치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 ④ 주민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04

다음 설명을 참고할 때, 높임 표현의 방식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2019. 경찰직]

한국어는 높임 표현이 발달해 있다. 이는 세 유형으로 나뉘는데 주체를 높이는 방식, 객체를 높이는 방식, 정자를 높이는 방식이 그것이다.

- ① 혜정아, 선생님께 여쭤 보고 결정해라.
- ② 혜정아,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고 나가니?
- ③ 영수야, 주말에 할머니를 모시고 동물원에 가자.
- ④ 영수야, 새벽만 되면 할아버지께서는 어디에 가실까?

02 / 2018년 기출문제

05

다음 대화에서 박 과장이 고려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2018. 지역인재]

박 과장: 말씀 낫추세요. 부서 밖인데 어때요. 부서 내에서
야 다른 직원들이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끼리 있을 때는 말씀 낫추세요. 오히려 제가
불편해서 안 되겠어요.

이 대리: 그래도 상사인데. 하긴 직장 생활 한평생 할 것도
아닌데 편하게 지내는 것이 좋지.

- ① 성별에 따른 협력 방식
- ② 계층에 따른 공감 방식
- ③ 세대에 따른 설득 방식
- ④ 상황에 따른 존대 방식

07

밀줄 친 ㉠～㉡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교육행정 7급]

(구청 민원실)

공무원 1: (민원인을 반갑게 맞이하며) ㉠ 어르신, 안녕하
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민원인: 잘 지내나? 지난번엔 감사했네. 그런데 요즘 형
편이 이만저만 아니어서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고 있네.

공무원 1: 아 그러시군요. (공무원 2에게) ㉡ 지금 바쁜
가? 이 어르신 좀 도와 드릴 수 있겠나?

공무원 2: 어르신, 여기 앉으십시오. 무슨 일이시죠?

민원인: 요즘 일거리가 없어 생활이 어렵네. 해결해 보려
고 찾아왔네.

공무원 2: ㉢ (민원인과 눈을 맞추며) 네, 그러시군요. 마
침 우리 구청에서 공공 근로를 하실 분을 찾고 있
습니다.

민원인: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도 할 수 있나?

공무원 2: 물론이지요. 참여해 주신다면 우리 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민원인: 필요한 서류가 있나?

공무원 2: 한 부 뽑아 드리겠습니다. ㉣ 여기 서류 나오셨
습니다.

- ① ㉠: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대화를 시작하
고 있군.
- ② ㉡: 상대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적인 표현을 사
용하고 있군.
- ③ ㉢: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며 공감하면
서 듣고 있군.
- ④ ㉣: 높임의 대상이 아닌 것을 불필요하게 높이고 있군.

06

높임법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7급]

- ① 부장님의 따님은 집에 계신가요?
- ② 담임 선생님은 키가 굉장히 크시다.
- ③ 할아버지, 지팡이가 아주 멋지세요.
- ④ 선생님, 비가 오는데 우산 있으세요?

03 2017년 기출문제

08

호칭어와 지칭어의 사용이 적절한 것은? [2017. 지방직 9급]

- ① (남편의 형에게) 큰아빠, 전화 받으세요.
- ② (시부모에게 남편을) 오빠는 요즘 무척 바빠요.
- ③ (남편의 누나에게) 형님, 어떤 것이 좋을까요?
-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 배우자를) 이쪽은 제 부인입니다.

09

높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10월]

- ㄱ.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셨습니다.
- ㄴ. 선생님께서는 휴일에는 댁에 계십니다.
- ㄷ. 여러분, 아이들을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 ㄹ. 우리는 할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다녀왔다.

- ① ㄱ, ㄴ: 문장의 주체를 높이고 있다.
- ② ㄱ, ㄴ, ㄷ: 듣는 이를 높이고 있다.
- ③ ㄴ, ㄹ: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
- ④ ㄷ, ㄹ: 목적어를 높이고 있으므로 객체를 높이는 표현이다.

10

밑줄 친 지칭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2017. 지역인재]

- ① 사위: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도 평안하시지요?
- ② 아내: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친정아버지께 다녀와요.
- ③ 동료: 김 선생님, 내일이 제 선친의 칠순 잔칫날입니다.
- ④ 며느리: 어머니, 얼마 전 아비가 승진을 했어요.

11

전화를 걸 때의 표준 언어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지방직 7급]

- ① 전화를 거는 사람은 인사를 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이 어린 사람의 경우 어른이 전화를 받았을 때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친구)의 친구 ○○(이름)입니다.’처럼 통화하고 싶은 사람과 어떤 관계인가를 밝히는 것이 예(禮)이다.
- ② 대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을 때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하고 인사하고 끊는다. ‘들어가세요.’라는 말도 많이 쓰이는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이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 전화를 끊어야 할 때도 자신을 밝히고 끊어야 하며, 어른 보다 먼저 전화를 끊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다.
- ③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때 ‘죄송합니다만, ○○(이름)한테서 전화 왔었다고 전해 주시겠습니까?’, ‘말씀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라는 말을 쓴다. 이 상황에서도 ‘전해 주시겠습니까?’를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등으로 적절히 바꾸어 쓸 수 있다.
- ④ 전화가 잘못 걸렸을 때 ‘죄송합니다.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 또는 ‘미안합니다.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라고 예의를 갖추어 정중히 말하는 것이 바람직한 표현이다.

12

다음 글을 뒷받침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지방직 7급]

“요즘 젊은 것들은….” 하는 나무름을 들어 보지 않은 젊은 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 나무름에서 어르신 세대의 불편한 심기를 읽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말이란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인데, 그 변화에 대한 감각이 세대에 따라 크게 다르다. 어르신 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젊은 세대의 존대법이다. 어르신 세대가 보기 에, 젊은 세대의 존대법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어 불쾌하기 까지 한 것이다.

- ① “요즘 애들은 어른을 만나서 말을 할 때도 ‘저’라고 하지 않고 ‘나’라고 하더군.”
- ② “선생님께 질문을 하면서 ‘제가 한 말씀은요.’라고 하는데 아주 깜짝 놀랐어.”
- ③ “친구 아들이 날 ‘과장님’이라 부르더군. 직함이 과장이라고 그렇게 부르더군.”
- ④ “어른한테 ‘수고하세요.’란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13

높임법 사용이 옳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

- ① 교수님, 연구실에서 교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② 큰아버지, 오늘 약주를 많이 드셨는데,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 ③ 김 과장님, 부장님께서 빨리 오시라는데 오후에 시간 계십니까?
- ④ 철수야, 이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부모님께 여쭈어 보고 결정할게

14

다음에서 설명한 ‘겸양의 격률’을 사용한 대화문은?

[2017. 국가직 7급]

‘공손성의 원리’는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말을 주고받는 태도를 중시하는 이론이다. 이 원리는 ‘요령’, ‘관용’, ‘찬동’, ‘겸양’, ‘동의’의 격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우리 선조들은, 상대방의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 ‘겸양의 격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 ① 가: 집이 참 좋네요. 구석구석 어찌면 이렇게 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사모님 살림 솜씨가 대단하신 데요.
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 ② 가: 정윤아, 날씨도 좋은데 우리 놀이공원이나 갈래?
나: 놀이공원? 좋지. 그런데 나는 오늘 뮤지컬 표를 예매해 둬서 어려울 것 같아.
- ③ 가: 제가 귀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았군요. 죄송합니다.
- ④ 가: 유진아, 너는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구나.
나: 아니에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15

다음 중 서간문에 사용하는 호칭이나 직함 앞에 붙여 쓰는 말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017. 국회직 8급]

- ① 평교간(平交間)에 서로를 이를 때 – 仁兄
- ② 자신의 글을 보아주는 사람을 높여 이를 때 – 清覽
- ③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글을 보일 때 – 下鑑
- ④ 남의 부모를 높여 이를 때 – 高堂
- ⑤ 남의 어머니를 높여 이를 때 – 尊堂

16

주체, 객체, 상대를 모두 높이고 있는 것은?

[2017. 지방 교육행정직 7급]

- ① 사장님도 진지를 드셨습니까?
- ② 선생님께서 훈화 말씀을 하셨습니다.
- ③ 삼촌이 할머니를 모시고 공원에 갔습니다.
- ④ 아버지는 할아버지께 안경을 드리셨습니다.

18

다음 중 상대 높임법의 등급이 다른 하나는?

[2017. 서울시 7급]

- ① 여보게, 어디 가는가?
- ② 김 군, 벌써 봄이 왔다네.
- ③ 오후에 나와 같이 산책하세.
- ④ 어느덧 벚꽃이 다 지는구려.

17

숙희야, 내가 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렸다.”의 문장을 다음 규칙에 따라 옮기게 표시한 것은?

[2017. 지방직 9급]

우리말에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등이 있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의 경우 높임은 +로, 높임이 아닌
것은 -로 표시하고 상대 높임의 경우 반말체를 -로, 해
요체를 +로 표시한다.

- ① [주체-], [객체+], [상대-]
- ② [주체+], [객체-], [상대+]
- ③ [주체-], [객체+], [상대+]
- ④ [주체+], [객체-], [상대-]

19

‘손님’의 말에 나타난 공손성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지방 교육행정직 9급]

손님: 바쁘실 텐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이 참 맛있네요. 요리 솜씨가 이렇게 좋으시니 정말 부럽습니다.

주인: 뭘요, 과찬이세요. 맛있게 드셨다니 감사합니다.

- 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최소화하고 칭찬의 표현을 최대화한다.
- ② 상대방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하고 혜택의 표현을 최대화한다.
- ③ 자신에 대한 혜택은 최소화하고 부담의 표현을 최대화 한다.
- ④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비난의 표현을 최대화 한다.

04 / 2016년 기출문제

20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쓰인 높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 경찰직 1차]

누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시골에 갔다.

- ① 상황에 따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 ②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여 표현하는 높임법이다.
- ③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표현하는 높임법으로, 종결 어미에 의해 청자에 대한 높임이나 낮춤의 정도가 표현된다.
- ④ 서술어의 어간에 선어말어미 ‘-(으)시’를 붙여 높임을 표현한다. ‘계시다’, ‘잡수시다’ 등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21

전화를 사용할 때, 표준 언어 예절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2016. 국가직 7급]

- ① 아닌데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 ② 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 ③ 지금 안 계십니다. 들어오시면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
- ④ 잘 알겠습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2

어법상 옳은 것은?

[2016. 사회복지직 9급]

- ① 입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 ② 고객님, 주문하신 물건이 나오셨습니다.
- ③ 어른들이 문자 안절부절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 ④ 이어서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23

다음 중 문장의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은? [2016. 경찰직 2차]

- ① 그러지 말고,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줘.
- ② 선생님, 제 말씀부터 좀 들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③ 정성이 이 정도라면 여간한 성의라고밖에 할 수 없네요.
- ④ 선생님, 선생님께 훈장이 추서됐으니 수여식에 참석하시래요.

05 2015년 기출문제

24

표준 언어 예절에 어긋난 것은? [2015. 사회복지직]

- ① 직장 상사의 아내를 ‘여사님’이라고 부른다.
- ② 직장 상사의 남편을 해당 직장 상사에게 ‘사부님’이라고 지칭 한다.
- ③ 직장 상사(과장)의 아내를 직장 동료에게 ‘과장님 부인’이라고 지칭한다.
- ④ 직장 상사(과장)의 남편을 직장 동료에게 ‘과장님 바깥여론’이라고 지칭한다.

25

다음 밑줄 친 말 중 경어법이 잘못된 것은? [2015. 법원직]

- ① 어머니를 모시고 장에 갔다 오너라.
- ②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저에게 여쭤 보세요.
- ③ 제가 찾아 뵙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④ 할머니께서는 아직 귀가 밝으십니다.

26

높임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 국가직 7급]

- ① 할아버지께서 이제야 집에 가시는군요.
- ② 당신은 제 말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군요.
- ③ 이것이 바로 생전에 당신께서 가장 아끼던 벼루입니다.
- ④ 우리 사장님께서 뵙기를 청한 이유는 고견을 듣기 위함입니다.

27

다음 중 올바른 우리말 표현은? [2015. 지방직 9급]

- ① (초청장 문안에서) 귀하를 이번 행사에 꼭 모시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전화 통화에서) 과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
- ③ (직원이 고객에게) 주문하신 상품은 현재 품절이십니다.
- ④ (방송에 출연해서) 저희나라가 이번에 우승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덕택입니다.

28

호칭어와 지칭어의 사용이 바르지 않은 것은?

[2015. 교육행정직 9급]

- ① (친구 사이에서) 영호, 자네 춘부장께서는 무고하신가?
- ② (남동생이 누나에게) 누님, 매부와 언제 여행을 가셔요?
- ③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어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 ④ (올케가 시누이에게) 고모, 할머님께서 저 찾지 않으셨어요?

29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호칭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 교육행정직 7급]



: ⑦ 아주버님, 안녕하세요?



: 네, ⑧ 제수씨. 잘 지내셨죠? 여보, 어서 나와 보구려. 동생네 부부가 왔어.



: ⑨ 동서, 왔어?



: 네, 형님. 오랜만이에요.



: ⑩ 도련님, 어서 오세요.



: 형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지요?

① ㉠

② ㉡

③ ㉢

④ ㉣

E B S 공무원 국어 기출문제집

P a r t

02

바른 실용국어

Chapter 01 어휘와 관용구

01

2019년 기출문제

01

어휘의 뜻풀이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 서울시 9급]

- ① 가멸차다: 재산이나 자원 따위가 매우 많고 풍족하다
- ② 상고대: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 ③ 안다미로: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 ④ 티아보다: 살살이 훑어 가며 살피다

02

밑줄 친 ‘눈’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2019. 경찰직]

나는 밟눈이 매우 밝은 편이다.

- ① 혜정이는 눈이 초롱초롱하다.
- ② 혜정이는 보는 눈이 정확하다.
- ③ 영수는 조금만 화나면 눈을 부라린다.
- ④ 영수는 눈도 좋은데 멋으로 안경을 쓴다.

03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 지방직 9급]

대립쌍을 이루는 단어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이루고 있다.

- ① 성공(成功): 실패(失敗)
- ② 사상(施賞): 수상(受賞)
- ③ 판매(販賣): 구매(購買)
- ④ 공격(攻擊): 방어(防禦)

04

다음에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맞게 쓴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 지방직 9급]

단어	의미	문장
살다	경기나 놀이에서, 상대편에게 잡히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	(㉠)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	(㉡)
	마음이나 의식 속에 남아 있거나 생생하게 일어나다.	(㉢)
	움직이던 물체가 멈추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	(㉣)

- ① ㉠: 장기에서 포는 죽고 차만 살아 있다.
- ② ㉡: 그는 벼슬을 살기 싫어 속세를 버렸다.
- ③ ㉢: 옷에 풀기가 아직 살아 있다.
- ④ ㉣: 그렇게 세계 부딪혔는데도 시계가 살아 있다

05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9. 국가직 9급]

한국 문학의 미적 범주에서 눈에 띠는 전통으로 풍자와 해학이 있다. 풍자와 해학은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기보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건강한 삶의 의지에서 나온 (㉠)을 (를) 통해 드러난다. (㉠)은(는) ‘있어야 할 것’으로 행세해 온 관념을 부정하고, 현실적인 삶인 ‘있는 것’을 그대로 긍정한다. 이때 있어야 할 것을 깨뜨리는 것에 관심을 집중한 것이 (㉡)이고, 있는 것이 지난 긍정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이다.

㉠

① 골계(滑稽)

㉡

해학(諧謔)

㉢

풍자(諷刺)

06

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 국가직 9급]

하나의 개념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의어는 서로 경쟁을 통해 하나가 없어지거나 각기 다른 의미 영역을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현실 언어에서 동의어로 공존하면서 경쟁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으며, 한쪽은 살아남고 다른 쪽은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동의 충돌의 결과 의미 영역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의미 축소, 의미 확대, 의미 교체 등으로 구분된다.

- ① ‘가을걷이’와 ‘추수’는 공존하며 경쟁하고 있다.
- ② ‘말미’는 쓰지 않고 ‘휴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 ③ ‘얼굴’은 ‘형체’의 뜻에서 ‘안면’의 뜻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 ④ ‘겨레’는 ‘친척’의 뜻에서 ‘민족’의 뜻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07

의미관계와 단어들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2019. 서울시 7급]

- ① 동의 관계(synonymy) – 근심:시름
- ② 반의 관계(antonymy) – 볼록:오목
- ③ 상하 관계(hyponymy) – 할아버지:손자
- ④ 부분 관계(meronymy) – 코:얼굴

08

〈보기〉는 두보의 시 「곡강(曲江)」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2019. 서울시 7급]

<보기>

조정에서 돌아오면 봄옷을 저당 잡히고,
매일 강어귀에서 만취되어 돌아오네.
술빛은 늘 가는 곳마다 있건만,
인생 ()은 예로부터 드물구나.
꽃 속으로 날아드는 나비는 그윽하고,
물 위로 꽁지를 닿을 듯 나는 잠자리는 유유하네.
내 전하고 푼 말은 풍광과 함께 흐르노니,
잠시나마 서로 즐기고 부디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라네.

① 오십

② 육십

③ 칠십

④ 팔십

09

한자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서울시 9급]

- ① ‘연장(延長)’, ‘하산(下山)’은 ‘서술어+부사어’의 구조이다.
- ② ‘인간(人間)’, ‘한국인(韓國人)’의 ‘인’은 모두 어근이다.
- ③ ‘우정(友情)’, ‘대문(大門)’의 구성 성분은 비자립적 어근과 단어이다.
- ④ ‘시시각각(時時刻刻)’, ‘명명백백(明明白白)’은 고유어의 반복합성어 구성 방식과 다르다.

02

2018년 기출문제

10

고유어에 대한 풀이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7급]

- ① 갈바람: 가을바람의 준말
- ② 두름: 조기 따위의 물고기 열 마리를 짚으로 엮은 것
- ③ 트레바리: 이유 없이 남의 말에 반대하기를 좋아함
- ④ 지청구: 까닭 없이 남을 탓하고 원망함

12

㉠을 바꿔 쓸 때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2018. 18 지역인재]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다른 창작 행위들에 비해 좀 더 소박하긴 하지만 결코 그것들에 뒤지지 않는 창조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우리의 학생들은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은 배우지만, 읽지 않은 책에 대해 의사를 표현하는 법은 배우지 못한다. 이는 어떤 책에 대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책을 읽어야 한다는 가정이 한 번도 의문시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학생들은 읽지 않은 어떤 책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자신들의 생각을 ㉠ 표명하기 위한 어떤 방도도 찾아낼 수 없어서 혼란에 빠질 공산이 크다. 그런 혼란은 책을 신성시하는 태도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역할을 교육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해 ‘책을 꾸며낼’ 권리가 학생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다. 텍스트에 대한 존중과 수정 불가의 금기에 마비당하는데다 텍스트를 암송하거나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속박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창의적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채 상상력이 유익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상상력에 호소하는 것을 스스로 금해 버린다.

① 밝히기

② 바꾸기

③ 더하기

④ 꾸미기

11

밑줄 친 부분을 고유어로 바꿀 때 적절한 것은?

[2018. 국가직 7급]

- 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 바라는
- ② 우리는 연 3%의 연체 이자를 납부합니다. → 애누리를
- ③ 부서의 현재 상황을 상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아려
- ④ 오늘 경기가 취소되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알려 주시기

13

다음을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의 반의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지역인재]

단어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질 수 있으므로 반의어도 여럿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벗다’의 반의어가 ‘옷을 벗었다.’의 경우에 ‘입다’이지만 ‘모자를 벗었다.’의 경우에는 ‘쓰다’이다.

① 산 그림자가 깊다. – 옅다

② 그녀는 생각이 깊다. – 가볍다

③ 선생님의 병환이 깊다. – 가깝다

④ 우리나라의 역사가 깊다. – 얕다

14

밑줄 친 말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2018. 국가직 7급]

나는 우리 회사의 장래를 너에게 걸었다.

- ① 이 작가는 이번 작품에 생애를 걸었다.
 - ② 우리나라는 첨단 산업에 승부를 걸었다.
 - ③ 마지막 전투에 주저 없이 목숨을 걸었다.
 - ④ 그는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직위를 걸었다.

15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2018. 지방직 9급]

지도 위에 손가락을 짚어 가며 여행 계획을 설명하였다.

- ① 이마를 짚어 보니 열이 있었다.
 - ② 그는 두 손으로 땅을 짚어야 했다.
 - ③ 그들은 속을 짚어 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 ④ 시험 문제를 짚어 주었는데도 성적이 좋지 않다.

16

〈보기〉의 내용 중 밑줄 친 ‘쓰다’의 쓰임이 다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2018, 서울시 7급]

[2018. 서울시 7급]

〈보기〉

- ㄱ. 연습장에 붓글씨를 쓰다.
 - ㄴ.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 ㄷ. 공원묘지에 묘를 쓰다.
 - ㄹ. 그는 아무에게나 반말을 쓴다.
 - ㅁ. 입맛이 써서 맛있는 게 없다.
 - ㅂ.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다.

- ① 𠂇—𠂇 ② 𠂇—口
③ 𠂇—𠂇 ④ 𠂇—𠂇

17

밑줄 친 ⑦~⑩ 중 ‘말씀’의 쓰임이 다른 것은?

[2018. 교육행정 7급]

김 주무관: 박 주무관님, 과장님 ⑦ 말씀 들으니 다음 주
저는 굉장히 바빠질 거 같아요

박 주무관: 무슨 일인데이요?

김 주무관: 다음 주말까지 우리 관내 학교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박 주무관: 정말 바쁘시겠군요. 제가 시간을 더 달라고 과자님께 ① 맘쓰 죠 드려 복제요

김 주무관: 아, 아닙니다. ⑤말씀은 감사하지만……. 일단
해 봐야지오

반 주문과: 어제든 ② 맘쓰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 주무관: 네,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18

㉠에 해당하는 것과 ㉡에 해당하는 것을 문맥적 의미를 고려하여 짹지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국가직 7급]

내 집에 당장 쓰려져 가는 행랑채가 세 칸이나 되어 할 수 없이 전부 수리하였다. 그중 두 칸은 이전 장마에 비가 새면서 기울어진 지 오래된 것을 알고도 이리저리 미루고 수리하지 못한 것이고 한 칸은 한 번 비가 새자 곧 기와를 바꿨던 것이다. 이번 수리할 때에 기울어진 지 오래였던 두 칸은 들보와 서까래들이 다 썩어서 다시 쓰지 못하게 되어 수리하는 비용도 더 들었으나, 비가 한 번 새었던 한 칸은 재목이 다 성하여 다시 썻기 때문에 비용도 덜 들었다. 나는 ㉠의 경험을 통해 ㉡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한 것은 사람에게도 있는 일이다. 자기 과오를 알고 곧 고치지 않으면 나무가 썩어서 다시 쓰지 못하는 것과 같고, 과오를 알고 고치기를 서슴지 않으면 다시 착한 사람이 되기 어렵지 않으니 집 재목을 다시 쓰는 이로움과 같은 것이다. 다만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치도 또한 이와 같아서 백성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심하여도 그럭저럭 지내고 고치지 않다가 백성이 떠나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 뒤에는 갑자기 고치려고 해도 바로잡기가 대단히 어려우니 삼가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 이규보, 「이옥설」 —

- ① ㉠ 기와를 바꾸다
- ㉡ 과오를 고치다
- ② ㉠ 미루고 수리하지 않다
- ㉡ 과오를 알고도 곧 고치지 않다
- ③ ㉠ 들보와 서까래가 다 썩다
- ㉡ 나라를 바로잡을 방도가 없다
- ④ ㉠ 비가 새서 기울어진 상태
- ㉡ 자기 과오

19

반의 관계 어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가직 9급]

- ① ‘크다/작다’의 경우,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모순이 발생한다.
- ② ‘출발/도착’의 경우, 한 단어의 부정이 다른 쪽 단어의 부정과 모순되지 않는다.
- ③ ‘참/거짓’의 경우, 한 단어의 부정은 다른 쪽 단어의 긍정을 함의한다.
- ④ ‘넓다/좁다’의 경우,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쪽 단어의 부정을 함의한다.

20

다음 용례를 통해 ‘갈다’의 사전적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경찰 2차]

〈용례〉

- ㉠ 기계로 칼을 갈다.
- ㉡ 맷돌에 녹두를 갈다.
- ㉢ 자면서 뾰드득뾰드득 이를 갈다.
- ㉣ 이따금씩 ‘끙!’ 하고 목을 갈기도 하였다.

- ① ㉠을 통해 ‘날카롭게 날을 세우거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다른 물건에 대고 문지르다.’의 의미를 설정할 수 있다.
- ② ㉡을 통해 ‘잘게 부수기 위하여 단단한 물건을 대고 문지르거나 단단한 물건 사이에 넣어 으깨다.’의 의미를 설정할 수 있다.
- ③ ㉢을 통해 ‘윗니와 아랫니를 마주 대고 문지르다.’의 의미를 설정할 수 있다.
- ④ ㉣을 통해 ‘이미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다.’의 의미를 설정할 수 있다.

21

밑줄 친 단어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경찰직 2차]

- (가) 물외(物外)예 조흔 일이 어부 생애(生涯) 아니려나
비 떠라 비 떠라
어옹(漁翁)을 운디 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 지국총(至芻惄) 지국총(至芻惄) 어스와(於思臥)
스시(四時) 흥(興)이 혼가지나 츄강(秋江)이 은듬이라
- (나) 간밤의 눈 갠 후(後)에 경물(景物)이 달랄고야
㉡ 이어라 이어라
압희는 ㉢ 만경류리(萬頃琉璃) 뒤희는 ㉣ 천렵옥산
(千疊玉山)
지국총(至芻惄) 지국총(至芻惄) 어스와(於思臥)
선계(仙界) ㄴ가 불계(佛界) ㄴ가 인간(人間)이 아니
로다

- ① ㉠: 노젓는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이다.
 ② ㉡: ‘배를 매어라’는 의미의 여음구이다.
 ③ ㉢: ‘반반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다.
 ④ ㉣: ‘수없이 겹쳐 있는 아름다운 산’을 의미한다.

22

24절기 중 ㉠과 ㉡에 각각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

[2018. 경찰직 2차]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계연의 저만치 가고 있는 항라 적삼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벼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빼꾸기 울음 속에, 성기
 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雨水)
 도 (㉠)도 다 지나, (㉡) 무렵의 비가 질금거릴 즈음이었
 다. 주막 앞에 늘어선 벼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 들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
 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아들의 미음상을 차려 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가 미음 그
 릇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 보고 싶나?”
 “…….”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나?”
 “…….”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 ① ㉠ 청명 ㉡ 쳐서 ② ㉠ 입춘 ㉡ 곡우
 ③ ㉠ 곡우 ㉡ 경칩 ④ ㉠ 경칩 ㉡ 청명

23

나이와 한자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2018. 서울시 9급]

- ① 62세 – 화갑(華甲) ② 77세 – 희수(喜壽)
 ③ 88세 – 백수(白壽) ④ 99세 – 미수(米壽)

24

〈보기〉의 시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9급]

〈보기〉

가노라 ⑦ 三角山아 다시 보자 ⑮ 漢江水야
 ⑯ 故國山川을 써누고자 ھ 라마는
 時節이 하 ⑯ 犬當 ھ 니 올동 말동 ھ 여라—김상현

- ① ⑦의 다른 명칭은 ‘인왕산’이다.
- ② ⑮은 여전히 사용하는 명칭이다.
- ③ ⑯의 당시 국호는 ‘조선’이다.
- ④ ⑯은 병자호란 직후의 상황을 뜻한다.

25

〈보기〉는 어떤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소설 속 지명은?

[2018. 서울시 9급]

〈보기〉

그러나 나는 돌아서서 전보의 눈을 피하여 편지를 썼다.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말로써 오늘 제가 먼저 가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만 대화란 항상 의외의 방향으로 나가 버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써 알리는 바입니다. 간단히 쓰겠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제 자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어렴풋이나마 사랑하고 있는 옛날의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의 저를 오늘의 저로 끌어다 놓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였듯이 당신을 헷볕 속으로 끌어 놓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할 작정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소식 드리면 당신은 ()을/를 떠나서 제게 와주십시오. 우리는 아마 행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쓰고 나서 다시 나는 그 편지를 읽어 봤다. 또 한번 읽어 봤다. 그리고 찢어 버렸다. 덜컹 거리며 달리는 버스 속에 앉아서 나는 어디쯤에선가 길가에 세워진 하얀 팻말을 보았다. 거기에는 선명한 검은 글씨로 ‘당신은 ()읍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써어 있었다.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 | | |
|------|------|
| ① 삼포 | ② 서울 |
| ③ 거제 | ④ 무진 |

26

⑦~⑯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교육행정 9급]

빅데이터는 그 규모가 매우 큰 데이터를 말하는데, 이는 단순히 데이터의 양이 매우 많다는 것뿐 아니라 데이터의 복잡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도 ⑦ 내포되어 있다. 데이터의 복잡성이 높다는 말은 데이터의 구성 항목이 많고 그 항목들의 연결 고리가 함께 ⑮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의 복잡성이 높으면 다양한 파생 정보를 끌어낼 수 있다.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⑯ 추출할 때에는, 구성 항목을 독립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두 개 이상의 항목들의 연관성을 이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구성 항목이 많은 데이터는 한 번에 얻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따로 수집되었지만 연결 고리가 있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들을 ⑯ 연결하여 사용한다.

가령 한 집단의 구성원의 몸무게와 키의 데이터가 있다면, 각 항목에 대한 구성원의 평균 몸무게, 평균 키 등의 정보 뿐만 아니라 몸무게와 키의 관계를 이용해 평균 비만도 같은 파생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때는 반드시 몸무게와 키의 값이 동일인의 것이어야 하는 연결 고리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다 구성원들의 교통 카드 이용 데이터를 따로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을 교통 카드의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사용자의 몸무게와 키의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된 데이터 세트를 통해 비만도와 대중교통의 이용 빈도 간의 파생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얻을 수 있는 파생 정보도 늘어난다.

- | | |
|---------|---------|
| ① ⑦: 담겨 | ② ⑮: 들어 |
| ③ ⑯: 섞을 | ④ ⑯: 이어 |

27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판소리 용어를 바르게 짹
지은 것은?

[2018. 서울시 7급]

〈보기〉

문화센터에서 무료로 〈춘향가〉를 공연한다고 하여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였다. 것을 쓰고 도포를 입은 광대가 서서 노래를 부르고 옆에 앉은 고수는 복으로 장단을 맞추며 이따금 ⑦ “얼씨구” 하며 분위기를 돋우었다. 이몽룡이 춘향 이를 업고 ⑧ 사랑을 속삭이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는 절로 흥이 일었고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거지로 변장하여 ⑨ 월매와 말을 주고받는 장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암행어사 출두 장면에서 잔치에 모인 벼슬아치들이 ⑩ 허둥지둥 도망치는 모습을 몸짓으로 흥내내는 것을 보니, 노래뿐만 아니라 연기도 잘해야 판소리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 ① | ② | ③ | ④ |
|-----|----|-----|-----|
| 추임새 | 소리 | 발림 | 아니리 |
| 너름새 | 더듬 | 발림 | 아니리 |
| 너름새 | 더듬 | 아니리 | 발림 |
| 추임새 | 소리 | 아니리 | 발림 |

28

〈보기〉의 ⑦, ⑧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은?

[2018. 서울시 7급]

〈보기〉

민주주의에서 ‘사회적 합의’는 만장일치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 안들 간의 경쟁을 통해 다수 의사를 만들어 내는 과정과 그 결과를 말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도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그때의 사회적 합의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권위주의 정부는 대개의 경우 경제 발전과 같은 거시적 성과를 통해 사후적으로 정당성의 취약함을 보완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억압하고자 했다.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와 다른 것은 사회적 갈등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갈등을 정치의 틀 안으로 통합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간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⑦을(를) 정치의 틀 안으로 가져오고 이를 진지하게 다뤄야 할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전환해 정치적 결정을 위한 ⑧(으)로 만드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다.

- | ① | ② | ③ | ④ |
|----|----|----|----|
| 문제 | 합의 | 갈등 | 성과 |
| 갈등 | 의제 | 의제 | 문제 |

29

한자어 없이 고유어로만 구성된 문장은? [2018. 서울시 9급]

- ① 그의 모습을 보자 모골이 송연해졌다.
- ② 도대체가 무슨 일인지 가늠이 안 된다.
- ③ 나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여 매사에 임한다.
- ④ 그 노래를 들으니 불현듯 어릴 적이 떠오른다.

30

문맥상 <보기>의 ㉠, ㉡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 서울시 9급]

<보기>

현실 상황에서 개인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의 세계와 경험의 세계를 넘나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 없이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로 작동하는 일반적인 근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없다. 경험적 세계의 퍼즐을 푸는 일에 매달리지 않는 한, 이론적 저작은 경험적 세계를 반영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타성에 의해 (㉡)(으)로부터 벗나가게 된다.

① ㉠ 현실, ㉡ 이론

② ㉠ 이론, ㉡ 현실

③ ㉠ 경험, ㉡ 현실

④ ㉠ 이론, ㉡ 경험

32

밀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경찰직 1차]

德(덕)으란 곰비예 받습고/ 福(복)으란 림비예 받습고
德(덕)이여 福(복)이라 호늘/ ㉠ 나수라 오소이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正月(정월) ㅅ 나릿므른/ 아으 어져 녹져 ㅎ논듸
누렷 가온디 나꼰/ ㉡ 몹하 ㅎ올로 널셔
아으 動動(동동)다리

二月(이월) ㅅ 보로매/ 아으 ㅌ 노피 혁
燈(등)스를 다호라/ 萬人(만인)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三月(삼월) 나며 開(개)홍/ 아으 滿春(만춘) ㅌ 들윗고지여
느믹 브롤 즈슬/ 디녀 나샀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① ㉠: ‘나중에 오십시오.’라는 뜻이다.

② ㉡: 시적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나타낸다.

③ ㅌ: 2월의 세시 풍속인 ‘연등제’와 관계된다.

④ ㅌ: 임의 수려한 외모를 비유적으로 형상화하였다.

31

반의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지방직 7급]

- ① ‘상식: 물상식’에서는 부정(否定)의 접두사가 붙어 반의어가 만들어진다.
- ② ‘남자: 여자’는 ‘사람’이라는 공통 요소와 ‘성별’의 대조적 요소가 있어서 반의 관계를 이룬다.
- ③ ‘오다: 가다’는 ‘이동’이라는 공통 요소와 ‘방향’의 대조적 요소가 있어서 반의 관계를 이룬다.
- ④ ‘하늘: 땅’은 두 단어 사이에 의미의 중간 영역이 있어서 서로 반의 관계를 이룬다.

33

㉠의 함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 교육행정 9급]

두류산(頭流山) 양단수(兩端水)를 네 듯고 이제 보니
도화(桃花) 뜯 맑은 물에 산영(山影)조초 잠겼세라
아희야 ㉠ 무릉(武陵)이 어듸오 나는 옌가 ㅎ노라

① 고향(故鄉)

② 낙원(樂園)

③ 오지(奥地)

④ 정상(頂上)

34

'권력의 무상함'을 나타내는 속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9급]

- ① 달도 차면 기운다
- ② 열흘 붉은 꽃이 없다
- ③ 물도 가다 구비를 친다
- ④ 꽃이 시들면 오던 나비도 안 온다

03

2017년 기출문제

35

밑줄 친 어휘의 표기가 옳은 것은?

[2017. 지방직 9급]

- ① 과거에 대해서는 너무 괴볍치 않는 것이 좋다.
- ② 필요한 부분만 책에서 발췌해서 발표할 수 있다.
- ③ 고집대로만 했다간 문화제 계획마저도 와훼될 판이다.
- ④ 나는 설명서에서 그 기계의 제원을 꼼꼼히 확인하였다.

36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10월]

- ① 금방 비가 올 것처럼 하늘이 어둡다.
할머니는 방금 전에 난 소리에 깜짝 놀라셨다.
- ② 그는 근본이 미친하여 남들의 업신여김을 받았다.
자발적 참여자를 근간으로 하여 조직이 결성되었다.
- ③ 친구들에게 그는 완전히 타락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그는 역모 사건에 휘말려 몰락한 집안의 자손이었다.
- ④ 비가 올 때에는 순회공연을 지연하기로 하였다.
시험 시작 날짜가 9월 5일에서 9월 7일로 연장되었다.

37

고유어에 대응되는 한자어를 잘못 제시한 것은?

[2017. 국가직 7급 10월]

- | | |
|------------|------------|
| ① 지름길 – 捷徑 | ② 비웃음 – 苦笑 |
| ③ 마름질 – 裁斷 | ④ 계으름 – 懈怠 |

38

⑦~⑩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국가직 7급 10월]

굴동마을 지나 다산초당이 있는 다산을 오르자면 갑자기 청신한 바람이 답사객의 온몸을 휘감고 돈다. (⑦) 들어서 하늘이 감추어진 대밭과 아름드리 소나무가 (⑧) 자라 초당으로 오르는 길은 언제나 어둡고 서늘하다. 이것도 올봄에 갔더니 높은 데서 지시했는지 대밭도 솔밭도 시원스레 속아내서 (⑨) 훤헤겼는데 그래도 (⑩) 울창했던 것 인지라 청신한 공기에는 변함이 없었다.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⑦	⑧	⑨	⑩
① 빽빽이	무성히	미처	자못
② 무성히	촘촘히	겨우	미처
③ 촘촘히	빽빽이	워낙에	겨우
④ 빽빽이	무성히	자못	워낙에

40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2017. 서울시 사회복지직]

- ① 자리끼: 밤에 자다가 마시기 위하여 잠자리의 머리맡에 준비하여 두는 물
- ② 무림없다: 생김새가 불품없고 세련되지 못하다.
- ③ 국으로: 제 생긴 그대로
- ④ 짜장: 과연 정말로

41

다음 중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2017. 서울시 9급]

- ① 가냘대다–별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살갗에 간지럽고 자릿한 느낌이 자꾸 들타다.
- ② 굽적대다–느리고 폭이 넓게 자꾸 물결치다.
- ③ 꼬약대다–음식 따위를 한꺼번에 입에 많이 넣고 잇따라 조금씩 씹다.
- ④ 끌끌대다–마음에 마땅찮아 혀를 차는 소리를 자꾸 내다.

42

다음 ⑦~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경찰직 2차]

39

밑줄 친 말의 사전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국가직 9급]

아이들이야 학교 가는 시간을 빼고는 내내 밖에서만 노는데, 놀아도 여간 시망스럽게 놀지 않았다.

–최일남, 노새 두 마리 중에서–

- ①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
- ② 생기 있고 힘차며 시원스럽다.
- ③ 어수선하여 질서나 통일성이 없다.
- ④ 보기에 태도나 행동이 가벼운 데가 있다.

마을 사람들은 거지반 돌아간 뒤요, 팔리지 못한 나무꾼 패가 길거리에 ⑦궁싯거리고들 있으나, 석유병이나 받고 고깃 마리나 사면 족할 이 ⑧축들을 바라고 언제까지든지 베티고 있을 법은 없다. ⑨춥춥스럽게 날아드는 파리 때도, 장난꾼 ⑩각다귀들도 귀찮다. 얼금뱅이요 원손잡이인 드팀전의 허 생원은 기어코 동업의 조 선달을 나꾸어 보았다.

- ① ⑦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머뭇거리고
- ② ⑧ 일정한 특성에 따라 나누어지는 부류
- ③ ⑨ 정확하게 맞아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게
- ④ ⑩ 곤충의 한 종류. 남의 것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3

다음 중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회직 8급]

- ① 울력성당: 떼 지어 으르고 협박함
- ② 고삿: 초가지붕을 일 때 쓰는 새끼
- ③ 말결: 남이 말하는 앞에서 덩달아 참견하는 말
- ④ 봉죽: 일을 꾸려 나가는 사람을 곁에서 거들어 도와줌
- ⑤ 갓모: 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어 쓰던 고깔과 비슷하게 생긴 물건

44

괄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2017. 지방직 9급]

- 쌈: 바늘 ()개를 끓어 세는 단위
- 제(劑): 한약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 한 제는 탕약(湯藥) ()첩
- 거리: 한 거리는 오이나 가지 ()개

① 80

② 82

③ 90

④ 94

45

다음 글에서 밑줄 친 ⑦~⑩의 뜻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회직 8급]

“오늘은 ⑦ 아퀴를 지어주시렵니까? 언제 갚으나 갚고 말 것인네 그걸루 의 상할 거야 있나요?”

이튿날 교장이 슬쩍 들러서 매우 점잖은 ⑧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장 선생님부터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김옥임이가 그렇게 되다니 불쌍해 못 견디겠어요. 예전에 세익스피어의 원서를 끼구 다니구, 「인형의 집」에 신이 나구, 헬렌 케이의 승배자요 하던 그런 옥임이가 동냥자루 같은 돈전대를 차구 나서면 세상이 모두 노랑 돈닢으로 보이는지 어린애 코 묻은 돈푼이나 바라고 이런 구멍가게에 나와 앉았는 나두 불쌍한 신세지마는 난 옥임이가 가엾어서 어제 울었습니다. 난 살림이나 파산 지경이지 옥임이는 성격 파산인가보드군요…….”

정례 어머니는 분하다 할지 딱하다 할지, 속에 맷하고 서린 불쾌한 감정을 스스로 풀어버리려는 듯이 웃으며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 나두 듣기에 ⑨ 괴란쩍습니다마는 모두 어려운 세상에 살자니까 그런 거죠. 별 수 있나요. 그래도 제 돈 내놓고 싸든 비싸든 이자라고 ⑩ 명토 있는 돈을 어엿이 받아먹는 것은 아직도 양심이 있는 생활입니다. 입만 가지고 속여먹고, 등쳐먹고, 알로 먹고, 꿩으로 먹는 허울 좋은 불한당 아니고는 밥알이 올곧게 들어가지 못하는 지금 세상 아닙니까…… 허허허.”

하고 교장은 자기변명인지 옥임이 ⑪ 역성인지를 하는 것 이었다.

① ⑦ 아퀴: 일을 마무르는 끝매듭

② ⑧ 수작: 남의 말이나 행동, 계획을 낫잡아 이르는 말

③ ⑨ 괴란쩍습니다: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아 꺼림칙하고 싫다

④ ⑩ 명토: 누구 또는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하는 지적

⑤ ⑪ 역성: 옳고 그름에는 관계없이 무조건 한쪽 편을 들어주는 일

46

다음 밑줄 친 어휘의 사용이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경찰직 2차]

- ① 재계 3위의 갑부(甲富)는 과연 누구일까?
- ② 그분은 청년들의 애환(哀歡)을 감싸 주고 위로해 주었다.
- ③ 공무원은 불편부당(不偏不黨)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④ 김 부장의 사위는 훤칠한 키에 폭넓은 교양을 갖춘 재원(才媛)이다.

47

①~⑤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국가직 7급]

-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수입은 가치관의 (㉠)을 초래하였다.
- 지역 간, 세대 간의 갈등을 (㉡)하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갑시다.
- 아름다운 자연을 관광 자원으로 (㉢)하려고 한다.

- | | | |
|------|----|----|
| ㉠ | ㉡ | ㉢ |
| ① 혼돈 | 지양 | 개발 |
| ③ 혼동 | 지양 | 개발 |

48

⑦~⑩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국가직 7급]

인간은 얼마나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 앞에서 단기 기억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단기 기억은 그 기억 용량에서나 기억 시간 면에서 모두 그 한계가 뚜렷하다. 장기 기억은 어떠한가?

우리가 어떤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다고 가정하자. 국민의례 순서에서 애국가를 부르게 되었다. 이때 애국가 1절의 가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애국가 1절의 가사는 이미 (㉠)하게 우리의 장기 기억 창고에 저장되어 있으며 언제라도 오류 없이 그 가사를 회상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애국가 2, 3, 4절로 갈수록 우리의 기억은 부정확해진다.

이처럼 어떤 기억은 평생 동안 유지되는 반면, 어떤 기억은 얼마간 지속되다가 (㉡)되거나 부정확해진다.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은 자기가 공부하는 내용을 시험 날까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은 자기가 만나는 거래처 사람들의 이름과 직위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자 애쓴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시험 전에 분명히 공부했던 내용을 시험 시간에 회상해 내지 못해 안타까웠던 경험, 분명히 인사를 나눈 바 있는 거래처 직원의 이름을 기억해 내지 못해서 (㉢)스러웠던 경험을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

㉠

㉡

㉢

- | | | |
|----------|--------|--------|
| ① 건실(健實) | 소거(消去) | 곤욕(困辱) |
| ② 견고(堅固) | 소실(消失) | 혼곤(昏困) |
| ③ 확고(確固) | 소멸(消滅) | 곤혹(困惑) |
| ④ 확실(確實) | 소진(消盡) | 혼란(混亂) |

49

밑줄 친 말의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고장 난 시계를 고치다.

- ① 부엌을 입식으로 고치다.
- ② 상호를 순 우리말로 고치다.
- ③ 정비소에서 자동차를 고치다.
- ④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낡은 법을 고치다.

50

밑줄 친 단어가 다음에서 설명한 동음어로 둑인 것은?

[2017. 국가직 7급]

동음어는 의미상 서로 관련이 없거나 역사적으로 기원이 다른데 소리만 우연히 같게 된 말들의 집합이며, 국어사전에는 서로 다른 표제어로 등재된다.

- ① 지수는 빨래를 할 때 합성세제를 쓰지 않는다.
이 일은 일부를 쓰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
- ② 새로 구입한 의자는 다리가 튼튼하다.
박물관에 가려면 한강 다리를 건너야 한다.
- ③ 이 방은 너무 밝아서 잠자기에 적당하지 않다.
그는 계산에 밝은 사람이다.
- ④ 그 영화는 뒤로 갈수록 재미가 없었다.
너의 일이 잘될 수 있도록 내가 뒤를 봐주겠다.

51

밑줄 친 ㉠의 뜻풀이로 옳은 것은? [2017. 지역인재]

“요놈, 꽤씸한 추위란 놈 같으니, 네가 지금은 이렇게 ㉠ 기승을 부리지마는, 어디 내년 봄에 두고 보자.”
하고 벼르더란 이야기가 전하지마는 이것이 옛날 남산골 ‘딸까발이’의 성격을 단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이야기다.
– 이희승, 딸까발이 –

- ① 오랫동안 앓고 있어 고치기 어려운 병
- ② 기운이나 힘 따위가 누그러들지 않음. 또는 그 기운이나 힘
- ③ 괴로운 심정이나 사정
- ④ 몹시 어렵고 힘들게 싸우거나 일함

52

“이렇게 된 터에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다.”의 터 와 같은 문맥적 의미로 쓰였다고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2017. 서울시 7급]

- ① 첫 출근 날이라 힘들었을 터이니 어서 쉬어.
- ②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터에 남 걱정을 한다.
- ③ 이제야 후회한다고 해도 너무 늦은 터였다.
- ④ 이틀을 굽은 터에 찬밥 더운밥 가릴 겨를이 없다.

53

다음 중 반의 관계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2017. 서울시 9급]

- | | |
|-----------|-------------|
| ① 살다 – 죽다 | ② 높다 – 낮다 |
| ③ 늙다 – 젊다 | ④ 뜨겁다 – 차갑다 |

54

'잡다'의 유의어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지방직 9급]

유의어	예문
죽이다	①
쥐다	②
어립하다	③
진압하다	④

- ① ①: 할아버지는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셨다.
 ② ②: 그들은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다.
 ③ ③: 술집 주인은 손님의 시계를 술값으로 잡았다.
 ④ ④: 산불이 난 지 열 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56

다음 밑줄 친 시어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7. 서울시 7급]

꽃이 지기로소니 / 바람을 탓하랴.
 주렴 밖에 ① 성긴 별이 / 하나 둘 스러지고
 ② 귀족도 울음 뒤에 / 머언 산이 다가 서다.
 촛불을 꺼야 하리 /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 뜰에 어리어
 하이얀 미닫이가 / ③ 우련 붉어라.
 문혀서 사는 이의 /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 ④ 저허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 울고 싶어라.

– 조지훈, 「낙화」(1946) –

- ① ① 성긴: 물건 사이가 떠서 빈 공간이 많음을 뜻한다.
 ② ② 귀족도: 소쩍새, 두견새를 뜻한다.
 ③ ③ 우련: 갑자기, 불쑥 나타남을 뜻한다.
 ④ ④ 저허하노니: 두려워하노니

55

다음 중 한자어의 의미관계가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2017. 서울시 7급]

- ① 發送－郵送 ② 供給－需要
 ③ 脫退－加入 ④ 惡化－好轉

57

밑줄 친 관용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지방직 7급]

- ① 저 친구는 입이 높아 일반 음식은 먹지 않아.
 ② 그는 입이 뜨고 과묵한 사람이다.
 ③ 입 아래 코라고 일의 순서가 바뀌었어.
 ④ 사람이 저렇게 입이 진 것을 보니 교양이 있겠구나.

58

다음 중 속담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경찰직 1차]

- ① 소경 머루 먹듯: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것이나 취함.
- ② 재미난 골에 범 난다: 즐거운 일을 찾아 계속하다 보면 큰 인물이 될 수 있음.
- ③ 깃목에도 씨가 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물건에도 제 속은 있음.
- ④ 가물에 돌 친다: 가뭄에 도량을 미리 치워 물길을 낸다는 뜻으로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함.

59

밑줄 친 표현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2017. 서울시 사회복지직]

- ① 그 사람은 입이 밟아서 입맛 맞추기가 어렵다.
– 음식을 심하게 가리거나 적게 먹다.
- ② 입이 거친 그를 흰 눈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업신여기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다.
- ③ 이번 일은 네가 허방 짚은 격이다.
– 잘못 알거나 잘못 예산하여 실패하다.
- ④ 새참 동안 땀을 들인 후 다시 일을 시작했다.
– 땀을 일부러 많이 내서 피곤을 풀다.

60

밑줄 친 말의 의미는?

[2017. 지방직 9급]

몇 달 만에야 말길이 되어 겨우 상대편을 만나 보았다.

- ① 남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어 말하다.
- ② 자신을 소개하는 길이 트이다.
- ③ 어떤 말이 상정되거나 토론이 되다.
- ④ 마음에 당겨 재미를 붙이다.

61

다음 <보기>의 속담과 가장 관련이 깊은 말은?

[2017. 서울시 9급]

<보기>

- ㉠ 가물에 도량 친다
- ㉡ 까마귀 미역 감듯

- | | |
|-------|-------|
| ① 혗수고 | ② 분주함 |
| ③ 성급함 | ④ 뒷고생 |

04

2016년 기출문제

62

단어의 뜻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지방직 7급]

- ① 암팡지다—몸은 작아도 힘차고 다부지다.
- ② 음전하다—말이나 행동이 음흉한 데가 있다.
- ③ 객쩍다—말이나 하는 짓이 실없고 싱겁다.
- ④ 흰소리—터무니없이 자랑으로 떠벌리거나 거드려거리며 혀풀을 떠는 말

63

밑줄 친 어휘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가직 9급]

- ① 해미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 해미: 바다 위에 낀 짙은 안개
- ② 이제는 안갚을 때가 되었다.
– 안갚음: 남에게 해를 받은 만큼 저도 그에게 해를 다시 줌
- ③ 그 울타리는 오랫동안 살피지 않아 영 불쌍이 아니었다.
– 불쌍: 남에게 보이는 체면이나 태도
- ④ 상고대가 있는 풍경을 만났다.
– 상고대: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64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 경찰직 1차]

수영과 나는 소꿉친구다. 나는 수영을 언제부턴가 친구 이상으로 좋아하고 있다. 수영은 나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모르는 체한다. 그래서 내일은 꽃과 선물을 준비해서 고백할 생각이다.

- | | |
|-------|-------|
| ① 가멸다 | ② 슬겁다 |
| ③ 몽따다 | ④ 곰삭다 |

65

다음 밑줄 친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회직 8급]

- ① 사위스러워서 아무도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만득이가 사지로 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곱단이를 과부 안 만들려는 그의 깊은 마음을…….
– 사위스럽다: 마음에 불길한 느낌이 들고 껴림칙하다.
- ② 창백한 꽃들은 애잔하게 고개를 쳐들며 혹은 얹게 스치는 바람에 흔들리고…….
– 애잔하다: 몹시 가냘프고 약하다.
- ③ 달포 전에 보았을 때보다 아들의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다.
– 달포: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 ④ 식량이 연맥(燕麥) 아니면 마령서(馬鈴薯)인데, 날마다 수용하는 다량의 이것을 대끼고 으깬은 도저히 인력으로 당할 바 아니요…….
– 대끼다: 애벌 짧은 수수나 보리 따위를 물을 조금 쳐 가면서 마지막으로 깨끗이 짧다.
- ⑤ 먹던 대궁을 주워 모아 짠지 쪽하고 갖다 주니 감자덕지 받는다.
– 대궁: 나물의 줄기 한가운데에 있는 연한 심

66

다음 밑줄 친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회직 8급]

- ① 무녀리같이 보이지 않게 노력해야 해.
→ 벼룩이 없는 사람
- ② 책상 위의 서류 더미들을 간종그렸다.
→ 흐트러진 일이나 물건을 가지런하게 하다.
- ③ 그의 말이 짜장 헛된 이야기만도 아닌 셈이었다.
→ 과연 정말로
- ④ 이야기 들은 값으로 술국이나 한 뚝배기 안다미로 펴오너라.
→ 담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
- ⑤ 그녀는 바람만바람만 그의 뒤를 따랐다.
→ 바라보일 만한 정도로 멀리 떨어져서

67

다음 중 고유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2016. 서울시 9급]

- ① 노느매기: 물건을 여러 봉으로 나누는 일
- ② 비나리치다: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하려고 허둥대다.
- ③ 가리사니: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나 실마리
- ④ 던적스럽다: 하는 짓이 보기에 매우 치사하고 더러운 데가 있다.

68

다음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경찰직 2차]

여름 장이란 애시당초에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빛이 벌여 놓은 전 휘장 밑으로 등줄기를 흑흑 볶는다. 마을 사람들은 거지반 돌아간 뒤요, 팔리지 못한 나무꾼 패가 길거리에 ㉠ 싯거리고들 있으나, 석유 병이나 받고 고깃 마리나 사면 족할 이 축들을 바라고 언제까지든지 버티고 있을 법은 없다. 춥춥스럽게 날아드는 파리 떼도, 장난꾼 ㉡ 각다귀들도 귀찮다. ㉢ 얼금뱅이요 원손잡이인 ㉣ 드팀전의 허 생원은 기어코 동업의 조 선달을 나꾸어 보았다.

“그만 겪을까?”

- ① ㉠: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머뭇거리다.
- ② ㉡: 곤충의 한 종류로 남의 것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③ ㉢: 얼굴에 우묵한 마맛자국이 생긴 사람을 낫잡아 이르는 말이다.
- ④ ㉣: 여러 가지 농기구를 파는 작은 가게를 일컫는다

69

〈보기〉는 ‘비치다’에 한 사전의 뜻풀이이다. 다음 중 각 뜻에 한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2016. 서울시 9급]

〈보기〉

① [...에]

- ① 빛이 나서 환하게 되다.
- ② 빛을 받아 모양이 나타나 보이다.
- ③ 물체의 그림자나 영상이 나타나 보이다.
- ④ 뜻이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다.
- ⑤ 투명하거나 얇은 것을 통하여 드러나 보이다.
- ② [...에/에게 …으로] 무엇으로 보이거나 인식되다.
- ③ [...에/에게 …을]
- ① 얼굴이나 눈치 따위를 잠시 또는 약간 나타내다.
- ② 의향을 떠보려고 슬쩍 말을 꺼내거나 의사를 넘지시 깨우쳐 주다.

① ①: 창문을 종이로 가렸지만 그래도 안이 비친다.

② ① ③: 만년설이 쌓인 산이 호수에 비쳤다.

③ ②: 동생에게 결혼 문제를 비쳤더니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다.

④ ③ ①: 글씨를 흘려서 쓰면 성의 없는 사람으로 비치기 쉽다.

70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는?

[2016. 서울시 7급]

철수와 영수는 고등학교 친구다. 그러나 졸업 후 함께 사업을 하면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사이가 서먹하게 되었다. 지금도 동네에서 오며 가며 얼굴은 보지만 서로 모르는 척 지나간다.

① 징건하다

② 벼름하다

③ 투미하다

④ 쇄락하다

71

밀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경찰직 1차]

(가) 들하 노피곰 도드샤

어괴야 ①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괴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

져재 녀러신고요

어괴야 즐 터를 드티울세라

어괴야 어강됴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괴야 내 가논 뒤 ② 점그를셰라

어괴야 어강됴리 / 아으 다롱디리

(나) 어듸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③ 뵈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얄리얄리 얈라성 얈라리 얈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느모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얄리얄리 얈라성 얈라리 얈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경지 가다가 드로라

사소미 짚대예 올아서 해금을 혀거를 ④ 드로라

① ① 머리곰: ‘멀리멀리’의 의미로서 시적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② ② 점그를셰라: ‘저물까 두렵다’의 의미로서 야간에 남편이 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시적 화자의 심리가 나타난다.

③ ③ 뵈리도 괴리도 없이: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의 의미로서 고독한 운명을 수용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④ ④ 드로라: ‘듣는가’의 의미로서 비록 홀로 있지만 사랑하는 임과 함께 신비로운 소리를 듣기를 바라는 시적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72

밀줄 친 단어들의 시대적 상징성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2016. 사회복지직 9급]

“어디 일들 가슈?”

“아뇨,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구 아십니까?”

“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① 도자를 끄는데…….”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별일 데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구 감자나 매는데요.”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십 년.”

노인은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두 말우.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② 방둑을 쌓아 놓구, ③ 트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구.”

“뭣 땜에요?”

“낸들 아나. 뭐 관광호텔을 여러 채 짓는답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네.”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루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걸.”

“그럼 나룻배두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에 쓰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④ 하늘을 잊는 법이거든.”

–황석영, ‘삼포가는 길’ 중에서–

① ①, ②, ③

② ①, ④, ⑤

③ ①, ④, ⑤

④ ②, ③, ⑤

73

두 한자어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2016. 국가직 9급]

① 광정(匡正) – 확정(廓正)

② 부상(扶桑) – 함지(咸池)

③ 중상(中傷) – 비방(誹謗)

④ 갈등(葛藤) – 알력(軋轢)

74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2016. 국가직 7급]

어떤 사물을 역사적 인물처럼 의인화하여 그 가계와 생애 및 개인적 성품, 공과(功過)를 기록하는 전기(傳記) 형식의 글을 ()이라고 한다. 거북·대나무·지팡이·술·돈 따위의 동물이나 식물, 생활에 필요한 물건 같은 사물을 의인화해 그 생애를 서술한다.

- | | |
|----------|----------|
| ① 평전(評傳) | ② 열전(列傳) |
| ③ 가전(假傳) | ④ 실전(實傳) |

75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어색한 문장은? [2016. 국가직 7급]

- ① 작가는 작품으로 말할 뿐, 그 밖의 것은 모두 췌언(贅言)에 불과하다.
- ② 한학의 온축(蘊蓄)을 문학작품의 창작으로 승화시켰다.
- ③ 습작 활동을 오래도록 한 일은 그의 치밀한 성격을 야기(惹起)하였다.
- ④ 귀국한 동생으로 인해 우리 가족의 단취(團聚)가 실현되었다.

76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지방직 9급]

- ① 이 숲에서 자생하던 희귀식물들의 개체수가 줄었다.
- ②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이것저것 따질 개재가 아니다.
- ③ 이번 아이디어 상품의 출시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된다.
- ④ 현대 사회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보가 넘쳐 난다.

77

⑦~⑩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 국가직 7급]

인간 본성이 이기적이냐 혹은 이타적이냐 하는 이분법적 질문은 흑백 논리를 지양하고 (⑦)을 강조하는 오늘날에는 그저 지적 호사가들의 관심이나 끌 법한 낡은 질문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인간에게 내재된 본성 같은 게 실제로 있거나 한 것인지 근본적인 (⑧)을/를 품어 볼 수도 있다.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생각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영역에 속한다고 여겨왔기 때문에 인간 본성에 대한 답변도 대체로 철학이나 종교의 영역이 맡아 왔다. 그 가운데에는 지혜의 원천으로서 인류의 삶에 훌륭한 (⑨)이/가 되어온 것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인간 중심적 사고에 (⑩)되었다는 근원적 한계를 갖는다.

⑦	⑧	⑨	⑩
① 다원성	의문	전범	착종
② 다양성	회의	지침	고착
③ 중충성	질문	모범	연루
④ 융합성	반문	통찰	편향

78

다음 중 혼종어로만 나열된 것은?

[2016. 서울시 7급]

혼종-어(混種語)[혼:--] 「명사」『언어』

서로 다른 언어에서 유래한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

- ① 각각, 무진장, 유야무야
- ② 과연, 급기야, 막무가내
- ③ 의자, 도대체, 언감생심
- ④ 양파, 고자질, 가지각색

79

밀줄 친 부분의 함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 지방직 9급]

그는 피아노를 향하여 앉아서 머리를 기울였습니다. 몇 번 손으로 키를 두드려 보다가 다시 머리를 기울이고 생각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 여섯 번을 다시 하여 보았으나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피아노에서 울려 나오는 음향은 규칙 없고 되지 않은 한낱 소음에 지나지 못하였습니다. 야성? 힘? 귀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감정의 재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잘 안 됩니다.”

그는 부끄러운 듯이 연하여 고개를 기울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두 시간도 못 되어서 벌써 잊어버린답?”

나는 그를 밀어 놓고 내가 대신하여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아까 베낀 그 음보를 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베낀 곳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화염! 화염! 빙곤, 주림, 야성적 힘, 기괴한 감금당한 감정! 음보를 보면서 타던 나는 스스로 흥분이 되었습니다.

—김동인, 광염 소나타 중에서—

- ① 화려한 기교가 없는 연주
- ② 악보와 일치하지 않는 연주
- ③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연주
- ④ 기괴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연주

80

한자어의 뜻을 잘못 풀이한 것은?

[2016. 지방직 7급]

- ① 捷徑 – 지름길
- ② 順延 – 순수한 인연
- ③ 驅逐 – 어떤 세력 따위를 몰아서 쫓아냄
- ④ 波瀾 – 순탄하지 아니하고 어수선하게 계속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련

81

밀줄 친 관용구가 적절하게 쓰인 것으로만 둑은 것은?

[2016. 지방직 7급]

ㄱ. 그는 복권에 당첨되어 요즘 배가 등에 불었다.
 ㄴ. 그 사람은 고지식해서 입에 발린 소리를 못한다.
 ㄷ. 그녀는 군대에 간 아들이 눈에 밟혀 잠을 못 잔다.
 ㄹ. 우리 엄마는 순이 떠서 일 처리가 빠르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82

다음 중 속담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경찰직 2차]

- ① 기둥 치면 들보가 운다: 전혀 관계가 없는 일에 억울하게 배상을 하게 된다.
- ② 계도 구멍이 크면 죽는다: 분수에 지나치면 도리어 화를 당하게 된다.
- ③ 토끼 뒷에 여우 걸린다: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의외로 더 큰 이익을 얻게 된다.
- ④ 소경이 개천 나무란다: 자기의 과실은 생각지 않고 상대만 원망한다.

83

다음에 제시된 의미와 가장 가까운 속담은? [2016. 지방직 9급]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서 허세를 부리려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① 가난한 집 신주 굶듯
- ② 가난한 집에 자식이 많다
- ③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 ④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05 / 2015년 기출문제

84

다음 중 어휘의 의미가 옳지 않은 것은? [2015. 기상직 7급]

- ① 시부저기 시작한 일이지만 결과는 참으로 좋았다.
– 시부저기: 힘겨운 일을 이루려고 애쓰는 모양
- ② 새로 담근 고추장에 가시가 생겼네
– 가시: 음식물에 생긴 구더기
- ③ 발김쟁이와 모도리가 많으면 삭막한 세상이다.
– 모도리: 빈틈없이 아주 아무진 사람
- ④ 원룡이가 격실격실하고 훈데분한 데 비해서 친구하는 수득이는 오종종하니 약은 축같이 보였다.
– 격실격실하다: 서글서글한 태도로 언행을 활발히 하다.

85

다음 제시된 단어 중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2015. 서울시 9급]

- ① 여봐란듯이: 우쭐대고 자랑하듯이
- ② 가뭇없이: 보이던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 찾을 곳이 깜깜하게
- ③ 오롯이: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
- ④ 대수로이: 그다지 훌륭하지 아니하게

86

밑줄 친 단어의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2015. 지방직 7급]

- ① 이 집 한 채나마 깝살릴 테냐?
– 깍살리다: 재물이나 기회 따위를 흐지부지 다 없애다.
- ② 무릎을 꿇고 한참 입을 달막거렸다.
– 달막거리다: 말할 듯이 입술이 자꾸 가볍게 열렸다 닫혔다 하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 ③ 너 자꾸 자부락거리지 말고 할 일이나 해라.
– 자부락거리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실없이 자꾸 건드려 귀찮게 하다.
- ④ 데생긴 감자들이 한곳에 모여 있었다.
– 데생기다: 생김새나 됨됨이가 번듯하고 실하다.

87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물건을 세는 단위가 옳지 않은 것은?

[2015. 국회직 9급]

- ① 여기요, 접시 두 줄만 주세요.
- ② 이 북어 한 꽤는 얼마입니까?
- ③ 어이구, 장작을 세 우리나 땐네.
- ④ 올해는 마늘 한 접이 얼마일까?
- ⑤ 삼치 한 못 값이 올랐네.

88

밑줄 친 단어의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2015. 지방직 9급]

- 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어쩌면 저렇게 솟저울까?
– 솟접다: 순박하고 진실하다.
- ② 그녀는 그가 떠날까 져어하였다.
– 저어하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다.
- ③ 나는 곰살궂게 이모의 팔다리를 주물렀다.
– 곰살궂다: 일이나 행동이 적당하다.
- ④ 아이들이 놀이방에서 새살거렸다.
– 새살거리다: 샐샐 웃으면서 재미있게 자꾸 지껄이다.

Chapter 02 한자와 한자성어 · 한문

01

2019년 기출문제

01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잘못된 것은? [2019 지방직 9급]

- ① 그는 여러 차례 TV 출연으로 유명세(有名勢)를 치렀다.
- ② 누가 먼저 할 것인지 복불복(福不福)으로 정하기로 했다.
- ③ 긴박한 상황이라 대증요법(對症療法)을 쓸 수밖에 없었다.
- ④ 사건의 경위(經緯)는 알 수 없지만, 결과만 본다면 우리에게 유리하다.

02

①~④의 한자 표기로 옳은 것은?

[2019 국가직 7급]

기호를 기표와 기의의 결합으로 보는 것은 언어학의 ① 공리이다. 그리고 그 결합이 ⑤ 자의적이라는 점 또한 널리 알려진 ⑥ 상식이다. 그러나 음성 상징어로 총칭되는 의성어와 의태어는 여기에서 예외로 간주되곤 한다. 즉 의성어와 의태어는 기표와 기의 사이의 ⑦ 연관성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① ⑦ 共理

② ⑤ 自意的

③ ⑥ 常識

④ ⑧ 緣關性

03

⑦~⑨의 밑줄 친 단어를 한자로 바르게 표기한 것은?

[2019. 경찰직]

부는 ⑦ 부패와 그대로 ⑧ 직결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대 사회에서도 ⑨ 사치와 낭비를 죄악으로 여기고 합리적인 지출과 검소를 중시하는 금욕적 도덕주의가 완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간간이 언론에서 ⑩ 낭비를 마치 큰 범죄나 되는 듯이 비판하는 것을 보면, 소비에 대한 경직된 사고가 우리의 의식 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⑦ 膚敗

② ⑧ 直決

③ ⑨ 奢移

④ ⑩ 浪費

04

<보기>의 ⑦~⑨의 한자 표기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서울시 7급]

<보기>

'꼭두쇠'는 남사당패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꼭두쇠는 남사당패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이다. 단원 가운데 ① 규율을 어긴 단원에 대해 형벌을 명령하는 것도 꼭두쇠이다. 꼭두쇠가 ② 노쇠하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단원들의 신임을 잃게 되면 단원들의 ③ 추대로 새로운 꼭두쇠를 ④ 선출한다.

① ⑦-規律

② ⑨-老衰

③ ⑩-推戴

④ ⑧-先出

05

다음 중 ⑦~⑧의 독음이 모두 적절한 것은? [2019. 경찰직]

무궁화는 어떤 의미에 있어, 아니 어떤 의미에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은자의 꽃이라 할 수 있겠다. 외인은 혹 우리 한국을 불러 ‘은자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 연유를 자세히는 알지 못하나, 과연 은자의 나라다운 꽃이 있다면, 무궁화는 따라서 우리나라를 잘 상징하는 꽃이 되겠다. 무궁화는 첫째, 성을 따진다면 결코 여성이 아니다. 중성이다. 요염한 색채도 없고 ⑦ 龟韻한 방향도 없다. 양귀비를 너무 요염하다 해서 뜰에 넣지 않는 우리 선인의 취미에 맞을 뿐 아니라 향기를 기피하여 목서까지 뜰에서 추방한 아나톨 프랑스의 사제도 타협할 수 있을 은일의 꽃이다. 그리고 은자로서의 우리의 선인의 풍모를 잠깐 상상한다면 수수한 베옷이나 무명옷을 입고, 절부채를 들고 조그만 초당 뜰을 거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모습에 잘 어울리는 꽃으로 무궁화 이외의 꽃을 쉬이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뿐 아니라 무궁화는 은자가 구하고 높이는 모든 덕을 구비하였다. 무궁화에는 은자가 대기하는 ⑦ 俗臭라든가, 세속적 탐욕 내지 ⑧ 騷鄙을 암시하는 데가 미친도 없고, 덕이 있는 사람이 ⑧ 睡棄하는 요사라든가 망첩이라든가 오만이라든가를 찾아 볼 구석이 없다. 어디까지든지 점잖고, 은근하고 겸허하여, 너그러운 대인 군자의 풍모를 가졌다.

- ① ⑦ 풍부-⑧ 육취-⑨ 집착-⑩ 타엽
- ② ⑦ 복욱-⑧ 속취-⑨ 악착-⑩ 타기
- ③ ⑦ 풍부-⑧ 속취-⑨ 집착-⑩ 타기
- ④ ⑦ 복욱-⑧ 육취-⑨ 악착-⑩ 타엽

06

〈보기〉와 가장 관련이 없는 고사성어는? [2019. 서울시 9급]

〈보기〉

설 실은 천리마(千里馬)를 알아 볼 이 뉘 있으리
십년(十年) 역상(櫪上)에 속절없이 다 늙도다
어디서 살진 쇠양마(馬)는 외용지용 하느니

- ① 脾肉之嘆
- ② 招搖過市
- ③ 不識泰山
- ④ 麥秀之嘆

07

서로 의미가 유사한 속담과 한자성어를 짹지은 것이다. 관련이 없는 것끼리 묶은 것은? [2019. 서울시 9급]

- ① 원님 덕에 나팔 분다—狐假虎威
- ② 소 잊고 외양간 고친다—晚時之歎
- ③ 언 밭에 오줌 누기—雪上加霜
- ④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目不識丁

08

다음 () 속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 지방직 9급]

방랑시인 김삿갓의 시는 해학과 풍자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시든 단숨에 써 내리는 一筆揮之인데다 가히 ()의 상태라서 일부러 꾸미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고 아름답다.

- ① 花朝月夕
- ② 韋編三絕
- ③ 天衣無縫
- ④ 莫無可奈

09

화자의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한 한자 성어는?

[2019. 국가직 9급]

미인이 잠에서 깨어 새 단장을 하는데
향기로운 비단, 보배 띠에 원앙이 수놓였네
겹발을 비스듬히 걷으니 비취새가 보이는데
계으로 계 은 아쟁을 암고 봉황곡을 연주하네
금 재갈, 꾸민 안장은 어디로 떠났는가?
다정한 앵무새는 창가에서 지저귀네
풀섶에 놀던 나비는 틀 밖으로 사라지고
꽃잎에 가리운 거미줄은 난간 너머에서 춤추네
뉘 집의 연못가에서 풍악 소리 울리는가?
달빛은 금 술잔에 담긴 좋은 술을 비추네
시름겨운 이는 외로운 밤에 잠 못 이루는데
새벽에 일어나니 비단 수건에 눈물이 흥건하네
– 혜난설현, 「사시사(四時詞)」에서 –

① 琴瑟之樂

③ 錦衣夜行

② 輾轉不寐

④ 麥秀之嘆

10

밑줄 친 ‘가토리’와 ‘都沙工’의 상황을 표현한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 국가직 7급]

나모도 바히들도 업슨 꾀해 매게 빽친 가토리 안과,
大川 바다 한가온대 千石 시른 베에 노도 일코 닷도 일코
농총도 근코 듯대도 갖고 치도 빼지고 브람 부려 물결 치
고 안개 뒤섞계 주자진 날에 갈 길은 千里萬里 나믄디 四面
이 거며어득 쳐못 天地寂寞 가치노을 션는듸 水賊 만난 都沙工의 안과,
엊그제 님 여훤 내 안히야 엇다가 ㅋ을 ㅎ리오.

① 孤子單身

③ 磨杵作針

② 蟑螂拒轍

④ 百尺竿頭

11

다음 글과 관련이 있는 고사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 경찰직]

좋은 독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짬짬이 아주 조금씩 독서를 시작한다. 독서는 책상에 앉아 책상 등을 켜고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지하철을 타면 독서를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지하철에서도 시간적 여유와 앉을 자리 등의 여건이 갖추어져야 독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하루에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나는 ‘짬짬이 독서’를 추천한다. 항상 책을 가방에 넣고 다니며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5~10분간 2~3장 읽고, 친구나 음식을 기다리면서 5~10분을 읽는다. 분량에 얹매이지 않고 계속 읽어 가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양을 읽을 수 있다. 두꺼운 책을 한 번에 다 읽으려 하지 말고 짬짬이 지속적으로 읽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① 矯枉過直

③ 尸位素餐

② 深思熟考

④ 水滴穿石

12

효(孝)와 관계된 사자성어가 아닌 것은?

[2019. 서울시 7급]

① 斑衣之戲

③ 陸續懷橘

② 斷機之戒

④ 望雲之情

13

다음 밑줄 친 ⑦에 들어갈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 경찰직]

귀국하고 나서도 아버지는 역시 노동, 어머니는 장사를 했다. 어머니가 장사를 한 것은 귀국 즉시가 아니었고, 한번은 죽은 내 남동생의 주사를 맞히려고 하는데 집에는 돈 한 푼이 없어 이웃에게 빌리려고 했으나 어디 한 군데서도 그것을 못 했다고 한다. 그 약값이 없어 동생은 죽었다. ‘없으면 문둥이보다 더 더럽다.’라는 것은 당신이 노상 한 말이었고, 그래서 당신 스스로가 장사판에 뛰어든 것이다.

[중략]

그러니까 그 덕으로 우리는 살았다. 이때도 생선을 지고 그 뒤치다꺼리는 아버지가 했다. 그 장사를 몇 년 했다. 형이 장가든 것도, 내가 그런 것도, 또 밑으로 누이동생들이 시집간 것도, 다 어머니가 장사를 한 덕을 입었다. 큰 별이는 아니었으나 그동안 먹고 지낸 것, 우리들 사 남매를 장가가고 시집가게 한 조그만 힘은 되었다. [중략] 어머니는 술한 고생 속에서 세월을 보냈다. 그 어머니의 말대로, ⑦ _____ 였다. 자신의 노력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었다. 지지리도 고생스러운 나날이었다.

- ① 비단옷 입고 밤길 걷기
- ② 솔밭에 가서 고기 낚기
- ③ 원님 덕에 나팔 분다
- ④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14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과 뜻이 가장 잘 통하는 속담은?

[2019. 19 서울시 7급]

- | | |
|---------------|------------------|
| ① 첫술에 배부르랴. | ② 내 코가 석 자다. |
| ③ 공든 탑이 무너지랴. | ④ 바늘허리 실 매어 못쓴다. |

15

속담과 한자성어의 뜻이 가장 비슷한 것은? [2019. 서울시 9급]

- ①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 순망치한(脣亡齒寒)
- ②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 하로동선(夏爐冬扇)
- ③ 우물 안의 개구리 – 하충의빙(夏蟲疑冰)
- ④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 설중송백(雪中松柏)

16

사자성어 중 뜻이 나머지와 가장 다른 하나는?

[2019. 서울시 7급]

- | | |
|--------------|--------------|
| ① 지란지교(芝蘭之交) | ② 금란지계(金蘭之契) |
| ③ 문경지교(刎頸之交) | ④ 단순호치(丹唇皓齒) |

02

2018년 기출문제

17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한자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 국가직 9급]

_____ (이)란 이익과 관련된 갈등을 인식한 둘 이상의 주체들이 이를 해결할 의사를 가지고 모여서 합의에 이르기 위해 대안들을 조정하고 구성하는 공동 의사 결정 과정을 말한다.

- ① 協贊
③ 協助

- ② 協奏
④ 協商

19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는?

[2018. 지역인재]

- 回():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
- ()命: 명령을 받고 일을 처리한 사람이 그 결과를 보고함
- ()活: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 ① 復
③ 生

- ② 死
④ 歸

20

밑줄 친 한자의 독음이 다른 것으로 짹지어진 것은?

[2018. 지방직 7급]

- | | |
|---------|---------|
| ① 復活－復命 | ② 樂園－樂勝 |
| ③ 降等－下降 | ④ 率先－引率 |

18

밑줄 친 한자어의 쓰임이 문맥상 적절한 것은?

[2018. 국가직 9급]

- ① 초고를 校訂하여 책을 완성하였다.
- ② 내용이 올바른지 서로 交差 검토하시오.
- ③ 전자 문서에 決濟를 받아 합격자를 확정하겠습니다.
- ④ 지금 제안한 계획은 수용할 수 없으니 提高 바랍니다.

21

한자어의 독음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18. 서울시 9급]

<보기>

- | | | |
|-----------|-----------|-----------|
| ㄱ. 決濟(결재) | ㄴ. 火葬(화상) | ㄷ. 模寫(묘사) |
| ㄹ. 裁量(재량) | ㅁ. 冒頭(모두) | ㅂ. 委託(위탁) |

- | | |
|-----------|-----------|
| ① ㄱ, ㄴ, ㅂ | ② ㄱ, ㄷ, ㄹ |
| ③ ㄴ, ㄷ, ㅁ | ④ ㄹ, ㅁ, ㅂ |

22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의 한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2018. 서울시 7급]

〈보기〉

우리가 그 본성이 변화의 과정에 있는 어떤 것을 불변의 것으로 고정화할 때, 우리는 옛날의 중국 여자의 전족처럼 살아 있는 것의 성장을 왜곡화하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그것을 고사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 | | |
|---------------|---------------|
| ① 課程—纏足—矮曲—苦死 | ② 過程—纏足—歪曲—枯死 |
| ③ 過程—填足—矮曲—枯死 | ④ 課程—填足—歪曲—苦死 |

24

〈보기〉의 밑줄 친 단어의 한자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7급]

〈보기〉

설화적 상상 속에서는 경험적 현실에서 생각도 못할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하다. 사람이 단숨에 수천 리를 가고 하늘을 훨훨 날아오르며 눈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다.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이 되고 왕자가 한순간에 개구리가 되며 한 사람이 열 명, 백 명으로 나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상적 형상을 말하고 듣는 과정에서 인간의 인지는 힘찬 운동을 하게 된다. 사고의 반경이 부쩍 넓어지고 사유의 역동성이 살아난다. 그로부터 인간 삶의 새로운 지경이 열려 나간다. 인류 역사의 발전은 이런 인지적 운동을 통해 실현된다 고 해도 좋다. 틀을 깨는 자유와 역동의 상상적 인지를 통해서 말이다.

- | | |
|----------|----------|
| ① 형상(形象) | ② 반경(半徑) |
| ③ 사유(思惟) | ④ 지경(至境) |

23

괄호 안의 ⑦, ⑧에 들어갈 한자끼리 바르게 묶인 것은?

[2018. 교육행정 7급]

박 아무개는 41세에 (⑦)宴을, 77세에 喜壽宴을, 88세에 (⑧)宴을, 99세에 白壽宴을 가졌다.

- | | |
|---------|---------|
| ⑦ ⑧ | ⑦ ⑧ |
| ① 望五 美壽 | ② 忘五 米壽 |
| ③ 望五 米壽 | ④ 忘五 美壽 |

25

다음 중 ⑦~⑩의 독음이 모두 적절한 것은?

[2018. 경찰직 2차]

梅花는 確實히 春風이 ⑦ 駄蕩한 季節에 ⑧ 燭漫히 피는 濃艷한 白花와는 달라, 現世의인, 享樂的인 꽃이 아님은勿論이요, 가장 超高하고 ⑨ 狹介한 꽃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그 꽃이 清楚하고 佳香이 넘칠 뿐 아니라, 氣品과 雅趣가 比할 끗 없는 것도 先驅者的性格과 相通하거니와, 그 忍耐와 그 ⑩ 霸氣와 그 ⑪ 辛酸에서 結果된 梅實은 先驅者로서의 苦衷을 흡뻑 象徵함이겠다.

- | ⑦ | ⑧ | ⑨ | ⑩ | ⑪ |
|------|----|----|----|----|
| ① 태탕 | 난만 | 견개 | 패기 | 신산 |
| ② 태탕 | 문만 | 견개 | 패기 | 행준 |
| ③ 야장 | 난만 | 연개 | 염기 | 신산 |
| ④ 야장 | 문만 | 연개 | 염기 | 행준 |

26

다음 밑줄 친 어휘의 쓰임이 가장 적절한 것은?

[2018. 경찰직 1차]

- ① 그의 논문이 유명 학회지에 개재(介在)되었다.
- ② 경치가 좋은 곳을 관광지로 계발(啓發)하여 한다.
- ③ 무더위로 최대 전력 수요 경신(更新)이 계속되고 있다.
- ④ 그 회사는 어음을 결재(決裁)하지 못해 부도 처리가 되었다.

27

㉠~㉡ 중 한자의 표기가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18. 국가직 7급]

프레젠테이션이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 陳述하는 말하기를 가리킨다. 프레젠테이션은 조사한 내용을 ㉡ 説明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고하는 등 정보 공유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널리 ㉢ 使用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핵심적인 정보를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 制視하는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 ① ㉠, ㉡
- ③ ㉡, ㉢

- ② ㉠, ㉢
- ④ ㉢, ㉣

28

㉠, ㉡에 들어갈 한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8. 지방직 9급]

- 근무 여건이 개선(㉠)되자 업무 효율이 크게 올랐다.
- 금융 당국은 새로운 통화(㉡) 정책을 제안하였다.

- ㉠ ㉡
- ① 改善 通貨
- ③ 改善 通話

- ㉠ ㉡
- ② 改選 通話
- ④ 改選 通貨

※ [29~30]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세 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이때 앞서 그중 두 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 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서까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재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잘못을 알고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의 ㉠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재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멀뚱거리고 ㉢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29

이 작품의 주제를 한자 성어로 바꿀 때 가장 적절한 것은?

[2018. 경찰직 1차]

- | | |
|--------|--------|
| ① 興盡悲來 | ② 捲土重來 |
| ③ 愚公移山 | ④ 渴而穿井 |

30

밑줄 친 단어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모두 적절한 것은?

[2018 경찰직 1차]

- | ㉠ | ㉡ | ㉢ |
|------|----|----|
| ① 敗亡 | 政事 | 改革 |
| ② 敗亡 | 正使 | 開革 |
| ③ 敗忙 | 政事 | 改革 |
| ④ 敗忙 | 正使 | 開革 |

31

다음 내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 지역인재]

옛것을 본받는 사람은 옛 자취에 얹매이는 것이 문제다. 새것을 만드는 사람은 이치에 합당치 않은 것이 걱정이다. 진실로 능히 옛것을 본받으면서 변화할 줄 알고, 새것을 만들면서 법도에 맞을 수만 있다면 지금 글도 옛글만큼 훌륭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 ① 一日三秋
② 先憂後樂
③ 送舊迎新

- ④ 溫故知新

33

〈보기〉의 글쓴이가 보이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7급]

〈보기〉

방의 넓이는 10홀, 남으로 외짝문 두 개 열렸다. 한낮의 해 쬐어, 밝고도 따사로워라. 집은 겨우 벽만 세웠지만, 온갓 책 갖추었다. 쇠코잠방이로 넉넉하니, 탁문군(卓文君)의 짜일세. 차 반 사발 따르고, 향 한 대 피운다. 한가롭게 숨어 살며, 천지와 고금을 살핀다. 사람들은 누추한 방이라 말하면서, 누추하여 거쳐할 수 없다 하네. 내가 보기엔, 신선이 사는 곳이라, 마음 안온하고 몸 편안하니, 누추하다 뉘 말하는가. 내가 누추하게 여기는 건, 몸과 명예 모두 썩는 것, 집이야 쑥대로 엮은 거지만, 도연명도 좁은 방에서 살았지. 군자가 산다면, 누추한 게 무슨 대수랴.

- ① 安分知足
② 艱難辛苦
③ 貧而無怨
④ 簟食瓢飲

32

〈보기〉의 팔호에 알맞은 한자성어는? [2018. 서울시 9급]

〈보기〉

일을 하다 보면 균형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의 수행 과정에서 부분적 잘못을 바로 잡으려다 정작 일 자체를 뒤엎어 버리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이다. 흔히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부분적 결점을 바로잡으려다 본질을 해치는 ()의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 ① 개과불린(改過不客)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③ 교각살우(矯角殺牛)
④ 부화뇌동(附和雷同)

34

⑦~⑩의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 국가직 7급]

내가 사는 집 이름을 사우재(四友齋)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벗하는 이가 셋이고 거기에 또 내가 끼니, 합하여 넷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세 벗은 오늘날 생존해 있는 선비가 아니고 지금은 세상에 없는 옛 선비들이다. 나는 원래 세상일에 관심이 없는데다가 또 ⑦ 성격이 제멋대로여서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꾸짖고 폐를 지어 배척하므로, ⑩ 집에는 찾아오는 이가 없고 밖에 나가도 찾아갈 만한 곳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탄식했다.

“벗은 오륜(五倫)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는데 나만 홀로 벗이 없으니 어찌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벼슬길에서 물러나 생각해 보았다. ⑪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고 사귀려 들지 않으니 어디서 벗을 찾을 것인가. 할 수 없이 ⑫ 옛 사람들 중에서 사귈 만한 이를 가려내서 벗으로 삼으리라고 마음먹었다.

- ① ⑦: 傍若無人
② ⑩: 左顧右盼
③ ⑪: 不恥下問
④ ⑫: 後生可畏

35

다음 고사와 관련된 한자성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경찰직 2차]

환공이 당상에 앉아 글을 읽노라니 정하에서 수레를 짜던 늙은 목수가 텁질을 멈추고, “읽으시는 책이 무슨 책이오니까?” 물었다.

환공 대답하기를, “옛 성인의 책이라.” 하니, “그럼 대감께서 읽으시는 책도 역시 옛날 어른들의 찌꺼기 올시다그려.” 한다. 공인의 말투로 너무 무엄하여 환공이 노기를 띠고, “그게 무슨 말인가? 성인의 책을 찌꺼기라 하니 찌꺼기 된 연유를 들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살려 두지 않으리라.” 하였다. 늙은 목수 자약하여 아래와 같이 아뢰었다 한다. “저는 목수라 치목하는 예를 들어 아뢰오리다. 텁질을 해 보더라도 느리게 당기면 엊먹고 급하게 당기면 텁이 박혀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래 너무 느리지도, 너무 급하지도 않게 당기는 데 묘리가 있습니다만, 그건 손이 익고 마음에 통해서 저만 알고 그렇게 할 뿐이지 말로 형용해 남에게 그대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마 옛적 어른들께서도 정말 전해 주고 싶은 것은 모두 이러해서 품은 채 죽은 줄 아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감께서 읽으시는 책도 옛사람의 찌꺼기쯤으로 불러 과언이 아닐까 하옵니다.” 환공이 물론 턱을 끄덕였으리라 믿거니와 설화나 문장이나 그것들이 한묘(妙)의 경지의 것을 발표하는 기구로는 너무 무능한 것임을 요새 와 점점 절실하게 느끼는 바다.

① 以心傳心

② 遼東之豕

③ 不立文字

④ 教外別傳

36

‘아랫돌 빼서 윗돌 고기’와 의미상 거리가 가장 먼 것은?

[2018. 서울시 7급]

① 미봉책(彌縫策)

② 임기응변(臨機應變)

③ 임시방편(臨時方便)

④ 언 발에 오줌 누기

37

다음 시조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 지방직 9급]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스라
사람이 되어서 옳지못 못하면
마소를 갓 고깔 씌워 밥 먹이나 다르랴

① 鄉閭有禮

② 相扶相助

③ 兄友弟恭

④ 子弟有學

38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는?

[2018. 서울시 9급]

<보기>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꾀해 매게 빼친 가토리 안과, 대천(大川) 바다 한가온듸 일천(一千)석 시른 빼에 노도 일코일코 농총도 근코 뜻대도 갖고 치도 짜지고 브람부려 물결 치고 안개 뒤섯계 조자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나먼더 사면이 거머어득 쳐뭇 천지적막 가치노을 쟇눈더 수적 만난 도사공의 안과, 엊그제 님 여흰 내 안히야 엇다가 그을 헤리오.

① 捲土重來

② 緣木求魚

③ 前虎後狼

④ 天衣無縫

39

밀줄의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법원직]

허생은 묵적골(墨積洞)에 살았다. 곧장 남산(南山) 밑에 닿으면, 우물 위에 오래 된 은행나무가 서 있고, 은행나무를 향하여 사립문이 열였는데, 두어 칸 초가는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허생은 글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날의 바느질 품을 팔아서 입에 풀чин을 했다.

하루는 그 처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평생 과거(科舉)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 합니까?”

허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히 하지 못하였소.”

“그럼 장인바치 일이라도 못 하시나요?”

“장인바치 일은 본래 배우지 않았는 걸 어떻게 하겠소?”

“그럼 장사는 못 하시나요?”

“장사는 밑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소?”

처는 월각 성을 내며 소리쳤다.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쏘?’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오? 장인바치 일도 못 한다, 장사도 못 한다면, 도둑질이라도 못 하시나요?”

허생은 읽던 책을 덮어놓고 일어나면서,

“아깝다. 내가 당초 글읽기로 십 년을 기약했는데, 이제 칠 년인걸…….”

하고 획 문 밖으로 나가 버렸다.

① 상루하습(上漏下濕)

② 삼순구식(三旬九食)

③ 가도벽립(家徒壁立)

④ 권토중래(捲土重來)

40

괄호 안 ⑦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한자 성어는?

[2018. 교육행정직 7급]

衛國安民은 兵爲最急하니 無虞之世라도 尤不可緩이라. 古之聖王은 治不忘亂하고 安不忘危하여 克詰於閑暇之日하여 張皇於緩急之際하니 此所謂 (⑦)者也라.

-『회재집』-

① 刻骨難忘

② 見危致命

③ 有備無患

④ 內憂外患

41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교육행정직 7급]

洪相國瑞鳳之大夫人은 家甚貧하여 疏食菜羹도 每多空乏 이라.

一日은 遣婢買肉而來하여 見肉色하니 似有毒이라.

問婢曰,

“所買之肉이 有幾許塊耶?” 하고

乃賣首飾得錢하여 使婢盡買其肉하여 而埋于牆下하니 恐他人之買食生病也라.

-『해동속소학』-

① 여종이 사 온 고기는 독이 있는 것 같았다.

② 대부인은 벽장에 감춰 두었던 돈으로 고기를 샀다.

③ 사 온 고기를 담장 아래에 묻었다.

④ 대부인은 사람들이 고기를 사 먹고 병이 날까 염려했다.

42

다음 글의 중심 생각을 표현한 성어는?

[2018. 지방직 7급]

내 집이 산속에 있는데 문 앞에 큰 개울이 있다. 해마다 여름철에 소낙비가 한 차례 지나가면, 개울물이 갑자기 불어 언제나 수레 소리, 말 달리는 소리, 대포 소리, 북소리를 듣게 되어 마침내 귀에 뜻이 박혔다. 내가 일찍이 문을 닫고 누워서 소리의 종류를 비교해 들어 보았다. 깊은 솔숲에서 솔바람 소리 이는 듯하니 이 소리는 청아하게 들린다.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 이 소리는 격분한 듯 들린다. 개구리들이 다투어 우는 듯하니 이 소리는 교만하게 들린다. 많은 축(筑)이 차례로 연주되는 것 같으니 이 소리는 성난 듯이 들린다. 번개가 치고 우레가 울리는 것 같으니 이 소리는 놀란 듯 들린다. 약한 불 션 불에 찻물이 끓는 듯하니 이 소리는 아취 있게 들린다. 거문고가 궁조(宮調)와 우조(羽調)에 맞게 연주되는 것 같으니 이 소리는 슬프게 들린다. 종이 창문에 바람이 문풍지를 울게 하는 듯하니 이 소리는 의아하게 들린다.

-박지원,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

① 以心傳心

② 心機一轉

③ 人心不可測

④ 一切唯心造

43

밑줄 친 ①~④을 한자로 바꾸었을 때 틀린 것은?

[2018. 교육행정 7급]

〈보기〉

역사는 사실(事實) 속에서 사실(史實)을 뽑아내어 ① 원형 대로 재생하여 놓은 것이라는 생각이 상당히 오랫동안 통용되었다. 역사가는 사실로부터 사실(史實)을 추출할 뿐 그것을 해석하여 그 속에 들어 있는 의미를 드러내는 것은 ④ 금물로 여겼다. 그렇게 하면 사실(史實)의 본래적이고 객관적인 모습을 그르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에는 사실 중에서 사실(史實)을 뽑아내는 데 적용되는 역사가의 주관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사실(史實)의 의미를 추구하는 데에는 역사가의 주관성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나 역사가의 주관적인 ② 안목 없이 사실(史實)을 원형 대로 재생하는 일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그것으로는 수많은 사실 속에서 어렵게 사실(史實)을 뽑아낸 보람도 그다지 살아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역사가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지도 못한다.

역사가 사실(史實)을 ③ 재생하는 일에 한정되면 그것은 『삼국사기』는 김부식에 의해 쓰였고,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났다는 정도의 사실(史實)들로만 엮이기 쉽다. 바꾸어 말하면, 사실(史實)의 집적만이 역사가 될 것이며 그것을 잘 기억하는 일만이 역사 공부가 되기 쉽다. 우리가 역사를 알려고 하는 이유는 선택된 사실(史實)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서 인류 역사 전체에 흐르고 있는 법칙성을 이해하는 데 있다. 더 나아가, 그것을 통해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사실(史實)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사실(史實)을 뽑아내는 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실(史實)을 해석하여 의미를 알아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① ① 圓形

② ⑤ 禁物

③ ④ 眼目

④ ⑥ 再生

03

2017년 기출문제

44

⑦~⑩의 한자 병기가 옳지 않은 것은?

[2017. 지방직 9급]

⑦ 열악(劣惡)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희망을 현실로 만든 그의 노력에 우리는 ⑧ 경의(敬意)를 표하였다. 그의 ⑨ 태도(態道)는 우리에게 ⑩ 귀감(龜鑑)이 될 만하다.

① ⑦

② ⑧

③ ⑩

④ ⑨

45

밑줄 친 말의 의미에 대응하는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지방직 9급]

① 이번 국경일에 국기를 단 집이 많았다. – 揭載

② 차에 에어컨을 달고 싶지만 돈이 없다. – 設置

③ 오늘의 음식 값은 장부에 달아 두세요. – 記錄

④ 그는 어디에 가든 친구를 달고 다닌다. – 帶同

46

한자 성어의 뜻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지방직 9급]

① 결초보은(結草報恩):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르는 말.

② 방약무인(傍若無人):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상태임.

③ 절치부심(切齒腐心):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④ 점입가경(漸入佳境): 들어갈수록 점점 재미가 있음.

47

⑦～⑩에 들어갈 한자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7. 국가직 9급 10월]

토론은 어떤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뚜렷한 의견 대립을 가지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⑦) 형태이다. 찬성자와 반대자는 각기 (⑧)를 밝히고,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며, 주장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상대방에게 인정될 수 있도록 자기의 주장을 펴 나간다. 토론에서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상대방이 인정하도록 하려면, 상대로 하여금 (⑨)의 여지를 가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토론 참가자는 (⑩)에 대한 충분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검토를 통해 자신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화법(話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⑦	⑧	⑨	⑩
① 論議	論據	論駁	論題
② 論議	論制	論遽	論搏
③ 論意	論旨	論難	論述
④ 論意	論志	論據	論題

48

다음 글을 읽고 ⑦과 ⑧의 특징을 가장 잘 대조한 것은?

[2017. 국가직 7급 10월]

일반적으로 ⑦ 입말은 규범적인 문법 규칙의 적용을 그리 많이 받지 않으므로 사회적 변동이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⑧ 글말보다 비교적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 그러므로 새 말이 생성되기도 하고 어떤 낱말은 사멸되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글말은 규범적인 문법 규칙의 적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사회적 변동이나 시대적 변천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서서히 변화한다.

⑦	⑧	⑦	⑧
① 多彩性	規範性	② 動態性	靜態性
③ 模糊性	明示性	④ 生成性	死滅性

49

밀줄 친 한자 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10월]

- ① 그는 이번 실패에 굴하지 않고 捲土重來를 꿈꾸고 있다.
- ② 그는 魚魯不辨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③ 그는 이번 사건에 吾不關焉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④ 그의 말이 羊頭狗肉으로 평가받는 것은 곁만 그럴듯해 서이다.

50

다음 구절이 의미하는 바와 뜻이 가장 잘 통하는 속담은?

[2017. 국가직 7급 10월]

欲速則不達

—論語—

- ① 서 밭 막대 휘둘러도 거칠 것 없다.
- ② 개 꼬리 삼 년 두어도 황모 되지 않는다.
- ③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 못한다.
- ④ 뱃새가 황새를 따라 하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51

문맥을 고려할 때 괄호 안의 한자가 옳은 것은?

[2017. 서울시 사회복지직]

- ① 그는 변명(辨明)을 늘어놓기에 급급했다.
- ② 사람의 마음가짐은 대상 인식(人識)에 영향을 끼친다.
- ③ 제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大處)해야 한다.
- ④ 올림픽은 국위를 선양(禪讓)하기 위한 겨루기의 장이다.

52

다음 중 한자어와 독음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2017. 서울시 9급]

- | | |
|----------|---------|
| ① 陶冶－다도치 | ② 改悛－개진 |
| ③ 殺到－살도 | ④ 汰沒－일몰 |

53

㉠～㉢의 한자가 모두 바르게 표기된 것은? [2017. 국가직 9급]

글의 진술 방식에는 ㉠ 설명, ㉡ 묘사, ㉢ 서사, ㉣ 높중 등 네 가지 방식이 있다.

- | ㉠ | ㉡ | ㉢ | ㉣ |
|------|----|----|----|
| ① 說明 | 描寫 | 敍事 | 論證 |
| ② 設明 | 描寫 | 敍事 | 論症 |
| ③ 說明 | 貓齧 | 徐事 | 論症 |
| ④ 說明 | 貓齧 | 徐事 | 論證 |

54

독음이 모두 바른 것은?

[2017. 국가직 9급]

- | |
|------------------------|
| ① 探險(탐험)－矛盾(모순)－貨幣(화폐) |
| ② 詐欺(사기)－惹起(야기)－灼熱(치열) |
| ③ 荊棘(형자)－破綻(파탄)－洞察(통찰) |
| ④ 箴言(잠언)－惡寒(악한)－奢侈(사치) |

55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한자어로 적합한 것은?

[2017. 서울시 9급]

토의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기 위한 공동의 사고 과정이다. 이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와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가능한 대안들을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대안의 선택에 필요한 판단 준거를 토대로 대안을 분석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 | | |
|---------|---------|
| ① 토의－討義 | ② 사고－思考 |
| ③ 선택－先擇 | ④ 준거－準舉 |

56

밑줄 친 말을 한자로 바르게 표기한 것은?

[2017. 지방직 9급]

- 지루한 ㉠ 장광설로 인해 관중들은 하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 정보화 사회일수록 ㉡ 유언비어가 떠돌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 잘못을 저질렀다면 궁색한 ㉢ 변명보다 정직한 시인이 현명한 대응이다.

- | ㉠ | ㉡ | ㉢ |
|-------|------|----|
| ① 長廣舌 | 流言蜚語 | 辨明 |
| ② 長廣舌 | 流言非語 | 辯明 |
| ③ 長廣說 | 流言蜚語 | 辯明 |
| ④ 長廣說 | 流言非語 | 辨明 |

57

⑦～⑩에 들어갈 한자로 적절한 것은? [2017. 교육행정직 7급]

하마평(㉠)이란 관직의 이동이나 임명과 관련된 소문을 뜻하며, 관리들이 말에서 내려 관아에 들어가면 마부들이 모여 주인에 대하여 평하였다는 데서 유래했다. 하마평과 관련된 말에는 물망(㉡)이 있다. 물망이란 여러 사람들이 우러러본다는 뜻으로, ‘물망에 오른다.’란 말은 관직의 후보자로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뜻이다. 소문이 좋고 그 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하게 되면, 결정권자는 추천받은 후보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낙점(㉣)하게 된다. 낙점은 적합한 사람의 이름 위에 점을 찍었다는 데서 유래했다.

① ㉠: 下馬平

② ㉡: 物望

③ ㉢: 追薦

④ ㉣: 諾點

58

다음 밑줄 친 부분을 한자로 표기할 때 적절한 것은?

[2017. 경찰직 1차]

㉠ 환옹은 그 무리 3천 명을 거느리고 태백산(太伯山) 꼭대기—태백산은 지금의 묘향산(妙香山)이다.—의 ㉡ 아래에 내려와서 이곳을 신시(神市)라고 부르니, 이분이 곧 환옹 천왕이다. 그는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고식·수명·질병·형벌·선악 등을 주관하고, 인간 세상의 삼백예순 가지 일을 맡아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교화(教化)하였다.

㉠ ㉡

① 桓雄 神壇水

㉠ ㉡

② 桓雄 神壇樹

③ 桓熊 神端水

④ 桓熊 神端樹

59

밑줄 친 말의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2017. 지방직 9급]

지조란 것은 순일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 확집(確執)이요, 고귀한 투쟁이기까지 하다. 지조가 교양인의 ㉡ 위의(威儀)를 위하여 얼마나 값지고 그것이 국민의 교회에 미치는 힘이 얼마나 크며, 따라서 지조를 지키기 위한 괴로움이 얼마나 가혹한가를 헤아리는 사람들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먼저 그 지조의 ㉢ 강도(強度)를 살피려 한다. 지조가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지도자는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의 명리만을 위하여 그 동지와 지지자와 추종자를 ㉣ 일조(日照)에 함정에 빠뜨리고 달아나는 지조 없는 지도자의 무절제와 배신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하였는가.

– 조지훈, ‘지조론’ 중에서

① ㉠

② ㉡

③ ㉢

④ ㉣

60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한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7. 경찰직 2차]

미국 정부는 기밀() 자료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 하자마자 곧바로 유출자 색출()을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① 記密－類出－認知－嗦出

② 記密－類出－認智－索出

③ 機密－流出－認知－索出

④ 機密－流出－認智－嗦出

61

다음 글의 밑줄 친 ⑦의 한자 표기로 옮은 것은?

[2017. 국어학 8급]

1776년 6월 3일, 폭우가 쏟아지며 캄캄해졌다. 전날 저녁부터 아침까지 온 식구가 모두 밥을 굽었다. 내가 이를 알고는 기쁘지 않아 상을 찡그리더니, 이 때문에 병이 더 극심해졌다. 아이를 집에 돌려보내자 갑자기 비가 숨을 거두었다. 늙은 아버지는 흐느껴 울며 부자와 형세가 이에 세 번 곡하였다. 천하에 지극히 애통한 소리다. 너는 이제 영원히 잠들었으니 이를 듣는가 듣지 못하는가? …… 평시에는 남들과 말할 적에 형제가 몇이냐고 물으면 아무개와 아무개 넷이 ⑦동기라고 하였더니, 이제부터는 남들이 물으면 넷이라 할 수가 없겠구나.

- | | |
|------|------|
| ① 同起 | ② 同氣 |
| ③ 同期 | ④ 童氣 |
| ⑤ 童期 | |

62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어학 8급]

- ① 구석구석엔 불만과 불평이 퇴적(堆積)돼 있는 듯한 분위기였다.
- ② 그 선수는 스카우트 파문(波紋)에 휩싸여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 ③ 도전자는 통쾌한 KO승을 거두겠다고 기염(氣陷)을 토하고 있다.
- ④ 명나라 군사를 움직여서 왜적을 소탕(掃蕩)하였다.
- ⑤ 진주에서 덕유산까지 들어가기엔 적잖은 애로(隘路)가 있었다.

63

밑줄 친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

對話를 잘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重要하다. 특히 ⑦圓闊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⑧共感하며 듣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상대의 처지나 마음의 상태를 헤아리고 들을 때, 대화와 ⑨妥協을 통해 서로의 ⑩利害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 |
|-----|-----|
| ① ⑦ | ② ⑧ |
| ③ ⑩ | ④ ⑪ |

64

밑줄 친 한자 표기가 옳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

- ① 계속되는 폭우로 마을 입구의 다리가 崩塊되었다.
- ② 이 일은 迅速하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③ 나의 실수에 대해 당사자에게 정중하게 詐過했다.
- ④ 이번 고적 踏事는 영남 지방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65

다음 한자어와 한글 독음 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경찰직 2차]

- | | |
|-----------|-----------|
| ① 尿素 – 요소 | ② 匿名 – 익명 |
| ③ 理髮 – 이발 | ④ 雙龍 – 쌍용 |

66

밀줄 친 말의 뜻이 옳지 않은 것은? [2017. 지방직 9급]

때는 한창 바쁠 추수 때이다. 농군치고 송이 ⑦ 파적 나올 놈은 생겨나도 않았으리라. 하나 그는 꼭 해야만 할 일이 없었다.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그저 그뿐. 그러함에는 벅을 것이 더러 있느냐면 있기는커녕 부쳐 먹을 농토조차 없는, 계집도 없고 자식도 없고. 방은 있대야 남의 곁방이요 잡은 ⑧ 새우잡이요. 하지만 오늘 아침만 해도 한 친구가 찾아와서 벼를 털 텐데 일 좀 와 해달라는 걸 마다하였다. 몇 분 바람에 그까짓 걸 누가 하느냐보다는 송이가 좋았다. 왜냐면 이 땅 삼천리강산에 늘여 놓인 곡식이 말짱 뉘 것이라. 먼저 먹는 놈이 임자 아니냐. 먹다 걸릴 만치 그토록 양식을 쌓아 두고 일이 다 무슨 ⑨ 난장 맞을 일이란. 걸리지 않도록 먹을 궁리나 할 게지. 하기는 그도 한 세 번이나 걸려서 구매밥으로 ⑩ 사관을 틀었다마는 결국 제 밥상 위에 올라앉은 제 봇도 자칫하면 먹다 걸리긴 매일반…….

– 김유정, ‘만무방’ 중에서 –

① ⑦: 심심풀이

② ⑧: 안잠

③ ⑩: 몰매

④ ⑩: 양쪽 팔꿈치와 무릎 관절

67

⑩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지방 교육행정직 7급]

유영이 취하여 깜빡 잠이 들었다. 잠시 뒤 산새 울음소리에 깨어 보니, 안개가 땅에 가득하고 새벽빛이 어둑어둑하며 사방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다만 김 진사가 기록한 책 한 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유영은 서글프고 하릴없어 책을 소매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유영은 책을 상자 속에 간직해 두고 때때로 열어 보며 망연자실하더니 침식을 모두 폐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명산을 두루 유람하였는데, ⑪ 그 뒤로 어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 작자 미상, 「운영전」에서

① 困知所措

② 知足不辱

③ 不知所終

④ 無所不知

68

다음 빈 괄호 속에 들어갈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경찰직 2차]

마지막 편견. ‘이민자는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이 주 노동자는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기는커녕 일꾼이 부족한 일자리를 채워 준다. 더구나 건축업이나 서비스업은 ‘수출’할 수도 없다. 인재가 재산인 나라 대한민국은 곧 인재가 부족한 나라가 된다. (중략)

국제 연합의 통계를 보면 미국은 2050년에도 중간 나이가 41.1세인 젊은 나라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같은 해 중간 나이가 53.9세로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 미국의 비결은 간단하다. 이민이 미국을 젊게 한다. 우리도 발상을 바꾸면 된다. 일본도 최근 필리핀 출신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노인들은 아픈데 간호할 사람이 없고, 어찌겠는가? 독일도 1960년대 외국 인력 교체 순환 정책을 썼다. 하지만 고용주들이 반발했다. 숙련공을 내보내고 미숙련공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민자들이 정착할 길이 열렸다. 그렇다고 독일이 혼란에 빠졌다거나 독일인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후문은 없다. 오히려 일꾼이 문화까지 들여오니 () 아니겠는가? 아주 노동자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다.

① 一刀兩斷

② 一魚濁水

③ 一望無際

④ 一舉兩得

69

괄호 안에 들어갈 사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지역인재]

우리 자신의 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문화는 ()에 불과합니다. 다른 일이나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문화 또한 그 기초가 튼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① 일석이조(一石二鳥)

② 사상누각(沙上樓閣)

③ 설왕설래(說往說來)

④ 동병상련(同病相憐)

70

다음 글에 나타난 북과 선생의 언행에 부합하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국가직 7급]

북과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며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 나와, 세 번 절하고 끓어앉았다.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여쭈었다. “범님의 덕이야말로 참으로 지극하십니다.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을 배웁니다. 남의 아들된 자들은 그 효성을 법으로 사모하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합니다. 그 거룩한 이름이 신룡과 짹이 되어,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고 한 분은 구름을 일으키시니, 저처럼 하토의 천한 신하는 감히 그 바람 아래 서옵니다.” 범이 이 말을 듣고 꾸짖었다. “앞으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지난번에 내가 들으니 ‘유(儒)’는 ‘유(謫)’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에 천하에 나쁜 이름을 모두 모아서 망령되게도 내게 덧붙이더니 이제 낯간지러운 말을 하는구나. 그 말을 누가 곧이듣겠느냐?”

—박지원, ‘호질’—

① 牽強附會

② 巧言令色

③ 名論卓說

④ 楠化爲枳

71

다음 중 뜻이 비슷한 사자성어끼리 짹어지지 않은 것은?

[2017. 서울시 7급]

① 同病相憐－兩寡分悲

② 口如懸河－口尚乳臭

③ 衣錦夜行－夜行被繡

④ 望雲之情－白雲孤飛

72

밑줄 친 단어의 한자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2017. 지방직 7급]

- 많은 고통을 ⑦ 갑수한 결과 오늘의 결과를 이루었다.
- 우리 사회에 ⑨ 만연해 있는 불신감을 해소해야 한다.

① 甘授 ② 漫延

③ 甘授 ④ 甘受

① 甘受 ② 漫延

③ 甘受 ④ 蔓延

73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사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국가직 9급]

전국 시대 말, 진나라의 공격을 받은 조나라 혜문왕은 동생인 평원군을 초나라에 보내어 구원군을 청하기로 했다. 이십 명의 수행원이 필요한 평원군은 그의 삼천여 식객 중에서 십구 명은 쉽게 뽑았으나, 나머지 한 명을 뽑지 못한 채 고심했다. 이때에 모수라는 식객이 나섰다. 평원군은 어이 없어하며 자신의 집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물었다. 모수가 삼 년이 되었다고 대답하자 평원군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법인데, 모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모수는 “나리께서 이제까지 저를 단 한 번도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신다면 끝뿐이 아니라 자루까지 드러날 것입니다.” 하고 재치 있는 답변을 했다. 만족한 평원군은 모수가 수행원으로 뽑았고, 초나라에 도착한 평원군은 모수가 활약한 덕분에 국빈으로 환대받고, 구원군도 얻을 수 있었다.

① 吳越同舟

② 囊中之錐

③ 馬耳東風

④ 近墨者黑

74

㉠과 ㉡이 비슷한 의미의 사자성어가 아닌 것은?

[2017. 지방직 7급]

- | | |
|--------|------|
| ㉠ | ㉡ |
| ① 單刀直入 | 去頭截尾 |
| ③ 屍山血海 | 滄海一粟 |

- | | |
|--------|------|
| ㉠ | ㉡ |
| ② 如出一口 | 異口同聲 |
| ④ 面從腹背 | 口蜜腹劍 |

75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는?

[2017. 서울시 사회복지직]

사면(四面)으로 두른 것은 토끼 잡는 그물이고, 토끼 은신 수풀 속 쫓는 것은 초동(樵童)이라. 그대 신세 생각하면 적 벽강에 전패(全敗)하던 조맹덕의 정신이라. 작은 눈 부릅 뜨고 짚은 꽁지 뒤에 끼고 절벽상에 정신없이 달아날 제…….

- | | |
|--------|--------|
| ① 小隙沈舟 | ② 魂飛魄散 |
| ③ 亡羊補牢 | ④ 干名犯義 |

76

다음 내용을 한자 성어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경찰직 1차]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세 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이때 앞서 그중 두 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 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서까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재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잘못을 알고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의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재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 어렵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 | | |
|--------|---------|
| ① 殒及池魚 | ② 渴而穿井 |
| ③ 亡羊補牢 | ④ 死後藥方文 |

77

밑줄 친 시어에서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 동원된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소재는?

[2017. 지방직 9급]

㉠ 春雨暗西池	봄비 내리니 서쪽 못은 어둑한데
輕寒襲(⊙) 羅幕	찬바람은 비단 장막으로 스며드네.
愁依小(⊙) 屛風	시름에 겨워 작은 병풍에 기대니
墻頭(⊙) 杏花落	담장 위에 살구꽃이 떨어지네.

- | | |
|-----|-----|
| ① ㉠ | ② ㉡ |
| ③ ㉢ | ④ ㉣ |

78

다음은 『삼국사기』의 검군(劍君) 이야기를 차용하여 지은 시이다. 밑줄 친 부분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은?

[2017. 지방 교육행정직 7급]

대흉년이 들어서
왕궁 창고의 庫지기들이
왕궁 창고의 곡식들을 훔쳐 내
남몰래 나눠 먹는 판局이 되었는데,
깨끗한 우리 검군(劍君) 혼자만큼은
“그거사 못 먹겠다” 혼자만 빠졌다가
비밀 탄로의 염려 있다고
암살 대상이 되어 버렸네.
그래서 패거리들은 한 상 잘 차리고
우리 검군 청해서 毒을 타 먹였는데,
검군은 그걸 알고도 받아먹고 죽었네.
비밀 탄로 안 시키고 받아먹고 죽었네.
무슨 인생이 그렇게도 헐값이냐고?
아닐세. 그건 헐값이 아니라
하늘 값과 해 값을 함께 합쳐 계산한
신라 화랑의 본전
단군 아래의 풍류의 그 멋 때문이었다네.

－서정주, 「검군」－

① 若嫌小, 請更加之.

② 畏己死, 使衆人入罪, 情所不忍也.

③ 苟非其義, 雖千金之利, 不動心焉.

④ 舍人等, 密議, 不殺劍君, 必有漏言.

79

㉠, ㉡에 들어갈 한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지방직 7급]

- 富與貴, 是人之所欲也, 不(㉠)其道得之, 不處也
- 樹欲靜(㉡)風不止

㉠ ㉡

- ① 而 以
③ 而 而

㉠ ㉡

- ② 以 而
④ 以 以

80

다음 중 ‘雲從龍風從虎’라는 말과 뜻이 가장 잘 통하는 속담은?

[2017. 서울시 7급]

- ① 바늘 가는 데 실 간다
- ② 말 갈 데 소 갈 데 다 다녔다
- ③ 바람 부는 대로 옷을 단다
- ④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온다

81

다음 한시의 화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시적 정서가 가장 유사한 것은?

[2017. 경찰직 1차]

鳥獸哀鳴海岳曠

槿花世界已沈淪

秋燈掩卷懷千古

難作人間識字人

- ① 이화우(梨花雨) 흙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흔 님,
추풍 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싱각눈가.
천 리에 외로운 숨만 오락가락 ھ노매.
- ② 말 업슨 청산(青山)이요 태(態) 업슨 유수(流水) |로다.
갑 업슨 청풍(淸風)이요 님즈 업슨 명월(明月)이라.
이 중(中)에 병(病) 업슨 이 몸이 분별(分別) 업시 늘그리라.
- ③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아도 보이느다.
유자(柚子) | 안이라도 품엄 즉도 ھ다마는
풀어 가 반기리 업슬식 글노 설워 ھ느이다.
- ④ 흥망(興亡)이 유수(有數) ھ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 |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계워 ھ노라.

04 / 2016년 기출문제

82

다음 밑줄 친 부분을 한자로 표기할 때 적절한 것은?

[2016. 경찰직 2차]

1.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⑦ 발휘할 것이요, 결코 ⑧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⑨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2. 모든 행동은 질서를 가장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⑦ ⑧ ⑨

- ①發揮 排他的 一刻 ②撥揮 排他的 一覺
③發揮 俳他的 一刻 ④撥揮 俳他的 一覺

⑦ ⑧ ⑨

- ①發揮 排他的 一刻 ②撥揮 排他的 一覺
③發揮 俳他的 一刻 ④撥揮 俳他的 一覺

83

⑦~⑩의 표제어에 적합한 한자 표기는? [2016. 국가직 7급]

- ⑦ 유세: 자기 의견 또는 자기 소속 정당의 주장을 선전하며 돌아다님.
- ⑧ 조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 들이는 금전.
- ⑨ 탐본: 비석, 기와, 기물 따위에 새겨진 글씨나 무늬를 종이에 그대로 떠냄.

⑦ ⑧ ⑨

- ①遊說 徵歲 拓本 ②遊說 租稅 摺本
③誘說 徵歲 摺本 ④誘說 租稅 拓本

84

다음 중 괄호 안의 한자가 옳은 것은? [2016. 서울시 9급]

- ① 정직함이 유능함보다 중요(仲要)하다.
- ② 대중(對衆) 앞에서 연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 ③ 부동산 중개사(重介士)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 나고 있다.
- ④ 집중력(集中力)이 떨어지지 않도록 숙면을 취해야 한다.

85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가장 적절한 것은?

[2016. 서울시 7급]

- ① 여행 도중 틈틈이 수상을 기록하여 문집을 냈다. –首想
- ② 그가 사주, 관상, 수상에 능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운명은 알지 못했다. –手象
- ③ 어쩐지 수상하다 했더니 처음부터 범죄 의도가 있던 사람이었다. –樹狀
- ④ 그는 지원자 중 유일하게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어 뽑혔다. –受賞

86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한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2016. 서울시 7급]

중독을 떨쳐버리지 않는 게 과연 합리적인 결정일까? 좀더 일반적인 중독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갓 볶아낸 원두를 갈아서 향이 좋은 커피 한 잔을 만들어 마시는 일로 하루 일을 시작한다. 그런데 가끔 원두가 떨어진 걸 깜빡할 때도 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지 못하면 두통이 생기고, 화가 나고, 집중도 못한다. 커피를 마시지 못하면 급단현상을 느끼는 커피 중독자인 것이다.

- ① 中毒–決定–集中–禁斷
- ② 重毒–決定–執中–錦端
- ③ 中毒–結定–集中–禁斷
- ④ 重毒–結定–執中–錦端

87

다음 중 ①~⑤의 한자 표기로 옳은 것은? [2016. 국회직 8급]

노주인의 ① 장벽에

무시로 인동 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락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흙 냄새 훈훈히 김도 서리다가
 바깥 ⑤ 풍설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에 ④ 책력도 없이
 ② 삼동이 하이양다.

①	②	③	④
① 障壁	風說	冊力	三洞
② 障壁	風雪	冊歷	三冬
③ 障壁	風雪	冊曆	三洞
④ 腸壁	風雪	冊曆	三冬
⑤ 腸壁	風說	冊歷	三洞

88

다음 중 한자어의 독음이 모두 옳은 것은? [2016. 국회직 8급]

- ① 構築(구축) – 看做(간주) – 涉獵(섭렵) – 叱責(힐책)
- ② 投擲(투척) – 破散(파산) – 拿捕(장포) – 比較(비교)
- ③ 秋毫(추호) – 未練(미련) – 健康(건강) – 不肖(불초)
- ④ 左遷(좌변) – 未安(미안) – 經營(경영) – 知慧(지혜)
- ⑤ 呵責(가책) – 究明(규명) – 酷使(혹사) – 常套(상투)

89

①~⑤의 한자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2016. 국회직 8급]

재난은 기본적으로 끔찍하고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며, 제 아무리 긍정적인 효과와 가능성의 ① 부수적으로 나타난다 해도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마찬가지 이유, 즉 재난 속에서 생겨났다는 이유로 그런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 사람들이 자각한 열망과 가능성은 너무도 강력해서 폐허 속에서도, 젯더미 속에서도, ② 아수라장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상황은 다른 곳에서도 무관하지 않다. 요컨대 재난을 환영하자는 게 아니다. 재난이 이런 선물을 창조하지는 않지만, 선물이 도착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재난은 사회적 열망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놀라운 창을 제공하며, 재난 시에 증명된 것은 평상시에도, 다른 특별한 순간에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회적 변화는 선택으로 생겨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회안전망이나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농업의 가치를 믿기에 협동조합에 가입한다. 하지만 재난은 선호에 따라 우리를 분류하지 않는다. 재난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스스로 생존하거나 이웃을 구하기 위해 솔선수범하여 용감하고 이타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비상 상황으로 우리를 던져 넣는다. 비관적인 상황에서 생겨나는 긍정적인 감정들은 우리가 사회적 ③ 유대와 의미 있는 일들을 열망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즉석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리에게 커다란 보람을 안겨 준다는 것을 증명한다. 다만 우리의 경제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지 못하게 막고 있을 뿐이다. 또한 경제사회 구조는 이데올로기적이며,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한 철학을 담고 있다. 가진 자들을 위한 이 철학은 우리 모두의 삶을 결정하며, 뉴스에서 재난 영화에 이르기까지 대중매체가 ④ 확산시키는 통념으로 더욱 강화된다.

재난은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의 건강과 사회의 정의가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우리에겐 유대가 필요하다. 게다가 유대는 목적의식과 직접성, 주체성뿐 아니라 기쁨까지 가져다준다. 재난 생존자들의 증언에서 발견되는 놀랍고 날카로운 기쁨 말이다. 사람들의 증언은 모든 낙원이 필요로 하는 시민들, 용감하고 융통성 있고 마음 씀씀이가 넓은 시민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도래를 막기 힘들 정도로, 낙원의 가능성은 목전에 와 있다. 만일 지옥에서 낙원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기존 질서와 ⑤ 체제가 작동을 멈춘 상

태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며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 덕분이다.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附隨的 | 阿脩羅章 | 留待 | 擴散 | 體裁 |
| ① 附隨的 阿脩羅章 留待 擴散 體裁 | ② 附隨的 阿修羅場 紐帶 擴散 體制 | ③ 付隨的 阿脩羅章 留待 擴散 體制 | ④ 付髓的 阿修羅場 紐帶 擴散 體裁 | ⑤ 付髓的 阿修羅章 紐帶 擴散 體制 |

90

단어의 밑줄 친 부분의 음이 다른 것은? [2016. 지방직 9급]

- | | |
|------|------|
| ① 否認 | ② 否定 |
| ③ 否決 | ④ 否運 |

91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옳은 것은? [2016. 지방직 9급]

- ① 학술지의 규정(規正)에 따라 표절 논문을 반려하였다.
- ② 문법 구조(救助)를 잘 이해하면 독해력이 향상된다.
- ③ 각급 기관에서 협조할 사안이 충분(充分)히 있다.
- ④ 사회적 현상(懸賞)을 파악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92

①~⑤의 밑줄 친 어휘의 한자가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가직 9급]

- 그는 적의 ① 사주를 받아 내부 기밀을 염탐했다.
- 남의 일에 지나친 ② 간섭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 그 선박은 ③ 결합을 지닌 채로 출항을 강행하였다.
- 비리 ④ 척결이 그가 내세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 | | |
|--------|--------|
| ① ①-使嗾 | ② ②-間涉 |
| ③ ③-缺陷 | ④ ④-剔抉 |

93

다음은 한자 성어이다. () 안에 들어갈 한자가 모두 적절한 것은?

[2016. 경찰직 1차]

- | | |
|----------|----------|
| • 累卵之() | • 口()腹劍 |
| • 鯨戰()死 | • 南()一夢 |

- | | |
|--------------|--------------|
| ① 稅, 蜜, 蝦, 稩 | ② 勢, 密, 瑕, 柯 |
| ③ 勢, 蜜, 蝦, 柯 | ④ 稅, 密, 瑕, 稩 |

94

다음 중 적절한 한자만 쓰인 것은? [2016. 경찰직 1차]

- ① 이 무기는 銛呈 거리가 너무 짧다. 신무기 개발과 补給 이 時急하다.
- ② 사건을 造作한 것이 경찰에 의해 發覺되었다. 이는 권력을 지나치게 濫用한 결과다.
- ③ 조선시대 의식주에 관한 資料가 필요하면 민속학 事典에 있는 정보를 수집해라. 그리고 고적을 答辭해라.
- ④ 이번 事件에 대해 한국 정부는 有感의 뜻을 표했다. 이는 한국인의 소행으로 斷定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95

밑줄 친 단어에 가장 적절한 한자는? [2016. 사회복지직 9급]

나는 구청의 담당자에게 연유를 설명하고 서류를 찾아와서 서류 내용을 정정해야만 했다.

- | | |
|------|------|
| ① 訂正 | ② 正定 |
| ③ 正丁 | ④ 正正 |

96

밑줄 친 ‘고’와 한자가 같은 것은? [2016. 사회복지직 9급]

구민들의 고충(苦衷)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① 과거에는 신문고를 이용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곤 했다.
- ②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한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이 계속된다.
- ③ 그 방송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과소비의 실태에 대한 고발인 듯했다.
- ④ 민원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 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97

밑줄 친 ⑦과 뜻이 같은 한자는? [2016. 지방직 7급]

當時에 ⑦년던 길흘 몇 허를 부려 두고
어듸 가 든니다가 이제아 도라온고
이제아 도라오나니 년되 무음 마로리

青山은 엇데호야 萬古에 프르르며
流水는 엉데호야 畫夜에 굿디 아니눈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常青호리라
–이황, 도산십이곡 중에서–

- | | |
|-----|-----|
| ① 遊 | ② 讀 |
| ③ 歌 | ④ 行 |

98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옳은 것은? [2016. 서울시 9급]

- | | |
|--------|--------|
| ① 溫古知新 | ② 麥秀之嘆 |
| ③ 識者憂患 | ④ 左考右眄 |

99

⑦~⑩에 들어갈 한자 성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2016. 국가직 7급]

- 그는 고집이 어찌나 셈지 한번 결심하면 (㉠)이다.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속담은 (㉡)와 일맥 상통하는 말이다.
- 아무리 (㉢)한 인물이라도 좋은 동료를 만나지 못하면 성공하기 힘들다.

㉠

㉡

㉢

- | | | |
|--------|------|------|
| ① 搖之不動 | 間於齊楚 | 蓋世之才 |
| ② 搖之不動 | 看於齊楚 | 改世之才 |
| ③ 擾之不動 | 間於齊楚 | 改世之才 |
| ④ 擾之不動 | 看於齊楚 | 蓋世之才 |

100

⑦~⑩의 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국가직 7급]

- (가) 春去花猶在 ⑦天晴谷自陰
杜鵑啼白晝 始覺⑨卜居深
–李仁老, 山居–
- (나) 渭城朝雨浥輕塵, 客舍青青⑩柳色新
勸君更盡一杯酒, 西出陽關無⑪故人
–王維, 送元二使安西–

- ① ⑦: 날이 개다.
- ② ㉡: 사는 곳이 깊다.
- ③ ㉢: 벚나무 빛깔이 새롭다.
- ④ ⑩: 돌아가신 분.

101

다음 중 문형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2016. 서울시 7급]

- | | |
|----------|--------|
| ① 間征夫以前路 | ② 子將安之 |
| ③ 誰能與我同 | ④ 孰爲好學 |

103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2017. 지방직 7급]

이때 변산(邊山)에 도적 떼 수천 명이 몰려 있었는데, 지방 관청에서 군사를 풀어 잡으려 하여도 잡을 수 없었다. 도적 떼 또한 감히 나와서 노략질을 못하여 바야흐로 굽주리고 곤란하였다. 혀생(許生)이 그들을 찾아갔다.

(중략)

혀생이 물었다. “자네들은 아내가 있는가?” 도적들이 답하였다. “없습니다.” “자네들은 밭이 있는가?” 도적들이 웃으며 말하였다. “아내가 있고 밭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적이 되겠습니까?” 혀생이 “그렇다면 왜 장가를 들어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농사를 짓지 않는가? 살아서 도적 이란 이름을 면하고, 거할 때 가정의 즐거움을 누리고, 나가도 쫓기고 잡혀 갈 걱정 없이 오래도록 잘 먹고 잘 입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터인데.”라고 하였다. 도적들이 “어찌 그런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돈이 없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박지원, 혀생전 중에서—

- | | |
|------------|-------------|
| ① 人不知而不慍 | ② 無恒產無恒心 |
| ③ 人無遠慮必有近憂 | ④ 良藥苦於口而利於病 |

102

다음 글과 뜻이 통하는 속담은?

[2016. 지방직 7급]

君子之道辟如行遠必自邇辟如登高必自卑

(* 辟는 賦와 같다)

–中庸에서–

- ① 절하고 뺨 맞는 일 없다.
- ② 급하면 부처 다리를 안다.
- ③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다.
- ④ 가자니 태산이요, 돌아서자니 승산이라.

104

(가)~(라)에 나타난 상황을 한자 성어로 표현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경찰직 2차]

(가) 동리자가 북과 선생에게 청하기를,

“선생님의 덕을 오랫동안 흡모하였습니다. 오늘 밤 선생님께서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싶사옵니다.”

하니, 북과 선생이 옷깃을 가다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시경’을 읊었다.

“원양새는 병풍에 그려져 있고

반짝반짝 반딧불 날아다니는데

크고 작은 이 가마솥들은

어느 것을 모형 삼아 만들었나?”

그리고 나서

“이는 흥(興)이로다.”

하였다.

다섯 아들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기를,
“예기(禮記)에 과부의 집 문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법이라고 했는데, 북과 선생님은 현자가 아니신가.”
“정나라 도읍의 성문이 허물어진 곳에 여우가 굴을
파고 산다더라.”
“여우가 천년을 둑으면 요술을 부려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다더라. 그러니 이는 여우가 북과 선생으로 둔
갑한 게 아닐까?” …(중략)…

- (나) 이에 다섯 아들들이 함께 에워싸고 공격하니, 북과 선
생은 몹시 놀라 뺏소니를 치면서도 남들이 자기를 알
아볼까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
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더니, 대문을 나서
자 출달음치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에 빠져 벅렸다.
그 속에는 뚱이 가득 차 있었다. 구덩이에서 기어 올
라와 고개를 내놓고 바라보았더니, 범이 길을 막고 있
었다.
- (다) 범은 얼굴을 찌푸리며 구역질을 하고, 코를 막고 고개
를 왼쪽으로 돌리며 숨을 내쉬고는,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하였다.
북과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 와서, 세 번 절하
고 무릎을 끓은 채 고개를 들고는,
“범의 덕이야말로 지극하다 하겠사옵니다. 대인(大
人)은 그 가죽 무늬가 찬란하게 변하는 것을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걸이를 배우며, 사람의 자식은 그 효
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지요. 명성이 신
령스러운 용과 나란히 드높아, 하나는 바람을 일으키
고 하나는 구름을 일으키니, 하계에 사는 이 천한 신
하는 감히 그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하옵니다.”
하였다. 그러자 범은 이렇게 꾸짖었다.
- (라) “가까이 오지 마라! 예전에 듣기를 유(儒)는 유(謾)라
더니,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에 천하의 못된 이름
을 다 보아 함부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가, 이제 급하
니까 면전에서 아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신뢰하겠
느냐?

- ① (가) – 表裏不同
③ (다) – 巧言令色

- ② (나) – 命在頃刻
④ (라) – 櫛風沐雨

105

다음 글에서 ‘신(臣)’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 국가직 7급]

신(臣)이 부영(傅榮)에게 말하였습니다.
“수차(水車)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수차를 보았습니까?”
“지난번 소흥부(紹興府)를 지날 때, 어떤 사람이 호수 언덕
에서 수차를 돌려 논에 물을 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힘을 적게 들이면서 물을 많이 퍼 올리더군요. 가뭄에 농사
짓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차는 물을 푸는 데만 사용될 뿐이니 배울 것이 못 됩니다.”
“우리나라는 논이 많은데 자주 가뭄이 들지요. 만약 수차
만드는 법을 배워 우리 백성에게 가르쳐 준다면 농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대가 조금만 수고해 가르쳐 주면,
우리 백성 대대로 큰 이익이 생길 것이오. 그 제작법을 잘
알아보시되 모자란 점이 있으면 뱃사람들에게 물어서 정확
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 ‘표해록’—

- ① 공리공론(空理空論)
② 실사구시(實事求是)
③ 이용후생(利用厚生)
④ 주권재민(主權在民)

106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2016. 서울시 9급]

사원 여러분, 이번 중동 진출은 이미 예산이 많이 투입된
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해야만 회사가 삽니다. 어려움
과 많은 문제들이 있어 심적으로는 불안하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끝까지 함께 갑시다.

- ① 登高自卑
③ 騎虎之勢
② 角者無齒
④ 脣亡齒寒

107

밀줄 친 한자 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지방직 9급]

- ① 말이 너무 변드르르해 미덥지 않은 자들은 대부분 丑蜜腹劍 형의 사람이다.
- ② 그는 싸움다운 전쟁도 못하고 一敗塗地가 되어 고향으로 달아나고 말았다.
- ③ 그에게 마땅히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首鼠兩端 하다가 시기를 놓쳤소?
- ④ 요새 신입생들이 선배들에게 예의를 차릴 줄 모르는 걸 보면 참 後生可畏하다는 생각이다.

108

다음의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 국가직 9급]

김만중의 ‘사씨남정기’에서 사씨는 교씨의 모함을 받아 집에서 쫓겨난다. 사악한 교씨는 문객인 동청과 작당하여 남편인 유한림마저 모함한다. 그러나 결국은 교씨의 사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유한림이 유배지에서 돌아오자 교씨는 처형되고 사씨는 누명을 벗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 | | |
|--------------|--------------|
| ① 교언영색(巧言令色) | ② 절치부심(切齒腐心) |
| ③ 만시지탄(晚時之歎) | ④ 사필귀정(事必歸正) |

109

다음 ①~④의 뜻풀이에 해당하는 속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경찰직 1차]

- | | |
|--------|--------|
| ① 識字憂患 | ④ 角者無齒 |
| ② 蟑螂拒轍 | ③ 得隴望蜀 |

- ① ① 아는 것이 병이다.
- ② ④ 무는 호랑이는 뿔이 없다.
- ③ 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 ④ ⑥ 양자가 음지 되고 음자가 양지 된다.

110

의미가 다른 한자어는?

[2016. 사회복지직 9급]

- | | |
|--------------|--------------|
| ① 면종복배(面從腹背) | ② 부화뇌동(附和雷同) |
| ③ 구밀복검(口蜜腹劍) | ④ 소리장도(笑裏藏刀) |

05

2015년 기출문제

111

대립되는 의미로 짹지어지지 않은 것은? [2015. 지방직 7급]

- | | |
|---------|---------|
| ① 失笑－笑殺 | ② 訥辯－能辯 |
| ③ 稀薄－濃厚 | ④ 困難－順坦 |

113

밀줄 친 한자 및 한자어의 사용이 옳은 것은?

[2015. 기상직 7급]

- ① 대법원의 판결로 은행대출과 상사유치권 문제가 난마(亂麻)처럼 명쾌하게 풀렸다.
- ② 선로로 떨어진 취객을 구한 청년의 이야기가 사진과 함께 조간신문에 동재(桐梓)되었다.
- ③ 고작 칠십 생애에 희로애락을 싣고 각축하다가 한 움큼 부토(抔土)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 ④ 올림픽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새 경기장 건설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강구(講求)되고 있다.

112

밀줄 친 한자가 문맥상 바르게 쓰인 것은? [2015. 국가직 7급]

1차 ‘휴머니스트 선언’이 나온 지 40년이 지난 후 나치즘은 인간이 드러낼 수 있는 야만성의 극한적인 ⑦型態를 드러내었으며, 여타의 전체주의 정책들 또한, 빙곤 상태를 ⑮置放하지도 못하면서 인권만 ⑯蹂躪했다. 더욱이 민주주의 ⑩整體를 가진 사회에서까지도 과학을 악용한 경찰국가의 면모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① ⑦

② ⑮

③ ⑯

④ ⑩

114

다음 팔호 안에 병기된 한자 중에 ‘地’자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2015. 서울시 7급]

- ① 김 주사는 심지(心地)가 고운 사람이다.
- ② ‘입추의 여지(餘地)가 없다’라는 말은 가을과 상관없다.
- ③ 황룡사지는 절터라기보다는 궁지(宮地)라는 주장이 있다.
- ④ 풍년으로 산지(產地)의 쌀값이 전년보다 6% 정도 떨어졌다.

115

다음 중 밀줄 친 단어의 한자로 가장 적합한 것은?

[2015. 서울시 9급]

무언가를 상실해버린 느낌을 지니고 성장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내가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꼬치꼬치 캐물을 때가 종종 있지요. 게다가 시골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이 내 눈엔 참 이상했어요. 마당에다 애써서 기른 집짐승들을 잡아먹는 것도 이상했고, 겨울을 잘 넘기고 해동이 될 때면 마을에 상여가 나가는 일이 많은 것도 이상해서 계속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① 상실: 裂失

② 성장: 盛裝

③ 이상: 異狀

④ 해동: 解冬

116

문장의 의미를 고려할 때, 한자가 잘못 병기된 것은?

[2015. 사회복지직]

- ① 임신부가 진통(陣痛)을 시작하였다.
- ② 그 학자는 평생을 오로지 학문(學問)에만 정진하였다.
- ③ 그의 취미는 음악 감상(感想)이다.
- ④ 그는 자신의 추정(推定)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117

다음 중 ①~⑤의 한자 표기로 옳은 것은? [2015. 국회직 8급]

이때 놀보난 세간 견답 다 차지하고 쟈 혼자 호의호식하며 제 부모 제사를 지내여도 제물은 아니 작만하고 ⑦ 대전으로 노코 지내난대 편 갑이면 편 갑이라, 과실 갑이면 과실 갑이라 각각 써셔 버려 놋코 제사를 ⑧ 철상 후에 하난 말이, “이번 제사에도 아니 쓰노라 아니 쓰노라 하엿건만 황초 갑 오 푼은 지장무쳐일세.” 하난 편하의 몹슬 놈이, 일일은 생각하니 흥보에 가속을 내여쫓치면 양식도 만이 엇고 ⑨ 용처도 떨할지라. 쟈의 부부 의론하고 흥보를 불너 일은 말이, “형데라 하난 것은 어려셔난 갖치 살되 실가를 갖춘 후난 각기 생애하야 사난 것이 셋셋한 법이니 너난 쳐자를 다리고 나가 살나.” 흥보 쌈작 놀나 울며 왈, “형데 난 슈죽 갖흐니 우리 단 두 형데 ⑩ 각산하야 살면 돈목지의 업스리니, 형장은 다시 생각하옵소서.”

⑦	⑧	⑨	⑩
① 代錢	撤床	用處	各產
② 垈田	徹狀	庸處	各算
③ 代錢	撤床	用處	各散
④ 臺前	徹床	庸處	各算
⑤ 垈田	撤狀	用處	各散

118

다음 한자 성어 중 의미가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2015. 서울시 9급]

- | | |
|--------|--------|
| ① 道聽塗說 | ② 心心相印 |
| ③ 拈華微笑 | ④ 以心傳心 |

119

다음 중 한자의 독음이 옳지 않은 것은? [2015. 국회직 9급]

- ① 捺印－눌인, 椅楷－질혹
- ② 謁見－알현, 龜裂－균열
- ③ 漏泄－누설, 敷衍－부연
- ④ 前揭－전개, 行列－항렬
- ⑤ 罷矢－효시, 殺到－쇄도



E B S 공무원 국어 기출문제집



해설편

E B S 공무원 국어 기출문제집

P a r t

01

바른 언어생활

Chapter 01 언어와 국어

01

2019년 기출문제

01

④

해설 하나의 대상을 서로 다르게 언급했으므로 '자의성'에 해당한다.

오답곡

- ① (가)-역사성
- ② (나)-사회성
- ③ (다)-창조성

02

①

해설 조사가 발달한 교착어의 특징이 있다. 그러나 우리말은 어순의 제약이 비교적 자유로울 뿐 제약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02

2018년 기출문제

03

②

해설 '값'은 'ㅅ'이 탈락되어 [갑]으로 발음된다. 우리말은 음절 끝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대표음으로 발음된다.

04

③

해설 김포공항의 방향을 정확하게 묻고 있다. 이것은 직접 발화로 맥락을 파악해야 하는 간접발화가 아니다.

오답곡

- ① 돈 좀 빌려줘.
- ② 창문 좀 열어줄래.
- ④ 모두 과제를 해 오길 바란다.

03

2017년 기출문제

05

②

해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언어가 바뀌는 것을 '언어의 역사성'이라 한다.

06

④

해설 소유 중심의 언어로 대표적인 것은 영어다. 즉 'have, take, get' 등. 우리말은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다' 등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것을 존재 중심의 언어라 한다.

오답곡

① 장애음은 자음을 말한다. 그리고 유성음은 울림소리를 말하는데, 자음 중에는 'ㄴ, ㄹ, ㅁ, ㅇ'이 이에 해당한다. 이중 'ㄴ, ㅁ, ㅇ'은 비음, 그리고 'ㄹ'은 유음인데 3항 대립과는 관련이 없다. 파열음과 파찰음만 3항 대립이 이뤄진다.

• 파열음: ㄱ-ㅋ-ㅋ, ㄷ-ㅌ-ㅌ, ㅂ-ㅃ-ㅍ

• 파찰음: ㅈ-ㅉ-ㅊ

② 우리말은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교착어' 또는 '부착어', '첨가어'라 한다. 굴절어는 아니다.

③ 합용병서 즉 'ㄱ, ㄴ, ㄷ, ㅌ' 등과 같은 둘 이상의 자음이 음절 초에 올 수 없다. 같은 자음자를 나란히 쓴 각자병서는 첫소리에 쓸 수 있다.

04

2016년 기출문제

07

③

해설 큰 그릇에 해당하는 생각을 작은 그릇인 말에 다 담을 수 없다. 즉 말로 생각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서 '사고 우위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소설에 대한 감동을 말로 다 담을 수 없다는 ③이 적절하다.

오답곡

- ① 언어의 자의성
- ② 언어의 사회성
- ④ 언어의 사회성

08

④

해설 ‘언어의 체계성’에 해당한다.

09

③

해설 인사말이고 관심의 표현이다. 어색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윤활유와 같은 기능을 한다. ‘친교적 기능’에 해당한다.

10

④

해설 선풍기 광고에 해당하는 글이다. 일반적으로 광고는 ‘언어의 지령적 기능’에 해당한다. ‘오락 기능’은 없다.

오답록

- ① 지령적 기능에는 선풍기를 사 달라는 호소 기능이 있다.
- ② 바람을 차게 하는 기능, 어린이를 보호하는 기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③ 고장 시 즉시 새 물건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11

①

해설 ‘심지어(甚至於), 어차피(於此彼), 주전자(酒煎子)’ 등은 한자어로 적을 수 있는 말로 한자어 계통의 단어다.

12

①

해설 유기음은 거센소리를 말한다. 우리 음운에서 삼중 체계를 보이는 것은 ‘파열음’과 ‘파찰음’이다.

- 파열음: ㄱ-ㅋ-ㅋ, ㄷ-ㅌ-ㅌ, ㅂ-ㅍ-ㅍ
- 파찰음: ㅈ-ㅉ-ㅉ

오답록

- ② 단모음:ㅏ,ㅓ,ㅗ,ㅜ,ㅡ,ㅣ,ㅐ,ㅔ,ㅚ
- ③ 파열과 마찰의 두 가지 성질을 가진 소리를 우리는 ‘파찰음’이라 한다.
- ④ j+a → ㅑ, w+a → ㅕ

13

①

오답록

- ② ‘ㅇ’과 사이시옷은 개별 음소로 보지 않는다.
- ③ 북한에서는 ‘ㄱ’은 ‘기윽’, ‘ㄷ’은 ‘디읍’, ‘ㅅ’은 ‘시읏’으로 명칭한다.
- ④ ‘ㅋ’은 가획이 아니라 병서의 원리로 적은 것이다.

05

2015년 기출문제

14

⑤

해설 부정적 의미만으로 사용했던 ‘너무’가 이제 긍정적 의미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언증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언어는 언증의 약속을 따라야 한다는 ‘사회성’에 근거한 변화로 봐야 한다.

15

④

해설 ‘황소’에서 ‘황’은 ‘수탉’을 의미하는 접두사에 해당한다. 즉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다

16

②

해설 형태는 생김새를 이른다. 즉 언어의 생김새를 연구하는 것이 형태론이다. 이는 단어 하나하나의 생김새를 보는 것인데 어근과 접사 또는 어간과 어미의 관계를 살피는 것을 찾으면 된다. 나머지는 모두 문장구조와 관련이 되는 통사적 특징에 해당한다.

Chapter 02 바른 현대문법

01

2019년 기출문제

01

①

- 해설** 음운에는 음소(音素)와 운소(韻素)가 있다. 소리의 강약이나 고저, 장단 등은 운소로 '비분절 음운'이라 한다.
- **분절 음운(分節音韻, 일명 音素):** 음절을 분리할 수 있는 음[자음(子音)과 모음(母音)]
 - **비분절 음운(非分節音韻, 일명 韻素):** 음절을 분리할 수 없는 음(강세, 고저, 장단)

[오답록]

- ② 단 하나의 소리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단어가 된 단어쌍을 바로 '최소 대립쌍' 혹은 '최소 변별쌍'이라고 한다.
예 물/ 불(口과 뇌이 최소 대립쌍이 된다.)
- ③ 한 음소에 속하면서 음성적으로는 다르게 실현된 소리들을 변이음이라고 한다.
예 고개첫 번째 'ㄱ(k)'와 두 번째 'ㄱ(g)'은 음성적으로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음운으로 처리한다.)
- ④ 물리적 차원의 소리인 음성과 달리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 즉 심리적 추상적 차원의 소리를 기호로 표시한 것이 음운이다.

02

④

해설 '놀다'는 '놀아' 등으로 활용하는 규칙용언이다.

[오답록]

- ① 묻다: 물어 (ㄷ 불규칙)
- ② 덥다: 더워 (ㅂ 불규칙)
- ③ 낫다: 나아 (ㅅ 불규칙)

03

①

해설 부엌일 → [부엌닐: 음절끝소리 규칙(교체)/ 'ㄴ'첨가] → [부엉닐: 비음화(교체)]

[미소록]

1. 교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소리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일곱 자음 중의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부엌[부억], 옷[온], 꽃[꼴], 히읗[하을], 앞[압]
 - (2) 비음화: 'ㄱ, ㄷ, ㅂ'이 비음 'ㅁ, ㄴ, ㅇ'앞에서 비음 'ㅇ, ㄴ, ㅁ'으로 바뀌는 현상
예 국물[궁물], 받는다[반는다], 밤물[밤물]

(3) 유음화: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ㄹ'로 바뀌는 현상

예 신라[실라], 촐나[찰라]

(4) 구개음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ㅓ'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센입천장소리 'ㅈ, ㅊ'이 되는 현상

예 굳이[구지], 같이[가지], 붙여[부처]

2. 탈락: 두 음운이 만나면서 한 음운이 사라져 소리 나지 않는 현상

(1)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

예 둑[뚝], 훑[孽], 깁[갑]

(2) 'ㅎ'탈락: 주로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ㅎ'이 탈락하는 현상

예 넣은[너은], 쌓이다[싸이다]

(3) 'ㅡ'탈락: 'ㅡ'가 다른 모음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예 쓰+어라 → 써라, 담그+아도 → 담가도

3. 첨가: 두 형태소가 결합할 때 없던 음운이 덧붙는 현상

(1) 사잇소리 현상

- 예사소리의 된소리화: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어울려 합성 어를 이를 때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이면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현상

예 촹불(초+불)[초뿔/총뿔], 범길(범+길)[범길]

- 'ㄴ'첨가: 합성어를 이를 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 ㅁ'으로 시작하면 'ㄴ'소리가 첨가되고, 앞말의 음운과 상관없이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ㅓ'로 시작할 때 'ㄴ'이 하나 혹은 둘이 첨가되는 현상

예 콧날(코+날)[콘날], 잇몸(이+몸)[인몸]

(2) 반모음 첨가: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야/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거나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조사 '에'가 결합 때 반모음 'ㅣ'나 'ㅗ'가 생기는 현상

예 피어도[피여도], 학교에[학교에]

4. 축약: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

(1) 거센소리되기: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ㅋ, ㅌ, ㅍ, ㅊ'이 되는 현상

예 놓고[노고], 쌓다[싸타], 법학[버팍], 옮지[올치]

(2) 모음 축약: 모음 'ㅣ'나 'ㅗ'가 다른 모음과 결합하여 이중 모음을 이루는 현상

예 오+아서 → 와서	두+었다 → 었다	뜨+이다 → 띄다
되+어 → 돼	가지+어 → 가져	쓰+이어 → 쓰여, 씌어

04

①

해설 집일: 집닐(ㄴ첨가) → 짐닐(교체), 음운이 하나 늘었다.

[오답록]

② 닭만: 닥만(ㄹ 탈락) → 당만(교체)

③ 뜻하다: 뜯하다(교체) → 뜯타다(축약)

④ 맡는: 맡는(교체) → 만는(교체), 음운의 개수는 같다.

05

①

[해설]

- ② 어간 받침 ‘ㄴ’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이 된소리로 발음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외가 있는 것으로 비자동 교체에 해당한다.
- ③ 모든 ‘ㅂ’ 뒤에 ‘은’이 [운]으로 발음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ㅂ’ 불규칙에 따라 발음된 것이다. 비자동 교체에 해당한다.
- ④ ‘ㄱ’과 ‘ㄴ’이 연속될 때 ‘ㄱ’이 비음 ‘ㅇ’으로 발음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므로 자동 교체의 예다.

06

②

[해설]

형용사다. 나머지는 ‘동사’에 해당한다.

07

④

[해설]

- ① ‘하늘소’는 순우리말로 한자어 ‘ㄹ’ 뒤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발전’은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해당하지 않고, ‘물동이’는 순우리 말에 해당한다.
- ③ ‘열’은 관형사로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것이 아니다.

08

③

[해설]

‘밝는’은 동사다. 나머지는 모두 형용사에 해당한다.

09

②

- ① 크지: 동사.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
- ② 나서: 동사. 흥수, 장마 따위의 자연재해가 일어나다.

[오답록]

- ① 다른: 형용사.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
- ② 허튼: 관형사. 쓸데없이 헤프거나 막된
- ③ 아닐까: 형용사. (의문형으로 쓰여) 물음이나 짐작의 뜻을 나타내는 말. 사실을 긍정적으로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10

③

[해설]

‘과’는 접속조사다.

- 과: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 [오답록]
- ① 과: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② 하고: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④ 와: 일 따위를 함께 함을 나타내는 격 조사

11

①

[해설]

– 리만큼: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사-’, ‘-으오-’ 뒤에 붙어 ‘-ㄹ 정도로’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리만치)

12

④

[해설]

‘동사-형용사’

13

④

[해설]

‘포돌이는 웃는다.’와 ‘포순이는 웃는다.’를 결합하려고 쓴 접속 부사(문장 부사)이다.

[오답록]

- ① 접속 부사
② 접속 조사
③ 두 단어를 연결하는 접속 조사

14

②

[해설]

정(어근: 명사)+답다(접미사): 형용사
– ‘답다’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지배적 접사이다.

[오답록]

- ① ‘보기’는 동사의 명사형으로 ‘기’는 명사형 어미다.
③ ‘크다’는 동사의 명사형으로 ‘기’는 명사형 어미다.
④ ‘질’은 품사를 바꿀 수 없는 한정적 접사이다.

15

②

[해설]

‘모자르다’는 ‘—’ 탈락의 용언이다. 그러므로 ‘모자르+아서’가 되면 ‘모자라서’로 적는 것이 옳다. 나머지는 모두 ‘ㄹ’ 불규칙 용언이다.

16

②

[해설]

보조사를 사용한 문장성분을 물은 것이다. ‘날아가다’는 자동사로 ‘마음만은’은 주어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목적어다.

17

①

[해설]

단체 뒤에 ‘에서’는 주격조사로 쓰인다. ‘시에서’의 문장성분은 주어다. 나머지는 모두 부사어다.

18

②

해설 '아주'는 '새 사람이 되었더라'를 수식하는 부사어다.

오답록

- ① '말씀'을 수식하는 '관형어'
- ③ '옆집'을 수식하는 '관형어'
- ④ '꽃'을 수식하는 '관형어'

19

③

해설

- ⑦ 대등하게 문장을 연결해 주는 어미
- ㉡ 종속적(계기)으로 문장을 연결해 주는 어미

20

③

해설 「2」에 해당한다.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원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내는 어미.

21

③

해설 '의지'를 나타내지만, 나머지는 '추측'의 의미다.

22

②

해설 • 짜-이-ㅁ-사

오답록

- ① 파-김치
- ③ 주름-살
- ④ 지르-ㅁ-길

23

②, ④

해설 문제 오류. 정밀하지 않은 출제로 답이 두 개가 된다.

- 맛나다-파생어
- 남(과) 다르다-부사어+서술어

오답록

- ① 손쉽다: 손(이) 쉽다-주어+서술어
- ③ 시름없다: 시름(이) 없다-주어+서술어

24

②

해설 새(접두사)+빨갛다(어근), 놀(어근)+이(접미사)

오답록

- ① 치(접두사)+솟다(어근), 고무(어근)+신(어근)
- ③ 얹(어근)+매다(어근), 뜯(접두사)+사방(어근)
- ④ 깔(어근)+주리다(어근), 까막(어근)+까uchi(어근)

25

①

해설 뜨-어-내리-어-가-았-다(7개)

오답록

- ② 따르-아-버리-었-다(5개)
- ③ 빌-어-먹-었-다(5개)
- ④ 여쭈-어-보-았-다(5개)

26

③

해설 동격 관형절이다. 나머지는 관계 관형절이다.

오답록

- ① 영수가 음식을 만들다.
- ② 영수가 질문을 하다.
- ④ 영수가 소문을 듣다.

27

④

해설 '맛비'는 '장마'의 옛말이다. 그런데 '장맛비'는 '장마에 내리는'는 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어의가 축소된 예에 해당한다.

- 장마: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 또는 그 비
- 장맛비: 장마 때에 오는 비

28

①

해설 '이모'는 어머니의 여자 혈족을 의미한다. 여기에 여성 종업원이라는 의미가 덧붙은 것이다.

오답록

- ② 유의어가 생긴 것(새로운 어휘)
- ③ 줄임말
- ④ 소멸된 말

02 2018년 기출문제

29

①

해설 단모음(單母音):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모음으로 현대국어에는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ㅚ, ㅟ' 등 10개의 단모음이 있다.

오답록

- ② ㅕ
- ③ ㅙ
- ④ ㅞ

30

④

해설 ‘시’와 ‘주’는 음운 단위의 변이음이 아니다.

오답록

- ① ㅐ, ㅔ
- ② 소리의 장단(비분절 음운)
- ③ ㄱ, ㅂ

31

②

해설 장단은 자음은 상관이 없고, 모음에만 해당한다.

32

③

해설 파열음 ‘ㅂ, ㅃ, ㅍ’과 비음 ‘ㅁ’은 양순음에 해당한다. 그러나 마찰음(ㅅ, ㅆ, ㅎ)에는 양순음이 없고, ‘ㄷ’은 파열음으로 ‘비음’이 아니다.

33

②

해설 ‘ㅁㅅ’에서 ‘ㅁ’은 입의 모양을 본뜬 입시울쓰리(순음)이고 ‘ㅅ’은 치아의 모양을 본뜬 니쓰리(치음)이다. 그러므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다르다. 잘못된 설명이다. 이것은 ‘순음’ 다음에 ‘치음’이 온 순서를 따른것이다로 설명하는 것이 옳다.

오답록

- ① ‘ㅅ’과 ‘ㅈ ㅊ’은 치음으로 함께 배치할 수 있다.
- ③ 훈민정음 창체 당시 ‘ㄴ’에 가획을 해 ‘ㄷㅌ’을 만들고 이체자 ‘ㄹ’을 제시했다. 그런데 표처럼 구성한 것은 순서가 아닌 소리의 유사성으로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ㅇ’는 훈민정음에서 ‘아음’으로 ‘ㄱㅋ’과 같은 계열로 분류했다.

34

②

해설

- [떡닙]: ‘ㄴ’첨가(사잇소리 현상), 대치(음절끝소리규칙)
- [땅닙]: 대치(비음화)

오답록

- ① [끈하고]: 대치(음절끝소리규칙), [파타고]: 축약
- ③ [발꼬]: 탈락(자음군 단순화), 대치(된소리되기 현상)
- ④ [부억또]: 대치(음절끝소리규칙, 된소리되기 현상)

35

③

해설 끊는: [끌는: 탈락] → [끌른: 대치]

오답록

- ① [갑찐]: 탈락, 대치
- ② [박꽈]: 대치
- ④ [반또]: 대치

36

①

해설 ‘ㄱ’이 비음화 현상으로 ‘ㅇ’으로 바뀐 것인데, ‘교체’에 해당한다.

오답록

- ② 연철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받침을 뒤에 옮겨 발음한 것이다. ‘탈락’은 일어나지 않았다.
- ③ ‘ㄱ’이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ㄱ’으로 바뀐 ‘교체’다. 그리고 뒤에 ‘ㄱ’은 ‘첨가’로 볼 수 있다.
- ④ ‘ㄱ’이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ㄱ’으로 바뀐 ‘교체’다. 그리고 뒤에 ‘ㅈ’은 ‘첨가’로 볼 수 있다.

37

③

해설

- 꽃내음[꼰내음]: [꼰내음-중화] → [꼰내음-비음화]
- 바깥일[바깥닐]: [바깥닐-중화, 첨가] → [바깥닐-비음화]
- 학력[학녁]: [학녁] → [학녁-비음화]

38

①

해설 ‘손난로’는 [손날로]로 발음된다. 뒤에 유음 ‘ㄹ’의 영향으로 앞에 ‘ㄴ’이 유음으로 변한 역행의 방향성을 띤 유음화 현상이다.

오답록

- ② 불놀이[불로리]: 순행, 유음화
- ③ 찰나[찰라]: 순행, 유음화
- ④ 강릉[강능]: 순행, 비음화

39

③

해설

- ㄴ. 국화: ㄱ, ㄴ, ㄱ, ㅎ, ㄳ (5개)
- 축약 [구과]: ㄱ, ㄴ, ㅋ, ㄳ (4개)
- ㄷ. 솔잎: ㅅ, ㄴ, ㄹ, ㅣ, ㅍ (5개)
- ㄴ첨가·음절끝소리규칙 [솔닙], 대치(유음화) [솔립]: ㅅ, ㄴ, ㄹ, ㄹ, ㅣ, ㅂ (6개)

오답록

- ㄱ. 발전: ㅂ, ㅏ, ㄹ, ㅈ, ㅓ, ㄴ (6개)
- ㄴ. 첨가 [발전]: ㅂ, ㅏ, ㄹ, ㅈ, ㅓ, ㄴ (6개)
- ㄷ. 독립: ㄷ, ㄴ, ㄱ, ㄹ, ㅣ, ㅂ (6개)
- 대치 [독립], 대치(비음화) [동닙]: ㄷ, ㄴ, ㅇ, ㄴ, ㅣ, ㅂ

40

③

해설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ㅑ, ㅓ, ㅕ’인 어간 뒤에 붙어 가정이나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는 ‘-아도’다. ‘가+아도’에서 동일한 모음 ‘-아’가 연속되어 그중 하나가 탈락한 것이다.

41

③

- 푸르다: 푸르+어 → 푸르러(어미가 바뀐 '러'불규칙)
- 하다: 하+아 → 하여(어미가 바뀐 '여'불규칙)
- 노르다: 노르+아 → 노르러(어미가 바뀐 '러'불규칙)

〔오답록〕

- ① 놉다: 놉+어 → 누워('ㅂ'이 'ㄱ'으로 바뀐 'ㅂ불규칙'으로 탈락으로 보지 않는다.)
- ② 씻다: 씻+어 → 씻어(규칙 용언)
- ④ 좋다: 좋+아 → 좋아(규칙 용언)

42

②

〔해설〕 '동사의 어간'은 실질형태소이면서 의존형태소에 해당한다.

43

③

〔해설〕 –겠–: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뒤에 붙거나 다른 어미 앞에 붙어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

〔오답록〕

- ① 헤아리거나 따져 보면 그렇게 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 ②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
- ④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

44

①

〔해설〕 '가다'의 '하게'체 청유형은 '가세'로 적는다.

〔오답록〕

- ② '해라'체의 명령형
- ③ '하게'체의 명령형
- ④ '하오'체의 명령형

45

③

〔해설〕 '–면서'는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겹하여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다. 그러므로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옳지 않다.

〔오답록〕

- ① 은: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수학과 국어가 대조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쓸 수 있으므로 '수학 성적은 참 좋군, 국어 성적은 나쁘지만'처럼 쓸 수 있다.
- ② •라고: 앞말이 직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고: 앞말이 간접 인용 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④ •로써: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
•로서: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

46

③

〔해설〕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시거든 내게 꼭 기별을 해라.'처럼 명령문을 쓸 수 있다.

〔오답록〕

- ① 나는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갔다.: 선행절(나)과 후행절(나)의 주어가 일치한다.
- ②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올해 안으로 일을 마쳐야 한다.: '–더라도'는 단정적 현재형으로 적어야 한다.
- ④ 그놈이 제아무리 장사인들 이 바위를 들겠느냐?: 들지 못한다는 반어적 의미를 띤 수사의문문이다.

47

①

〔해설〕 부사 '정말'은 부사 '많이'를 꾸며주고 있다.

48

④

〔해설〕 '당신'은 앞에 나온 명사 '할아버지'를 가리키는 3인칭 재귀대명사다.

49

③

〔해설〕 '백'은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로 명사가 아니다.

50

③

〔해설〕 못하다: 형용사 뒤에서 '–지 못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태에 미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다.

〔오답록〕

- 못하다: 동사 뒤에서 '–지 못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에 대하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것을 이를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다.

51

①

〔해설〕 '갖은'은 '고생'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다. 나머지는 모두 '부사'다.

52

②

〔해설〕 '는'은 주격 조사가 아니라 '보조사'이다.

- 는: 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어 문장 속에서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53

③

해설 ‘바로’, ‘특히’와 같이 일부 체언 앞에서 그 체언에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부사도 있다. 즉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예) 내가 찾는 사람은 바로 너야.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학생들이 부지런하다.

[오답곡]

- ① 관형사는 체언만 수식한다.
- ② “미소는 시골 풍경을 좋아한다.”처럼 ‘시골’이라는 명사가 관형어가 되어 ‘풍경’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 ④ “빨리만 와라”처럼 보조사가 부사에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54

②

해설 서술성이 없으므로 파생명사에 해당한다.

[오답곡]

- ①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파생명사’다.
- ③ ‘점’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파생명사며, ‘점’은 서술성이 있는 용언의 명사형이다.
- ④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용언의 명사형이다.

55

④

해설 ‘겸’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다.

[오답곡]

- ① 부사: ‘편하다’라는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
- ② 부사: 명사와 명사 사이에 쓰이거나, 문장과 문장 사이에 쓰여 어떤 사실을 더 강조할 때 쓰는 부사.
- ③ 부사: ‘낫다’라는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

56

①

해설 ‘가다’의 의미가 있는 본용언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보조용언이다.

57

①

해설 ‘줄다’의 의미와 ‘버리다’의 의미가 모두 살아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본용언’과 ‘본용언’의 결합으로 봐야 한다.

[오답곡]

- ② 척한다: 보조동사
- ③ 본다: 보조동사
- ④ 간다: 보조동사

58

②

해설 ‘말렸다’는 본래의 뜻을 지닌 본용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띠어 써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뒤 용언이 보조용언이므로 띠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쓸 수 있다.

59

②

해설 부사어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 성분 부사, 문장 부사, 접속 부사로 구분된다. ‘비겁하게’는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뒤에 오는 서술어만 수식하는 ‘성분 부사’이다.

60

④

[오답곡]

- ① ①은 문장 부사어에 해당한다.
- ② ②은 성분 부사어에 해당한다.
- ③ ③은 비교를 의미하는 성분 부사이다.

61

③

해설 ‘걱정이다’는 자동사로 목적어가 없어도 된다. 여기서 ‘를’은 연결어미 뒤에 붙어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다. ‘건강하지를’은 서술어에 해당한다.

62

②

해설 그가 스스로 굽힌 허리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사동이다.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점미사로 볼 수 없다.

63

③

해설 ‘가아지다’는 행동의 진행에 따른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과정화’의 의미가 두드러진 것이다. 나머지는 ‘피동의 의미’만 있다.

64

②

해설 ‘–하다’로 충분한 경우에 ‘–시키다’를 쓰는 것은 사동형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다. 자기가 입원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입원하게 한 것이므로 ‘입원시키다’로 쓰는 것이 옳다.

[오답곡]

- ① 그는 김 교수에게 박 군을 소개했다.
- ③ 생각이 다른 타인을 설득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다.
- ④ 우리는 토론을 거쳐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다.

65

④

해설 ‘들리다’는 피동사이다.

66

③

해설

- 자동차가 움직이다.(자동사)
- 자동차를 움직이다.(타동사)

오답록

- ① 침을 뱉다.(타동사)
- ② 눈이 쌓이다.(자동사)
- ④ 책을 읽다.(타동사)

67

①

해설 ‘물을었다’라는 서술어는 ‘잎이(주어)’, ‘노랗게(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다.

오답록

- ② 그는(주어), 소설책을(목적어): 두 자리 서술어
- ③ 저 사람은(주어), 다른 사람이(보어): 두 자리 서술어
- ④ 그녀는(주어), 행운을(목적어), 당연하게(필수 부사어): 세 자리 서술어

68

①

해설 ‘기뻐하다’에서 ‘–하다’는 지배적 접사로 단어의 품사를 바꾼다.

오답록

- ② ‘시–(접두사)+누이(어근): 접두파생명사
- ③ ‘빗–(접두사)+나마다(어근), 공부(어근)+–하다(접미사): 파생동사
- ④ ‘한–(접두사)+여름(어근): 파생어

69

③

해설

- 쌀찌(부사)+곰보(명사): 비통사적 합성어
- 딱딱(부사)+새(명사): 비통사적 합성어

오답록

- ① 덮(용언의 어간)+밥(명사): 비통사적 합성어
- ② 얼룩(명사)+소(명사): 통사적 합성어
- ④ 섞(용언의 어간)어(연결어미)+찌개(명사): 비통사적 합성어

70

④

해설 책(어근)+가방(어근): 합성어

오답록

- ① 가위(어근)+질(접미사): 파생어
- ② 달리(어근)+기(접미사): 파생어
- ③ 멋(어근)+챙이(접미사): 파생어

71

④

해설

- 덮(용언의 어간)+밥(명사): 비통사적 합성어
- 부슬(부사)+비(명사): 비통사적 합성어
- 높(용언의 어간)+푸르다(용언): 비통사적 합성어

오답록

- ① ‘우리나라, 우리글, 우리말’은 합성어로 구가 아닌 한 단어다.
- ② 접사와 어근의 결합은 ‘파생어’라 한다.
- ③ 앞뒤(대등 합성어), 순수건(종속 합성어), 춘추(春秋: 융합 합성어)

72

④

해설 ‘알(접두사)’과 ‘부자(어근)’의 결합으로 파생어에 해당한다.

73

④

해설 양보의 의미가 있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오답록

- ①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
- ② 부사절을 안은 문장
- ③ 명사절을 안은 문장

74

①

해설 ‘조사하다’라는 서술어가 반복되어 생략되었다.

오답록

- ② 봉사 활동의 행동 주체는 ‘관내 중학생들’이다.
- ③ C 연구사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발표를 수행한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C 연구사가 결과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 C 연구사가 발표를 수행한다.
- ④ ‘은’은 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다.

03 2017년 기출문제

75

(3)

해설 파생명사가 아닌 용언의 명사형을 찾으면 된다. '높음'은 서술성이 있는 형용사의 명사형이다. 나머지는 모두 서술성이 없는 '파생명사'에 해당한다.

76

(2)

해설 ⑦과 ⑧ 모두 앞에 나온 명사 '형님'을 가리키는 재귀대명사로 3인칭이다.

77

(3)

해설 모두 부사에 해당한다.

오답록

- ① 명사, 부사
- ② 명사, 조사
- ④ 관형사, 대명사

78

(1)

해설 '수효나 분량, 정도 따위가 일정한 기준을 넘다'의 뜻을 지닌 '형용사'다.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할 때는 '-ㄴ다'나 '-는다'를 넣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오답록

- ② 동사.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
- ③ 동사. 동식물 몸의 길이를 자라게 하다.
- ④ 동사. 사람이나 동물, 식물 따위가 나이를 많이 먹다. 사람의 경우에는 흔히 중년이 지난 상태가 됨을 이른다.

79

(3)

해설 '휘두르다'와 '자르다'는 각각 '휘둘러, 잘라' 등으로 활용하는 'ㄹ' 불규칙에 해당한다.

오답록

- ① 누르다: 누르+어 → 누르러 (러 불규칙)
오르다: 오르+아 → 올라 (르 불규칙)
- ② 이르다: 이르+어 → 이르러 (러 불규칙)
구르다: 구르+어 → 굴러 (르 불규칙)
- ④ 부르다: 부르+어 → 불러 (르 불규칙)
푸르다: 푸르+어 → 푸르러 (러 불규칙)

80

(2)

해설 '덮밥'은 '덮다'의 용언의 어간에 '밥'이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다. 그러므로 파생어 '덮밥'이라 한 것을 옳지 않다.

81

(2)

해설 '애'는 저모음이고 '에'는 중모음에 해당한다. 즉 혀의 높낮 이를 구별하지 못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미소록 국어의 단모음

허의 앞뒤	입술 모양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모음(폐모음)		ㄻ	—	━	━
중모음	ㅔ	ㅚ	ㅓ	ㅗ	ㅗ
저모음(개모음)	ㅐ	ㅡ	ㅏ	ㅓ	ㅓ

82

(3)

해설 'ㅂ'은 양순음이고, 'ㄱ'은 연구개음이다.

오답록

- ① 'ㄱ'은 연구개음이고, 'ㄹ'은 치조음이다.
- ② 'ㅁ'은 양순음이고, 'ㅂ'도 양순음이다.
- ④ 'ㅎ'은 후음이고, 'ㄱ'은 연구개음이다.

미소록 국어의 자음 체계

소리내는 위치 소리내는 방법	소리내는 위치		입술	허끌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노청
	예사소리	된소리					
안울림 소리 [無聲音]	파열음 (破裂音)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破擦音)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울림소리 [有聲音]	마찰음 (摩擦音)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울림소리 [有聲音]	비음(鼻音)		ㅁ	ㄴ		ㅇ	
	유음(流音)			ㄹ			

83

(1)

해설 자음군 단순화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때는 뒤로 연철되어 발음된다.

-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 ① 뛰[목], 훑[흑], 값[깁]

84

①

해설 ‘ㄴ, ㅁ, ㅇ’은 비음이다. 유음은 ‘ㄹ’을 일컫는다.

85

④

- 해설** ‘한여름’을 [한녀름]으로 발음한 것은 ‘ㄴ’이 첨가된 것이다.
- 오답록**
- ① ‘국민’을 [궁만]으로 발음한 것은 비음화 현상인데, 이것은 ‘ㄱ’이 ‘ㅇ’으로 바뀐 ‘대치’에 해당한다.
 - ② ‘물난리’를 [물랄리]로 발음한 것은 유음화 현상으로, ‘ㄴ’이 ‘ㄹ’로 바뀐 ‘대치’다.
 - ③ ‘입고’를 [입꼬]로 발음한 것은 된소리 되기 현상이다. 이것은 ‘ㄱ’첨 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ㄱ’이 ‘ㅋ’으로 바뀐 ‘대치’로도 볼 수 있다.

86

②

해설 ‘백로’와 ‘박력’은 받침 ‘ㄱ’뒤에 ‘ㄹ’이 오면 [ㄴ]으로 발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ㄴ’으로 바뀌고 다시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 ‘ㄱ’이 [ㅇ]으로 발음된 것이다. 애초에 ‘ㅇ’ 뒤에 ‘ㄹ’이 ‘ㄴ’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옳지 않다.

오답록

- ① 두음법칙
- ③ • 의견란, 생산량: ‘ㄴ’으로 끝난 한자어에 접미사의 성격을 가진 ‘ㄹ’ 시작의 한자어가 오면 [ㄴㄴ]으로 발음한다.(절음법칙)
- 편리, 난로: 유음화 현상

87

②

해설

- 불다: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 ㄷ 불규칙’ 용언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ㄹ’로 바뀐 것이다.
- 오답록**
- ① ‘ㄴ’앞에서 ‘ㄹ’이 틀락한 규칙 용언이다.
 - ③ ‘말하다’의 의미인 ‘르 불규칙’ 용언이다.
 - ④ ‘—’가 틀락한 규칙 용언이다.

88

④

해설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된다.

오답록

- ① 대명사
- ② 일반적인 명사에 대한 설명
- ③ 수사

89

②

해설 우리는 9품사가 있는데, ‘접속사’라는 품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소록

- 품사의 분류 기준

형태적	기능적	의미적	역할
불변어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언	관형사, 부사	주로 수식어
	독립언	감탄사	주로 독립어
	관계언	조사	성분 간의 관계 표시 서술격조사는 활용한다.
가변어	용언	동사, 형용사	주로 서술어

90

②

해설 ‘보기’는 동사의 명사형으로 품사는 ‘동사’다. 그리고 ‘보았다’도 역시 동사에 해당한다.

오답록

- ① 관형사/ 형용사: ‘다른’은 서술성이 없을 때는 ‘관형사’, 서술성이 있을 때는 ‘형용사’다.
- ③ 형용사/ 동사: ‘크다’는 상태일 때 ‘형용사’, 진행일 때 ‘동사’다.
- ④ 명사/ 관형사: ‘—적’의 단어는 조사가 붙으면 ‘명사’, 뒤에 체언을 수식하면 ‘관형사’에 해당한다.

91

②

해설

- ⑦ 흐드러지게: 형용사(형용사의 부사형)
- ⑧ 찍은: 동사(동사의 관형사형)
- ⑨ 설레는: 동사(동사의 관형사형)
- ⑩ 충만한: 형용사(형용사의 관형사형)
- ⑪ 없는: 형용사(형용사의 관형사형)

92

③

해설 ‘웃다’는 동사. 나머지는 모두 형용사다.

93

④

해설 모두 형용사다. ⑦ 형용사의 관형사형, ⑧ 형용사의 부사형

오답록

- ① ⑦ 부사, ⑧ 명사
- ② ⑦ 관형사, ⑧ 명사
- ③ ⑦ 형용사 ⑧ 동사

94

③

해설 ‘본인’과 ‘당신’은 할머니를 가리킨다.

오답곡

- ① ‘그쪽’은 2인칭 대명사
- ② ‘할머니’는 가리키지 않는다.
- ④ ‘본인’은 할머니, ‘당신’은 청자

95

①

해설 ‘보거리’는 보조동사, ‘보다’는 추측을 의미하는 보조 형용사다.

오답곡

- ② 보조용언, 본용언
- ③ 본용언, 보조용언
- ④ 본용언, 보조용언

96

②

오답곡

- ① ‘고기 따위의 음식을 양념하여 그릇에 차곡차곡 담아 두다’를 뜻하는 ‘재다’의 본말이다.
- ③ ④은 능력 부정에 해당한다.
- ④ ① 고기 따위의 음식을 양념하여 그릇에 차곡차곡 담아 두다
② 눈이 감기며 의식 없는 상태가 되어 활동하는 기능이 쉬는 상태로 되다

97

②

오답곡

- ① 철이는(주어) 아이가(보어) 아니다(서술어). : 훌륭장
- ③ 철이는(주어), 영선이를(목적어): 두 자리 서술어
- ④ 철이가 편지를 영선이에게 보냈다.: 옳은 문장이다.

98

③

해설 ②은 화자, 즉 ‘우리’가 주어다. 나머지는 모두 ‘환자’가 주어다.

99

③

해설 선생–님–께서–우리–들–에게–숙제–를–주–시–ㄴ–다

- 실질형태소: 선생, 우리, 숙제, 주
 - 형식형태소: 님,께서, 들,에게, 를, 주, 시, ㄴ, 다
 - 자립형태소: 선생, 우리, 숙제
 - 의존형태소: 님,께서, 들,에게, 를, 주, 시, ㄴ, 다
- ‘님’은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

100

④

해설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이며 의존 형태소다. ‘빨갛–’이 여기에 해당한다.

- 형태소 분석: 저–나무–잎–은–참–빨갛–다
- 실질형태소: 저, 나무, 잎, 참, 빨갛
- 형식형태소: 은, 다
- 자립형태소: 저, 나무, 잎, 참
- 의존형태소: 은, 빨갛, 다

101

③

해설

- 부슬비: 부슬(부사)+비(명사)
- 늦더위: 늦(용언의 어간)+더위(명사)
- 굶주리다: 굶(용언의 어간)+주리다(용언)

오답곡

- ① ④ 힘(명사)+들다(용언): 통사적 합성어
- 작은(용언의 관형사형)+집(명사): 통사적 합성어
- 둘[(용언의 어간)+아(연결어미)]+오다(용언): 통사적 합성어
- ② ④ 겹(용언의 어간)+붉다(용언): 비통사적 합성어
- 굳(용언의 어간)+세다(용언): 비통사적 합성어
- 밤(명사)+낮(명사): 통사적 합성어
- ④ ④ 빛(명사)+나다(용언): 통사적 합성어
- 보(용언의 어간)+살피다(용언): 비통사적 합성어
- 오르(용언의 어간)+내리다(용언): 비통사적 합성어

102

①

오답곡

- ② 파생어
- ③ 파생어
- ④ 파생어

103

①

해설 제시된 단어는 모두 파생어다. ‘건(乾)–’은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마른’ 또는 ‘말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다. 그러므로 ‘건어물’은 파생어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합성어다.

104

③

해설

- 강–: ((몇몇 명사 앞에 붙여) ‘마른’ 또는 ‘물기가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오답곡

- ① 강염기(強鹽基): 수용액에서 수산화 이온과 양이온으로 완전히 해리되는 염기. 수산화 칼륨, 수산화 나트륨 따위가 이에 속한다.

- ② 강타자(強打者)
④ 강행군(強行軍)

105

①

해설

- 슬기: 명사, 슬기롭다: 형용사
• 접(용언의 어간)+칼(명사): 비통사적 합성어

오답록

- ② 무당: 명사, 선무당: 명사
 늦(용언의 어간)+찰(명사): 비통사적 합성어
③ 공부: 명사, 공부하다: 동사
 힘(명사)+들다(용언): 통사적 합성어
④ 먹다: 동사, 먹이: 명사
 잘(부사)+나가다(용언): 통사적 합성어

106

①

해설 수식하는 절과 수식받는 말이 의미가 같은 동격 관형절이다. ‘소리’가 곧 ‘비가 오다’이다. 나머지는 수식받는 말이 수식하는 절의 문장 성분이 되는 관계 관형절이다.

오답록

- ② 철수는 새로 양복을 맞쳤다.
③ 나는 길에서 지갑을 주었다.
④ 윤규가 지하철에서 사람을 만났다.

107

③

해설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다.

오답록

- ① 명사절을 안은 문장
② 부사절을 안은 문장
④ 명사절을 안은 문장

108

①

해설 밥을 먹지 않았다면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보는 것이 옳다.

오답록

- ② 대조의 의미가 있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③ 조건의 의미가 있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④ 배경의 의미가 있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109

③

해설 용언의 어간 ‘가’에 해라할 자리에 쓰여,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자’가 쓰인 것이다.

오답록

- ① 자+아: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ㅗ’인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사실을 서술하거나 물음·명령·청유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야’가 틸락했다.
② 서+어서: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ㅗ’가 아닌 용언의 어간 뒤나 ‘이다’,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어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어서’에서 동음 ‘-어’가 틸락했다.
④ 가+아: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ㅗ’인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연결하는 데 쓰는 연결 어미 ‘-아’가 틸락했다.

04

2016년 기출문제

110

②

해설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ㅌ’이 ‘ㅊ’으로 교체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발음은 ‘ㅊ’ 아래에서 이중모음 ‘ㅑ’는 단모음으로 발음되므로 [부처]가 된다.

111

④

해설 [다치다]: ㄷ과 ㅎ이 축약되어 ‘ㅌ’이 되고 다시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교체에 해당한다.

오답록

- ① [놓치다]: 교체
② [허두슴]: 교체
③ [똑까치]: 된소리 되기(첨가), 구개음화(교체)

112

②

해설 ‘비음’과 ‘유음’의 분류는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다.

113

④

해설 ‘ㅏ’와 ‘ㅓ’가 결합해서 동음 ‘ㅏ’가 없어진 동음 틸락현상이다.

오답록

- ① ‘ㅎ’과 ‘ㄷ’이 결합해 ‘ㅌ’이 되고, ‘ㅎ’과 ‘ㅈ’이 결합해 ‘ㅊ’이 된 축약 현상이 일어났다.
② ‘ㄱ’과 ‘ㅓ’가 결합해 ‘꺄’가 된 축약현상이다.
③ ‘ㄱ’과 ‘ㅎ’이 결합해 ‘ㅋ’이 되고, ‘ㅈ’과 ‘ㅎ’이 결합해 ‘ㅊ’이 된 축약 현상이 일어났다.

114

①

해설 「흙내」는 흙의 냄새를 뜻하는 합성어다. 먼저 [흙내]로 음절 끝소리 규칙 그리고 [흙내]로 비음화 현상이 일어났다.

오답곡

- ① 파생어. '-내'는 '그 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의미하는 접미사다.
- ② 파생어. '-내'는 '그때까지'를 의미하는 접미사다.
- ③ 단일어

115

③

해설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내는 어미.

오답곡

- ①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어미.
- ②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어미.
- ④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 인 양 말할 때 쓰이는 어미.

116

②

해설 「한둘」은 '하나나 둘쯤 되는 수'를 의미하는 '수사'에 해당 한다. 나머지는 모두 뒤에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다.

117

②

해설 '부족하다'는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뜻의 형용사다.

오답곡

- ① 동사. 기준이 되는 양이나 정도에 미치지 못하다
- ③ 동사.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
- ④ 동사. 수나 분량, 시간 따위가 본디보다 많아지다.

118

②

해설 '하고많은'은 '하고많다'라는 형용사가 관형사형으로 활용 한 것이다. 그러므로 '형용사'다.

119

④

해설 '몸담다'라는 본용언과 보조용언 '있는'을 연결하는 어미다. 나머지는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대등하게 벌여 놓는 연결 어미에 해당 한다.

120

①

해설 타율, 한, 독보적, 기록**오답곡**

- ② 상자, 것
- ③ 친구, 외, 사람
- ④ 모퉁이, 얼굴, 이

121

②

해설 동사의 관형사형이다. 즉 품사는 '동사'다**오답곡**

- ① 형용사
- ③ 형용사
- ④ 형용사

122

①

해설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일부 연결 어미 뒤에 붙어)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에 해당한다.

123

①

해설 ① 뜨-어-나-아-가-있(ㅅ)-더-ㄴ-배-가-돌-아-오-았-다(15개)

오답곡

- ② 머리-를-속-이-어-청-하-오-니(9개)
- ③ 잇-따르-아-부르-어-들-이-었-다(9개)
- ④ 아끼-어-쓰-는-사람-이-되-자(8개)

124

③

해설 두 자리 서술어: 철수의 생각은(주어), 나와는(부사어)

125

①

해설 꽃-+-이(파생어) → 책+꽃이 (합성어)

오답곡

- ② 혓-+소리(파생어)
- ③ 가리-+-개(파생어)
- ④ 흔들-+리(파생어) → 흔들리-+ㅁ(파생어)

126

②

해설 접(용언어의 어간)+칼(명사), 굽(용언의 어간)+주리다(용언), 부슬(부사)+비(명사), 검(용언의 어간)+붉다(용언)

오답록

- ① 모두 통사적 합성어: 슬(명사)+나무(나무), 빛(명사)+나다(용언), 살(명사)+고기(명사), 나아(용언의 어간+연결어미)+가다(용언)
- ③ 통사적 합성어: 새(관형사)+해(명사)
비통사적 합성어: 감(용언의 어간)+발(명사), 둑(용언의 어간)+발(명사), 오(용언의 어간)+가다(용언)
- ④ 통사적 합성어: 큰(용언의 관형사형)+집(명사), 안(명사)+밖(명사)
비통사적 합성어: 늦(용언의 어간)+더위(명사), 출렁(부사)+새(명사)

127

①

오답록

- ② 빛나다(합성어). 나머지는 모두 파생어
- ③ 치솟다, 먹히다: 파생어. 나머지 합성어
- ④ 터럭(파생어). 나머지 합성어
- ⑤ 높푸르다(합성어). 나머지는 파생어

128

②

해설 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 어순을 따른 합성어이고, 비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 어순이 아닌 합성어를 일컫는다.

- 덮(용언의 어간)+밥(명사): 비통사적 합성어
- 짙(용언의 어간)+푸르다(용언): 비통사적 합성어

오답록

- ① 열(용언의 관형사형)+쇠(명사): 통사적 합성어
새(접두사)+빨갛다(용언): 파생어
- ③ 김(용언의 어간)+발(명사): 비통사적 합성어
돌아(용언의 어간+연결어미)+가다(용언): 통사적 합성어
- ④ 젊은(용언의 관형사형)+이(명사): 통사적 합성어
가로(부사)+막다(용언): 통사적 합성어

129

①

해설 품사를 바꾸어 주는 접사를 ‘지배적 접사’라 한다. ‘좁다’는 형용사인데, 여기에 ‘히’라는 사동사가 붙은 ‘좁히다’는 동사다. 이때 ‘히’가 지배적 접사다.

오답록

- ② 밀다(동사) → 밀치다(동사)
- ③ 솟다(동사) → 치솟다(동사)
- ④ 보다(동사) → 엿보다(동사)

130

③

해설 ‘넓다’는 형용사다. 그러므로 동사만 사동화될 수 있다는 말은 옳지 않다.

- ① ②은 통사적 사동문, ③은 파생적 사동문에 해당한다.
- ② ④ 부사어, ⑤ 목적어로 실현되었다.
- ④ ⑤ 두 자리 서술어, ⑥ 세 자리 서술어, ⑦ 한 자리 서술어, ⑧ 두 자리 서술어

131

③

해설 주성분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등이 있다. ③ 문장은 ‘아이들이 놀다 가다’라는 관형절이 안긴문장이다. 안긴문장은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록

- ① ‘교정이 넓다’라는 서술절이 안긴문장이다. 안긴문장은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비가 오다’라는 명사절이 안긴문장이다. 안긴문장은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④ ‘대화가 어디로 튀다’라는 부사절이 안긴문장이다. 안긴문장은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132

③

오답록

- ① 주어와 목적어
- ② ‘그 사람이’는 구로 절로 실현된 것이 아니다.
- ④ 주어 성분으로서 명사절로 실현되었다.

133

③

해설 ‘중원 고구려비가 이제 나라의 재산이다.’라는 문장에 명사형 어미 ‘-ㅁ’을 결합하여 ‘명사절’로 바뀐 것이다. 즉 서술절이 아닌 ‘명사절’이 옳다.

134

④

해설 사동사의 의한 사동문을 ‘단형 사동문’이라 한다. 그리고 ‘-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을 ‘장형 사동문’이라 한다. 사동의 발생에 주어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것을 직접사동이라 하고, 간접적으로 개입되는 것을 간접사동이라 한다. 단형은 직접사동과 간접사동 모두에 쓰일 수 있으나 장형은 간접사동에만 쓰인다.

- 예 아버지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했다.

오답록

- ① 그에게 멱살을 잡힌 것이 너무 화가 난다.(피동사)
그는 술집에 학생증을 술값으로 잡히고 술을 마시곤 했다.(사동사)
- ② 남다(동사): 남기다
밝다(형용사): 밝히다

- ③ 먼지가 바람에 날리다. (○) / 바람이 먼지를 날다. (×)
사기를 당해 재산을 다 날렸다. (○) / 재산이 날았다. (×)

135

③

[해설]

- ① 서술어는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숫자가 다르다.
②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는 주성분에 속한다.
③ 목적어도 생략될 수 있다.

05 / 2015년 기출문제

136

①

- [해설] 첫소리의 'o'과 사이시옷을 제외하고는 모든 음운은 각각 하나의 음운으로 본다.

ㅍ - ㅎ - ㄱ - ㄴ - ㄷ - ㅌ - ㄹ - ㅏ - ㅓ - ㅗ - ㅜ - ㅡ - ㅓ - ㅣ (13개)

137

②

- [해설] '굽다'는 '구워'로 활용한다. 즉 어간이 불규칙으로 변하는 'ㅂ 불규칙'에 해당한다. '파를다'는 '파래' 등으로 활용하는 'ㅎ 불규칙'인데, 이것은 어간과 어미가 함께 바뀌는 불규칙에 해당한다.

[오답록]

- ① '깨닫다'는 '깨달아'로 활용하는 'ㄷ 불규칙'으로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이다.
③ '푸르다'는 '푸르러'로 활용하는 '러 불규칙'으로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이다.

[미소록] 불규칙의 분류

- (1) 어간이 바뀌는 경우

- | | |
|-----------|-----------|
| • 'ㄷ' 불규칙 | • 'ㅅ' 불규칙 |
| • 'ㅂ' 불규칙 | • 'ㄹ' 불규칙 |
| • 'ㄱ' 불규칙 | |

- (2) 어미가 바뀌는 경우

- | | |
|------------|-----------|
| • '러' 불규칙 | • '여' 불규칙 |
| • '너라' 불규칙 | • '오' 불규칙 |

- (3) 어간과 어미가 함께 바뀌는 경우

- 'ㅎ' 불규칙

138

①

- [해설] 'ㅊ'의 대표음은 'ㄷ'이다. 그러므로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 [면해]로 발음한다. 그리고 'ㄷ'과 'ㅎ'이 축약되어 [며태]로 발음한다.

139

④

[해설]

- ① 교체: 어떤 음운이 음절의 끝 위치에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예) 바깥[바깥], 부엌[부엌]
② 교체 중 비음화와 유음화: 한 음운이 인접하는 다른 음운의 성질을 닮아가는 현상
예) 닫는[닫는]: 비음화, 칠내칠라]: 유음화
③ 축약: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결합하거나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현상
예) 좋고[조코], 많대[만타]

[오답록]

촛불, 나뭇집: 사잇소리 현상으로 첨가에 해당한다.

140

③

[해설]

[꼰망울]: 음절의 끝소리 규칙 → [꼰망울]: 비음화

[오답록]

- ① 받침 'ㅍ'이 'ㅂ'으로 발음된 음절의 끝소리 규칙
② 합성명사에서 울림소리 다음에 안울림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된 사잇 소리 현상
④ 'ㄴ'이 'ㄹ'의 영향으로 'ㄹ'로 발음된 유음화

141

④

[해설]

[앞만]: 음절끝소리규칙 → [암만]: 비음화

[오답록]

- ① 입는대[임는다]: 비음화
② 돋는[돈는]: 비음화
③ 낫다[낫따]: 음절끝소리규칙, 된소리되기

142

②

[해설]

- 대치: 굳이[구지], 무릎[무릅], 있지[일찌]
- 축약: 끊더라도[끈터라], 잡히다[자피다]
- 탈락: 싫어도[시리도]
- 첨가: 뒷일[둔닐]
- 도치: 배꼽(<벗복)

143

②

- [해설] '솔+하고'를 [솔하고]로 발음하는 것은 대표음화 즉 음절끝 소리 규칙이다. 위에서 설명한 대치, 즉 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소타고]로 발음되는 것은 축약으로 ④이다.

144

④

- [해설] 용언 '맵다'에 연결어미 '-어서'가 결합해 '매워서'가 된 것은 'ㅂ 불규칙'이 활용한 것으로 이것은 어간이 변한 것으로 'ㅂ'이 완전히 탈락했다고 할 수는 없다.

【오답록】

- ① '짓다'는 'ㅅ 불규칙' 용언으로 활용할 때 'ㅅ'이 탈락한다.
- ② '울다'의 어간 '울'은 'ㄴ'앞에서 탈락한다.
- ③ '쓰다'에 연결어미 '어서'가 결합해 '—'가 탈락한 것이다.

145

①

해설 '무른 물질이 단단하게 되다.'의 뜻인 '굳다'는 동사다.

【오답록】

- ② 서술성이 있으므로 '다른'은 형용사의 관형사형이다. 품사는 형용사다.
- ③ 서술성이 있으므로 '새로운'은 형용사의 관형사형이다. 품사는 형용사다.
- ④ 서술성이 있으므로 '아픈'은 형용사의 관형사형이다. 품사는 형용사다.

146

②

해설 낯설(형용사) + ㅁ(명사형 어미): 품사는 여전히 형용사

【오답록】

- ① 보다(동사) + 기(접미사) → 보기(명사)
- ③ 낫다(형용사) + 주(접미사) → 낫주다(동사)
- ④ 꽂(명사) + 담다(접사) → 꽂담다(형용사)

147

④

해설 '젊게 보인다'의 꿀로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다'는 대상을 평가하는 의미를 지닌다. '보다'의 의미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본 용언으로 봐야 한다.'

【오답록】

- ①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말하는 이 또는 말하는 이가 정하는 기준점으로 가까워지면서 계속 진행됨을 나타내는 보조동사다.
- ②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 그 행동이 이후 어진 결과, 말하는 이가 아쉬운 감정을 갖게 되었거나 또는 반대로 부담을 덜게 되었음을 나타낼 때 쓰는 보조동사다.
- ③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힘을 나타내는 보조동사다.

148

②

해설 '가볍게'는 형용사 '가볍다'가 부사형으로 활용한 것이다. 즉 품사는 '형용사'가 된다. 나머지는 모두 부사에 해당한다.

149

①

해설 보조 형용사. (동사나 형용사, 또는 '이다'의 관형사형 뒤에 쓰여) 앞말이 뜻하는 사건이나 상태 따위를 짐작하거나 추측함을 나타내는 말.

【오답록】

- ② 의존명사. ('대로'를 사이에 두고 같은 용언이 반복되어, '—을 대로' 구성으로 쓰여) 어떤 상태가 매우 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③ 의존명사. '듯이'의 준말.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짐작이나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말.

④ 의존명사. (주로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

150

④

【해설】

- ⑦ 형용사.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
- ⑧ 동사.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
- ⑨ 부사. 오늘의 바로 하루 전에의 뜻으로 서술어 '마련해'를 수식하는 부사다.
- ⑩ 명사. 오늘의 바로 하루 전날.

151

④

해설 어미 '—ㄴ다'와 관형사형 어미 '—는'을 붙일 수 있다면 동사가 된다. '—지 않다'의 꼴일 때는 본용언의 품사를 보조용언이 그대로 따라 간다. '중시하다'는 동사이므로 보조용언인 '않은'도 동사가 된다. 결론적으로 모두 동사다.

152

④

해설 부사 '많이'의 수식을 받는 '먹기'는 동사의 명사형이다. 품사는 '동사'다.

- ⑪ 관형어 '않는'의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명사'다.
- ⑫ 부사 '잘'의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명사형으로 '동사'다.
- ⑬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바람'은 명사다.
- ⑭ 부사 '빙그레'의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웃음'은 동사의 명사형으로 '동사'다.

153

①

해설 명사 '친구'를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온갖'은 명사 '물건들'을 수식하는 관형사다.

- ⑮ 오답록
- ⑯ 서술어 역할을 하는 형용사 '어떻다'가 활용한 것이므로 '어떤'은 형용사다.
- ⑰ 서술어 역할을 하는 형용사 '그렇다'가 활용한 것이므로 '그런'은 형용사다.
- ⑱ 형용사 '새롭다'가 활용한 것이므로 '새로운'은 형용사에 해당한다.

154

①

【해설】

- ⑲ 관형어는 명사, 대명사, 수사와 같은 체언류를 꾸미는 문장성분이다.
- 미소가 색 옷을 샀다.

- ◎ 명사는 그대로 관형어가 될 수 있다.
- 미소는 시골 풍경을 좋아 한다.
- ◎ 동사나 형용사도 관형어가 될 수 있다.
- 미소는 **자는** 그녀를 깨웠다.(동사)
 - 미소는 **빨간** 옷을 입었다.(형용사)
- ◎ 조사 '의'는 관형어를 만드는 중요한 격조사이다.
- 미소가 **채희의** 책을 샀다.

155

(4)

해설 떡(어근) / 볶(어근) / 이(어미) / 를(조사) / 팔(어근) / 르(어미) / 사람(어근) / 은(조사) / 어서(어근) / 가(어근) / 아(어미): 11개

156

(4)

해설 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 어순에 맞는 합성어다.

- 어린이: 어린(용언의 관형사형) + 이(명사)
- 가져오다: 가지(용언의 어간) + 어(연결어미) + 오다(용언)

오답곡

- 흔들(부사) + 바위(명사). 곶(용언의 어간) + 감(명사)
→ 모두 비통사적 합성어
- 새(관형사) + 언니(명사). 척척(부사) + 박사(명사)
→ '새언니' 통사, '척척박사'비통사
- 길(명사) + 짐승(명사). 높(용언의 어간) + 푸르다(용언)
→ '길짐승' 통사, '높푸르다' 비통사

157

(2)

해설 맨(접두사) + 손(어근). 울(어근) + 보(접미사)

오답곡

- 동화(어근) + 책(어근)
- 시(접두사) + 동생(어근). 어깨(어근) + 동무(어근)
- 크다(단일어). 복(어근) + 스럽다(어미)

158

(3)

해설

어린(용언의 관형사형) + 이(명사): 통사적 합성어

안(명사) + 박(명사): 통사적 합성어

159

(5)

해설

- 비통사적 합성어: 굶(용언의 어간) + 주리다(용언). 늦(용언의 어간) + 더위
(명사). 높(용언의 어간) + 푸르다(용언). 덮(용언의 어간) + 밥(명사)
- 비통사적 합성어: 곶(용언의 어간) + 감(명사)

오답곡

- 논(명사) + 밭(명사): 통사적 합성어
- 첫(관형사) + 사랑(명사): 통사적 합성어
- 늙은(용언의 관형사형) + 이(명사): 통사적 합성어
- 가로(부사) + 지르다(용언): 통사적 합성어

160

(1)

해설 실질형태소 두 개가 결합된 합성어를 찾으라는 문제다.

오답곡

- 면도-칼: 합성어. 서라-발: 합성어. 순-등이: 파생어. 장난-기: 파생어
- 깍둑-이: 파생어. 선생-님: 파생어. 직은-형: 합성어. 핫-바지: 파생어
- 김치-찌개: 합성어. 돌-다리: 합성어. 시나브로: 단일어.
- 암(ㅎ)-닭: 파생어

161

(5)

해설

- 단일어: 몹시
- 파생어: 새빨갈다. 먹이. 노리개. 찌개. 지우개. 놀이. 참깨. 휘두르다. 참답다. 슬기롭다. 군식구. 끝내. 정답다. 애호박
- 합성어: 높푸르다. 돌아가시다. 겸푸르다. 잡아먹다. 기와집

162

(3)

해설 주성분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등이 있다. '미연에'는 부사어로 주성분이 아니다.

오답곡

- 주다'가 타동사이므로 '맹물만'은 목적어다.
- '사실도'는 주어로 주성분이다.
- 단체 뒤에 붙은 '-에서'는 주격조사로 '정부에서'는 주어다.

163

(1)

해설 '새'는 관형사로 뒤에 명사와 띄어 써야 한다.

오답곡

- '강'은 접두사로 옳은 표기다.
- '갓'은 접두사로 옳은 표기다.
- 관형어 '먹' 뒤에 '만큼'은 의존명사로 띄어 써야 한다.
- '등'은 의존명사로 띄어 써야 한다.

164

(3)

해설 단체 뒤에 '에서'는 주격조사다. 즉 '정부에서'는 주어에 해당한다.

오답곡

- 부사어. '-에서'는 체언 뒤에서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체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다.

- ② 부사어. '-에'는 앞말이 목표나 목적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다.
④ 부사어. '-에'는 앞말이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다.

165

②

해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오답곡

- ① '그 일은 하기'라는 명사절을 안은 문장
③ '땀이 나도록'이라는 부사절을 안은 문장
④ '인간이 존귀하다'라는 인용절을 안은 문장

166

②

해설 '해가 지는'은 관형절이다. 선택지의 '영웅이 돌아올'은 '시기'를 수식하는 관형절이다.

오답곡

- ① 인용절을 안은 문장
③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④ 명사절을 안은 문장

167

④

해설 '동생이 한'이라는 관형절을 안은 문장

오답곡

- 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②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③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E B S 공 무 원 국 어 기 출 문 제 집

Chapter 03 표준발음

01

2019년 기출문제

01

②

해설 ‘신문’의 발음 [신문]이다. [심문]으로 발음한 것은 양순음화로 표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02

④

해설 맑고[맑꼬]: ‘ㄻ’뒤에 ‘ㄱ’ 시작의 어미가 오면 [ㄹ]로 발음한다.

03

③

해설 ‘입학생’은 8개의 음운이다. 그리고 [이팍쌩]은 축약 현상이 일어나 7개의 음운이다. 즉 음운의 개수가 다르다.

오답록

- ① [가을날]–ㄴ 첨가. [가을릴]–교체(유음화)
- ② [텀마당]–교체(음절끝소리규칙). [텀마당]–교체(비음화): ㅁ의 영향을 받은 것은 옳지만 ‘ㅁ’은 입술소리이고, ‘ㄴ’은 허끌소리로 조음위치는 다르다.
- ④ [흑먼지]–탈락. [흉먼지]–교체(비음화): 음절끝소리 규칙이 아닌 탈락 현상이 일어났다.

02

2018년 기출문제

04

②

해설 [차례]. – ‘예’와 ‘례’의 모음은 원음대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록

- ① 연계[연계/ 연계]: ‘예’와 ‘례’가 아닌 모음은 [ㅔ]와 [ㅖ]로 발음할 수 있다.
- ③ 충의의[충의의/ 충의에/ 충이의/ 충이에]: 첫소리가 아닌 ‘의’는 [-]와 [|]로 발음한다. 그리고 조사 ‘의’는 [-]와 [|]로 발음할 수 있다.
- ④ 논의[노느/ 노니]

05

①

해설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앞말의 받침을 뒤로 옮겨 발음하다. [바틀]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

오답록

- ② ①: [반만]–음절끝소리규칙, 비음화
- ③ ②: [반]–음절끝소리규칙
- ④ ②: [바치]–구개음화

06

①

해설 음운 현상을 물은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ㄹ’의 발음이 동일한 것을 찾으라는 문제다. [상견녀], [의:견난], [방니]로 발음하는데, 모두 [ㄴ]으로 발음한다.

오답록

- ② [임:진난], [공뀐녁], [광할루]
- ③ [괄령], [이刎뇨], [험녁]
- ④ [동:원녕], [구근뉴], [날로]

07

①

해설 [고틀] 홀받침의 말이 모음 시작의 형식형태소를 만나면 뒤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

03

2017년 기출문제

08

④

해설 ‘ㄶ’ 뒤에 모음 시작의 형식형태소가 오면 ‘ㅎ’은 발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않은’은 [아는]으로 발음해야 한다.

09

②

해설 [문僻]을 [뭄僻]으로 발음하는 것을 ‘양순음화’라 하는데, 표준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답록

- ① ‘예’나 ‘례’만 모음을 본음으로 발음하고, 나머지 ‘ㅖ’는 [ㅖ]나 [ㅖ]로 발음할 수 있다.
- ③ ‘ㅖ’은 [ㅒ]으로 발음한다.

- ④ '되어, 피어, 이오, 아니오'는 'ㅣ' 순행 동화현상으로 발음한 것을 인정한다.

10

②

해설 티을+이[티으시], 티을+을[티으슬]

오답곡

- ① 모음 'ㅕ'는 [ㅕ]와 [ㅖ]로 발음할 수 있다.
- ③ '밟-'은 [밥]으로 발음한다.
- ④ '이'로 시작하는 실질형태소가 결합할 때는 'ㄴ'을 첨가해서 발음한다.
- ⑤ 'ㄹ'은 [ㄹ]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11

②

해설

- 'ㄹ'은 [ㄱ]으로 발음한다. 그러나 'ㄱ' 시작의 어미가 오면 [ㄹ]로 발음 한다.
맑고[맑꼬]
- 'ㄹ'은 [ㄹ]로 발음한다. 그러나 '밟-'은 받침을 [ㅂ]으로 발음한다.
밟거리[밥:꺼나]

12

①

오답곡

- ② 도매금[도매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났지만 한자어와 한자어 사이 라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은 것이다.
- ⑤ 공권력[공권녁]. 'ㄴ'으로 끝나는 한자어에 'ㄹ' 시작의 접미사적 성격의 한자가 오면 [ㄴㄴ]으로 발음한다. 그리고 여기서 '공(公)'은 짧은 소리다.

04 / 2016년 기출문제

13

①

해설 받침 '-ㄹ'은 [ㄱ]으로 발음하므로 '막따'로 발음해야 한다.

14

②

해설 'ㅣ, ㅑ, ㅓ, ㅕ'로 시작하는 실질형태소는 'ㄴ'을 첨가해서 발음해야 한다. [지깽깽치]

15

①

오답곡

- ② [뚫른]. '뚫'뒤에 'ㄴ'이 올 때는 'ㅎ'은 발음하지 않는다. 이어 유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 ③ [넙쭈카다]. 죽약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 ④ [흉만].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16

①

오답곡

- ② 고가(高價)[고까]
- ③ 낱낱이[난나치]
- ④ 부자(父子)[부자], 모자(母子)[모:자], 모자(帽子)[모자]

17

④

해설

'속임수'는 사잇소리 현상으로 [소김쑤]로 발음해야 한다.

05

2015년 기출문제

18

④

해설

'ㄹ'은 ㄱ으로 발음한다. 그러므로 [막씀니다]로 발음해야 한다.

19

②

해설

- 받침 'ㄹ'은 [ㄱ]으로 발음해야 한다. 물론 'ㄱ' 시작의 어미가 오면 [ㄹ]로 발음한다. 이 규정에 따라 '일다'는 [의따]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

오답곡

- ① 사이시옷은 발음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배쏙] 또는 [밴쏙]
- ③ 자음 'ㄷ'의 발음은 모음 시작의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 받침 ㄷ이 뒤로 연음되지 않고 'ㅅ'으로 발음한다. 그러므로 [디그슬]
- ④ '금웅'은 [금눙] 또는 [그甬] 모두 발음할 수 있다.

20

①

오답곡

- ② [의:견난]
- ③ 얇지[얇:찌]
- ④ 이글이글[이글리글]
- ⑤ 뚫네[똘레]

Chapter 04 맞춤법

01 2019년 기출문제

01

②

해설 늘리리, 남존여비, 혜택

02

②

해설
① 시퍼렇다
② 시퍼렇다
④ 새하얗다

03

③

해설 ‘익숙하지’는 어간의 끝음절 ‘히’가 아주 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익숙지’로 적어야 한다.

04

②

해설 ‘불+어서’는 ‘불어서’로 활용하는 ‘ㄷ 불규칙’ 용언이다.
• 불다: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05

③

해설 곧바르+아야 → 곧발리야

06

④

해설 ‘인사말’은 [인사말]로 발음된다. 즉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적을 수 없다.

오답록
① 노랫말
② 순댓국
③ 하굣길

07

②

해설
① 봉어빵: 된소리 앞에 사이시옷은 표기하지 않는다.
③ 백지장: 한자어 사이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④ 머리털: 거센소리 앞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08

④

오답록

- ① 회계연도
- ② 개수
- ③ 번번이, 합격률

09

③

해설 ‘시간’의 총량에 해당하므로 ‘늘리다’로 적는 것이 옳다.

오답록

- ① ‘가능한’은 관형어로 부사 ‘빨리’를 수식할 수 없다. ‘가능한 한’으로 써야 한다.
- ② ‘그들’은 유정명사이므로 조사 ‘에게’를 써야 한다. ‘그들에게’가 옳다.
- ④ ‘효과적이다’는 형용사에 해당하는 서술어다. 그러므로 뒤에 보조 용언의 활용은 관형사형 어미로 ‘은’을 써야 한다. ‘않은’으로 쓰는 것이 옳다.

10

①

해설 ‘–으매’는 어떤 일에 대한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다. 그러므로 어간 ‘있’에 어미 ‘–으매’가 결합해 ‘있으매’로 적은 것은 옳다.

오답록

- ② ‘선보이었어도’의 준말은 ‘선뵈었어도’ 또는 ‘선봤어도’로 적어야 한다.
- ③ ‘아속하더군요’의 준말은 ‘야속더군요’로 적어야 한다.
- ④ ‘마구’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사는 ‘처’로 적어야 한다. ‘처박하는’이 옳다.

11

②

해설 ‘모자르다’는 ‘—’탈락의 용언이다. 그러므로 ‘모자르+아서’가 되면 ‘모자라서’로 적는 것이 옳다. 나머지는 모두 ‘ㄹ’ 불규칙 용언이다.

12

③

해설 형용사에는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을 취할 수 없다.

오답록

- ① 않은
- ② 않은
- ④ 않은

13

③

해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쓸 때에는 '더라'의 준말인 '데'를 쓴다. 전해 들은 말은 '다고 해'의 준말인 '대'로 쓴다.

오답록

- ① 예쁘대
- ② 춤대
- ④ 일으킨대

14

②

해설 방법으로서. 역할 즉 자격의 의미로 쓰일 때 '으로서'로 적어야 한다.

02 2018년 기출문제**15**

②

해설 부딪치다: '부딪다'의 강조말이다. '무엇과 무엇이 힘 있게 마주 달거나 마주 대다.' 또는 '달거나 대개 하다.'의 뜻이다.

오답록

- ① 부순.
 - 부수다: 단단한 물체를 여러 조각이 나게 두드려 깨뜨리다.
 - 부시다: 그릇 따위를 씻어 깨끗하게 하다.
- ③ 가늘어서.
 - 가늘다: 물체의 지름이 보통의 경우에 미치지 못하고 짧다.
 - 앓다: 두께가 두껍지 아니하다.
- ④ 겉잡을.
 - 겉잡다: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불들어 잡다.
 - 걸잡다: 곁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

16

②

해설 '여닫다'는 '열다'의 어간 '열'이 'ㄷ' 앞에서 탈락한 것이다. 그리고 '닫다'는 원래 '닫다'로 'ㄹ'이 'ㄷ'으로 바뀐 것이 아니다.

오답록

- ① 풀소 → 풀소
- ③ 잘주름 → 잠주름
- ④ 설부르다 → 선부르다

17

④

- 해설**
- ① 이렇게 하면 돼?
 - ② 이번에는 꼭 합격할게요.
 - ③ 서로 둘고 사는 게 좋다.

18

②

해설

- ㄱ. 됐다: '되어'의 준말은 '돼'로 적어야 한다.
- ㄴ. 적잖은: '-지 않은'의 준말은 '-잖은'으로 적는다.
- ㅁ. 변변찮다: 울림소리 뒤에 접미사 '-하다'를 줄일 때는 모음 'ㅏ'만 탈락시켜 표기한다. 그러므로 '변변치 않다'가 된다. 그리고 '-치 않다'는 '-찮다'로 적는다.

19

①

해설 곤혹스러운. '곤혹스럽+은'의 꼴로 'ㅂ'불규칙 용언이 '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우'로 활용한다. '곤혹스러운'으로 적어야 한다. 이때 준말로 적어서는 안 된다.

오답록

- ② 여쭙다: 여쭙+어 → 여쭈워
- ③ 붙다: 붙+기 → 붙기
- ④ 쉽다: 쉽+어서 → 설워서

20

②

해설 '지붕'은 접미사 '웅'이 붙어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었지만, 용언의 어간에 결합한 것이 아니며, 품사도 바뀌지 않았다. 적절한 예로 볼 수 없다.

21

②

해설 맞혀 → 맞춰.

주로 '보다'와 함께 쓰여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살피다는 '맞추다'로 적어야 한다.

22

④

해설 대응함으로써.

주로 '-ㅁ/-음' 뒤에 붙어 어떤 일의 이유를 나타내는 격 조사는 '으로 써'셔야 한다.

23

④

해설 [고쳐라]로 발음하지만 형태를 밝혀 '고쳐라'로 적은 것이다.

24

③

해설 소맷귀**25**

②

해설 '요'는 보조사로 어미가 아니다. 그러므로 고쳐서는 안 된다.

26

②

해설 ‘윗옷’의 ‘윗’은 아래, 위의 대립을 나타내는 말로 사잇소리 현상과는 관련이 없다.

03

2017년 기출문제

27

④

해설 ‘구개음화’에 대한 규정이다. ‘잔디’와 ‘버티다’는 형태소들의 결합이 아닌 하나의 형태소다. 한 형태소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다.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8

②

해설 재다: 고기 따위의 음식을 양념하여 그릇에 차곡차곡 담아 두다.

오답록

- ① 치이다: 무거운 물건에 부딪히거나 깔리다.
- ③ 개다: 흐리거나 끽은 날씨가 맑아지다.
- ④ 피우다: 어떤 물질에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었다가 내보내다.

29

①

해설

② 한창/ 한참

- 한창: 어떤 일이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모양. 또는 어떤 상태가 가장 무르익은 모양.
- 한참: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

③ 두텁다/ 두껍다

- 두텁다: 신의, 믿음, 관계, 인정 따위가 굳고 깊다.
- 두껍다: 층을 이루는 사물의 높이나 집단의 규모가 보통의 정도보다 크다.

④ 벗어졌다/ 벗겨지자

- 벗어지다: 머리카락이나 몸의 털 따위가 빠지다.
- 벗겨지다: 덮이거나 씌워진 물건이 외부의 힘에 의하여 떼어지거나 떨어지다.

30

①

해설

- ② 푸줏간
- ③ 등굣길
- ④ 거적때기

31

③

해설

- ① ‘–을지’는 어미로 붙여 써야 한다.
 - –을지: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어간이나 어미 ‘–었–’ 뒤에 붙어 주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
- ② 자신의 감정이므로 ‘고마웠던지’가 옳다.
- ④ 어쭙잖은, 연락드릴게요

32

④

해설 ‘달달이’로 표기하는 것은 어원을 밝혀 적는 것으로 ‘어법에 맞도록’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말은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는 맞춤법 제28항에 따라 ‘다달이’로 표기해야 한다. 즉 이 말은 ‘소리대로 적되’에 해당하는 말이다.

33

③

해설 ‘얻다가’는 ‘어디에다가’가 줄어든 말이다.

오답록

- ① 설거지
- ② 얹히고설키고
- ④ 걷어붙이고

34

①

해설

먹거리/먹을거리

오답록

- ② 깍두기
- ③ 닭달
- ④ 널따란

35

②

해설 ‘부수입(副收入)’은 원래 ‘부(副)’로 ‘ㄹ’탈락이 아니다. 나머지는 모두 ‘ㄹ’이 탈락한 예에 해당한다.

오답록

- ① 바늘질 → 바느질
- ③ 솔나무 → 소나무
- ④ 열닫이 → 여닫이

36

②

해설

배든지 사과든지. 선택을 의미할 때는 조사 ‘든지’를 써야 한다.

37

①

해설

- ① 대가(代價), ② 초점(焦點): 한자어와 한자어 사이에서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③ 뒤풀이, ④ 아래층: 돈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⑤ 해님: 사잇소리 현상은 합성 명사에서 일어난다. 파생어인 '해님'은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사이시옷을 적을 수 없다.

38

③

해설 첫사랑은 관형사 '첫'과 명사 '사랑'이 결합한 것으로 사잇소리 현상과 관련이 없다. 그리고 '소나기밥'은 [소나기밥]으로 발음된다. 즉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ㅅ'을 표기하지 않는다.

오답곡

- ① 한자와 한자 사이에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지만 '횟수'는 예외다. '곳간, 샛방, 풋간, 횟수, 찻간, 숫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② 한자와 순우리말의 결합으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면 'ㅅ'을 표기 한다. [등교길/ 등굣길]로 발음되는데, 사잇소리현상이다.

39

⑤

오답곡

- ① 가겟집
 ② 수라간(水刺間). 한자와 한자의 결합에서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③ 공깃밥
 ④ 장미과(薔薇果). 한자와 한자의 결합에서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40

③

해설 껍질. 물체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하지 않은 물질은 '껍질'로 적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돼지 껍데기'라 하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 껍데기: 달걀이나 조개 따위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 주의: '조개껍질'과 '조개껍데기'는 한단어로 모두 옳은 표기다.

41

④

해설 2016년에 '주택'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한 표기를 인정했다.

오답곡

- ① 빌려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기회를 이용하다는 '빌리다'로 적는다.
 ② 깨친다. 일의 이치 따위를 스스로 깨닫다 알다는 '깨친다'로 적어야 한다.
 ③ 깃들이어/ 깃들여. 사람이나 건물 따위가 어디에 살거나 그곳에 자리 잡다는 '깃들이다'로 적는다.
 ④ 중에. '외종'은 소용돌이치는 가운데이므로 강의하는 경우에 쓸 수는 없다.

42

②

해설

- 쪼이어요/찢어요/째요/쪼여요
오답곡
 ① 맞을걸? 주측의 뜻을 가진 어미는 '-을걸'로 적는다.
 ③ 가지아라/가져라. 모음시작의 어미를 만났을 때는 본딧말에서 활용하고 준말에서는 활용하지 않는다.
 ④ 고니. 고기나 뼈 따위를 무르거나 진액이 빠지도록 끓는 물에 푹 삶다는 '고다'로 적는다. 여기에 어미 '-니'가 결합한 것이다.

43

①

오답곡

- ② 바라
 ③ 어떡해
 ④ 담가서

44

②

해설

- '왜 인지'의 준말은 '왠지'로 적는다.
오답곡
 ① '대가(代價)'는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이므로 사이시옷을 적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치르다'의 어간에 어미 '-어야'가 결합하면 '—'가 털리해 '치러야'로 적어야 한다.
 ③ '담그다'의 어간 '담그'에 어미 '-야'가 결합하면 '담가'로 적어야 한다.
 ④ 아래. 위의 대립이 없을 때는 '웃'으로 적는다. '웃어른'이 옳은 표기다.

45

③

해설

- '쓰이어' 또는 '씌어'로 적는다.
오답곡
 ① 가까웠다: 'ㅂ 불규칙'은 어미 '-어'를 만날 때 '-워'로 적는다.
 ② 잘돼서: '되어'의 준말은 '돼'로 적어야 한다. '잘되어서'의 준말이므로 '잘돼서'로 적는다.
 ④ 생각건대: '생각하건대'의 준말은 어근의 끝이 안울림 소리이므로 '하'를 통째로 날려 쓴다.

46

①

해설

- '퍼렇+어서'는 '퍼어서'로 적어야 한다.
오답곡
 ② 땐리
 ③ 머리말.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ㅅ'을 쓸 수 없다.
 ④ 잠가야. '잠그+야'에서 '—'가 틀락했다.

47

③

해설 용언의 어간 '잠그'에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았'이 결합하면 '—'가 탈락한다. 그래서 '잠갔다'로 적는다.

오답록

- ① 나았다/ 났다.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는 기본형이 '낫다'이다. 'ㅅ 불규칙'용언이므로 '나았다' 또는 준말로 '났다'로 적을 수 있다.
- ② 넉넉지. 접미사 '-하다'를 줄일 때는 어근의 끝 음운이 안울림 소리일 때는 '-하-'를 통째로 생략해 적는다.
- ④ 이어서.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다의 기본형은 '잇다'이다. 'ㅅ 불규칙'용언이므로 '잇+어서'는 '이어서'로 적는다.

48

③

해설 깨닫하다: 오랫동안 생각해 내지 못하던 일 따위를 어떠한 실마리로 말미암아 깨닫거나 분명히 알다.

오답록

- ① '버젓이'의 비표준어다.
- ② '뒤져내다'의 비표준어다.
- ④ 허구한

49

③

해설 거센소리 앞에는 'ㅅ'을 표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맥쭈찝]으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므로 'ㅅ'을 표기해 적어야 한다.

오답록

- ① 붙는.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의 기본형은 '붙다'로 적는다.
- ② 넉넉지. 어근이 안울림 소리로 끝났을 때, 접미사 '-하다'를 줄여 쓰는 경우는 '하'를 통째로 생략해 적어야 한다.
- ④ 자료로서.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는 '-로서'로 적는 것이 옳다.

50

①

해설

- 부치다: 논밭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다.
- 불이다: 주가 되는 것에 달리거나 딸리게 하다.
- 부치다: 어떤 일을 거론하거나 문제 삼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게 하다.
- 밀어붙이다: 한쪽으로 세게 밀다.

51

③

해설 웃기고 슬프다로 쓰이는 '웃프다'는 아직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다.

52

⑤

해설 성은 집안을 이름은 자신의 표식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름은 두음법칙을 적용해 적는 것이 원칙이다. '하윤'이 원칙이나 외자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적는 '하윤'도 인정하고 있다.

오답록

- ① 가정란(家庭欄). 첫음절이 아닌 경우에는 한자어 뒤에서 원음으로 적는다.
- ② 실낙원(失樂園). '낙원'인 말에 접두사 '실'이 붙은 것으로 본다.
- ③ 지방뇨(脂肪尿). 첫음절이 아닌 경우에는 한자어 뒤에서 원음으로 적는다.
- ④ 장봉(櫟籠). 첫음절이 아닌 경우에는 원음으로 적어야 한다.

04

2016년 기출문제

53

⑤

해설 글자 그대로 읽는 것은 아니다. [꼬출], [꼬치], [꼴뺨]으로 읽어야 한다.

54

③

해설 '-어요'와 '-예요'는 어미로 '아니다'와 '이다'에만 결합한다. '거'는 체언이고 여기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해 '거이다'가 된다. 그리고 이 말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한다. 그러므로 '거이어요/ 거이예요/ 거예요/ 거예요'로 쓸 수 있다.

오답록

- ① 치러야. '치르다'에 어미 '어야'가 결합하면 '—'가 탈락해 '치러야'가 된다.
- ② 뒤처진. 기본형이 '뒤처지다'이므로 '뒤처진'으로 적어야 한다.
- ④ 잠가. '잠그다'에 어미 '-야'가 결합해 '잠가'로 활용한다.

55

④

해설 아랫집, 아랫방(-房)

오답록

- ① 귓병(-病)
- ② 냇가, 뱃길
- ③ 자릿세(-貰), 전셋집(傳貲-)

56

④

해설 '두루뭉술하게'는 '말이나 행동 따위가 철저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게'의 뜻이다. 문맥에 맞지 않다. '기억이나 생각 따위가 뚜렷하지 아니하고 흐릿하게'를 뜻하는 '어렴풋이'가 적절하다.

오답록

- ① 읊는지. -르는지: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뒤 절이 나타내는 일과 상관이 있는 어떤 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그 의문의 답을 몰라도, 그 의문의 답을 모르기 때문에 따위의 의미를 나타낸다.

- ② 해님. 파생어에서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님]으로 발음하고 사이시옷도 표기할 수 없다.
 ③ 앗된. 애티가 있어 어려 보인다는 '앳되다'로 쓴다.

57

①

[오답곡]

- ② 훗일(後일)
 ③ 뒷마루(退마루)
 ④ 사자밥(獅子밥), 겟날(契 날). 예삿일(例事일)

58

④

[오답곡]

- ① 인사말. [인사말]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사이시옷을 표기 할 수 없다.
 ② 흡연율. 'ㄴ' 뒤에 '率'은 '율'로 적어야 한다.
 ③ 생각지도. '생각하지도'의 준말인데, 어근이 안울림소리로 끝날 때는 '하'를 통째로 생략해 적는다.

59

④

[해설] 약속 시간 따위를 넘기지 아니하다.

[오답곡]

- ① 맞하니
 ② 맞힐
 ③ 맞혔다

60

②

- [해설] 주로 조류가 보금자리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 살다는 '깃들이다'로 적는다.

[오답곡]

- ① 띠기. 감정이나 기운 따위를 나타내다는 '띠다'로 써야 한다.
 ③ 째은. 곡식 따위를 쓸거나 빨으려고 절구에 담고 공이로 내리치다는 '찧다'로 적는다.
 ④ 개고. 흐리거나 웃은 날씨가 맑아지다는 '개다'로 쓴다.

61

②

[해설] '거저'는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없이의 뜻이다.

[오답곡]

- ① 봉우리
 ③ 젖하니
 ④ 밭때기
 ⑤ 웃옷

62

④

[해설]

'가뭄'과 '가물'은 복수 표준어다.

[오답곡]

- ① 한창. 어떤 일이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때. 또는 어떤 상태가 가장 무르익은 때.
 ② 결재(決裁).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 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재가(裁可)'로 순화.
 ③ 여의었다.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이별하다.

63

④

[해설]

- 새웠다. 한숨도 자지 아니하고 밤을 지내다는 '새우다'로 써야 한다.
 • 닦달해. 남을 단단히 육박질러서 혼을 내다는 '닦달하다'로 쓴다.

64

②

[해설]

'~을 통해서'의 뜻일 때 '-ㅁ으로써'를 쓴다.

[오답곡]

- ① 밟쳐. 건더기를 걸려내는 것은 '밟치다'로 쓴다.
 ③ 맞힌. 정답을 말하는 것은 '맞히다'가 옳다.
 ④ 이따가. 나중에를 의미할 때는 '이따가'가 옳다.

05

2015년 기출문제

65

③

- [해설] '던'은 해리할 자리에 쓰여,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다. '-더냐'보다 더 친근하게 쓰는 말이다. 연예인을 직접 본 것에 대한 물음이므로 적절하다.

[오답곡]

- ① '다고해'의 준말은 '-대'로 적는다. '~ 간대요?'
 ② '-더라'의 준말은 '-데'로 적는다. '~ 잘하데'
 ④ 직접 경험한 것으로 '~ 크데요'

66

①

- [해설] '셀을 맞추다.'는 '치다'로 쓴다. 그러므로 '치어주마'로 써야 한다. 준말은 '쳐주마'가 옳다.

[오답곡]

- ② 감정 혹은 기분 따위가 바닥으로 잠겨 가라앉다.

- ③ 함부로 불에 대어서 살라 버리다.
 ④ 매우 세게 박히다

67

①

해설 ‘날, 세월 따위가 매우 오래다’는 ‘허구하다’로 쓴다. 어간 ‘허구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므로 ‘허구한’으로 표기해야 한다.

68

③

해설 젖히고, 뒤로 기울다의 사동사는 ‘젖히다’로 써야 한다.

69

④

해설

- 우윳빛[우유빛/ 우윤빛], 전셋집[전세집/전센집], 머릿방[머리빵/머린빵]: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 사이시옷을 표기한 것이다.
- 전세방[전세빵]: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났지만 한자어와 한자어 사이 이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았다.
- 인사말[인사말]: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없다.

70

③

오답곡

- ① [예산닐]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하여 ‘예삿일’로 적어야 한다.
- ② 모음 ‘ㅐ’뒤에 ‘ㅏ’가 왔을 때는 준대로 적을 수 있으므로, ‘개’ 또는 ‘개어’ 모두 적을 수 있다.
- ④ 겹받침의 앞에 것이 발음되므로 발음대로 적어 ‘널따랗게’로 적어야 한다.

71

정답 ③

해설 ‘만만하지 않다’의 준말은 어간의 끝이 울림소리이므로 ‘ㅏ’ 만 탈락시켜 적는다. ‘만만치 않다’ 또는 ‘만만찮다’로 적는 것이 옳다.

72

②

해설 ‘-하다’의 준말은 앞말이 안울림 소리일 때는 ‘-하’를 통째로 생략한다. ‘짐작하건대’의 준말이므로 ‘짐작건대’가 옳다.

오답곡

- ① 뒤틀. 된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 ③ 쳐내고, 불필요하게 쌓인 물건을 파내거나 옮기기어 깨끗이 하다는 ‘치다’로 쓴다. 그러므로 ‘치어내고’ 즉 ‘쳐내고’로 써야 한다.
- ④ 덮인 ‘ㄱ, ㄷ, ㅂ, ㅈ, ㄹ, ㅌ’뒤에서만 ‘히’가 피동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덮인’으로 쓰는 것이 옳다.

73

①

해설 ‘피우다’는 어떤 물질에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었다가 내보내다는 의미의 타동사로 목적어가 있어야 한다. ‘담배를’이라는 목적어가 있으므로 ‘~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가 옳은 표현이다.

오답곡

- ② • 반듯이: 작은 물체, 또는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바르게.
- 반드시: 틀림없이 꼭.
- ③ ‘-하다’로 끝나는 말의 어근이 ‘ㅅ’일 때는 부사화 접미사 ‘-이’가 결합한다. ‘깨끗이’
- ④ ‘삼가하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삼가다’가 옳다.

74

③

해설 썩이느냐?

걱정이나 근심 따위로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태가 되다인 ‘썩다’의 사동사는 ‘썩이다’로 적어야 한다.

75

④

오답곡

- ①은 어떤 좋지 아니한 일을 당하다의 뜻인 ‘맞다’의 사동사로 ‘맞히다’로 표기한다. ②은 주로 ‘보다’와 함께 쓰여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살피다는 뜻으로 ‘맞추다’로 쓴다.
- ②은 침, 주사 따위로 치료를 받게 하다의 사동사로 ‘맞히다’로 적어야 한다. ‘맞히기’
- ③은 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아니하다의 사동사로 ‘맞히다’로 적어야 한다. ‘맞히면’

76

①

오답곡

- ② 동고동락
- ③ 주아장천
- ④ 오곡백과

E B S 공 무 원 국 어 기 출 문 제 집

Chapter 05 표준어 규정

01 2019년 기출문제

01 ②

해설 고깃간–푸줏간

02 ②

해설 여태껏

02 2018년 기출문제

03 ④

해설 ‘넝쿨’ 또는 ‘덩굴’이 표준어다. ‘덩굴’이라는 말은 없다. 그런데 ②에서 제시된 ‘주책이다’는 2016년에 표준어로 추가되었지만 서술어로 인정된 것이므로 단독 단어로 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가장 옳지 않은 선택지를 찾으라고 했으니 정답은 바꿔지 않겠지만, 출제할 때 세밀함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04 ①

해설 ‘도리어’의 준말은 ‘되레’로 적어야 한다.
→ 잘못한 사람이 되레 큰소리를 친다.

오답록
② 맨날/ 만날: 매일같이 계속하여서
③ 강그리: 하나도 남김없이(싸그리 X)
③ 억수: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코피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05 ①.④

해설 ①과 ④ 모두 표준어다. 문제 오류

오답록
② 돌
③ 살쾡이/ 삶, 꼬나풀

06 ②

해설 애달프구나.

03 2016년 기출문제

07 ③

오답록
① 살랭이/삶, 털어먹다
② 셋째, 애달프다
④ 광주리, 강낭콩

08 ④

해설 전설모음화가 일어난 것은 발음과 표기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부스스하다’로만 적어야 한다.

오답록
① 마을–마실(2015년 인정)
② 예쁘다–이쁘다(2015년 인정)
③ 새초롬하다(2011년 인정)–새치름하다

09 ②

해설 이쁘다(2015년 인정), 마실(2015년 인정), 복숭아빠(2011년 인정), 칭난젓

오답록
① 석박지, 뒤꿈치
③ 마늘종, 주야장천
④ 모두 표준어: 푸르르다(2015년 인정), 손주(2011년 인정)
⑤ 모두 표준어: 삐진(2014년 인정), 개기다(2015년 인정)

10 ①

해설 코끝 양쪽으로 둥글게 방울처럼 내민 부분은 ‘콧방울’이 표준어다.

11

⑤

【오답곡】

- 맨날/만날: 매일같이 계속하여서
- 딴청/딴전: 어떤 일을 하는 데 그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나 행동
- 마을꾼/마실꾼: 이웃에 놀라 다니는 사람.
- 가꾸로(가꾸로의 작은말): 차례나 방향, 또는 형편 따위가 반대로 되게.
- 조지다: 호되게 때리다.

16

⑤

【해설】

- ㉠ 2014년에 표준어로 인정되었다.
- ㉡ 2014년에 표준어로 인정되었다.
- ㉢ 2014년에 표준어로 인정되었다.
- ㉣ 2014년에 표준어로 인정되었다.
- ㉤ 2014년에 표준어로 인정되었다.

04 / 2015년 기출문제**12**

④

【해설】

- 손주: 손자와 손녀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손자: 아들의 아들, 또는 딸의 아들
- 2011년에 손주를 별도 표준어로 인정했다. 이것은 동일한 의미가 아닌, 별도의 표준어가 된 것이다.

13

④

【오답곡】

- ① 나는
- ② 서슴지
- ③ 잠가
- ⑤ 띠지

14

①

【오답곡】

- ② 풀소
- ③ 틈틈이
- ④ 보통내기
- ⑤ 구둣주걱

15

③

【오답곡】

- ① 십 이상의 서수사일 때는 ‘두째’로 표기한다. ‘열두째’
- ② 털어먹는
- ④ 수평아리

Chapter 06 로마자 표기법

01 2019년 기출문제

01

④

해설

- ① Ⓛ–Darakgol
- ② Ⓜ–Gungmangbong
- ③ Ⓝ–Nangnimsan

02

③

해설

- ㄱ. Ojukheon: 체언에서는 ‘ㅎ’을 밝혀 적어야 한다.
- ㄷ. Seolleung: [설릉]으로 발음된다.

02 2018년 기출문제

03

③

해설 성과 이름은 띄어 쓰고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 Hong Bitna / Hong Bit-na
- Han Boknam / Han Bok-nam

04

②

해설 ‘Bangudae’로 쓰면 ‘방우대’로 읽을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써서 ‘Ban-gudae’로 쓴 것이다.

오답록

- ① Dokdo: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써야 한다.
- ③ Dongnimmum: 동림문은 [동님문]으로 발음한다. 우리의 로마자 표기는 발음대로 적는 ‘전음법’에 따라 적어야 한다. 그리고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써야 한다.
- ④ Inwang-ri: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 로’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 ro’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상에 반영하지 않는다.

05

③

해설 율곡로 Yulgongno(도로명: Yulgok-ro)

06

①

해설 ‘Jongno’로 적어야 한다.

07

①

해설 압구정은 [압꾸정]으로 발음되지만 발음상의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오답록

- ② Songnisan: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 ③ Han Boknam: 인명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상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④ Jiphyeonjeon: 체언에서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나는 경우라도 ‘ㅎ’을 밝혀 적는다.

08

①

해설 신리: Sin-ri

행정구역 ‘-ri(리)’를 붙일 때는 붙임표(–) 앞뒤에 일어나는 음운 현상은 반영하지 않는다.

03 2017년 기출문제

09

③

해설 Geungnakjeon. [궁낙전]으로 발음된다. 전음법에 따라 적어야 하며, 표기상의 된소리되기는 반영하지 않는다.

10

②

해설 뒷말이 '여울'처럼 '여'로 시작하는 실질형태소로 결합할 때는 'ㄴ'을 첨가해 발음해야 한다. [학녀울]로 발음한 것은 다시 비음화 현상을 적용해 [헝녀울]로 발음한다. 그리고 발음에 따라 적는 전음법을 택한 로마자 표기 규정에 따라 'Hangnyeoul'로 표기한다.

오답곡

- ① 선릉[설릉]—Seonlleung
- ③ Nakdonggang. 발음상의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④ Jiphyeonjeon. 체언에서 'ㅎ'은 밝혀 적어야 한다.

11

④

해설 Silla. [실라]로 발음된다. 로마자 표기는 전음법, 즉 발음에 따라 적어야 한다. 그리고 'ㄹㄹ'은 '॥'로 적어야 한다.

04**2016년 기출문제****12**

②

해설 [미량]으로 발음된다. 'Miryang'로 적어야 한다.

05**2015년 기출문제****13**

②

해설 [동님문]이므로 Dongnimmun

14

③

오답곡

- ① Yeongdeungpo
- ② Jongno-gu
- ④ Dabotap
- ⑤ Yeouido

15

④

해설 [암녹강] Amnokgang

Chapter 07 외래어 표기법

01 2019년 기출문제

01

②

해설 ① dot-도트 ③ flat-플랫 ④ chorus-코러스

02

①

오답록

- ② 카디건
- ③ 초코릿
- ④ 팡파르

03

④

해설 중모음 뒤에 'k'는 '—'를 받쳐 적어야 한다. '케이크'

02 2017년 기출문제

04

③

해설 ㄷ. lobster: 로브스터/ 랍스터
ㅁ. container: 컨테이너

05

②

해설 콘셉트(concept), 리모컨(←remote control)

06

③

해설 외래어는 받침으로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즉 'ㄷ'은 받침으로 쓰지 않는다.

07

②

오답록

- ㄱ. 가톨릭
- ㄷ. 쇼트카트
- ㅁ. 챔피언
- ㅂ. 캐리거처

08

②

오답록

- ① 샌들, 캐첩
- ③ 멤버십, 캐첩
- ④ 멤버십, 샌들

09

①

해설 커스터드푸딩, 솔 뮤직

03 2016년 기출문제

10

③

해설 앰뷸런스

11

④

오답록

- ① 엘로. 장음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 ② 알코올, 서클. 된소리는 표기하지 않는다. '알코올'은 장음을 표기하는 예외에 해당한다.
- ③ 도넛. 짧은 모음 다음에 어말에 오는 무성을 [t]는 받침으로 적는다.

12

②

[오답곡]

- ① 로브스터/ 랍스터(2016년 1분기 표준국어대사전 수정으로 옳은 표기가 되었다.)
 ③ 스위치, 인디언
 ④ 유니언, 톰 클래스

13

③

[해설]

바비큐, 옥스퍼드, 쿵푸

14

②

- [해설] 슈림프, 'shrimp[ʃrimp]'에서 [ʃ]는 영어의 경우 자음 앞에서는 '슈'로 적어야 한다.

15

②

[해설]

- Ⓐ vision 비전
 Ⓟ leadership 리더십

16

③

[오답곡]

- ① 브리시, 케이크
 ② 카펫
 ④ 슈퍼마켓

19

④

[오답곡]

- ① 팜플릿
 ② 리더십, 소시지
 ③ 소파, 싱크대, 보디로션, 슈퍼마켓, 스카우트

20

④

[해설]

생크, 'shank'는 [ʃæŋk]로 발음되고 이것은 '생크'로 적는다.

21

①

[오답곡]

- ② 패널
 ③ 컨트롤
 ④ 카스텔라

22

②

[오답곡]

- ① 도이칠란트
 ③ 콘사이스
 ④ 스프링클러
 ⑤ 심포지엄

04

2015년 기출문제

17

③

[해설]

코즈모폴리턴, 엘니뇨, 포클레인

18

①

[오답곡]

- ② 맨해튼, 애피타이저
 ③ 르누아르, 청기즈칸
 ④ 요구르트

Chapter 08 띄어쓰기

01

2019년 기출문제

01

③

해설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 '떠내려가다'는 한 단어라. 그러므로 붙여 써야 한다.

02

①

해설

② 지금부터는 오는 대로 입장해야 한다.: 조사는 붙여 쓴다.

③ 그 밖의 사안은 차기로 이관하도록 한다.: '밖'은 의존명사로 띄어 써야 한다.

④ 이 방법은 쇠의 강도를 높이는 데 활용될 것이다.: '데'는 의존명사로 띄어 써야 한다.

03

②

해설 '옛'은 관형사로 명사 '책'과 띄어 써야 한다.

오답곡

① 그중: '범위가 정해진 여럿 가운데'의 뜻이 있는 명사로 한 단어다.

② 한번: '지난 어느 때나 기회'의 의미인 한 단어다.

④ 굴속: '굴의 안'의 뜻이 있는 명사로 한 단어다.

04

①

해설 '대로'는 의존명사로 띄어쓰고, '밖에'는 조사로 붙여 쓴다.

오답곡

② 용수야, 5년 만인데 한 진해야지!: 경과한 시간을 의미하는 '만'은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 그리고 수관형사 '한'은 단위 의존명사와 띄어 쓴다.

③ 일이 오늘부터는 잘돼야 할 텐데.: '텐데'는 '터인데'의 준말인데, 이 때의 '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④ 태권도에서 만큼은 발군의 실력을 낼 거야.: '만큼'은 조사로 붙여 써야 한다.

05

③

해설 '제-'는 접두사이므로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

오답곡

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파생어라 아니라 합성어다.

② '-르지'는 어미로 띄어 써야 한다.

④ '지'는 의존명사로 띄어 써야 한다.

06

①

해설

② 2017년 외래어 표기법 일부 개정으로 기존에는 외래어 뒤에서는 띄어 썼던 산이나 강 등의 지명은 붙여 쓰게 되었다.: 데칸고원은 인도 중부와 남부에 위치한 고원이다.

③ 만큼은 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못 본 사이에 키가 전봇대만큼 자랐구나!

④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때는 용언의 명사형과 띄어 써야 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쓸모 있는 주머니 만들기를 하였다.

02

2018년 기출문제

07

②

해설

• 데: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별수: 여러 가지 방법. 한 단어로 붙여 써야 한다.

08

③

해설

① '어지다'는 언제나 붙여 쓴다.: 최정상급으로 V이루어진 V시립교향악 단이 V곧 V정기 V공연을 V한다.

② '제-'는 접두사로 언제나 뒷말과 붙여 써야 한다.: 제2분과 V회의가 V끝났으니 V이제 V자리를 V뜨는 V것이 V좋을 V성싶다.

④ '데'는 의존명사로 띄어 써야 한다.: 그 V사람은 V오직 V졸업장을 V따는 V데 V목적이 V있는 V듯 V전공 V공부에는 V전혀 V관심이 V없다.

09

④

해설

① 참여하는 V데: '데'는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띄어 써야 한다.

② 쓸데없는. '쓸데없다'는 한 단어로 띄어 써야 한다.

③ 하는지에. '-는지'는 어미로 띄어 써야 한다.

10

②

해설

제3V장의/ 제3장의.

→ '제-'는 접두사로 뒷말과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 그리고 순서를 나타낼 때에는 단위 의존명사와 붙여 쓸 수 있다.

11

④

해설 '듯하다'는 보조용언으로 한 단어로 붙여 써야 한다. 그러나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때는 '듯'은 의존명사가 되고 뒤에 '하다'는 단독 용언이 되어 띄어 써야 한다.

오답곡

- ① 경과한 시간을 의미하는 의존 명사 '지'는 띄어 써야 한다.: 밥을 먹은V지 두 시간밖에 안 지났다.
- ② '관계없다'는 한 단어로 붙여 써야 한다.: 학력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 ③ 2017년 규정 수정에 따라 외래어 두에 붙는 '섬'은 붙여 써야 한다.: 이번 휴가에 발리섬으로 여행을 간다.

12

②

해설

- ① '밖에'가 조사일 때는 붙여 써야 한다.: 창조적 독해가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 ③ '끼니'는 어느 정도 이상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아는 체하는 걸 보니 공부끼니 했나 보다.
- ④ 어떤 일의 기회나 계기의 의미인 '김'은 의존명사로 띄어 써야 한다.: 동해로 가는V김에 평창에도 들렸다 가지.

13

③

해설 부부간:

'부부간'에서 한 단어로 굳어진 것으로 붙여 써야 한다.

14

③

해설

- 이천십팔V년V삼V월V아십사V일V제일V차V공무원V시험(원칙)
- 이천십팔년V삼월V아십사일V제일차V공무원V시험(허용)

오답곡

- ① 희망의V불씨가V꺼져V간다.(원칙)
희망의V불씨가V꺼져간다.(허용)
- ② 한국V대학교V사범V대학V최치원V교수(원칙)
한국대학교V사범대학V최치원V교수(허용)
- ④ 제발V여기에서만이라도V집에서처럼V못되게V굴지V않았으면V좋겠다.

15

②

해설

- ① '간'은 의존명사로 띄어 써야 한다.: 부모와 자식V간에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

③ 성 뒤에 호는 붙여 쓴다.: 내일이 이충무공 탄신 500돌이라고 합니다.

④ 서구 외래어와 우리말을 붙여 써야 한다.: 이번 여름에는 카리브해로 휴가를 가기로 했어.

03

2017년 기출문제

16

③

해설 '때돌아다니다'는 한 단어다.**오답곡**

- ① '얽히고설키다'는 한 단어다.: 일이 얹히고설키서 풀기가 어렵다.
- ② '알아주다'는 한 단어다. 그리고 '밖에'는 조사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 ④ '속절없다'는 한 단어다.: 잊어버린 물건을 찾겠다는 생각은 속절없는 짓이었다.

17

③

해설 안되어도, '안되다'는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뜻을 지닌 동사다. 부정문이 아니고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18

③

해설 한V번. '하나의'의 뜻을 지닌 수관형사 '한'은 뒤에 오는 단위 명사와 띄어 써야 한다.

오답곡

- ①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
- ②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는 부사
- ④ 일단 한 차례를 의미하는 부사

19

②

해설 '들'이 의존명사일 때는 띄어 써야 한다. 여러 개의 명사가 나열된 뒤에 쓰인 '들'은 의존명사다.

오답곡

- ① 체언 뒤에 '만큼'은 조사로 붙여 써야 한다.: 그 친구의 키는 장대만큼 크다.
- ③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만'은 의존명사로 띄어 써야 한다.: 그 친구와 연락한 지 세 시간 만에 만났다.
- ④ '-느라'가 어미일 때는 붙여 써야 한다.: 그 친구의 대답이 맞는지 모르겠다.

20

③

해설

'-ㄴ바'는 어미로 붙여 써야 한다.: 서류를 검토한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ㄴ바: 받침 없는 동사 어간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사-' 뒤에 붙는 어미다. (문어체로) 뒤 절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이 있게 된 것과 관련된 과거의 어떤 상황을 미리 제시하는 데 쓰이는 연결 어미로 앞 절의 상황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오답록

- ① '안절부절못하다'는 한 단어로 붙여 쓴다.
- ② 숫자에 '-여'는 접사로 붙여 쓰고 '영'은 단위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
- ④ '만큼'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때 띄어 쓰고, '그런데'의 의미를 지닐 때 '-데'는 어미로 붙여 쓴다.

21

①

해설

'한밤중'은 파생어로 한 단어다.

오답록

- ② 그는 일도 잘할뿐더러 성격도 좋다.: '~ㄹ뿐더러'는 어미로 붙여 쓴다.
- ③ 친구가 도착한 지 두 시간만에 떠났다.: 경과한 시간을 의미하는 '만'은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
- ④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된다.: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의미 '안된다'는 한 단어로 붙여 써야 한다.

22

③

해설

합리적이기보다는. 조사는 몇 개이든 붙여 써야 한다.

23

③

해설

'30년동안'. 경과한 시간을 띄어 쓰지만 아라비아 숫자 뒤에는 붙을 수 있다.

오답록

- ① 창밖: 한단어로 붙여 써야 한다.
- ② 우단천. '우단'은 흔히 벨벳(velvet)이라 하는 것인데, 거죽에 곱고 짧은 털이 품종히 돋게 짠 비단을 가리킨다. '우단천'이라는 단어는 없으므로 '우단천'으로 쓰는 것이 옳다.
- ④ 일밖에: 이때 '밖에'는 조사로 붙여 쓰는 것이 옳다.

24

①

해설

비교 부사격 조사 '보다'는 붙여 쓰는 것이 옳다.

오답록

- ② 할수. '수'는 의존명사로 띄어 써야 한다.
- ③ 낮은데.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 '데'는 띄어 써야 한다.
- ④ 하루내지. 두말을 이어주는 부사 '내지'는 앞뒤로 띄어 써야 한다.

25

④

오답록

- ① 그 녀석 고마워하기는커녕 알은 체도 않더라.: '는커녕'은 조사로 붙여 써야 한다. 그리고 '체'는 의존명사로 띄어 써야 한다.
- ②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온다.: '만'은 조사로 붙여 써야 한다. 그리고 '한'은 단독 용언의 활용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③ 한번은 네거리에서 큰 사고를 낼 뻔했다.: 지난 어느 때를 의미하는 '한번'은 한단어로 붙여 쓴다.
- ⑤ 김 양의 할머니는 인동 권씨라고 합니다.: 성씨를 나타내는 '씨'는 접미사로 붙여 써야 한다.

04

2016년 기출문제

26

④

오답록

- ① 조사 '은커녕'은 붙여 써야 한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탄협점은 커녕 점점 갈등만 커지게 되었다.
- ② 조사 '밖에'는 붙여 써야 한다. 창문 밖에 소리가 나서 빛더니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 ③ 의존명사 '만큼'은 띄어 써야 한다. 그 만큼 샀으면 충분하니 가져갈 수 있을 만큼만 성자에 담으렴.

27

⑤

해설

- ① 너나없이. '너나 나나 가릴 것 없이 다 마찬가지로'를 뜻하는 부사다.
- ② 알은 체하지/ 알은체하지. '체하다'는 보조 동사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쓸 수 있다. '체'와 '하다'를 띄어 쓸 수는 없다.
- ③ 마지못해서. '마음이 내키지는 아니하지만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없다.'를 뜻하는 형용사다.
- ④ 보잘것없는. '불만한 가치가 없을 정도로 하찮다.'의 뜻인 형용사다.

28

①

오답록

- ② 우리는 모임에서 정한 대로 일정을 짤 수밖에 없다.: 관형어의 수식은 받는 '대로'는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
- ③ 수정 요청 시 연관된 항목을 재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명사 뒤에서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날 때나 경우일 때 '시'는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 또한 명사 뒤에 '하다'가 붙어 하나의 용언의 굳어진 경우에는 '하다'는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 ④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뿐 아니라 추진력마저 없는 사람이다.: '마저'는 조사 붙여 써야 한다.

29

④

[오답곡]

- ① 그는 우리 시대의 스승이라기보다는 자상한 어버이이다.
– 조사는 몇 개이든 붙여 써야 한다.
- ② 그는 훨소같이 일을 했다.
– '같이'는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 ③ 하루 종일 밥은커녕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 '은커녕'도 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30

③

[해설] ‘–ㄹ망정’은 어미로 붙여 써야 한다. ‘우리는 어릴망정 어 땐 고난도 참아 냈다. 지금까지 애쓴 만큼 강팀들도 이길 수 있다.’

31

③

[해설] ‘은연중’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중’은 주로 ‘가운데’나 ‘동안’의 의미일 때 띄어 쓴다.

32

④

[해설] 나가면서까지도. 조사는 몇 개이든 붙여 써야 한다.

05

2015년 기출문제

33

②

[오답곡]

- 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보는지 가로수 가지들이 깎이고 부러졌다.: ‘–는지’는 어미로 붙여 쓴다.
- ③ 집채만 한 파도가 밀려와 짐을 실은 뗏목을 덮쳤다.: 만은 조사이므로 붙여 쓰고 ‘하다’는 단독 용언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④ 미처 못다 한 이야기는 다음에 상세히 나누기로 했다.: ‘못다’는 부사로 뒤 용언인 ‘하다’와 띄어 써야 한다.

34

③

[해설] ‘만큼’은 조사로 앞말과 붙여 쓴다.

[오답곡]

- ① 먹을 만큼 덜어서 집에 갈 거야.: ‘것이야’의 준말인 ‘거야’는 띄어 쓴다.
- ② 이게 얼마 만인가?: 경과한 시간을 의미하는 ‘만’은 띄어 쓴다.
- ④ 제27대 국회의원: ‘제’는 접두사로 붙여 쓴다.

35

①

[해설] ‘–르지’는 해할 자리나 간접 인용절에 쓰여, 추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

36

②

[해설] 떠난 지: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지’는 의존명사로 띄어 써야 한다.

37

③

[해설] 개최될지: ‘–르지’는 해할 자리나 간접 인용절에 쓰여, 추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

38

③

[해설] ‘대로’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면 의존명사로 띄어 써야 한다. 그리고 부정부사로 쓰인 인은 뒷말과 띄어 쓴다.

[오답곡]

- ① 도외시하였기. ‘하다’가 붙어서 한 용언으로 굳어진 것은 붙여 쓴다.
- ② ‘대리전으로밖에는. ‘밖에’가 조사로 쓰일 때는 붙여 쓴다.
- ④ ‘회복될지.’ ‘–지’는 어미일 때 붙여 쓴다.

39

③

[오답곡]

- ① 집에서처럼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녜요.
- ② 그러려면 고민도 많이 해 보고, 교양서적을 읽어도 봐야 하죠.
- ④ 직장에서만이라도 부디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줘요.
- ⑤ 우리는 언제든 성장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가능하죠.

40

③

해설

- 떠날밖에 .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로 붙여 써야 한다.
- 그V밖에. 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이나 일인 명사 ‘밖’은 단어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41

①

해설

‘-ㄹ(을)망정’은 어미로 붙여 쓴다.

오답곡

- ② 있을지라도. ‘-ㄹ(을)지라도’는 어미로 붙여 써야 한다.
- ③ 예쁜 V 대신.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대신’은 명사로 띄어 써야 한다.
- ④ 들을지. ‘-ㄹ(을)지’는 어미로 붙여 쓴다.

42

④

해설

희로애락

- ‘같이’는 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한번’은 기회 있는 어떤 때를 의미하는 부사로 붙여 써야 한다.

E B S 공 무 원 국 어 기 출 문 제 집

Chapter 09 문장부호

01 2018년 기출문제

01 ②

해설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는 대괄호를 써야 한다. → 그녀의 50세 나이[年歲]에 사랑의 꽃을 피웠다.

02 2017년 기출문제

02 ④

해설 한 문장 안에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 맨 끝의 물음에만 쓴다.

예 너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03 ①

해설 ‘낯익은’은 ‘철수’가 아닌 ‘철수의 동생’을 수식한다.

오답곡

- ② 제목이나 표어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는다.
- ③ 의문을 나타내는 어구에 쓴 물음표다.
- ④ 마음속으로 한 말을 나타낼 때 작은따옴표를 쓴다.

05

②

해설 우리말과 한자음이 다를 때는 대괄호를 써야 한다. ‘나이[年歲]’로 적는 것이 옳다.

04 2014년 기출문제

06 ③

해설 ‘원어, 연대, 주석, 설명’ 등을 넣을 적에는 소괄호를 써야 한다. ‘춘원(6·25 때 남북)은 우리나라의 소설가이다.’로 써야 한다.

03 2015년 기출문제

04 ②

해설 쌍점은 ‘:’으로 표기해야 한다.

E B S 공 무 원 국 어 기 출 문 제 집

Chapter 10 자연스러운 문장

01

2019년 기출문제

01

①

해설 시제는 문제가 없다.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고쳐야 한다. → 유사한 내용의 제안을 접수했을 때에는 먼저 접수한 것을 우선한다.

02

①

해설
② 서술어의 부당한 공유다.: 작성 내용의 정정이 있거나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서류는 무효입니다.
③ 이중피동이다.: 12월 중에 한–중 정상회담이 다시 한 번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④ 서술어를 잘못 사용했다.: 그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단 하루도 연습을 거르지 않았다.

03

③

해설
① 다시 풀린 묶었던 머리를 나는 움직이지 않게 더 꼭 묶었다.
② 자기가 이발을 한 것인지(이발사), 자기가 머리를 꺾인 것(손님)인지 모호하다.
④ 각각의 경찰이 한 명씩 둘인지, 두 명의 경찰이 함께 범인 둘을 잡았는지 모호하다.

04

①

해설
② 시제를 고려해야 한다.: 겨우내 팽이와 썰매를 탔던 논에는 어느새 물이 넘실거리고 있다.
③ 이중피동은 옳지 않고 사동으로 쓰는 것이 옳다.: 국세청은 사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④ 시제가 옳지 않다.: 내가 오랫동안 품어 왔던 생각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할 때 나 또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02

2018년 기출문제

05

②

해설

① 필수 성분을 부당하게 생략했다.
→ 작품에 손을 대거나 작품을 파손하는 행위 금지
③ 주술의 호응이 잘못되었다.
→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을 먹자는 것이다.
④ 주술 호응이 잘못되었다.
→ 이번 협상에서 실패한 원인은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다.

06

②

오답록

① 중의성이 있는 문장이다. 그녀와 영이 각각 만났는지 아니면 그녀와 함께 영이 만났는지 알 수가 없다.
③ 중의성이 있는 문장이다. 그가 웃었는지 학생이 웃었는지 알 수가 없다.
④ 어휘를 잘못 사용했다.(잃어버리고 → 잊어버리고)
'어떤 일에 열중한 나머지 잡이나 끼니 따위를 제대로 취하지 않다'는 '잊다'로 적어야 한다.

07

③

해설

① 주술 관계의 호응이 잘못되었다.
→ 세종이 한글을 만든 것은 모든 한자 사용을 없애고자 함이었다.
② 서술어의 부당한 공유다.
→ 우리는 균형 있는 식단을 마련하고,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
④ 주술 관계의 호응이 잘못되었다.
→ 아래에 제시된 두 가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복지 정책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08

①

해설

② 지나친 피동형의 문장이다.: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영 혁신이 요구된다.
③ 주술 호응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아직도 한국 사회가 무사안일주의에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명사를 나열했고 어휘도 잘못 사용했다.: 냉정하게 전력을 평가해 봐도 한국이 자력으로 16강 티켓을 획득할 가능성은 큼 편이다.

09

④

해설 ‘-되’는 대립적인 사실을 잇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다. 미 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의 의미이므로 ‘하며’가 아닌 ‘하되’를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10

①

해설 ‘아름다운’이 ‘봄꽃’을 수식하지는 않는다. ‘아름다운’이 수식하는 것이 ‘서울’인지 ‘서울의 공원’인지 아니면 ‘거리의 나무’인지 모호한 문장이다.

11

③

오답록

- ① 주술 호응이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한국이 빠른 속도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② 주술 호응이 잘못되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중요한 끼닭은 우리가 학습했기 때문이다.
 ④ 대등성이 무너졌다.: 학계에서는 국어 문법에 관심을 두고, 근대 국어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12

④

해설

- 철이가 영선이와 결혼했다.
- 철이와 영선이가 각각 다른 배우자와 결혼했다.

13

③

해설

문맥상 ‘왜냐하면’으로 고치는 것이 옳다.

14

①

해설

- ②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아마 마음속으로라도 박수를 보내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③ 월드컵에서 보여 준 에너지를 바탕으로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국가 경쟁력도 제고해야 한다.
 ④ 행복의 조건으로서 물질적 기반 이외에 자질의 연마, 인격, 원만한 인간관계 등이 필요하다.

03

2017년 기출문제

15

②

해설

앞에 내용과 역접의 관계이므로 ‘그러나’로 적는 것이 옳다.

16

②

해설

전체 글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삭제해서는 안 된다.

17

④

해설

‘여쭈다’는 윗사람에게 물을 때 사용한다. 그리고 살아 계신 부모님을 ‘아버님’이라 하는 것을 옳지 않다.
 → 아버지께서는 집안의 대소사에 대해 항상 아랫사람들에게 물어 보십니다.

18

②

오답록

- ① 엔간해서는 대중으로 보아 정도가 표준에 꽤 가깝다는 ‘엔간하다’로 적는다.
 ③ 불필요한 기능은 빼고 필요한 기능만 살렸다. 문장 성분의 대등성에 어긋났다.
 ④ 개통의 주체가 모호하다. 필수 주어가 생략되었다.

19

①

해설

‘클래식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가 주제다. 예절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20

①

해설

- ‘반드시’는 ‘~한다’ 또는 ‘~해야 한다’로 적어야 한다.
 → 말과 행동이 반드시 일치한다.
 말과 행동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21

②

오답록

- ① 서술어의 부당한 공유다. 그리고 조사도 잘못 쓰였다.: 공직자는 사회 현실의 문제점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필수 성분의 생략이다.: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환경에 순응하기도 한다.
 ④ 어휘를 잘못 사용했다. 부정일 때는 ‘절대로’를 써야 한다.: 그는 내 키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22

④

해설

- ① 대등성이 무너졌다.
→ 한편에서는 올림픽의 상업성과 여성의 상품화를 비난하고 있지 만 비치벌리볼은 이번에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 ② 서술어의 부당한 공유다.
→ 혐오시설인 장례식장의 경우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미관을 해 칠 우려가 있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 ③ 대등성이 무너졌다.
→ 미세먼지를 제외한 환경기준성 오염 물질들은 평년 수준을 유지 하거나 또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⑤ 주술 호응이 옳지 않다.
→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3

①

오답곡

- ② 필수 목적어가 생략되었다.
→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기도 하고, 자연을 지배하기도 한다.
- ③ 서술어의 부당한 공유다.
→ 글을 잘 쓰려면 신문을 읽고, 뉴스를 열심히 시청해야 한다.
- ④ 필수 주어가 생략되었다.
→ 철이는 영선이에게 가방을 주었는데, 영선이는 그 보답으로 철이에게 책을 선물하였다.

24

④

해설 ‘예지력(豫知力)’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아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추진력(推進力)’은 목표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는 힘을 말한다. 문맥상 ‘예지력’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옳다.

04

2016년 기출문제

25

①

- ① 내가 유학을 떠날 때, 친구가 소개해 준 학교는 유명한 학교가 아니 었다.: 하다로 충분한 말에 굳이 시키다를 쓸 필요는 없다.
- ③ 1반 축구팀은 수비가 불안하고 문전 처리가 미숙하여 2반 축구팀에 패배하였다.: 수식 관계가 모호하고 또 서술어를 부당하게 공유했다.
- ④ 방송 장비를 탑재한 트럭이 현장에 대기하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합니다.: 어휘가 잘못되었다.
• 携帶(휴대):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고 다님
• 搭載(탑재): 배, 비행기, 차 따위에 물건을 실음

26

②

해설

‘흔히 또는 으레 그려는 일’은 ‘일쑤’로 적어야 한다.

27

②

해설

문맥상 역접이 아닌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전환의 의미가 있는 접속부사 ‘그런데’가 적절하다.

28

④

오답곡

- ① 선생님이 학생을 보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선생님을 학생들이 보고 싶어 하는지 모호하다.
- ② 반장과 선생님을 내가 각각 찾아다녔는지 아니면 반장과 함께 선생님을 찾아다녔는지 모호하다.
- ③ ‘수많은’의 수식 대상이 사람들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노력인지 모호 하다.

29

③

해설

겉으로는 가까운 체하면서 실제로는 멀리하고 꺼림칙하게 여기는 것을 ‘경원시(敬遠視)’라고 한다. 그러므로 ‘경원시해서는’으로 적는 것이 옳다.

30

④

오답곡

- ① 진행의 개념인지 완료의 개념인지 모호하다. 흰 바지를 입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흰 바지를 이미 입은 경우일 수도 있다.
- ② 미희가 친구들을 보고 싶어 하는지, 친구들이 미희를 보고 싶어 하는지 모호하다.
- ③ 김 선생님이 간호사와 함께 입원 환자를 둘러보았는지, 김 선생님이 간호사도 둘러보고 또 환자들도 둘러보았는지 모호하다.

05

2015년 기출문제

31

②

해설

- ① ‘기능한’이라는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충실히 논의해 왔다.’

- ③ 문장의 대등성이 무너졌다. ‘고화질의 화면’과 ‘다양한 정보’가 대등한데, 공통 서술어 ‘얻을 수 있다’는 맞지 않는다. ‘디지털 텔레비전 시대에는 고화질의 화면으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④ 주술관계의 호응이 부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문제를 회피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이와 같은 관례를 깨뜨릴 때도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32

②

해설 신청자에 한하여 어떤 조건, 범위에 제한되거나 국한될 때 사용하는 동사 ‘한하다’는 ‘~에 한하다’의 꼴로 쓴다.

오답곡

- ① 앞말이 어떤 일의 출처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③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④喻매어 거리끼지 아니할 때 쓰는 동하는 ‘불구하다’이다. 이때는 ‘~에도 불구하고’ 꼴로 사용한다.

33

①

해설

- ② ‘재원’은 젊고 재주 많은 여성에게만 쓸 수 있다.
 ② 사람의 숫자를 말하므로 ‘적지만’으로 적어야 한다.

34

①

해설

- ② ‘-에게’는 유정명사 뒤에 쓰인다. ‘당국’은 무정명사이므로 ‘-에’를 쓰는 것이 옳다. ‘~ 당국에’
 ③ 필수성분의 생략. ‘인간은 현실을 지배하기도 하고 현실에 복종하기도 한다.’
 ④ ‘갈음하다’는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는 의미의 타동사다. 그러므로 목적어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기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를’ 갈음합니다.

35

①

해설 ‘성분 생략이 아닌 성분 실종으로 변질되어 비문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를 참조할 때 필수 성분을 생략하여 비문이 된 것을 찾으면 된다. 무엇을 따지고 의심스럽게 보고 검토해야 하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부당한 생략이다.

오답곡

- ② 호응이 잘못되었다.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수사 결과를 두고 볼 일이다.
 ③ 어휘를 잘못 사용했다. 토익 시험에 응시하실 분들은 학교에 원서를 제출하십시오.
 ④ 수식관계가 모호하다. 여름방학 숙제로 제출한 다솜이의 그림은 특이했다.
 ⑤ 중의성을 띤 문장이다. 함께 간 것인지 각각 간 것인지 알 수 없다.

36

③

해설 마음씨가 좋은 대상이 할머니인지 할머니의 손자인지 수식관계가 모호하다. ‘그는 마음씨가 좋은, 할머니의 손자이다’로 고치는 것이 옳다.

37

②

해설 ‘이용을 증진하여’의 호응을 고려했을 때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여 ~’로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오답곡

- ① ‘이바지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의 주어로 ‘사업자는’으로 쓰는 것이 옳다.
 ③ ‘통해서’의 의미이므로 ‘줄임으로써’의 꼴로 써야 한다.
 ④ 비교의 내용이 아니므로 ‘발전과’로 쓰는 것이 옳다.

38

①

오답곡

- ② 호응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비로소 대단원(大團圓)의 막을 내리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③ 호응이 바람직하지 않다. 세종에 대해 연구한 논문과 책만도 수백 권에 이른다.
 ④ 어휘를 잘못 사용했다. 추서(追敘)는 죽 뒤에 주는 것이다.
 → 강 교수님, 이번에 정년을 맞으시면서 훈장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39

②

오답곡

- ① 식물에는 ‘자생(自生)’으로 적어야 한다. 우리나라 토종 식물들의 자생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② 호응 관계의 서술어가 잘못되었다. 경기 침체로 빌라와 연립주택의 경매가 불물 터지듯 이루어지고 있다.
 ② 중심이 되는 주도적 역할은 ‘주인공’으로 적어야 한다. 자신을 밝히지 않고 남을 도와왔던 화제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40

③

오답곡

- ① 필수 성분의 생략이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자연에 복종하기도 한다.
 ② 이중 피동이다. 북극의 빙하는 수십 년 내에 없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④ 번역투의 문장이다. 교육부는 새 교과서를 편찬할 때 목표를 전인교육의 종실화에 두었다.

41

④

해설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는 '삼가다'로 적어야 한다. '삼가하다'라는 말은 없다.

오답록

- ① 사유지와 개인이 소유한다는 말이 중복되었다.
- ② 이곳은 처소의 개념이므로 처소격 조사인 '-에'로 적는 것이 옳다.
- ③ 법률이나 규칙 따위에 위반되거나 거슬림은 '抵觸(저촉)'으로 써야 한다.

42

③

오답록

- ① 필수 성분의 생략이다. 이 매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한류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② 필수 성분의 생략이다. 우리는 본 행사가 더 많은 국민들이 녹색 관광을 즐기고 이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④ 번역주의 문장이다. 우리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이 사업의 미래상에 대해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E B S 공 무 원 국 어 기 출 문 제 집

Chapter 11 고전문법

01

2018년 기출문제

01

④

해설 중세 국어의 주격에는 ‘ㅣ, 이, ø(제로 주격조사)’가 있다. ‘내’는 ‘ㅎ 종성 체언’으로 받침 ‘ㅎ’ 뒤에 주격조사 ‘이’가 쓰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어쓰기 해 ‘: 내·ㅎ’로 표기한 것이다.

미소록 주격조사

형태	환경	보기
ㅣ	‘ㅣ’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쓰임	부텨+이 → 부테 孔子 ㅣ
이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쓰임	사롭+이 → 사로미
ø	‘ㅣ’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쓰임(ㅣ + ㅣ = ㅣ)	불휘+ø→불휘(뿌리가)

02

②

해설 ‘-ѧ’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에 연결하는 어미로, 현대국어의 ‘-시어야’에 대응된다.

03

④

해설 ‘알+오+이+시+니’로 분석된다. 여기서 ‘-오-’는 사동접미사이며, ‘-이’ 또한 사동 접미사다. 현대어로 ‘알리다’, 즉 ‘알게 하다’의 의미로 사동으로 해석한다. ‘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니’는 종결어미이다.

오답록

- ① ‘아를 사람’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솔흘+이’의 ‘이’는 주격조사 아니라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다.
- ② ‘재촉하다’의 의미가 있는 ‘뵈야다’의 어간에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시-’전체를 선어말 어미로 봐서는 안 된다.
- ③ ‘-뒤’는 대립적인 사실을 잇는 데 쓰는 연결 어미로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가 아니다.

04

③

해설 끊어 적기를 한 예에 해당한다.

오답록

- ① ‘기픈’은 ‘깊’이라는 어간에 ‘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것을 이어적기 한 것이다.

② ‘부르매’는 ‘부 룸’이라는 명사에 ‘애’라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것을 이어적기 한 것이다.

④ ‘바르래’는 ‘부 률’이라는 명사에 ‘애’라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것을 이어적기 한 것이다.

05

④

해설

- ㄱ. 중세 국어의 받침 규정은 8종성이었다.
- ㄴ.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 글자를 그대로 다시 쓴 ‘종성부용초성’에 대한 설명이다. 세종은 초성 17자 종성 11자 총 28자를 만들었다.
- ㅁ. 연서법으로 ‘崩’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록

- ㄷ.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세종 당시의 우리의 현실음을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개신한 인위적인 한자음이다. 그런데 이 한자음 표기는 성종 초에 소멸하며, 『구급간이방(救急簡易方)』(1489)부터는 현실음화해 표기하게 된다.

→ 이 문제는 바람직한 출제가 아닌 것으로 사려된다. 왜냐하면 1489년 이후에 현실음을 썼으므로 중세국어 전체의 표기법이 아니라는 것으로 출제한 것인데, 그렇다면 ‘崩’은 세조(재위 1455~1468) 이후에는 소멸하게 된다. 위의 논리라면 이것 또한 중세국어 전체의 표기법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02

2017년 기출문제

06

③

해설 ‘솟불빗’에서 원순 모음화를 반영한 표기를 찾을 수 있다.

① 물잇출

② 붉기

- ④ 그믐밤의 보는 ~. 현대 국어에서 ‘의’는 관형격 조사로 사용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에’에 해당한다.

07

③

해설 ‘折’은 훈독이고 나머지는 모두 음독, 즉 음차에 해당한다.

미소록

현화가(獻花歌)

紫布岩乎过希(자포암호변희)

執音乎手母牛放教遣(집음호수모우방교견)

吾胎不喻慚盼伊賜等(오힐불유참힐이사등)

花盼折此可獻乎理音如(화힐절질가헌호리음여)

(* 밑줄은 음독)

검은 바위 가에

암소 잡은 손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시면

꽃을 꺾어 바치겠나이다.

08

④

해설 '봉'은 훈민정음 28자에 속하지 않았다.

미소록 훈민정음의 제자원리

(1) 초성의 제자 원리

훈민정음의 자음은 먼저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기본자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글자들을 만들어 나갔다. 가획은 원래의 글자에 획을 더하여 만든 것이다.

五 音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이음(牙音)	ㄱ	ㅋ	ㆁ
설음(舌音)	ㄴ	ㄷ → ㅌ	ㄹ(반설음)
순음(脣音)	ㅁ	ㅂ → ㅍ	
치음(齒音)	ㅅ	ㅈ → ㅊ	ㅿ(반치음)
후음(喉音)	ㅇ	ㅎ → ㅎ	

(2) 중성의 제자 원리

천(天)·지(地)·인(人)이라는 삼재(三才)를 상형하여 기본자를 만들고 이를 조합한 합용의 원리에 따라 初出 4자와 再出 4자를 만들었다.

기본자	제자 원리	초출자 (初出字)	재출자 (再出字)
.	하늘의 둥근 모양(形之圓 家乎天也) - 혀를 오므림(소리가 깊음)	ㅗ, ㅏ	ㅕ, ㅑ
-	땅의 평평한 모양(形之平 家乎地也) - 혀를 조금 오므림(소리가 깊지도 얕지도 않음)	ㅜ, ㅓ	ㅠ, ㅓ
	사람의 서 있는 모양(形之立 家乎人也) - 혀를 안 오므림(소리가 얕음)		

09

④

해설 '봉'은 초성 17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10

①

오답록

- ② 주격 조사 '가'는 16세기 중반부터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 ③ 16세기 중·후반부터 음자가 동요되기 시작하여,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으로 완전히 표기하지 않게 되었다.
- ④ 15세기 중반까지 사용되다가 'ㅗ/ㅜ'로 변하게 된다.

11

②

중세국어까지는 일반적인 과거형은 그냥 동사의 기본형을 썼다. 다만 회상의 의미일 때만 '-더'를 썼다. 근대국어에 와서 현재와 과거가 구별되는 시제의 확립이 이루어졌다.

오답록

- ① 1920년 대 김동인이 언문일치를 완성했다.
- ③ '봉'은 세조 이후에 '△'은 임진왜란 직후에 없어진다.
- ④ 중세국어에서는 물음말의 유무나 2인칭 주어에 따라 판정과 설명 의문문으로 구별해 사용했다.

형태	조건	보기
'-야'형	물음말이 없는 경우	이논 賞가 罷야(이것은 상인가 벌인가?)
'-오'형	물음말이 있는 경우	네 범돌히 이제 어드 잇느뇨(네 친구들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ㄴ다'형	주어가 2인칭인 경우	네 엇데 안다(네가 어찌 아느냐?)

12

④

중세국어의 주격조사에는 'ㅣ, い, օ(제로주격)'이 있었다. 처소격 조사로 '애, 예, 예' 등이 있었고, '우희' 등에서 보듯이 '의, 의' 등도 있었다.

오답록

- ① '定호산'에서는 '-오/우'의 형태를 찾을 수 없다.
- ② '-니잇기'를 판정의문문, '-니잇고'는 설명의문문에 상용한다.
- ③ '·님·금·하'에서 '·님·금'은 'ㅎ' 종성 체언이 아니다. 중세 국어에 호격 조사는 높임명사 뒤에 '하', 일반 명사 뒤에는 '야'나 '야'를 썼다. 'ㅎ' 종성 체언' 다음에 썼다는 것은 옳지 않다.

13

①

중세국어의 특징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된다. '늬'와 '귀'가 단모음화된 것은 임진왜란 직후부터 19세기 말까지를 일컫는 근대국어 시기에 일어난 것이다.

• 釋譜詳節(석보상절): 세종 29년에 소현 왕후 심 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은 부처의 일대기

오답록

- ② 병서 규정에 따라 규칙적으로 사용되었다.
- ③ 16세기 중반부터 '가'가 쓰이기 시작한다.
- ④ '·'의 음자가 살아있어 모음조화가 엄격히 지켜졌다.

14

③

근대 국어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15

③

해설 (이태조) 위학도에서 물으실 때, 큰 비가 사흘이나 계속 되어, 섬이 화군한 뒤에야 온 섬이 물속에 잠기었습니다.: '자싫'은 '머물다(묵다)'의 높임말로 쓰인 것으로 '자다'와는 상관이 없다.

오답록

- ① 태자가 도리를 이루시어 자신을 자비하라 하시니: 태자를 가리키는 대명사
- ② 그 후로 인간의 음식은 못 잡수시며: '먹다'의 높임말
- ④ 꽃과 과실과 풀과 나무를 먹을 이도 있으시며: 머그리(먹을 이)를 높이는 말이다.

03

2016년 기출문제

16

③

해설 석독의 예를 찾으면 된다. 한자어 '大田'을 석독해서 '한밭'이라 읽은 것이 석독의 예가 된다.

오답록

- 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 ② 사천(沙川)을 석독한 것이 '모래내'다.
- ④ 제시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다.

17

③

해설 주격조사 '가'는 15세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문헌상 16세기 중반부터 '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오답록

- ① 고려 말에 관직, 군사에 관한 어휘를 비롯하여, 말과 매, 그리고 음식에 관한 단어들이 몽골 어에서 들어왔다.
- 예 말 ('馬'의 뜻), 가리말 [「黑馬」 - qara (검다)+말], 구령말 ('밤색 말'의 뜻), 매 ('鷹'의 뜻), 보라 [매 -boro+매], 송골 (매의 일종), 수라 [söh(湯), 임금에게 올리는 밥]
- ② 중세 국어의 '·'가 소실되면서 '·'와 '—'의 대립이 없어졌고, 이에 따라 모음조화가 봉괴되었다. 즉 현대국어보다 중세국어가 모음조화에 더 엄격했다.
- ④ 중종 때의 역관(譯官)이었던 최세진의 저서인 『훈몽자회』에서 처음으로 자모의 명칭이 제시되었는데 현재의 명칭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때 명명한 것이다.

18

④

오답록

- ① 'ㄴ'에 해당한다.[舌音ㄴ象舌附上腭之形(상설부상악지형)]
- ② 'ㄹ'은 설음의 이체자에 해당한다. 가획의 원리로는 'ㅋ, ㄷ, ㅌ, ㅂ, ㅍ, ㅈ, ㅊ, ㅎ'총 9개의 문자를 만들었다.

③ • 초성 17자

五音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아음(牙音)	ㄱ	ㅋ	ㆁ
설음(舌音)	ㄴ	ㄷ → ㅌ	ㄴ(반설음)
순음(脣音)	ㅁ	ㅂ → ㅍ	
치음(齒音)	ㅅ	ㅈ → ㅊ	ㅅ(반치음)
후음(喉音)	ㅇ	ㅎ → ㅎ	

• 중성자 11자

기본자	제자 원리	초출자 (初出字)	재출자 (再出字)
.	하늘의 둑근 모양(形之圓) 家乎天也) - 혀를 오므림(소리가 깊음)	느, ㅏ	ㄴ, ㅑ
-	땅의 평평한 모양(形之平) 家乎地也) - 혀를 조금 오므림(소리가 깊지도 얕지도 않음)	탸, ㅓ	탸, ㅓ
	사람의 서 있는 모양(形之立) 家乎人也) - 혀를 안 오므림(소리가 얕음)		

19

④

해설 나. 초성자의 기본자는 'ㄱ, ㄴ, ㅁ, ㅅ, ㅇ'이다.
다. 중성자의 기본자는 '탸(천), 地(지), 人(인)'을 상형하여 창제하였다.
마. 'ㅠ', 'ㄸ', 'ㅃ'처럼 글자를 나란히 쓰는 방식을 각자병서라고 한다.

20

②

해설 세종어제(世宗御製) 서문(序文)과 한글의 제작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은 국보 제70호로 지정돼 있으며, 이것은 1997년 10월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록됐다. 즉 "훈민정음 해례본"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 아닌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해당한다.

미소록

- 기록문화유산: 훈민정음(1997), 조선왕조실록(1997), 직지심체요절(2001), 승정원 일기(2001), 조선왕조의궤(2007),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 동의보감(2009), 일성록(2011),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2011)
- 지정 세계문화유산: 창덕궁(1997), 수원화성(1997), 석굴암·불국사(1995), 해인사 장경판전(1995), 종묘(1995), 경주역사 유적 지구(2000), 고인돌 유적(2000), 조선시대 왕릉 40기(2009), 안동 하회마을·경주 양동마을(2010)
- 『훈민정음언해』에서, 중국음의 잇소리[齒聲]는 치두음(齒頭音)과 정치음(正齒音)의 구별이 있다 했다. 치두음은 혀끝이 윗 이마리(아끝)에

닫고, 정치음은 아랫 이들[齒槽]에 닫는다고 했다. 표기는 치음 ‘ㅅ, ㅆ, ㅈ, ㅉ, ㅊ’의 왼쪽과 오른쪽 획의 길이를 다르게 해서 구별했다.

- 치두음(齒頭音): 혀끝을 윗니 뒤에 가까이 하고 내는 치음으로 중국어 따위에 있다.
- 정치음(正齒音): 중국어에서, 혀를 말아 아래 잇몸에 가까이 하고 내는 치음의 하나다.
- 종류

치음(齒音)	ㅅ	ㅆ	ㅈ	ㅉ	ㅊ
치두음(齒頭音)	ㅅ	ㅆ	ㅈ	ㅉ	ㅊ
정치음(正齒音)	ㅅ	ㅆ	ㅈ	ㅉ	ㅊ

21

(3)

해설 주격조사 '가'는 15세기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16세기 중반부터 문현상에 나타난다.

- ① • 봉: 15세기 중엽인 세조 이후에 사라진다.
- △: 16세기 말엽 임진왜란 이후에 사라진다.
- ② 고려건국부터 임진왜란(16세기 말)까지의 국어를 중세국어라 한다.
- ④ '말, 매, 음식'과 관련된 어휘들이 많이 유입된다.

22

(1)

해설 ⑦의 '남^ㅎ'은 '나모+'(대조보조사)'의 구조로 이루어졌다. '나모'는 모음으로 된 조사 앞에서는 끝 모음이 탈락하고 그이 덧생기는 체언이다. 주격 조사가 아니라 보조사를 만나로 표현해야 한다.

【오답곡】

- ② '꽃'은 중성부용추성에 따른 받침 표기이며,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당시의 8중성법에서 벗어난 표기다.
- ③ '굿모래'는 '굿(명사)+애(원인 부사격조사)'의 구조이다. '가물'의 옛 형태인 '굿물'을 볼 수 있다.
- ④ '내^ㅎ(ㅎ받침체언)+이(주격조사)'의 구조이다. '내^ㅎ'은 'ㅎ 받침 체언'인데, 이는 체언 중에는 모음과 그 시작의 조사가 결합할 때 ㅎ이 나타나는 체언이다. 만약 조사가 결합하지 않는다면 ㅎ이 나타나지 않아 '내'로 표기하게 된다.

23

(3)

해설 '갓조로'는 '가죽으로'로 해석해야 한다.

"자식이 혼자 밥을 먹게 되면 가르치되 오른손으로 먹게 하며, 밀을 할 때는 남자는 빨리(씩씩하게) 대답하고 여자는 천천히(부드럽게) 대답하며, 남자의 떠는 가죽으로 하고 여자의 떠는 실로 할 것이니리."

24

(3)

해설 훈민정을 일상어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재료나 도구, 수단을 이용하다.'는 뜻의 말을 사용한 ③이 옳다.

【오답곡】

- ① 머릿속의 생각을 종이 혹은 이와 유사한 대상 따위에 글로 나타낸다.
- ② 어떤 일에 마음이나 관심을 기울이다.
- ④ 시체를 묻고 무덤을 만들다.
- ⑤ 장기나 윷놀이 따위에서 말을 규정대로 옮겨 놓다.

25

(1)

해설 '훈차'한 것이다. 나머지는 음차다.

【미소록】

善化公主	主隱	善化公主(선화공주)니믄
他密	只嫁良置古	놈 그스지 얼어 두고
薯童房乙		맞둥바
夜矣印乙抱遣去如		바위 몰 안고 가다.

(※ · 은 음독자)

26

(2)

해설 '入'은 훈차 나머지는 음차에 해당한다.

【미소록】

(가) 혁거세왕(赫居世王)이라고 이름하고 이는 필경 흉언(鄉言)일 것이다. 혹은 불구내왕(弗矩內王)이라고도 하니 밖에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 훈차: 赫(혁)-붉은 혁
居(거)-있을 거
世(세)-세상 세
- 음차: 弗矩[불구- 불 ぐ(붉은)]
内[내- 누(누리/세상)]

(나) 東京明期月良	동경명기월량	서울 밝은 달에
夜入伊遊行如可	야입이유행여가	밤들이 노니다가
入良沙寢矣昆	이랑사침의견곤	들어 와 잠 자리를 보니
脚烏伊四是良羅	각오이사사랑라	가랑이가 넷이도다.
二脫隱吾下於必不可少	이힐은오하여언고	둘은 나의 것이었고
二脫隱誰支下焉古	이힐은수지하언고	둘은 누구의 것인가?
本矣吾下是如馬於隱	본의오하시여마어은	본디 내 것이지마는
奪叱良乙何如爲理古	탈질량을하여위리고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 맙출은 음차)

05 2015년 기출문제

27

③

해설 자음자를 나란히 쓰는 것을 말한다. 같은 자음을 나란히 쓰는 각자병서와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쓰는 합용병서가 있다.
“·첫소·리·률·어·울·워·뚫·디·면·꼴·방·쓰·라·냉·終중·고·리·도·호·가·지·라.”

28

②

해설 ‘ㄴ’에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여 ‘ㄷ’, ‘ㅌ’을 만들었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긱, 띠, 뻔, 쇄, 짜, ㅎㅎ’ 같은 병서(竝書)로 된 글자들은 훈민정음의 초성 체계 17자인 기본자-기획자-이체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9

②

해설 훈민정음 17자에는 전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30

④

해설 ‘어디’의 뜻인 ‘어드러’라는 물음말이 있어서 ‘든단 말고’로 표기해야 한다.

미소록 중세의 의문문

형태	조건	보기
‘-아’형	물음말이 없는 경우	이느 賞가 罷아(이것은 상인가 벌인가?)
‘-오’형	물음말이 있는 경우	네 벌돌하 이제 어듸 잇뇨뇨(네 친구들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ㄴ다’형	주어가 2인칭인 경우	네 엇데 안다(네가 어찌 아느냐?)

31

④

해설 중세 국어에서 ‘호시느니’처럼 종결형이 ‘-니’로 끝나거나 ‘-리’로 끝나면 ‘반말체’의 종결어미다. 부처께 마쳐 무엇하려 하시는지

오답록

- ① ‘흐리체’의 평서형 종결 어미는 주로 ‘-다’, ‘-라’로 끝난다.
- ② ‘흐야씨체’는 듣는 이를 보통으로 높이거나 낮추는 예사 높임으로, 평서형 종결어미는 ‘-잉다’. 명령형 종결 어미는 ‘-아씨/-어씨’로, 의문형 종결어미는 ‘-닛가’로 끝난다.

E B S 공 무 원 국 어 기 출 문 제 집

Chapter 12 높임법 · 언어예절

01 2019년 기출문제

01 ②

- 해설** ‘당신’은 ‘할아버지’를 가리키는 재귀대명사로 3인칭이다.
오답곡
- ① ‘말씀’은 높임과 낮춤으로 모두 쓸 수 있다. 여기서 ‘말씀’은 자신의 말을 공손하게 가리키는 것으로 옳다.
 - ③ ‘나라’에는 낮춤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로 적는 것이 옳다.
 - ④ 사물은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건 만 원입니다.”, “품절입니다.”로 써야 한다.

02 ④

- 해설** 할머니는 높일 수 있지만 ‘할머니의 유지’를 높일 수는 없다. ‘할머니의 유지가 이곳에 머물러 있습니다.’로 적는 것이 옳다.

03 ③

- 해설** 하셨습니다(대화의 상대), 어머니께서(서술어의 주체), 아주머니께(서술어의 객체)
오답곡
- ① 아버지께서(서술어의 주체), 할머니를(서술어의 객체)
 - ② 될까요(대화의 상대), 어머니께(서술어의 객체)
 - ④ 바랍니다(대화의 상대), 주민 여러분께서는(서술어의 주체)

04 ④

- 해설** 주체 높임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객체 높임에 해당한다.

02 2018년 기출문제

05 ④

- 해설** 이 대리는 현재 직책은 박 과장보다 낮지만 나이나 기타 인간 관계에서는 윗사람임을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래서 박 과장은 부서 밖에서 우리들끼리(상황)는 편하게 말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상황에 따른 존대 방식’을 고려했다가 적절하다.

06 ①

- 해설** 주체인 부장님과 관련이 있는 따님에 대한 높임법으로 직접높임이 아닌 간접높임이 적절하다. 그리고 웃어른에게는 집이 아닌 ‘댁’을 써야 한다. → 부장님의 따님은 댁에 있으신가요?

07 ②

- 해설** 바쁜지 바쁘지 않은지를 물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직접적 표현이 아니라 간접적 표현에 해당한다.

03 2017년 기출문제

08 ③

- 해설** 남편의 누나는 ‘형님’이라고 불러야 한다.

오답곡

- ① 아주버님
- ② 아비, 아범, 그이
- ④ 처, 아내, 집사람

09 ④

- 해설** 은 주체와 상대를 높인 말이다. 객체 높임은 사용하지 않았다.

10 ③

- 해설** ‘선친’은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에게 쓰는 칭호이다. 돌아가신 분의 칠순 친자는 없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자신의 아버지를 칭하는 ‘가친(家親)’ 또는 ‘엄친(嚴親)’ 등을 쓰는 것이 옳다.

11 ②

- 해설** 전화를 끊으면서 “들어가세요.”라는 인사도 많이 하지만 이 말은 명령형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쓰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즉 옳은 표현이 아니다.

12

③

해설 친구의 아버지는 '아버님/00 아버님/어르신' 정도가 무난하다. 친구의 아버지를 직함인 '과장님'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이것은 호칭어를 잘못 사용한 것으로 젊은 세대가 어른에게 존대법을 잘못 쓴 예는 아니다.

13

④

- 해설**
- ① 교수님, 연구실에서 교수님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의 직접 높임말인 '뵙다'를 사용해야 한다.
 - ② 큰아버지, 오늘 약주를 많이 드셨는데, 제가 맥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집'의 직접 높임말인 '택'을 써야 한다.
 - ③ 김 과장님, 부장님께서 빨리 오라시는데 오후에 시간 있으십니까?: 부장님은 과장보다 높기 때문에 '오라시는데'로 적어야 하며, 김 과장의 시간을 물고 있으므로 '있다'의 간접높임인 '있으시다'를 쓰는 것이 옳다.

14

④

해설 상대방의 칭찬에 유진이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자신을 낮추고 있다. '겸양의 격률'에 해당한다.

15

③

해설 下鑑(하감): 아랫사람이 올린 글을 윗사람이 봄.

오답록

- ① 편지글에서 평교간(나이가 서로 비슷한 벗 사이)에 상대를 높여 이를 때에 '仁兄(인형)'은 적절한 쓰임이다.
- ② 남이 자신의 글이나 그림 따위를 보아 줌을 높여 이를 때에 '清覽(청람)'은 적절한 쓰임이다.
- ④ 남의 부모를 높여 이를 때에 '高堂(고당)'은 적절한 쓰임이다.
- ⑤ 남의 어머니를 높이거나 남의 집이나 집안을 높여 이를 때에 '尊堂(존당)'은 적절한 쓰임이다.

16

④

오답록

- ① 객체 높임이 없다.
- ② 객체 높임이 없다.
- ③ 주체 높임이 없다.

17

①

해설 객체인 선생님만 높이고 있으므로 [주체-], [객체+], [상대-]가 옳다.

18

④

해설 '-구려'는 '하오체' 나머지는 '하게체'다.

미소록 -구려

• '이다'의 어간,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하오할 자리에 쓰여,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흔히 감탄의 뜻이 수반된다.

• 어느덧 벚꽃이 다 지는구려.

• 동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뒤에 붙어 하오할 자리에 쓰여, 상대에게 권하는 태도로 시키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더 늦으면 어두워질 테니 어서 가구려.

19

②

해설 주인의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혜택은 최대화한 표현이다.

04

2016년 기출문제

20

②

해설 '할머니'라는 목적어를 높인 '객체 높임법'이다.

객체높임법: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여 표현하는 높임법이다.

오답록

- ① 높임의 정도에 따른 분류다.
- ③ 상대(청자) 높임에 대한 설명이다.
- ④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에 대한 설명이다.

21

①

해설 아닌데요,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에서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잘못 거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전화도 제대로 못 거나는 느낌이 들어 전화 건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22

①

오답록

- ② 고객님, 주문하신 물건이 나왔습니다.
- ③ 어른들이 물자 안절부절못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 ④ 이어서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23

②

해설 ‘말씀’은 ‘남의 말을 높이는 경우’와 ‘자기의 말을 낮추는 경우’에 모두 쓸 수 있다.

오답록

① 소개해.

‘하다’를 써서 충분한 경우에 굳이 ‘시키다’를 쓸 필요는 없다.

③ 여간한 성의가 아니네요.

‘여간한’은 부정어와 어울리는 말이다.

④ ‘추서(追敘)’는 죽은 뒤에 권등을 올리거나 훈장 따위를 주는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여 사회 전체의 귀감이 된 사람, 생전에 큰 공을 세워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덕망을 갖춘 사람에게 준다.

28

④

해설 남편의 누나라면 ‘형님’ 누이동생이라면 ‘아가씨’ 또는 ‘아기씨’라 해야 한다.

29

④

해설 결혼한 남편의 동생은 ‘서방님’으로 불러야 한다. ‘도련님’은 결혼하지 않은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다.

05

2015년 기출문제

24

②

해설 ‘바깥어른’ 또는 그 남편의 직책을 부르는 것이 옳다. ‘사부(師夫)님’은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이르는 말이다. 물론 ‘사부(師父)님’은 스승을 부르는 말이 된다.

25

②

해설 물어. ‘여쭈다’는 웃어른에게 말씀을 올릴 때 쓴다. 자신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26

②

해설 ‘말씀’은 높임과 낮춤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어휘다. 자신의 말을 낮춰 ‘말씀’으로 썼으므로 적절한 표현이다.

① 집의 높임말은 ‘댁’이다. ‘할아버지께서 이제야 댁에 가시는군요.’

③ 3인칭 ‘당신’을 높여야 하므로 용언에 ‘-시’를 넣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생전에 당신께서 가장 아끼시던 벼루입니다.’

④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사장님은 자신보다 윗사람이므로 높이는 것이 옳다. ‘저희 사장님’이 범기를 청한 이유는 고견을 듣기 위함이십니다.

27

②

해설

① 상대방이 다수가 아니라 개인이므로 많이 참석해 달라는 것은 옳지 않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꼴로 적는 것이 옳다.

③ 상품을 높일 수는 없다. ‘주문하신 상품은 현재 품절입니다.’

④ ‘국가’나 ‘거례’는 낮춤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로 적어야 한다.

E B S 공 무 원 국 어 기 출 문 제 집

E B S 공무원 국어 기출문제집

P a r t

02

바른 실용국어

Chapter 01 어휘와 관용구

01

2019년 기출문제

01

③

해설

안다미로: 담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

02

④

해설

시력의 의미를 찾으면 된다.

오답곡

- ① 감각기관
- ② 판단하는 힘
- ③ 표정

03

①

해설

‘성공’과 ‘실패’는 방향성이 없는 대립쌍이다. 중간항이 없는 반의어라 할 수 있다.

04

③

해설

◎: 어렸을 때 배운 노래 한 구절이 머릿속에 아직도 살아 있다. ‘웃에 풀기가 아직 살아 있다.’에서 ‘살다’는 ‘성질이 남아 있다’의 의미다.

05

④

해설

지문에서 주어가 ‘풍자와 해학’이므로 문맥상 ⑦은 ‘골계’가 된다. 그리고 깨뜨리는 것(부정, 모순)에 집중하는 것은 ‘풍자’라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 지닌 궁정에 관심을 집중하는 ⑩은 ‘해학’이 된다.

미소록

- 골계(滑稽): 악살을 부리는 가운데 어떤 교훈을 주는 일
- 풍자(諷刺): 문학 작품 따위에서,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 비웃으면서 씀
- 해학(諧謔):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

06

②

해설

‘말미’는 일정한 직업이나 일 따위에 매인 사람이 다른 일로 말미암아 얻는 거를로 한자어 ‘休暇(휴가)’와 공존하며 경쟁하고 있는 동의어다.

07

③

해설 서로 관계되는 두 실체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상대 관계 (상대 반의어)에 해당한다.

08

③

해설

人生七十古來稀 (인생칠십고래희)

미소록

朝回日日典春衣	(조회일일전춘의)
每日江頭盡醉歸	(매일강두진취귀)
酒債尋常行處有	(주채심상행처유)
人生七十古來稀	(인생칠십고래희)
穿花蛱蝶深深見	(천화협접심심견)
點水蜻蜓款款飛	(점수청정관관비)
傳語風光共流轉	(전어풍광공류전)
暫時相賞莫相違	(잠시상상막상위)

09

②

해설

‘한국인(韓國人)’의 ‘-인’은 사람의 뜻을 지닌 접미사다.

오답곡

- ① 늘이다 길게, 내려오다 산에서
- ③ 우(友)와 대(大)는 비자립적 어근이다.
- ④ ‘時時刻刻, 明明白白’은 ‘時刻’과 ‘明白’의 반복이므로 고유어라면 ‘時刻時刻, 明白明白’의 반복 합성어가 된다.

02

2018년 기출문제

10

②

해설

두름: 조기 따위의 물고기를 짚으로 한 줄에 열 마리씩 두 줄로 엮은 것.

11

①

해설 소기(所期)의: 기대하는 바의**오답곡**

- ② 이자(利子)를: 길미를
 ③ 상신(上申)하여: 올려, 여쭤
 ④ 양자(量知)하시기: 추측하여 알기

12

①

해설 표명하다: 의사나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다.

13

③

해설 깊다: 수준이 높거나 정도가 심하다. (가볍다: 병세나 상처 따위가 그다지 심하지 않다.)**오답곡**

- ① 어둠이나 안개 따위가 자욱하고 빽빽하다.(옅다: 안개나 연기 따위가 약간 끼어 있다.)
 ② 생각이 들풀고 신중하다(가볍다: 생각이나 언어, 행동이 침착하지 못하거나 진득하지 못하다.)
 ④ 시간이 오래다(짧다: 이어지는 시간상의 한 때에서 다른 때까지의 동안이 오래지 않다.)

14

②

해설 걸다: 앞으로의 일에 대한 희망 따위를 품거나 기대하다.**오답곡**

- ① 목숨, 명예 따위를 담보로 삼거나 희생할 각오를 하다.
 ③ 목숨, 명예 따위를 담보로 삼거나 희생할 각오를 하다.
 ④ 목숨, 명예 따위를 담보로 삼거나 희생할 각오를 하다.

15

④

해설 짚다: 여럿 중에 하나를 꼭 집어 가리키다.**오답곡**

- ① 손으로 이마나 머리 따위를 가볍게 눌러 대다.
 ② 바닥이나 벽, 지팡이 따위에 몸을 의지하다.
 ③ 상황을 해아려 어떠할 것으로 짐작하다.

16

④

해설 르. 어떤 말이나 언어를 사용하다.

ㅂ. 어떤 일을 하는 데 시간이나 돈을 들이다.

→ 르과 ㅂ은 하나의 어원을 가진 말로 다의어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음은 같지만 어원이 다른 동음이의어이다.

오답곡

- ㄱ. 봇, 펜, 연필과 같이 선을 그을 수 있는 도구로 종이 따위에 획을 그어서 일정한 글자의 모양이 이루어지게 하다.
 ㄴ. 사람이 죄나 누명 따위를 가지거나 입게 되다.
 ㄷ. 시체를 묻고 무덤을 만들다.
 ㅁ. 몸이 좋지 않아서 입맛이 없다.

17

②

해설 ①은 자신의 말을 낮춰 쓴 것이다. 나머지는 타인의 말을 높여 쓴 것이다.

18

③

해설 들보와 서까래가 다 썩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라를 바로잡을 방도가 없다는 것을 전체 글의 흐름 상 옳지 않다.

19

①

해설 '크다/작다'는 '크지도 작지도 않다'처럼 양극에 속하는 두 의미를 모두 부정해도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 대립 관계의 단어, 즉 정도 반의어(등급 반의어, 반대 관계)다.**오답곡**

- ② '출발/도착'은 '출발하지 않았다'가 반드시 '도착'이 되지 않고, '도착하지 않았다'가 반드시 '출발'이 되지 않는 반의어, 즉 방향(상관) 반의어다.

③ '참/거짓'은 양립이 불가능한 의미의 대립으로 '참'이 아니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아니면 '참'이 되는 반의어, 즉 상보 반의어다. 이것은 한 단어의 긍정적인 면이 다른 단어의 부정적인 면을 힘의한다.

④ '넓다/좁다'는 '넓지 않다'는 '좁다'가 되고, '좁지 않다'는 '넓다'가 되는 것으로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쪽 단어의 부정을 힘의한다. 양극에 속하는 두 의미를 모두 부정해도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 대립 관계의 단어, 즉 정도 반의어(등급 반의어, 반대 관계)다.

20

④

해설 갈다: 『북한어』목 안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목에 힘을 준다.**오답곡**

갈다: 이미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다.

예 고장 난 전등을 빼고 새것으로 갈아 끼웠다

21

②

해설 '이어라'는 '저어라'는 의미의 여음구다.

22

④

해설 문맥상 봄의 절기에 해당한다. 봄의 절기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입춘-우수-경칩-춘분-청명-곡우'가 된다. 이 절기의 순서에 맞는 것은 '경칩-청명'이다.

23

②

해설

- ① 62세-진갑(進甲). 화갑(華甲)-61세
- ③ 88세-미수(米壽)
- ④ 99세-백수(白壽)

24

①

해설 '삼각산(三角山)'은 북한산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왕산'은 종로구와 서대문구 사이에 있는 산으로 '삼각산'과 관련이 없다.

25

④

해설 김승옥의 '무진기행'의 일부다. 안개로 가득 찬 무진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현대인의 고독과 혼돈 의식을 드러낸 작품이다. 이 작품의 안개는 주인공의 나약하고 우수에 찬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

26

③

해설 '뽑아낼'로 바꾸는 것이 옳다.

27

④

해설

- ⑦ 추임새: 흉을 돋우려는 고수, 청중의 탄성을 말한다.
- ⑮ 소리(창): 소리, 곡조가 있는 부분으로 일정한 곡조에 맞추어 노래를 하는 것인데, 판소리의 연행(演行)의 핵심이다.
- ⑯ 아니리(사설): 곡조가 없는 사설, 이야기 부분으로 창과 창 사이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엮어나가는 부분이다. '장면 변화'나 '정경 변화'의 묘사 등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사건의 진행을 도우며, 광대가 숨을 돌리는 역할을 한다.
- ⑰ 발림(너름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무용적 동작, 즉 연기(演技)를 말한다.

28

③

해설 문맥상 ⑦에는 '갈등'이 적절하다. 그리고 정치적 결정을 위한 의논의 문제를 의미하는 말이 ⑮에 들어가면 된다. 회의에서 의논할 문제라는 의미를 지닌 '의제(議題)'가 적절하다.

29

④

오답록

- ① 모골(毛骨), 송연(悚然/竦然)하다
- ② 도대체(都大體)
- ③ 매사(每事), 임(臨)하다

30

②

해설 첫 문장의 핵심적인 어휘는 '이론의 세계와 경험의 세계'다. 세 번째 문장에서 경험의 세계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둘째 문장은 '이론(⑦)'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현실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이므로 이론과 경험 특히 경험을 반영하지 못하면 현실(⑦)과 유리되게 된다.

31

④

해설 중간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있는 대조다.

32

①

- 나수라 오소이다: 밤치러 옵니다.

33

②

해설 무릉도원(武陵桃源)은 '낙원'을 의미한다.

34

③

- 물도 가다 구비를 친다: 사람의 한평생에는 전환기가 있기 마련이라는 말.

오답록

- ① 달도 차면 기운다: 세상의 온갖 것이 한번 번성하면 다시 쇠하기 마련이라는 말. (≠그릇도 차면 넘친다 · 달이 둥글면 이지러지고 그릇이 차면 넘친다)
- ② 열흘 붉은 꽃이 없다: 부귀영화란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한때가 지나면 그만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봄꽃도 한때)
- ④ 꽃이 사들면 오던 나비도 안 온다: 사람이 세도가 좋을 때는 늘 찾아오다가 그 처지가 보잘것없게 되면 찾아오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깊던 물이라도 얕아지면 오던 고기도 아니 온다. 꽃이라도 십일홍(十日紅)이 되면 오던 봉접도 아니 온다. 나무라도 고목이 되면 오던 새도 아니 온다)

03 2017년 기출문제

35

(4)

해설 재원(諸元): 기계류의 치수나 무게 따위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數的) 지표

오답록

- ① 괘념(掛念): 마음에 두고 걱정하거나 잊지 않음
- ② 밸췌(拔萃): 책, 글 따위에서 필요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가려 뽑아냄 또는 그런 내용
- ③ 와해(瓦解): 기와가 깨진다는 뜻으로, 조직이나 계획 따위가 산산이 무너지고 흩어짐을 이르는 말

36

(4)

해설

- 취소하기로: 발표한 의사를 거두어들이거나 예정된 일을 없애 버리다.
- 연기되었다: 정해진 기한이 뒤로 물려져서 늘려지다.

비교

- 지연하다: 무슨 일을 더디게 끌어 시간을 늦추다.
- 연장되다: 시간이나 거리 따위가 본래보다 길게 늘어나다.

37

(2)

해설 ‘苦笑(고소)’는 어이가 없거나 마지못하여 짓는 웃음을 말한다. ‘비웃음’은 ‘諷笑(비소)’나 ‘嘲笑(조소)’라 한다.

- 비웃음: 흉을 보듯이 빙정거리거나 업신여기는 일. 또는 그렇게 웃는 웃음. ≈ 비소(諷笑) · 조소(嘲笑).

38

(4)

해설

- 빽빽이: 사이가 촘촘하게.
- 무성히: 풀이나 나무 따위가 자라서 우거져 있는 상태로.
- 자못: 생각보다 매우.
- 워낙에: 본디부터.

39

(1)

해설 시망스럽다: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

40

(2)

해설 무림없다: 예의를 지키지 않으며 삼가고 조심하는 것이 없다.

41

(2)

해설 굽적대다(눅굽적거리다): 몸이 둔하고 느리게 자꾸 움직이다. 또는 몸을 둔하고 느리게 자꾸 움직이다.

비교 금실대다(눅금실거리다): 느리고 폭이 넓게 자꾸 물결치다.

42

(3)

해설 춥춥스럽다: 보기에 너절하고 염치없는 데가 있다.

43

(5)

해설

- 갓모: 사기그릇을 만드는 돌림판의 밑구멍에 끼우는, 사기로 된 고리
- 갈모: 예전에, 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어 쓰던 고깔과 비슷하게 생긴 물건. 비에 젖지 않도록 기름종이로 만들었다

44

(4)

해설

- 쌈: 바늘 24개
 - 제: 탕약 20첩
 - 거리: 오이나 가지 50개
- 24+20+50 = 94

45

(3)

해설

- 괴란쩍다: 얼굴이 붉어지도록 부끄러운 느낌이 있다
- 뜨악하다: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아 꺼림칙하고 싫다

46

(3)

해설 불편부당(不偏不黨): 아주 공평하여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음. ‘공정함’, ‘편들지 않음’으로 순화.

오답록

- ① 부자: ‘갑부’는 첫째가는 부자로 3위에 쓸 수는 없다.
- ② 슬픔: ‘애환’은 슬픔과 기쁨이라는 뜻으로 ‘기쁨’을 위로한다는 것을 옳지 않다.
- ④ 인재: ‘재원’은 젊고 재주 많은 여자에게만 쓸 수 있다. 사위에 쓸 수 없는 말이다.

47

(1)

해설

- 혼돈(混沌/渾沌): 마구 뒤섞여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음. 또는 그런 상태.
- 지양(止揚):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함.
- 개발(開發): 토지나 천연자원 따위를 유용하게 만듦.

48

③

해설

- 확고(確固): 태도나 상황 따위가 튼튼하고 굳음
- 소멸(消滅): 사라져 없어짐
- 곤혹(困惑): 곤란한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

오답록

- 건실(健實): 생각, 태도 따위가 건전하고 착실함
- 소거(消去): 글자나 그림 따위가 지워짐. 또는 그것을 지워 없앰
- 곤욕(困辱): 심한 모욕. 또는 참기 힘든 일
- 견고(堅固): 굳고 단단함
- 소실(消失): 사라져 없어짐. 또는 그렇게 잃어버림
- 혼곤(昏困): 정신이 흐릿하고 고달픔
- 확실(確實): 틀림없이 그려함
- 소진(消盡): 점점 줄어들어 다 없어짐. 또는 다 써서 없앰

49

③

해설 고치다: 고장이 나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손질하여 제대로 되게 하다.

오답록

- ① 본디의 것을 손질하여 다른 것이 되게 하다.
- ② 이름, 제도 따위를 바꾸다.
- ④ 이름, 제도 따위를 바꾸다.

50

②

해설 소리는 같지만 완전히 어원이 다른 '동음어(동음이의어)'를 찾으면 된다. 나머지는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다의어'에 해당한다.

- 다리[脚(각)]: 물체의 아래쪽에 붙어서 그 물체를 받치거나 직접 땅에 닿지 아니하게 하거나 높이 있도록 버티어 놓은 부분
- 다리[橋(교)]: 물을 건너거나 또는 한편의 높은 곳에서 다른 편의 높은 곳으로 건너다닐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

51

②

해설 기승(氣勝): 기운이나 힘 따위가 누그러들지 않음. 또는 그 기운이나 힘

52

①

해설 ①은 어미 '-을' 뒤에 쓰여 '예정'이나 '추측', '의지'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나머지는 어미 '-은', '-는', '-던' 뒤에 쓰여 '처지'나 '형편'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53

①

해설

'살다—죽다'는 중간 항이 허용되지 않는 '상보 반의어'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정도 반의어'에 해당한다.

- '상보 반의어(모순 관계)': 양립(兩立)이 불가능한 의미의 대립으로, 두 단어를 모두 부정하면 모순이 일어나는 대립 관계 즉, 중간 항이 허용되지 않는 대립 관계
- 정도 반의어(반대 관계): 양극에 속하는 두 의미를 모두 부정해도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 대립 관계. 즉 중간 항이 허용되는 대립 관계

54

③

해설

⑥은 '담보로 맡다'로 쓰였다.
'어림하거나 짐작하여 해아리다'의 예문으로는 '이 책들을 권당 5,000 원으로 맡아도 100권이면 50만 원이다.' 정도가 적절하다.

55

①

해설

- 發送(발송): 물건, 편지, 서류 따위를 우편이나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보냄.
- 郵送(우송): 우편으로 보냄.
발송이 우송보다는 약간 넓은 의미가 있지만 유의어로 본다. 나머지는 모두 빙의 관계의 어휘다.

오답록

- ② • 供給(공급): 교환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 또는 그 제공된 상품의 양.
- 需要(수요): 어떤 재화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욕구.
- ③ • 脫退(탈퇴): 관계하고 있던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서 관계를 끊고 물러남.
- 加入(가입):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 들어감.
- ④ • 惡化(악화): 일의 형세가 나쁜 쪽으로 바뀜.
- 好轉(호전): 일의 형세가 좋은 쪽으로 바뀜.

56

③

해설

'우련'은 '빛깔이 엷고 희미하다'의 뜻이다. 여기서는 '보일 듯 말 들했을 때'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미소록

조지훈. '낙화'

- 성격: 관조적, 애상적, 묘사적
- 표현: ⑦ 2음보의 운율감
 - ㉡ 절제된 시어로 고풍스러운 분위기 형상화
 - ㉢ 정감이 넘치는 조사(～로서니, ～랴, ～리, ～어라, ～노니)
- 시어의 사전적 의미
우련: 보일 듯 말 들했을 때
저허하노니: 두려워함, 마음에 꺼려함
- 주제: 낙화를 통한 생명의 무상함과 비애감

57

④

해설 입이 질다: 속된 말씨로 거리낌 없이 말을 함부로 하다.

오답곡

- ① 보통 음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맛있고 좋은 음식만을 바라는 버릇이 있다.
- ② 말수가 적다.
- ③ 일의 순서가 바뀐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8

②

해설 재미난 골에 범 난다

- (1) 편하고 재미있다고 위험한 일이나 나쁜 일을 계속하면 나중에는 큰 화를 당하게 됨을 이르는 말.
- (2) 지나치게 재미있으면 그 끝에 가서는 좋지 않은 일이 생김을 이르는 말.

59

④

해설 땀을 들이다: 잠시 휴식하다

60

②

해설 말길이 되다: 남에게 소개하는 의논의 길이 트이다

61

①

해설 보람이 없는 헛된 일을 일컫는 속담이다.

- 가물에 도랑 친다: (북한 속담) 한창 가물 때 애쓰며 도량을 치느라고 분주하게 군다는 뜻으로, 아무 보람도 없는 헛된 일을 하느라고 부산스레 짚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까마귀 미역 김듯(목욕하듯): 까마귀는 미역을 감아도 그냥 겉다는 데서, 일한 자취나 보람이 드러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또는 일을 처리함에 있어 세밀하지 못하고 거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04

2016년 기출문제

62

②

해설 음전하다: 말이나 행동이 곱고 우아하다. 또는 얌전하고 점잖다.

63

②

해설

- 안갚음: 자식이 커서 부모를 봉양하는 일.
- 양갚음: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

64

③

오답곡

- ① 재산이나 자원 따위가 넉넉하고 많다.
- ② 집이나 세간 따위가 겉으로 보기보다는 속이 꽤 너르다. 마음씨가 너그럽고 미덥다.
- ④ 옷 따위가 오래되어서 올이 삭고 질이 악해지다. 젓갈 따위가 오래되어서 품 삭다. 풀, 나뭇가지 따위가 썩거나 오래되어 푸슬푸슬해지다.

65

⑤

해설

- 대궁: 먹다가 그릇에 남긴 밥
- 고갱이: 나물의 줄기 한가운데에 있는 연한 심

66

①

해설 무녀리: 말이나 행동이 좀 모자란 듯이 보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호래자식/ 후레자식: 버릇이 없는 사람

67

②

해설 ‘비나리치다’는 ‘아첨하면서 남의 비위를 맞추다’의 뜻이다. 수업시간에 강조한 말이므로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비나리’는 ‘남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함’으로 수록되어 있지만 ‘비나리치다’라는 말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일상적으로 우리들이 ‘비나리치다’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시험에서는 정확한 어법을 고려해 출제해야 하므로 이 문제는 ‘비나리’로 출제하든지 아니면 ‘비나리를 치다’의 꼴로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8

④

해설 드팀전: 예전에, 온갖 피리를 팔던 가게.

69

②

오답곡

- ① ① ❶투명하거나 얇은 것을 통하여 드러나 보이다.
- ③ ③ ❷의향을 떠보려고 슬쩍 말을 꺼내거나 의사를 넘지시 깨우쳐 주다.
- ④ ② 【…에/에게 …으로】 무엇으로 보이거나 인식되다.

70

②

해설 버름하다: 마음이 서로 맞지 않아 사이가 뜨다.

오답록

- ① 먹은 것이 잘 소화되지 아니하여 더부룩하고 그득한 느낌이 있다.
- ③ 어리석고 둔하다.
- ④ 기분이나 몸이 상쾌하고 깨끗하다

71

④

해설 ‘듣노라’의 의미로 기적과 같은 비현실적인 상황이 일어나 길 바라는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

72

①

해설 산업화로 고향이 파괴되고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말은 ‘도자’, ‘방둑’, ‘트럭’ 등이다. ‘하늘’은 사람의 도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미소록 황석영, ‘삼포 가는 길’

- 갈래: 단편 소설, 여로 소설
- 배경: 시간(1970년대), 공간(삼포로 가는 길)
- 성격: 사실주의적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구성
 - ⓐ 별단–정처 없이 길을 나선 영달이 삼포로 가는 정씨를 만나 동행이 된다.
 - ⓑ 전개–삼포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월출로 향해 가던 중 백화를 만나 동행이 된다.
 - ⓒ 절정–백화가 영달에게 호감을 느껴 자기 고향으로 가자고 제안하나 응하지 않는다.
 - ⓓ 결말–삼포에 공사판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정씨는 발길이 내키지 않는다.
- 주제: 고향 상실과 소외의 쓸쓸한 삶. 산업화 속에서 고향을 상실하고 떠돌아다니는 뜨내기 인생의 애환

73

②

해설 ‘부상(扶桑)’은 해가 뜨는 곳, ‘함지(咸池)’는 해가 지는 곳을 말한다. ‘반의 관계’인 단어다. 나머지는 모두 유의어(類義語)에 해당한다.

오답록

- ① 광정(匡正): 잘못된 것이나 부정(不正) 따위를 바로잡아 고침. 확정(廓正): 잘못을 바로잡음.
- ③ 중상(中傷):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킴. 비방(誹謗):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
- ④ 갈등(葛藤):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하거나 충돌함. 알력(軋轢): 수레바퀴가 빠걱거린다는 뜻으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사이가 안 좋거나 충돌하는 것을 이르는 말.

74

③

해설 사물을 의인화하여 전기(傳記) 형식으로 서술하는 문학 양식. 고려 중기 이후에 성행하였으며, 임춘(林椿)의 <국순전>, <공방전>이나 이규보(李奎報)의 <국선생전> 따위가 여기에 속한다.

오답록

- ① 개인의 일생에 대하여 평론을 걸들여 적은 전기.
- ② 여러 사람의 전기(傳記)를 차례로 벌여서 기록한 책.
- ④ 실제의 전승이나 전기.

75

③

해설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킬 때 ‘야기(惹起)’라는 말을 사용한다. 주로 부정적인 상황에 사용한다. 치밀한 성격을 형성했다는 말에 쓸 수 없는 말이다.

오답록

- ① 쓸데없는 군더더기 말
- ② 오랫동안 학식 따위를 많이 쌓음. 또는 그 학식.
- ④ 집안 식구나 친한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한자리에 모임.

76

②

해설

계제(階梯):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형편이나 기회

비교 개재(介在): 어떤 것들 사이에 끼여 있음. ‘끼어듦’, ‘끼여 있음’으로 순화.

오답록

- ① 자생(自生): (주로 식물 따위가) 저절로 나서 자라다.
- 비교** 서식(棲息): (주로 동물 따위가) 생물 따위가 일정한 곳에 자리 를 잡고 삶.
- ③ 성패(成敗): 성공과 실패를 아울러 이르는 말.
- 비교** 승패(勝敗): 승리와 패배를 아울러 이르는 말.
- ④ 유례(類例): 전자가 되는 선례(=전례)
- 비교** 유래(由來): 사물이나 일이 생겨남. 또는 그 사물이나 일이 생겨난 바.

77

②

해설

• 다양성(多樣性): 모양, 빛깔, 형태, 양식 따위가 여러 가지로 많은 특성.

• 회의(懷疑): 의심을 품음. 또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심.

• 지침(指針): 생활이나 행동 따위의 지도적 방법이나 방향을 인도하여 주는 준칙.

• 고착(固着):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굳어져 변하지 않음.

78

④

해설 양파(洋파), 고자질(告者질), 가지각색(가지各色): 모두 우리말과 한자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혼종어다. 나머지는 모두 한자어 계통의 단어다.

[오답곡]

- ① 각각(各各), 무진장(無盡藏), 유아무야(有耶無耶)
- ② 과연(果然), 급기야(及其也), 막무가내(莫無可奈)
- ③ 의자(椅子), 도대체(都大體), 언감생심(焉敢生心)

79

④

해설 ‘아성? 힘? 귀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를 참조할 때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소음일 뿐인 연주가 적절하다.

80

②

해설 順延(순연): 차례로 기일을 늦춤.

[오답곡]

- ① 捷徑(첩경)
- ③ 驅逐(구축)
- ④ 波瀾(파란)

81

③

- 배가 등에 불었다: 먹은 것이 없어서 배가 출쭉하고 몹시 허기지다.
- 입에 발린 소리: 마음에도 없이 걸치레로 하는 말.
- 눈에 밟히다: 잊하지 않고 자꾸 눈에 떠오르다.
- 손이 뜨다: 일하는 동작이 매우 굼뜨다.

82

①

해설 기동 치면 {들보기/대들보기/봇장이} 운다

- ⑦ 직접 맞대고 탓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넌지시 말을 하여도 알아들을 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⑮ 주(主)가 되는 대상을 탓하거나 또는 그 대상에 일격을 가하거나 하면 그와 관련된 대상들이 자연히 영향을 입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83

③

해설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 ⑦ 당장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넉넉지 못한 가난한 살림일수록 기와집을 짓는다는 뜻으로,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서 허세를 부리려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⑮ 가난하다고 주저앉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잘살아 보려고 용단을 내어 큰일을 벌인다는 말.

[오답곡]

- ① 가난한 집에서는 산 사람도 배를 꽂는 형편이므로 신주까지도 제사 음식을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하게 된다는 뜻으로, 줄곧 굶기만 한다는 말.
- ② 가난한 집에는 먹고 살아 나갈 걱정이 큰데 자식끼지 많다는 뜻으로, 이래저래 부담되는 것이 많음을 이르는 말.
- ④ 살아가기도 어려운 가난한 집에 제삿날이 자꾸 돌아와서 그것을 치르느라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으로, 힘든 일이 자주 닥쳐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05

2015년 기출문제

84

①

해설 사부자기: 별로 힘들이지 않고 거의 저절로.

85

④

해설 ‘대수로이’는 중요하게 여길 만한 정도의 뜻이다.

86

④

해설 데생기다: 생김새나 됨됨이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못나게 생기다.

87

③

해설 우리: 기와를 세는 단위. 한 우리는 기와 2천 장이다.

[오답곡]

- ① 죽:(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옷, 그릇 따위의 열 벌을 묶어 세는 단위.
- ② 쾌: 북어를 묶어 세는 단위. 한 쾌은 북어 스무 마리를 이른다.
- ④ 접: 채소나 과일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 한 접은 채소나 과일 백 개를 이른다.
- ⑤ 뭇: 생선을 묶어 세는 단위. 한 뭇은 생선 열 마리를 이른다.

88

③

해설 ‘꼼살궂다’는 ‘꼼꼼하고 자세하다.’의 뜻이다.

Chapter 02 한자와 한자성어 · 한문

01 2019년 기출문제

01

①

【해설】 有名稅(유명세)

02

③

【해설】 常識(상식):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가 포함된다.

【오답곡】

- ① 公理(공리): 일반 사람과 사회에서 두루 통하는 진리나 도리
- ② 慻意性(자의성): 언어에서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은 특성
- ④ 聯繩性(연관성): 사물이나 현상이 일정한 관계를 맺는 특성이나 성질

03

④

【해설】
① 腐敗(부패)
② 直結(직결)
③ 奢侈(사치),

04

④

【해설】 選出(선출): 여럿 가운데 골라냄

05

②

【해설】 豔郁(복욱) – 俗臭(속취) – 韻腳(악착) – 噙棄(타기)

06

④

【해설】 신분상 중인이었던 김천택이 자신의 재능에 대한 자부와 불우한 처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작품이다.

麥秀之嘆(맥수지탄): 보리가 무성하게 자란 것을 탄식한다는 뜻으로 나라가 무너져 예전과 같지 않음을 슬퍼하는 것.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탄식한다는 말

【오답곡】

- ① 醉肉之嘆(비육지탄): 재능을 발휘할 때를 얻지 못하여 헛되이 세월 만 보내는 것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

② 招搖過市(초용과시): ‘남의 이름을 끌도록 요란스럽게 하며 저자거리를 지나간다’라는 뜻으로, 허풍을 떨면서 자신을 드러내어 사람들 의 주의를 끄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

③ 不識泰山(불식태산): 인재를 알아볼 줄 모르는 것을 이르는 말

【미소록】

땔 나무 실은 천리마(작가 자신)를 알아 볼 이가 있겠는가
십년 동안 마구간에 갇혀 어찌할 도리없이 다 늙었구나
어디서 살지고 둔한 말(능력없는 양반)은 우쭐거리고 있느니

07

③

【해설】

- 언 발에 오줌 누기: 언 발을 녹이려고 오줌을 누어 봤자 효력이 별로 없다는 뜻으로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凍足放尿(동족방뇨), 彌縫策(미봉책), 臨時方便(임시방편), 姑息之計(고식지계), 下石上臺(하석상대)
- 雪上加霜(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08

③

【해설】 天衣無縫(천의무봉): 천사의 옷은 꿰맨 흔적이 없다는 뜻으로, 일부러 꾸민 대 없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우면서 완전함을 이르는 말

【오답곡】

- ① 花朝月夕(화조월식): 꽃 피는 아침과 달 밝은 밤이라는 뜻으로, 경치가 좋은 시절을 이르는 말
- ② 翱編三絕(위편삼절): 공자가 주역을 즐겨 읽어 책의 가죽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는 뜻으로, 책을 열심히 읽음을 이르는 말
- ④ 莫無可奈(막무가내): 달리 어찌할 수 없음

09

②

【해설】 화자는 ‘금 재갈, 꾸민 안장’을 한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시름겁고 외로운 밤에 잠 이루지 못하고 있다. 남편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그리고 외로움의 비애가 느껴지는 작품이다.

• 輾轉不寐(전전불매):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전전번이죽

【오답곡】

- ① 琴瑟之樂(금슬지락): 부부간의 사랑
- ③ 錦衣夜行(금의야행):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다닌다는 뜻으로, 자랑 삼아 하지 않으면 생색이 나지 않음을 이르는 말
- ④ 麥秀之嘆(맥수지탄):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 기자(箕子) 가 은(殷)나라가 망한 뒤에도 보리만은 잘 자라는 것을 보고 한탄하였다는데서 유래한다.

10

(4)

해설 절체절명의 위기를 나타내는 한자성어를 찾으면 된다.

- 百尺竿頭(백척간두):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르는 말

오답록

- ① 孤子單身(고혈단신): 피붙이가 전혀 없는 외로운 몸
- ② 蟻螂拒轍(당랑거철): 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나 되지 않을 일에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거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磨杵作針(마저작침): 쇠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를 수 있다는 뜻

11

(4)

해설 적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많은 양의 책을 읽을 수 있다는 말이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뜻으로, 작은 노력(努力)이라도 끈기 있게 계속(繼續)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뜻하는 '水滴穿石(수적천석)'이 적절하다.

오답록

- ① 矯枉過直(교왕과직): 굽은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정도에 지나치게 곧게 한다는 뜻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나쁘게 됨을 이르는 말
- ② 深思熟考(심사숙고): 깊이 잘 생각함
- ③ 戸位素餐(시위소찬): 재덕이나 공로가 없어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녹(祿)을 받아먹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2

(2)

해설 斷機之戒(단기지계): 학문을 중도에서 그만두면 짜던 베의 날을 끊는 것처럼 아무 쓸모없음을 경계한 말.

오답록

- ① 斑衣之戲(반의지희): 늙어서 효도함을 이르는 말. 중국 초나라의 노래자가 일흔 살에 늙은 부모님을 위로하려고 색동저고리를 입고 어린이처럼 기어 다녀 보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 ③ 陸續懷櫟(육적회율): '육적이 털을 가슴에 품다'라는 뜻으로, 지극한 효성을 비유하는 말이다. 중국 삼국시대의 오나라 사람 육적에 관련된 고사에서 유래했다.
- ④ 望雲之情(망운지정):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

13

(1)

해설 자신의 노력이 드러나지 않을 때 쓰는 속담을 찾으면 된다.

- 비단옷 입고 밤길 걷기: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걸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생색이 나지 않는 공연한 일에 애쓰고도 보람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오답록

- ② 물에서 사는 물고기를 산에서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어리석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사또와 동행한 덕분에 나팔 불고 요란히 맞아 주는 호화로운 대접을 받는다는 뜻으로, 남의 덕으로 당치도 아니한 행세를 하게 되거나 그런 대접을 받고 우쭐대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자손이 빈한해지면 선산의 나무까지 팔아 버리나 줄기가 굽어 쓸모 없는 것은 그대로 남게 된다는 뜻으로,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도리어 제구실을 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4

(4)

해설 欲速則不達(욕속부달) 見小利則大事不成(견소리즉대사불성): 서두르면 미칠 수 없고, 작은 이익에 욕심내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15

(3)

해설 하충의빙(夏蟲疑冰): 여름의 벌레는 얼음을 안 믿는다는 뜻으로, 견식(見識)이 좁음을 비유(比喻·譬喻)해 이르는 말.

오답록

- ① 순망치한(순망한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 ② 하로동선(夏爐冬扇): 여름의 화로와 겨울의 부채라는 뜻으로, 격(格)이나 철에 맞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 ④ 설중송백(설중송백): 눈 속의 소나무와 잣나무라는 뜻으로, 높고 굳은 절개를 이르는 말

16

(3)

해설 단순호치: 붉은 입술에 흰 치아라는 뜻으로 미인을 의미한다. 나머지는 모두 친한 친구의 의미이다.

02 2018년 기출문제

17

(4)

해설 協商(협상):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로 의논함

오답록

- ① 協贊(협찬): 어떤 일 따위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줌
- ② 協奏(협주): 독주 악기와 관현악이 합주하면서 독주 악기의 기교가 돋보이게 연주함. 또는 그런 연주
- ③ 協助(협조): 힘을 보태어 도움.

18

①

해설 校訂(교정): 남의 문장 또는 출판물의 잘못된 글자나 글귀 따위를 바르게 고침

오답록

- ② • 交差(교차): 벼슬아치를 번갈아 임명함
- 交叉(교차): 서로 엇갈리거나 마주침
- ③ • 決濟(결제):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
- 決裁(결재):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재가04(裁可)'로 순화.
- ④ • 提高(제고): 쳐들어 높임
- 考慮(재고): 어떤 일이나 문제 따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함

19

①

해설 回復(회복), 復命(복명), 復活(부활)

20

①

해설 부활-복명

오답록

- ② 낙원-낙승
- ③ 강등-하강
- ④ 솔선-인솔

21

④

해설 ㄱ. 決濟(결제) ㄴ. 火葬(화장) ㄷ. 模寫(모사)

22

②

해설 過程(과정), 纏足(전족), 弯曲(왜곡), 枯死(고사)

23

③

해설

- 望五(망오): 쉰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나이 마흔하나를 이르는 말
- 米壽(미수): 여든여덟 살을 달리 이르는 말

24

④

해설 地境(지경): 관형사나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경우'나 '형편',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오답록

- ① 형상(形象): 마음과 감각에 의하여 떠오르는 대상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표현함. 또는 그런 형태.
- ② 반경(半徑): 반지름.
- ③ 사유(思惟): 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일.

25

①

해설

- ⑦ 駘蕩(태탕): 봄날의 바람이나 날씨가 화창함
- ⑧ 燥漫(난만): 꽃이 활짝 많이 피어 화려함
- ⑨ 猶介(견개): 굳게 절개를 지키고 구차하게 타협하지 아니함
- ⑩ 霸氣(파기):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해내려는 굳센 기상이나 정신
- ⑪ 辛酸(신산): 맛이 맵고 심

26

③

해설

- 경신(更新): 어떤 분야의 종전 최고치나 최저치를 깨뜨림.
- 비교 경신(更新): 법률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

오답록

- ① 계재(揭載): 글이나 그림 따위를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실음
비교 개재(介在): 어떤 것들 사이에 끼여 있음. '끼어듦', '끼여 있음'으로 순화.
- ② 개발(開發): 토지나 천연자원 따위를 유용하게 만들.
비교 계발(啓發):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 줌
- ④ 결제(決濟):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다
비교 결재(決裁):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재가04(裁可)'로 순화.

27

②

해설 ① 說明(설명) ② 提示(제시)

28

①

해설

- 改善(개선):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들.
- 通貨(통화): 유통 수단이나 지불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화폐. 본위 화폐, 은행권, 보조 화폐, 정부 지폐, 예금 통화 따위가 있다.

오답록

- 改選(개선): 의원이나 임원 등이 사퇴하거나 그 임기가 다 되었을 때 새로 선출함.
- 通話(통화): 전화로 말을 주고받음.

29

④

해설 잘못을 알면 빨리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즉 때를 놓친 것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는 말을 찾으면 된다.

- 渴而穿井(같이천정): 목이 말라야 비로소 샘을 판다는 뜻으로, 미리 준비(準備)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일이 지나간 뒤에는 아무리 서둘러

봐도 아무 소용(所用)이 없음 또는 자기(自己)가 급해야 서둘러서 일을 함을 이른다.

【오답록】

- ① 興盡悲來(흥진비래):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으로, 세상일은 순환되는 것임을 이르는 말.
- ② 捲土重來(권토중래): 땅을 맘아 일으킬 것 같은 기세로 다시 온다는 뜻으로, 한 번 실패하였으나 힘을 회복하여 다시 쳐들어온을 이르는 말. 중국 당나라 두목의 〈오강정시(烏江亭詩)〉에 나오는 말로, 항우가 유방과의 결전에서 패하여 오강(烏江) 근처에서 자결한 것을 탄식한 말에서 유래한다.
- ③ 愚公移山(우공이산):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어떤 일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 우공(愚公)이라는 노인이 집을 가로막은 산을 옮기려고 대대로 산의 흙을 파서 나르겠다고 하여 이에 감동한 하느님이 산을 옮겨 주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30

①

【해설】 敗亡(패망), 政事(정사), 改革(개혁)

31

④

【해설】 溫故知新(온고지신):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앓. 〈논어〉의 〈위정편(爲政篇)〉에 나오는 공자의 말이다.

【오답록】

- ① 一日三秋(일일삼추): 하루가 삼 년 같다는 뜻으로, 몹시 애태우며 기다림을 이르는 말.
- ② 先憂後樂(선우후락): 세상의 근심할 일은 남보다 먼저 근심하고 즐거워할 일은 남보다 나중에 즐거워한다는 뜻으로, 지사(志士)나 어진 사람의 마음씨를 이르는 말. 〈범중엄(范仲淹)〉 〈악양루기(岳陽樓記)〉에 나오는 말이다.
- ③ 途舊迎新(송구영신):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음

32

③

【해설】 교각살우(矯角殺牛):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가 그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침을 이르는 말.

【오답록】

- ① 개과불린(改過不吝): 하물을 고침에 인색(吝嗇)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
-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함. 또는 그런 행동. '경망한 행동'으로 순화
- ④ 부화뇌동(附和雷同): 중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33

②

【해설】 가난하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태도를 말했다.
• 艱難辛苦(간난신고): 몹시 힘들고 어려우며 고생스러움.

【오답록】

- ① 安分知足(안분지족):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앓.
- ③ 貧而無怨(빈이무원): 가난해도 세상(世上)에 대(對)한 원망(怨望)이 없음.
- ④ 篪食瓢飲(단사표음):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에 담은 밥과 표주박에 든 물이라는 뜻으로, 청빈하고 소박한 생활을 이르는 말.

34

①

【해설】 傍若無人(방야무인):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있음.

【오답록】

- ② 左顧右眄(좌고우면): 이쪽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앞뒤를 재고 망설임을 이르는 말.
- ③ 不恥下問(불치하문): 손아랫사람이나 지위나 학식이 자기만 못한 사람에게 모르는 것을 묻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 ④ 後生可畏(후생가외): 젊은 후학들을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으로, 후진들이 선배들보다 젊고 기력이 좋아, 학문을 닦음에 따라 큰 인물이 될 수 있으므로 가히 두렵다는 말.

35

②

【해설】 이 글의 주제는 '깨달음(진리)'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므로 말이나 글에 의지하지 않는다'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이 없는 한자 성어를 찾으면 된다.

- 以心傳心(이심전심) = 不立文字(불립문자) = 教外別傳(교외별전) = 拈華微笑(염화미소) = 拈花示衆(염화시종) = 心心相印(심심상인)
- 【오답록】 遼東之豕(요동지시): 요동의 돼지. 즉 견문이 좁고 오만하여 하찮은 공을 빼기며 자랑함을 비유한 말.

36

②

【해설】 임기응변(臨機應變): 그때그때 처한 사태에 맞추어 즉각 그 자리에서 결정하거나 차리함. '임기응변'은 넓게는 '이랫돌 빼서 윗돌 고기'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순발력 있게 대처한다는 긍정적 의미도 있어 제시된 한자성어 중에서는 가장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그리 바람직한 문제는 아니다.

37

①

【해설】 사람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짐승과 같다라는 말이다. 즉 사람이라면 옳은 일을 하며 살아야 함을 강조한 정철의 '훈민가 8'이다.

- 鄉閭有禮(향여유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예의가 있어야 한다.
- 鄉閭(향여)는 사람이 사는 곳으로 해석하면 된다.

【오답록】

- ② 相扶相助(상부상조): 서로서로 도움

- ③ 兄友弟恭(형우제공): 형은 아우를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한다는 뜻으로, 형제간에 서로 우애 깊게 지냄을 이르는 말.
 ④ 子弟有學(자제유학): 자녀는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학문을 권장할 때 사용)

38

③

해설 도사공의 절박한 심정을 노래했다.

- 前虎後狼(전호후랑): 앞문에서 호랑이를 막고 있으려니까 뒷문으로 이리가 들어온다는 뜻으로, 재앙이 끊임 사이 없이 닥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넓고 큰 바다 한가운데 곡식을 일천 석이나 실은 배가 노도 일어버 리고 닻도 잃고 뜻 줄도 끊어지고 뜻대도 꺾어지고 키도 빠지고 바람이 불어 물결치고 안개가 뒤섞여 자욱한 날에 갈 길은 천 리 만 리 남았는데 사방이 어둑어둑 저물고 천지가 적막하고 막막하여 까치들이 뜯 가운데 해적을 만난 처지에 있는 사공의 우두머리의 마음

오답록

- 捲土重來(권토중래): 땅을 맘아 일으킬 것 같은 기세로 다시 온다는 뜻으로, 한 번 실패하였으나 힘을 회복하여 다시 쳐들어옴을 이르는 말.
- 緣木求魚(연목구어):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天衣無縫(천의무봉): 천사의 옷은 꿰맨 흔적이 없다는 뜻으로, 일부 러 꾸민 데 없이 자연스럽고 이룸다우면서 완전함을 이르는 말.

39

④

해설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기난과 관련이 없는 것을 찾으면 된다. '권토중래(捲土重來)'와는 관련이 없다.

- 권토중래(捲土重來): 땅을 맘아 일으킬 것 같은 기세로 다시 온다는 뜻으로, 한 번 실패하였으나 힘을 회복하여 다시 쳐들어옴을 이르는 말.

오답록

- 상루하습(上漏下濕): 위에서는 비가 새고 아래에서는 습기가 오른다는 뜻으로, 매우 기난한 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삼순구식(三旬九食): 삼십 일 동안 아홉 끼니밖에 먹지 못한다는 뜻으로, 몹시 기난함을 이르는 말.
- 가도벽립(家徒壁立): 빈한한 집안이라서 아무것도 없고 네 벽만 있다는 뜻으로, 살림이 몹시 구차한 처지를 가리킴.

40

③

해설 나라를 보위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은 군사력이 가장 급선무이니 걱정이 없는 때라도 더욱 완만히 할 수 없습니다. 옛날의 성왕은 난세를 잊지 않았고 편안할 때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아 한가할 때에 더욱 잘 익혀 급할 때 크게 쓸 수 있게 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유비무환이라는 것입니다.

- 有備無患(유비무환):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

오답록

- 刻骨難忘(각골난망):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아니함
- 見危致命(견위치명): 나라가 위태로울 때 자기의 몸을 나라에 바침
- 內憂外患(내우외환):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

41

②

해설 머리 장식을 팔아 돈을 마련했다. 해석 정승 흥서봉의 어머니는 집이 매우 가난하여 거친 밤이나 나물국조차도 매양 거를 때가 많았다. 어느 날 여종에게 고기를 사오게 하였는데, 고기 색깔을 보니 상한 듯(독이 있는 듯)했다. 여종에게 묻기를, "팔고 있던 고기가 몇 명이 있더냐?" 하고는 이에 머리 장식을 팔아 돈을 마련해 여종에게 그 고기를 모두 사 오게 해 담장 밑에 묻어버렸으니 다른 사람이 사서 먹고 병이 날까 봐 두려워해서였다.

42

④

해설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 달리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찾으면 된다.

一切唯心造(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임을 뜻하는 불교용어

오답록

- 以心傳心(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뜻
- 心機—轉심기일전: 이제까지의 마음 자세를 돌려 새롭게 가다듬는 것
- 人心不可測(인심불가측): 사람의 마음은 측량하기 어렵다는 것

43

①

해설 문맥상 '原形(원형)'으로 쓰는 것이 옳다.

- 原形(원형): 본디의 꼴
- 圓形(원형): 둥근 모양

03

2017년 기출문제

44

③

해설 態度(태도):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

45

①

해설

- 掲揚(게양): 기(旗) 따위를 높이 걸. '덟', '올림'으로 순화.
- 掲載(게재): 글이나 그림 따위를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실음.

오답록

- ② 設置(설치): 베풀어서 둠
 ③ 記錄(기록):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음. 또는 그런 글
 ④ 帶同(대동):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 거느려 함께 함.

46

②

해설 傍若無人(방약무인):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힘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있음.

47

①

해설

- 論議(논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내어 토의함. 또는 그런 토의.
- 論據(논거): 어떤 이론이나 논리, 논설 따위의 근거.
- 論駁(논박): 어떤 주장이나 의견에 대하여 그 잘못된 점을 조리 있게 공격하여 말함.
- 論題(논제): 논설이나 논문, 토론 따위의 주제나 제목.

48

②

해설 ‘입말’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지만 ‘글말’은 서서히 변화한다 가 주된 내용이다. 변화에 초점을 맞춰 대조하는 것을 찾으면 된다.
 • 动態性(동태성): 움직이거나 변하는 성질
 • 靜態性(정태성): 움직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성질

오답록

- ① 多彩性(채산성): 수입과 지출이 맞아서 이익이 있는 성질
 規範性(규범성): 규범이 되는 성질이나 특성
 ③ 模糊性(모호성): 여러 뜻이 뒤섞여 있어서 정확하게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기 어려운 말의 성질
 明示性(명시성): 두 가지 이상의 색선·모양을 대비시켰을 때, 금방 눈에 띄이는 성질.
 ④ 生成性(생성성): 이전에 없었던 어떤 사물이나 성질을 만들어 내는 성질
 死滅性(사멸성): 죽어 없어짐

49

②

해설 부당이익에 해당하는 한자성어는 ‘漁父之利(어부지리), 蚌鷦之爭(방훌지쟁), 犬兔之爭(견토지쟁), 田夫之功(전부지공)’ 등이 적절하다.

오답록

- ① 捲土重來(권토중래): 땅을 맙아 일으킬 것 같은 기세로 다시 온다는 뜻으로, 한 번 실패하였으나 힘을 회복하여 다시 쳐들어온을 이르는 말. 중국 당나라 두목의 〈오강정사(烏江亭詩)〉에 나오는 말로, 항우가 유방과의 결전에서 패하여 오강(烏江) 근처에서 자결한 것을 탄식한 말에서 유래한다.
 ③ 吾不關焉(오불관언): 나는 그 일에 상관하지 아니함

- ④ 羊頭狗肉(양두구육):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보기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속은 변변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50

③

해설 ‘欲速則不達(욕속즉부달)’은 ‘빨리 하려고 서두르면 도리어 이를 수 없다’는 것으로 조급함을 경계한 말이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하리 매어 쓰지 못한다.’가 적절하다.

51

①

해설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은 ‘辨明(변명)’으로 쓴다.

오답록

- ② 認識(인식):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알.
 ③ 對處(대처):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함.
 ④ 宣揚(선양): 명성이나 권위 따위를 널리 떨치게 함.

52

②

오답록

- ① 陶冶(도야)
 ③ 殺剎(쇄도)
 ④ 汗沒(골몰)

53

①

해설
 ① 解明(설명)
 ② 묘사(描寫)
 ③ 서사(敘事)
 ④ 논증(論證)

54

①

오답록
 ② 灼熱(작열)
 ③ 荆棘(형극)
 ④ 惡寒(오한)

55

②

오답록
 ① 討議(토의)
 ③ 選擇(선택)
 ④ 準據(준거)

56

①

해설

- 長廣舌(장광설): 슬데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
- 流言蜚語(유언비어):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
- 辨明(변명):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

57

②

오답록

- ① 下馬評(하마평): 관직의 인사이동이나 관직에 임명될 후보자에 관하여 세상에 떠도는 풍설(風說). 예전에, 관리들을 태워 가지고 온 마부들이 상전들이 말에서 내려 관아에 들어가 일을 보는 사이에 상전들에 대하여 서로 평하였다는데서 유래한다.
- ③ 推薦(추천):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함
- ④ 落點(낙점): 여러 후보가 있을 때 그중에 마땅한 대상을 고름.

58

②

해설

桓雄(환웅), 神壇樹(신단수)

59

④

해설

- '하루아침'이라는 뜻으로 '一朝(일조)'로 쓰는 것이 옳다.
- 日照(일조): 햇볕이 내리쬐. '볕 찜'으로 순화

오답록

- ① 확진(確執): 자기의 의견을 굳이 고집하여 양보하지 아니함.
- ② 위의(威儀): 위엄이 있고 엄숙한 태도나 차림새
- ③ 강도(強度): 센 정도

60

③

해설

- 機密(기밀): 외부에 드러내서는 안 될 중요한 비밀
- 流出(유출): 밖으로 흘러 나가거나 흘려 내보냄
- 認知(인지):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암
- 索出(색출): 살살이 뒤져서 찾아냄.

61

②

해설

동기(同氣): 형제와 자매, 남매를 통틀어 이르는 말

오답록

- ① 이런 단어는 없다. 굳이 해석한다면 '함께 일어남'정도
- ③ 학교나 훈련소 따위에서의 같은 기(期).
- ④ 이런 단어는 없다. 굳이 해석한다면 '아이의 기운'정도
- ⑤ 이런 단어는 없다. 굳이 해석한다면 '아이의 기약'정도

62

③

해설

氣焰(기염). 불꽃 염(焰)을 써야 한다.

63

①

해설

거침이 없이 잘되어 나간다는 뜻의 단어는 '圓滑(원활)'로 적어야 한다.

오답록

- ② 共感(공감):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
- ③ 妥協(타협):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 협의함
- ④ 利害(이해): 이익과 손해를 아울러 이르는 말

64

②

해설

迅速(신속): 매우 날쌔고 빠름

오답록

- ① 崩壞(붕괴): 무너지고 깨어짐.
- ③ 謝過(사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
- ④ 踏查(답사):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함.

65

④

해설

두음 법칙은 첫음절에서만 적용이 된다. 첫음절이 아닐 때는 본음대로 적어야 한다. '쌍룡'이 옳은 표기다.

66

②

해설

- 새우잠: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자는 잠. 주로 모로 누워 불편하게 자는 잠을 의미한다.
- 안잠: 여자가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며 그 집의 일을 도와주는 일. 또는 그런 여자.

오답록

- ① 파적(破寂): 심심풀이
- ③ 난장(亂杖): 몰매
- ④ 사관(四關): 양팔의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 양다리의 대퇴 관절과 무릎 관절을 이르는 말

67

③

해설

고전 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결말 처리 방법인데, 이것을 우리는 不知所從(부지소종): 마친 바를 알지 못한다.)이라 한다.

오답록

- ① 罔知所措(망지소조): 너무 당황하거나 급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갈팡질팡함
- ② 知足不辱(지족불辱):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욕되지 아니함.
- ④ 무소부지(無所不知): 모르는 것이 없다.

68

(4)

해설 노동력 확보와 문화의 유입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을 뜻하는 '일거양득(一舉兩得)'이 적절하다.

오답곡

- ① 어떤 일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선뜻 결정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한 마리의 물고기가 물을 흐린다는 뜻으로, 한 사람의 잘못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됨을 이르는 말.
- ③ 한눈에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이득하게 멀고 넓어서 끝이 없음.

69

(2)

해설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는 사자성어를 찾으면 된다.

- 사상누각(沙上樓閣): 모래 위에 세운 누각이라는 뜻으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오래 견디지 못할 일이나 물건을 이르는 말.

오답곡

- ① 돌 한 개를 던져 새 두 마리를 잡는다는 뜻으로, 동시에 두 가지 이득을 볼을 이르는 말
- ③ 서로 변론을 주고받으며 옥신각신함. 또는 말이 오고 감
- ④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

70

(2)

해설 범을 만난 위선자 북과이 아첨하고 있는 대목이다. '巧言令色(교언영색)'에 해당한다.

- 巧言令色(교언영색):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

오답곡

- ① 奉強附會(경강부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
- ③ 名論卓說(명론탁설): 훌륭하고 이름난 이론이나 학설.
- ④ 橋化爲枳(굽화위지): 화남의 굴을 회복에 옮겨 심으면 팽자가 된다는 뜻으로, 환경에 따라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 변함을 이르는 말

71

(2)

해설

- 口如懸河(구여현하): 입이 급(急)히 흐르는 물과 같다라는 뜻으로 거침 없이 말을 질함.
- 口尚乳臭(구상유취): 입에서 아직 젖내가 난다는 뜻으로, 말이나 행동이 유치함을 이르는 말.

오답곡

- ① • 同病相憐(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
- 兩寡分悲(양과분비): 두 과부가 슬픔을 서로 나눈다는 뜻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함을 이르는 말.

- ③ • 衣錦夜行(의금야행): 비단옷을 입고 밤에 다닌다는 뜻으로, 모처럼 성공하였으나 남에게 알려지지 않음을 이르는 말.
- 夜行被纏(야행파수): 수놓은 좋은 옷을 입고 밤길을 간다는 뜻으로, 공명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 아무 보람도 없음을 이르는 말.
- ④ • 望雲之情(망운지정):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
- 白雲孤飛(백운고비): 타향(他鄉)에서 고향(故鄉)에 계신 부모(父母)를 생각함

72

(4)

해설

- 감수(甘受): 책망이나 괴로움 따위를 달갑게 받아들임.
- 만연(蔓延): 전염병이나 나쁜 현상이 널리 퍼짐.

73

(2)

해설 囊中之錐(낭중지주):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짐을 이르는 말.

오답곡

- ① 吳越同舟(오월동주):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馬耳東風(마이동풍):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 간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을 이르는 말.
- ④ 近墨者黑(근묵자흑): 먹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4

(3)

해설

- 屍山血海(시산혈해): 사람의 시체가 산같이 쌓이고 피가 바다같이 흐름을 이르는 말
- 滄海一粟(창해일속): 넓고 큰 바닷속의 좁쌀 한 알이라는 뜻으로, 아주 많거나 넓은 것 가운데 있는 매우 하찮고 작은 것을 이르는 말.

오답곡

- ① 單刀直入(단도직입): 혼자서 칼 한 자루를 들고 적진으로 곤장 쳐들어간다는 뜻으로, 여러 말을 늘어놓지 아니하고 바로 요점이나 본문 제를 중심적으로 말함을 이르는 말.
- 去頭截尾(거두절미): 어떤 일의 요점만 간단히 말함.
- ② 如出一口(여출일구): 한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 사람의 말이 같은 음을 이르는 말.
- 異口同聲(이구동성): 입은 다르나 목소리는 같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음을 이르는 말.
- ④ 面從腹背(면종복배):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
- 口蜜腹劍(구밀복검):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을 이르는 말.

75

②

해설 ‘달아나기에 정신이 없었다’에 어울리는 속담은 ‘魂飛魄散(혼비백산)’이다.

- 魂飛魄散(혼비백산): 혼백이 어지라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뉘을 잊음을 이르는 말.

오답곡

- ① 小隙沈舟(소극침주): 조그만 틈으로 물이 새어 들어 배가 가라앉는다 는 뜻으로, 작은 일을 계을리하면 큰 재앙이 덕치게 됨을 이르는 말.
- ③ 亡羊補牢(망양보뢰): 양을 잃고 우리를 고친다는 뜻으로, 이미 어떤 일을 실패한 뒤에 뉘우쳐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말.
- ④ 千名犯義(간명범의): 명분을 거스르고 의리를 어기는 행위.

76

①

해설 수리할 적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때 늦은 후회를 경계하지 않은 말을 찾으면 된다.

- 殊及池魚(양급지어): 재양이 뜯의 물고기에 미친다는 뜻으로, 제삼자가 엉뚱하게 재난을 당함을 이르는 말

오답곡

- ②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 필요한 사람이 물건을 구하고, 급한 사람이 밟 벗고 나서기 마련이라는 말.
- ③ 양을 잃고 우리를 고친다는 뜻으로, 이미 어떤 일을 실패한 뒤에 뉘우쳐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말.
- ④ 사람이 죽은 뒤에 악을 짓는다는 뜻으로, 일을 그르친 뒤에 아무리 뉘우쳐야 이미 늦었다는 말.

77

④

해설

담장 위로 떨어지는 살구꽃이 자신과 같음을 노래하고 있다.

春雨暗西池(춘우암서지)
輕寒襲羅幕(경한습라막)
愁依小屏風(수의소병풍)
墻頭杏花落(장두행화락)

미소곡

허난설헌의 ‘春雨(춘우)’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혼자된 여인이 상념에 젖어 홀로 閨房(규방)에서 뜰 안의 연못에 내리는 흔적 없는 비를 보며 인생을 생각하는데, 문득 담장 위의 살구꽃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와 같음을 토로하고 있다.

78

③

해설 의롭고 바른 것이 아닌 일은 하지 않겠다는 구절을 찾으면 된다.

- 荷非其義(구비기의), 雖千金之利(수천금지리), 不動心焉(부동심언): 진실로 의로운 것이 아니면 비록 천금의 이익이라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움직일 수 없다).

오답곡

- ① 若嫌小(약형소), 請更加之(청갱가지): 만약 적은 것을 혐의(꺼리고 싫어함)한다면 더 주겠다
- ② 畏己死(외기사), 使衆人入罪(사중인입죄), 情所不忍也(정소불인야):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여 여러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은 인정상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 ④ 舍人等(사인등), 密讞(밀의), 不殺劍君(불살검군), 必有漏言(필유누언): 사인들이 몰래 의논하기를 “검군을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새어 나갈 것이다.” (하고)

79

②

해설

• 富與貴(부여귀), 是人之所欲也(시인자소욕야), 不以其道得之(불이기 도득지), 不處也(불처야): 부유함과 고귀함 이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이다. 도(정당함)로써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누리지 못한다.

• 樹欲靜而風不止(수욕정이풍부지): 나무는 고요하려 하지만 바람은 그치지 않는다.

80

①

해설

• 雲從龍風從虎(운종룡풍종호): ‘용 가는 데 구름 가고, 범 가는 데 바람 간다’의 뜻으로, 마음과 뜻이 서로 맞는 사람끼리 서로 구(求)하고 죽음을 일컫는 말이다.

• 바늘 가는 데 실 같다: 바늘이 가는 데 실이 항상 뒤따른다는 뜻으로, 사람의 간밀한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구름 같 제 비가 간다 · 바늘 가는 데 실 가고 바람 가는 데 구름 같다 · 바늘 따라 실 같다 · 바람 간 데 범 같다 · 봉 가는 데 황 같다 · 실 가는 데 바늘도 같다.

오답곡

- ② 온갖 곳을 다 다녔다는 말.
- ③ 바람이 부는 형세에 따라 뜻을 단다는 뜻으로, 세상 형편 돌아가는 대로 따르고 있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 바람 부는 대로 살다.
- ④ 일정한 징조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기 마련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81

④

해설 이 작품은 1910년 한일합병조약이 체결되자, 지식인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지은 시이다. 이러한 절명(绝命)은 ‘선비’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나라의 멸망을 노래한 시를 찾으면 된다. 고려의 멸망을 노래한 ‘원천석’의 시가 적절하다.

오답곡

- ① 계랑의 시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했다.
- ② 성훈의 시로 자연에서의 유유자적을 노래했다.
- ③ 박인로의 시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안타까움 즉 風樹之嘆(풍수지탄)을 노래했다.

미소록 황현, '절명시(絶命詩)'

鳥獸哀鳴海岳曠(조수애명해악빈)
 槿花世界已沉淪(근화세계이침륜)
 秋燈掩卷懷千古(추등암권회천고)
 難作人間識字人(난작인간식자인)

새와 짐승 슬피 울고 산하도 징그리니
 무궁화 세계가 이미 망했구나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천고의 역사를 회고하니
 글을 아는 인간의 구실이 어렵구나

04 2016년 기출문제**82**

①

해설

- 발휘(發揮): 發 필 발/揮 휘두를 휘): 재능, 능력 따위를 떨치어 나타냄.
- 배타적(排他的): 排 밀칠 배/他 다른 타/의 과녁 적): 남을 배척하는 것.
- 일각(一刻): — 한 일/刻 새길 각)

83

②

해설

- 遊說: 돌아다닐 (유), 달랠 (세)
- 租稅: 조세 (조), 세금 (세)
- 擄本: 베낄 (탑), 근본 (본)

84

④

오답록

- 중요(重要)
- 대중(大衆)
- 증개사(仲介士)

85

④

해설 受賞(수상): 상을 받음.**오답록**

- 隨想(수상): 그때그때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
- 手相(수상): 손금이나 손의 모양. 이를 통하여 그 사람의 운수와 길흉을 판단하기도 한다.
- 殊常(수상): 보통과는 달리 이상하여 의심스럽다.

86

①

해설

- 중독(中毒):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 결정(決定):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함. 또는 그렇게 정해진 내용.
- 집중(集中):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부음.
- 금단(禁斷): 어떤 행위를 못하도록 금함.

87

④

해설

- 腸壁(장벽): 장자벽
- 風雪(풍설): 눈바람
- 冊曆(책력): 일 년 동안의 월일, 해와 달의 운행, 월식과 일식, 절기, 특별한 기상 변동 따위를 날의 순서에 따라 적은 책
- 三冬(삼동): 겨울의 석 달

88

③

오답록

- 構築(구축)—看做(간주)—涉獵(섭렵)—叱責(질책)
- 投擲(투척)—破散(파산)—拿捕(나포)—比較(비교)
- 左遷(좌천)—未安(미안)—經營(경영)—知慧(지혜)
- 呵責(가책)—究明(구명)—酷使(혹사)—常套(상투)

89

②

해설

- 附隨的(부수적): 주된 것이나 기본적인 것에 붙어서 따르는. 또는 그런 것.
- 阿修羅場(야수라장): 싸움이나 그 밖의 다른 일로 큰 혼란에 빠진 곳. 또는 그런 상태.
- 紐帶(유대): 곤과 떠라는 뜻으로, 둘 이상을 서로 연결하거나 결합하게 하는 것. 또는 그런 관계.
- 擴散(확산): 흩어져 널리 퍼짐.
- 體制(체제):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볼 때에, 그 조직이나 양식, 또는 그 상태를 이르는 말.

90

④

오답록

- 부인(否認):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거나 그려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함.
- 부정(否定): 그렇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아니하다고 반대함.
- 부결(否決): 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 비운(否運): 막혀서 어려운 처지에 이른 운수.

91

③

【오답록】

- ① 규정(規定): 규칙으로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
비교 규정(規正): 바로잡아서 고침.
- ② 구조(構造):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 이룬. 또는 그렇게 이루어진 얼개.
비교 구조(救助): 재난 따위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 ④ 현상(現狀): 나타나 보이는 현재의 상태.
비교 현상(懸賞): 무엇을 모집하거나 구하거나 사람을 찾는 일 따위에 현금이나 물품 따위를 내걸. 또는 그 현금이나 물품.

92

②

해설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함’은 ‘干涉(간섭)’으로 적어야 한다. 간여할 ‘干(간)’에 미칠 ‘涉(섭)’로 구성되어 있다.

93

③

【해설】

- 累卵之勢(누란지세): 층층이 쌓아 놓은 알의 형세라는 뜻으로, 몹시 위태로운 형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口蜜腹劍(구밀복검): 입에는 끈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을 이르는 말.
- 鯨戰鰐死(경전하사):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뜻으로, 강한 자끼리 서로 싸우는 통에 아무 상관도 없는 약한 자가 해를 입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南柯一夢(남가일몽): 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영화를 이르는 말. 중국 당나라의 순우분(淳于夢)이 술에 취하여 학나무의 남쪽으로 뻗은 가지 밑에서 잠이 들었는데 괴안국(槐安國)의 부마가 되어 남가군(南柯郡)을 다스리며 20년 동안 영화를 누리는 꿈을 꾸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94

②

【오답록】

- ① 이 무기는 射程 거리가 너무 짧다. 신무기 개발과 補給이 時急하다.
 ③ 조선시대 의식주에 관한 資料가 필요하면 민속학 事典에 있는 정보를 수집해라. 그리고 고적을 踏查해라.
 ④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는 遺憾의 뜻을 표했다. 이는 한국인의 소행으로 斷定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95

①

【해설】

- 訂正(정정): 글자나 글 따위의 잘못을 고쳐서 바로잡음.
【오답록】
- ② (불교) 팔정도의 하나. 번뇌로 인한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안정하는 일.
- ③ 직접 군역(軍役)에 나가는 사람.
- ④ 바르고 가지런함.

96

②

【해설】 고민(苦悶)

- 【오답록】**
- ① 신문고(申聞鼓)
 - ③ 고발(告發)
 - ④ 숙고(熟考)

97

④

【해설】 ‘녀년 길’은 학문에 뜻을 세우고 행했던 길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행하다’의 뜻을 지닌 ‘行(행)’이 적절하다.

98

②

【해설】 麥秀之嘆(맥수지탄):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 기자(箕子)가 은(殷)나라가 망한 뒤에도 보리만은 잘 자라는 것을 보고 한탄하였다는데서 유래한다.

- 【오답록】**
- ① 溫故知新(온고지신):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앓.
 - ③ 識字憂患(식자우환): 학식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근심을 사게 됨. “人生識字憂患始 姓名粗記可以休-소식”
 - ④ 左顧右盼(좌고우면): 이쪽 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앞뒤를 채고 망설임을 이르는 말.

99

①

【해설】

- 搖之不動(요지부동): 흔들어도 끔찍하지 아니함. ‘꿋꿋한’,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으로 순화.
- 間於齊楚(간어제초): 악자가 강자들 틈에 끼어서 괴로움을 겪음을 이르는 말. 중국의 주나라 말연 등나라가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끼어서 괴로움을 겪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 蓋世之才(개세지재): 세상을 뒤덮을 만큼 뛰어난 재주. 또는 그 재주를 가진 사람.

100

④

해설 「古人(고인)」은 인연이 있는 사람 즉 '오래 사귄 벗(친한 벗)'으로 풀이해야 한다.

미소록

春去花猶在
봄이 가도 꽃은 남아있고
天晴谷自陰
날이 개었으나 골짜기엔 그늘이 져 있네
杜鵑啼白晝
대낮에 두견새가 울으니
始覺上居深
비로소 깨달았네 나 사는 곳 깊은 줄을

渭城朝雨浥輕塵
위성의 아침 비 먼지를 가벼이 적시어
客舍青青柳色新
객사의 푸른 버들 그 빛 더욱 새로워라.
勸君更盡一杯酒
그대에게 한 잔 술을 다시 권하나니,
西出陽關無故人
서쪽 양관으로 나가면 친한 벗이 없기 때문이라.

101

①

해설 問征夫以前路(문정부이전로): 나그네(征夫: 나그네)에게 앞으로 가야 할 길 얼마인지 묻나니. 평서문

오답록

- ② 子將安之(자장안지): 당신은 장차 어디로 가시렵니까? 의문문
- ③ 誰能與我同(수능여아동): 그 누가 능히 나와 같은 것인가? 의문문
- ④ 究爲好學(숙위호학): 누가 배우기를 좋아하는가? 의문문

102

③

해설 중용의 문구인데, 기본부터 착실히 하라는 말이다. 시작과 기본의 중요함을 말한 ③이 적절하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다: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

오답록

- ① 누구한테나 겸손한 태도로 공대를 하면 남에게 봉변하지 않는다는 말. ↳ 준대하고 뺨 맞지 않는다.
- ② 일이 없을 때에는 분향을 계올리하다가 출지에 급한 일을 당하면 어쩔 줄 몰라 부처 다리를 안다는 뜻으로, 평소에 부지런히 하여 급한 일을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말라는 말.
- ④ 앞에도 높은 산이고 뒤에도 높은 산이라는 뜻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난처한 지경에 이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미소록

君子之道 践如行遠必自邇 践如登高必自卑
(군자지도 비여행원필자이 비여등고필자비)

“군자의 도는 비유컨대 먼 길을 감에 반드시 가까운 곳부터 힘과 같으며, 비유컨대 높은 곳을 오름에 반드시 낮은 곳부터 힘과 같으니라”

103

②

해설 아내와 밭 따위가 없어 도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먹고 살기 힘들면 바른 삶을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 無恒產無恒心(무항산무항심): 일정(一定)한 생업(生業)이나 재산(財產)이 없으면 올바른 마음가짐도 없어진다.

오답록

- ① 人不知而不愠(인부지이불온):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
- ③ 人無遠慮必有近憂(인무원려필유근우): 사람이 멀리까지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금방 근심이 생긴다.
- ④ 良藥苦於口而利於病(양약고어구이리어병):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병에는 이롭다.

104

④

해설 暫風沐雨(출풍목우): 머리털을 바람으로 빗질하고 몸은 빗물로 목욕한다는 뜻으로, 오랜 세월을 객지에서 빙랑하며 온갖 고생을 다 향을 이르는 말.

오답록

- ① 表裏不同(표리부동):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름.
- ② 命在頃刻(명재경각): 거의 죽게 되어 곧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른다.
- ③ 巧言令色(교언영색):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

105

③

해설 “만약 수차 만드는 법을 배워 우리 백성에게 가르쳐 준다면 농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를 참조하면 된다. 기구를 편리하게 쓰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하게 하여, 국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한다는 뜻의 ‘利用厚生(이용후생)’이 적절하다.

오답록

- ① 公理公論(공리공론): 실천이 따르지 아니하는, 헛된 이론이나 논의.
- ② 實事求是(實事求是): 사실에 토대를 두어 진리를 탐구하는 일. 공리 공론을 떠나서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객관적 학문 태도를 이룬 것으로, 중국 청나라 고증학의 학문 태도에서 볼 수 있다. 조선 시대 실학파의 학문에 큰 영향을 주었다.
- ④ 주권재민(主權在民):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

미소록

최부(崔溥)는 성종 1487년(성종 18) 제주3읍 추쇄경자관으로 부임하였다가 다음해 윤정월 초, 부친상을 당하여 급히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제주 앞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표류하게 되었다. 그와 그의 수하 43명이 탄 배가 표류하여 14일간의 천신만고 끝에 절강 연해에 표착하였다. 그 과정에서 두 차례나 해적을 만나 겨우 탈출하여 상륙하였으나 다시 왜구로 오인되어 갖은 고초를 겪은 뒤에 비로소 조선 관인의 대우를 받으며 호송을 받게 되었다. 임해 도저소에서 출발하여 영파·소홍을 지나 운하를 따라 항주·소주 등 번화한 강남지방을 지나고, 양주·산동·천진을 거쳐 북경에 도착하여 명(明) 효종(孝宗)을 일현하였으며, 북경에서 다시 요동반도를 거쳐 약 6개월 만에 압록강을 건넜다. 이전까지 조선인으로서 중국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던 강남지방(강소성·절강성)과 산동지방을 여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금남은 서울에 도착하자 성종의 명으로 청파역에 일주일간 머물면서 그 견문기를 일기체로 써서 바쳤다. 이 책이 『표해록』이다.

106

(3)

해설 騎虎之勢(기호지세):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오답록

- ①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오른다는 뜻으로, 일을 순서대로 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
- ② 뿔이 있는 짐승은 이가 없다는 뜻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재주나 복을 다 가질 수 없다는 말.
- ④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107

(4)

해설 後생可畏(後生可畏): 젊은 후학들을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으로, 후진들이 선배들보다 젊고 기력이 좋아, 학문을 닦음에 따라 큰 인물이 될 수 있으므로 가히 두렵다는 말.

오답록

- ① 구밀복검(口蜜腹劍): 입에는 꼴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을 이르는 말.
- ② 일패도지(一敗塗地): 싸움에 한 번 패하여 간과 뇌가 땅바닥에 으깨어진다는 뜻으로, 여지없이 패하여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를 이르는 말. 한 고조 유방의 말로서 <사기>의 <고조본기(高祖本紀)>에 나오는 말이다.
- ③ 수서양단(首鼠兩端): 구멍에서 머리를 내밀고 나갈까 말까 망설이는 쥐라는 뜻으로, 머뭇거리며 진퇴나 거취를 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르는 말.

108

(4)

해설 고전 소설의 전형적인 주제인 '권선징악(勸善懲惡)'이 나타난 작품이다. '모든 일이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간다.'인 '사필귀정(事必歸正)'이 적절하다.

오답록

- ① 아첨하는 말과 알郎거리는 태도.
- ②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 ③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109

(4)

해설 得隴望蜀(득룡망속): 농(隴)을 얻고서 촉(蜀)까지 취하고자 한다는 뜻으로, 만족할 줄을 모르고 계속 욕심을 부리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후한(後漢)의 광무제가 농(隴) 지방을 평정한 후에 다시 촉(蜀) 지방까지 원하였다는데에서 유래한다.

110

(2)

해설 부화노동(附和雷同): 충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오답록

- ①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
- ③ 입에는 꼴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을 이르는 말.
- ④ 웃는 마음속에 칼이 있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웃고 있으나 마음속에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음을 이르는 말. 능소리장도·소중유검·소중유도.

05

2015년 기출문제

111

(1)

해설

- 失笑(실소): 어처구니가 없어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턱 터져 나옴. 또는 그 웃음.
- 笑殺(소살): 웃어넘기고 문제 삼지 아니함. 큰 소리로 비웃음.
- ② 諾諛(눌변): 더듬거리는 서툰 말씀씨.
- 能諛(능변): 말을 능숙하게 질함. 또는 그 말.
- ③ 稀薄(희박): 어떤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성이 적음.
- 濃厚(농후): 어떤 경향이나 기색 따위가 뚜렷함.
- ④ 困難(곤란): 사정이 몹시 딱하고 어려움. 또는 그런 일.
- 順坦(순탄): 삶 따위가 아무 털 없이 순조로움.

112

(3)

해설 '남의 권리나 인격을 짓밟음'을 뜻하는 유린은 '蹂躪/蹂躪'으로 적을 수 있다.

- ① 행동하는 양상.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行態(행태)'가 적절하다.
- ② 물리쳐서 아주 없애 버린다는 '退治(퇴치)'가 적절하다.
- ④ 국가의 통치 형태인 '政體(정체)'가 적절하다.

113

(3)

해설 부토(抔土): 한 숨의 흙.

오답록

- ① 난마(亂麻): 어지럽게 엉친 삼실의 가닥이라는 뜻으로, 갈피를 잡기 어렵게 뒤얽힌 일이나 세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등재(登梓): 일정한 사항을 장부나 대장에 올림. '기록하여 올림'으로
순화.
 ④ 강구(講究): 좋은 대책과 방법을 궁리하여 찾아내거나 좋은 대책을
세움

114

③

해설 궁터를 의미하는 궁지는 '宮趾'로 적어야 한다.

115

①

해설 '어떤 것을 아주 잃거나 사라지게 하다.'의 한자는 '상실(喪失)'로 적는다.

오답록

- ② 성장(成長):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
 ③ 이상(異常):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지식과는 달리 별나거나 색다르다.
 ④ 해동(解凍): 얼었던 것이 녹아서 풀림. 또는 그렇게 하게 함.

116

③

해설 '주로 예술 작품을 이해하여 즐기고 평가함'을 뜻하는 한자는 '鑑賞(감상)'이다. '感想(감상)'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을 뜻한다.

117

③

해설

- 代錢(대전): 물건 대신 주는 돈(눌부가 제사상에 음식은 올리지 않고 돈을 올렸다.)
- 撒床(찰상): 음식상이나 제사상을 치움
- 用處(용처): 돈이나 물품 등의 쓸 곳
- 各散(각산): 각각(各各) 흩어짐

118

①

해설 말로 통하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말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된다. '道聽塗說(도청도설)'은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다는 뜻으로, 길거리에 퍼져 돌아다니는 뜬소문을 이르는 말이다.

오답록

- ② 말없이 마음과 마음으로 뜻을 전함.
 ③ 말로 통하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
 ④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119

①

해설 捺印(날인), 植楮(질곡)

EBS 공무원
국어
기출문제집

초판 인쇄 2019년 11월 7일
초판 발행 2019년 11월 13일

편저 세종이도 국어 연구소
발행인 김우식

발행처 (주)스마트러닝 코리아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4, 연산 MS빌딩 2층(도곡동)
등록 2011년 2월 15일, 제2016-000090호
전화 02)572-0818
팩스 02)2671-0819

홈페이지 www.slkedu.com
e-mail help@slkedu.com

정가 12,000원

ISBN 979-11-89458-17-1(13710)

저자와의 협의하에 인지를 생략합니다.

본서의 무단 인용 · 전재 ·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에 실려 있는 내용은 모두 저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자의 서면 허락 없이 이 책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인용 · 전재 · 복제하면 저작권 침해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저자와의 협의하에 인지를 생략합니다.

